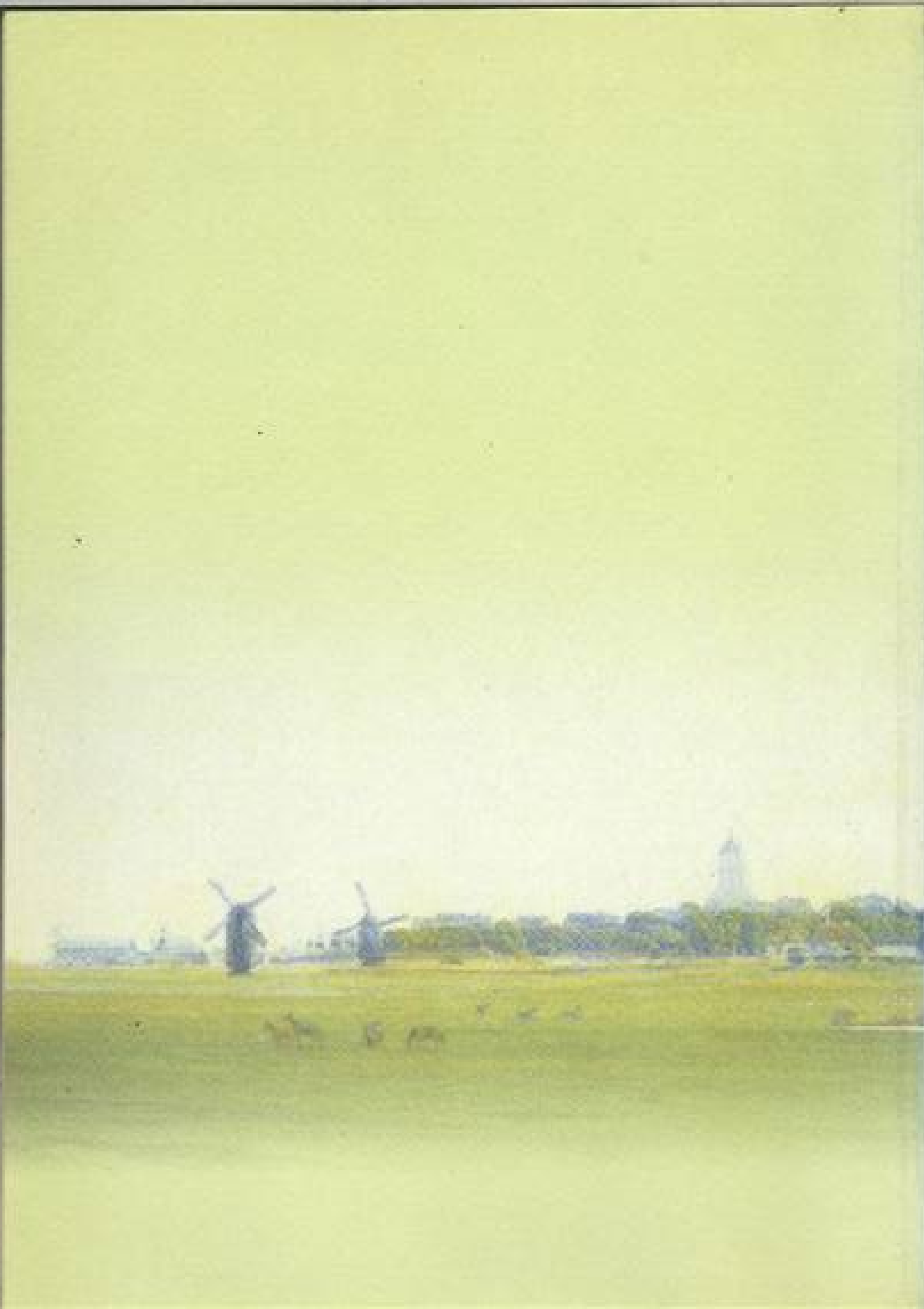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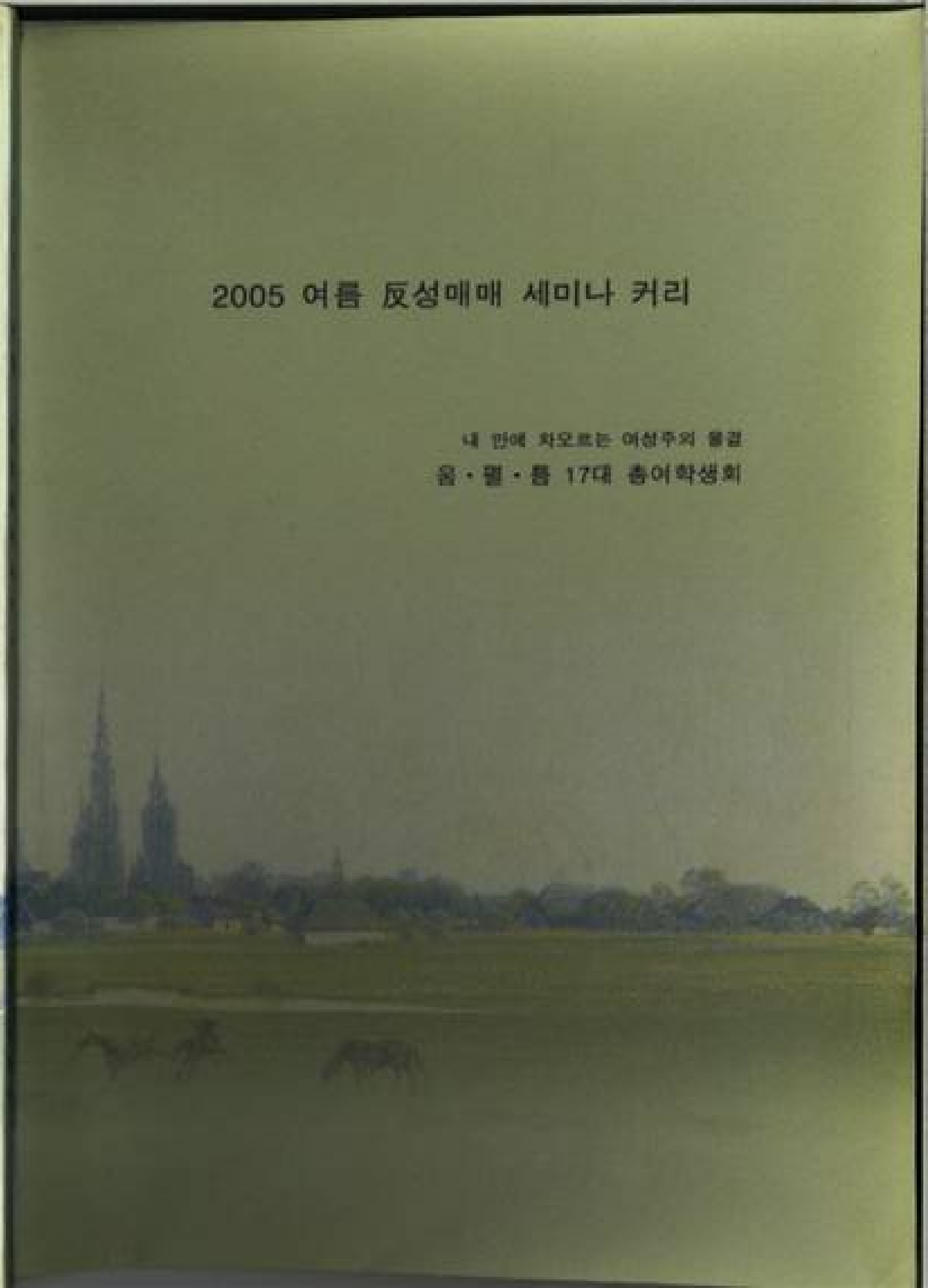




2005 여름 反성매매 세미나 커리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열광
몸·말·몸 17대 총학생회



2005 여름 反성매매 세미나 커리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음·필·툼 17대 총여학생회

2005 여름 성매매 세미나

8/25, 1/25
1/11 ~ 2/25
1/25 ~ 2/25

-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 원미혜
- 성매매에 대해 말할 자격 / 최이희 (연나네)
- 전국 성매매피해 여성의 실태 및 대안연구 / 김현선

- 성수알리티의 매춘화 2장 성적권리
- 성수알리티의 매춘화 4장 성적 산업화

- 동행숙와 엑스 1,2장
- 한국여성인권운동사 5장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 장희진

- 성매매 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 유혹업소 경험을 중심으로 / 이희희

- 용감한 여성들, 독대를 타고 달리는
 - 길로 혹은 성노동자의 인권론 (엄상미)
 - 어떤 역사 : 성매매 지역 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화 (엄상미)

- 용감한 여성들, 팔도워크하다
 - 상상에서의 성매매 : 페스의 글
 - 내 말을 위한 선택 : 로다의 글

- 광고자료
 - 한국여성인권운동사 4장 매춘여성운동사 / 민경자

- 커리큘럼 外 첨부자료
 - 성매매 특별법 관련 기사/칼럼 모음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1. 무엇이 문제인가

성매매는 새로운 이슈도 새삼스런 역사도 아니다. 없는 듯이 존재하다가 한 번에 선정적으로 까발려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고 전부하리 만큼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존재를 지라는 사람들은 말한다. "매춘(賣春)은 남성의 충동적인 성욕 때문에 존재하는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데 이제 와서 어쩌겠나"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 번쯤 '왜 그토록 성적 능력이 탁월한 남성들이 매춘부라는 직업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반문도 해 볼 만하다. 왜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여성이었으며 왜 그러한 성적 행위가 필요한가들.

사실 다른 성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고정 불변한 특성을 갖거나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¹⁾ 그 자체로 여성 억압적

1) 예를 들어 뉴기니의 한 부족(Banua)은 아이가 잘 자라려면 일러의 것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 아이에게 성관 남일대부는 친척의 성기를 빌려줘야(Banua)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다. 우리 사회의 관행에서 볼 때 이 관습은 근친 상간, 어린이학의 성관계,

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매매는 고대 바빌론의 성스러운 세식도 아니며, 매춘부들은 중세 프랑스에서처럼 아내로 선포되는 존재도 아니다. 지금 '성매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단상들을 생각해 보자. 정육점 같은 시멘트 등이 커진 사탕가뭇 아니라 이빨소리, 목욕탕, 술집, 산, 고속도로 등 남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 그 화려한 무명을 열면 기지근 굴욕이다 방치된 혼혈 아이들, 제3세계에서 온 여성들, 빚과 착취의 늪, 인신 매매와 학대, 폭력과 살인, 희생을 위해 매매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 가는 여성들이 쏟아진다.

성의 거래를 위해 다양한 만남을 주선하는 상품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욕은 한계점을 잃은 듯 새로운 자극과 배스의 방식을 발기시키는 성산업의 매커니즘 속에서 고무되고 있다. 다방에서도, 전화방에서도, 매대에서도 성을 키워 판다. 한층 더 열악한 국가의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해 바다 건너 더 나은 국가로 거래된다. 이제 성매매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나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의 문제를 떠나 거대한 성산업의 매커니즘 속에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양상의 성매매 현상을 접하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왜 성매매를 문제시해야 하는가? 성매매의 무엇이 여성에게 해로운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 그것은 성매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대안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양하게 얽힌 성매매 현상의 실태를 풀고 새로운 역사를 써는 데 '관점'의 정립이야말로 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동상에 종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섹스'가 아닌 '마이 거르기'의 명주에 속해 있는 자면스라는 행동이다. 이렇듯 한 문화에서 섹스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다른 문화에선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적 관습에 도덕적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trauss, 1998, 200-224쪽). 성매매 역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수없이 변화되어 왔고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성매매의 문제를 논할 때 성이 놓인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배제하고 성적 '욕구'만의 문제로 단순화하거나 고정된 도덕적 틀로 평가하는 관점들은 자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앞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성매매가 '왜 여성에게 억압적인가'라는 질문을 여성 내부의 문제로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성매매를 문제로 다루어 온 연구들이나 사회적 시각은 매춘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출된 전통적인 틀을 들은 때 여성들이 다른 직업이 아닌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빈약한 성과학자나 범죄심리학자는 그 답을 매춘부들의 병리학적 요소나 일탈적 속성에서 찾았으며,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경제적·문화적 원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매춘 여성의 경제적·심리적 현실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지라도 성매매의 전체 구조를 알기에는 '매춘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조각 그림에 불과하며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성매매야말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존속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2. 성매매에 대한 기본 관점 갖기

1) 용어 읽기: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규정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일반적으로 오입(誘入), 윤락(倫落), 매춘(賣春), 매음(賣淫), 매매춘(賣買春), 매매음(賣買淫)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성매매 문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용어 사용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²⁾ 따라서 우리가 기존

2) 예를 들어, 역사적인 한 사건이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는가는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 폭동, 광주 사태 등으로 불렸던 시대에 그 차이에 대

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게 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천력을 갖게 된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파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 행위자가 아닌 그저 '성매매'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파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깨아 볼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슈레이터(L. Schreyer, 1989, 349쪽)는 성매매를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성매매 문제의 근원을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나 매춘 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성매매

한 개념이 작업이 중요했고 명칭을 규정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표로 나타났듯이, '성매매'의 용어 또한 현재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가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매춘(賣買春)'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때 성이 매매되는 현상에 굳이 '춘(春)'이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춘'자는 춘화(春畵), 피춘(歸春) 등 일반적으로 성을 가리킬 때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문제는 그것이 일본어 한자어라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성을 고정 불변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왜 성을 볼 때 비유하게 되었을까? 춘경(春情), 즉 성욕이란 봄에 새 생명이 돋아나듯 자극적 순환적이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성욕을 필연적인 것, 고정된 것으로 포장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새 생명의 자을 띄우는 봄에 빗대어 '춘(春)'으로 표기하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치적 의미에 덧붙여 성이 '매매'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범문화적이고 초역사적인 내용을 갖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될 수 있는 산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특수한 맥락은 성이 상업화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생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여전히 행위자 중심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언어 습관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의미보다는 성을 파는 의미, 즉 매춘(賣春)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들 매매, 인신 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이다. 만약 우리가 '성매매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떠올릴지 생각해 보라. 여기에는 성을 파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생산업 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하고 싶다.³⁾ 앞서 지적한 것처럼 특정한 용어의 사용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 자체로 기존의 인식을 깨는 하나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2) 성매매에 대한 환상 짓기

가.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가 없어진다면 남성들의 성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성매매는 남성들의 발기된 성욕을 해소하는 장(場)이고 여성의 순결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는 성적 행동의 한 측면으로만 파악되고, 남성의 성충동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환상의 문제는 성매매를 단지 생물학적인 결정 요인만으로 설명하고 성매매의 경제적·경제적 토대를 무시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의 다른 사악한 욕구들(예를 들어 살인, 지레, 폭력의 욕구 등)을 욕구 자체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성매매에 대한 욕구 역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남성의 성적 공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의 사회적 기능만을 강조하여 그 역기능을 간과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남성의 성욕을 식욕과 마찬가지로 욕구의 필연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

3)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성매매 행위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의미로 '매춘 여성, 매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앞서 열거한 정치적 의미를 따화시키지 않고, '성매매 행위자'의 의미는 너무 포괄적이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란 말을 사용하려면 의미는 잘 전달되나 어색적이고 너무 길어 지칭어로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용어가 모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모순적이기는 해도 매춘 여성 또는 매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매춘 여성에 대치되는 말로 성을 파는 '매춘 남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성 손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매매 공간에서 손님과 종사자 간의 권력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아무튼 이러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대안적인 용어를 함께 고민해 보자.

에 대해 페이트만(C. Pezman, 1988, 1997-1999)은 음식에 대한 인간의 필요는 섹스의 필요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인간은 손이라는 수단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관계를 가질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즉 성욕의 충족은 문화적 습관에 따른 것이고,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으로 성욕을 분출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을 실행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성매매가 성욕의 병폐를 예방한다"는 누구나 믿고 있는 이 선념에 대한 근거는 어느 곳에서도 밝혀진 적이 없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와 성매매를 엄격히 처벌하는 국가 사이의 성욕력 발생 비율은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이러한 통념의 논리에 따르면, 성매매를 억제하는 국가의 성욕력 비율은 성매매가 적은 국가에 비해 당연히 낮게 나타나야 할 테니 말이다. 그러나 결론은 그 반대이다. 법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와 성매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국가 중 성매매가 거의 없는 국가에서 성욕력 비율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결국 성매매가 성욕력을 예방한다거나 여성을 보호한다고 믿는 것은 성매매와 성욕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모른 채 갖게 되는 환상일 뿐이다. 이러한 환상은 단순한 환상의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위험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성욕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화된 여성의 몸과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성매매의 경험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하는 성욕력의 경험과 일치한다. 이는 성욕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S. Wyner, 1992, 269쪽). 남성에게 "보르노는 이혼이고 강간은 실전"(안드레아 드리킨, 1989)이라면, 성매매는 돈을 주고 행하는 '연습 게임'이 되는 셈이다.

나. 성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국과 기성 관광, 태국의 태춘 관광, 어린이 매매 등 많은 개발 도상 국가들은 경제적 부를 위해 성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동남 아시아를 비롯하여 성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 개발 국가의 경우, 그 사회가 처하는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태국의 경우 섹스 관광으로 국내 성산업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남성들은 여자로 사창가를 찾는 문화가 만연되었다. 또한 국내 성산업의 발전은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등 외국으로부터 여성의 유입을 증가시켰다.

특히 에이즈는 전 세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성산업 중심의 관광 산업 발전으로 사창가를 아니라 일반인을 사이에 어디에서나 에이즈가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으로 아무 학교 학생에게나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나고 물으면 거의 모든 학생이 '있다'고 대답할 정도이다. 태국은 성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2000년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 성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죽음과 관계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성산업, 성매매의 발전은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은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서비스 직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학력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동력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인력 수준이 불균형한 현실을 드러낸다. 특히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연령층이 20대 또는 10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여성들은 기술이나 다른 업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성산업 또는 비슷한 업종에 머무르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성매매가 학력 산업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산업 종사자들은 학력 산업을 통해 알코올, 마약, 약물, 노름 따위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가 된다. 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치료하고 재교육하기 위한 사회 비용 또한 엄청나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사회적으로 폐기 처분된 폐인이거나 병자로 남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막대한 국가 인력의 손실을 의미한다.

성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여성 노동력의 유출, 인력 수준의 불균형, 재사회화 비용, 성병 및 에이즈, 가치관의 혼돈 등—을 사회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성산업으로 얻는 눈에 보이는 이익은 아무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산업의 발전은 경제 발전에서 '밀려진 폭'의 역할을 한다.

최근 성산업이 사회적으로 야기하는 문제들과 심각성이 제기되자 각국에서는 '성산업 없이도 관광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활발히 나오고 있다.

다. 태춘 여성들은 일탈적 범죄자?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

성매매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성매매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하며 고개를 돌려 버린다. 도대체 왜 성매매에서 야기되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 사창가의 문제가 역할을 하던 한 경찰관은 이런 말도 한다. "스스로 자기를 상품화해 가지고…… 어느 문호에서 말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은 스스로 파괴되길 원한다. 그런 말을 내가 언제 읽은 적이 있어오 그런 사람의 경우엔 그런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³⁾

3) 한편, 사람들은 성매매를 매질 없이 육체적으로만 만족하는 섹스, 보리섹스(Bore sex)의 하나로 취급하려고 한다. 보리섹스는 상호간의 육체적 쾌락을 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물질적인 금전 관계를 매개로 상대를 성적으로 지배/피지배하는 구조를 갖는 일방적인 관계에 있다. 그것은 남성의 만족을 위해 여성의 몸이 일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태춘부의 쾌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매매와 보리섹스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3) 사채 개인문(한어판, 1997, 36-37쪽). 서울 3대 지역의 사창가 주변에 있는 폭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중반 경찰의 말이다. 그는 보리섹의 사창가가 얼마나 한국의 관광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홍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특히 일본인에게 관광 홍보가 많은 것

이러한 논리를 따르자면 태춘 여성들은 스스로 파괴되길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 파괴를 경험하면서 쾌락을 얻는 존재가 되고 만다.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므로 태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착취는 또한 그 자체로 선택되어 버린 것이 된다. 스스로 파괴되길 원하는 사람은 인격도 최소한의 시민권도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태춘 여성은 강도나 강간을 당하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을 때도 "한 번 당하나 여러 번 당하나 마찬가지일 텐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신고하러 하느냐"고 경찰로부터 모욕을 받는다.⁴⁾

태춘 여성에게도 인권이란 것이 있는가? 태춘 여성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성매매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태춘 여성들에게로 돌리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성매매가 존재하는 이유도, 태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착취 등의 인권 문제도, 모두 다 태춘 여성의 피착취된 취미로 인해 '선택'된 것이라는 논리다. 성매매에서 여성의 자발성 논의가 추상적이며 극단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실제 태춘 여성의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선택을 구성하는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춘 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질문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비생산적인 물음이 아니라, '여성들은 다양한 대안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태춘 여성은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태춘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만이 사회적 착취의 문제를 특정된 개인의 일탈적 문제로 치부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조건과 사회 조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의 점점을 만들어 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한데,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른이 아닌 여성의 실제, 성매매

를 재탐색하고 재발견

4) 사채 개인문(한어판, 1997, 36쪽).

의 실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매춘부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매매는 성차별에 따른 사회 진출의 제한이나 그로 인한 가난의 문제에 원인이 있다. 특히 가난은 여성들을 유입하는 깊은 늪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성매매에는 팔릴 수 있는 여성의 몸이 있다는 사실과 성매매에 따른 부(富)의 불균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가 축적되면 성산업이 팽창하고 성매매가 증가한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직업보다 수입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유입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불황일 때 매춘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 사회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경제적 호황을 누릴 때 성산업이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경제가 위축되고 IMF 위기가 닥쳤을 때도 여성들의 성산업 유입이 늘어났다. 여성들은 일차적인 감면 대상이 되어 노동 시장에서 퇴장당했다. 신문에는 '경제형 매춘'의 증가에 대한 보도가 많이 실렸었다. 전국 사창가의 보건 관리자를 맡고 있는 한 관리자는 "현재 사창가는 상을 사는 사람보다 팔리는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경제 위기의 실태를 설명했다. 전경중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어떻게 경제가 호황일 때 온갖 종류의 성산업과 성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시 성산업으로의 여성 유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경제적 혜택의 첫 번째 대상이 남성이며, 피해의 우선 순위는 언제나 여성에게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국가의 부와 여성의 부가 갖는 상관성은 남성보다 낮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난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의 경제적 부의 정도와 성매매 발생의 상관성이 적다는 것은 경제 논리만으로는 성매매 문제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살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도 '노동'일 뿐만 아니라 어엿한 '직업'이라고 말한다. 생산 중심의 '노동' 개념에서 벗어나 보면 성매매는 여성의 다른 노동과 변별성을 갖기보다는 더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성매매가 추상적 개념 차원에서 노동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전에,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어떤 노동인가. 우리는 그러한 노동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개념에는 사회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윤리', '직업'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도 사기 등을 사회적인 노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목적인으로 어떠한 행위를 노동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예 노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것처럼 매춘 여성의 성노동은 흔히 '노예 노동', '일급 노예'에 비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가 어떻게 노예 노동과 비슷한지를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살펴보자.

1) 몸매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남성 손님과 매춘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매매는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목적이 어떻게 성매매 공간에서 매춘 여성을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하는가를 보도록 하자.

먼저 성매매는 최대 지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 여성은 자신에게 최대를 지불하는 남성 손님과 권력 관계에 놓이게 된다. 남성 손님은 여성의 선택에서부터 제위, 콘돐 사용 여부 등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매춘 여성은 성행위의 조건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매

많은 매춘 여성이 개인적으로는 가정 폭력, 가난, 강간 등으로 돌아갈 가족이 없거나 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낙인이나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유입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논리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매춘 여성은 대안이 있다면 성매매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은 자유롭게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성매매의 구조이다.

대부분의 매춘 여성들은 기동 서방, 모주, 알선자들에 의해 사회적 관계나 몇, 목적으로 얽매어 있는데 특히 모주에 의해 통제되어 오랜 시간 성적으로 이용되는 매춘 여성은 자포자기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여성이 매춘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는 폭력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성산업의 구조 속에서 빠져 나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사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가 아닌가의 논쟁은 성매매 자체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노예 노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노예가 스스로 노예 되기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예제는 엄연히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위반이다. 특히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노예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억압적 이해충돌기를 내면화했을 경우가 많은데, 행위자의 자발성으로 노예 제도가 옹호될 수 없듯이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성매매가 옹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 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일'이라고 여기는지 간에,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법학과 성매매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춘 여성은 콘돐 사용을 거부하는 손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임으로써 성병이나 에이즈 등 각종 성질환에 무력하게 노출되고 있다. 매춘 여성이 콘돐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남성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경우 화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콘돐 기피로 인해 매춘 여성 가운데 14%만 콘돐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1993, 34쪽). 그러나 남성 손님이 성매매에서 콘돐을 얼마나 기피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내버려두고라도 콘돐 사용 여부를 전적으로 남성 손님이 결정하고 매춘 여성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매춘 여성이 단순히 제한된 '성기'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매에 대한 보호권을 전적으로 남성에게 위임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콘돐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남성 손님은 최대 지분을 빌미로 굴욕적인 성제위나 폭력 따위를 매춘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주나 모주가 매춘 여성의 최대를 직접 분배하는 경우 업소에 들어온 손님에게 최대를 못 받을 때는 매춘 여성 자신이 모주나 업주에게 분배대에 해당하는 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를 받기 위해 손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흔히 매춘 여성에게 '매춘(賣娼)'은 단지 신체적 일부인 성기를 손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성매매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노동'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매춘 여성이 자신과 상을 파는 것을 분리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자아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들은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을 ' 손님'으로, 성행위를 돈을 받는 '일'로 취급하려 하고, 손님과의 관계에서 제한과 금기(예를 들어 키스 거부, 굴욕적인 제위 거부 등)를 만든다. 그러나 성행위를 경제 행위로 취급하려는 매춘 여성은 최대를 받지 못한 '강간' 때문에 이러한 금기를 자립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들이 '일'로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한·금기의 장치가 파괴된다는 것은 육체에 대한 손상, 즉 자아에 대한 훼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매춘 여성 스스로 만드는 이러한 제한이나 금기는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 성매매 공간에서 쉽게 무너지는데, 흔히 남성은 짧은 화대로 또는 위압적인 폭력으로 금기나 제한을 잘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춘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한 후에도 폭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는 신체에 대한 확대에 보상이 따르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성매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체적 손상조차 그것이 대가가 '지불된 것'이면 '성매매'의 성적 행위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신체에 대한 확대나 그 사용은 특별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성매매의 문제는 매월이나 신체의 일부를 매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임의로 일정 기간 사용(복합을 하거나 사용자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등)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도 '자아'와 '신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케페스(Dr. Kepes)는 신체가 인간 권리의 기본 모태이고 이는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는데, 신체에 자행되는 폭력은 자아를 뺀 인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⁷⁾ 성매매 행위는 매춘 여성이 자신을 신체로부터 분리시키고 단편화된 신체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남성 손님에게 위임하는 행위로서 인간의 기본권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에서 남성이 여성의 몸을 임의대로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강간의 특성과 같은 것인데, 매춘 여성에게 강간이나 폭력은 '화대 지불'의 유무에서 차이가 날 뿐 성매매 행위

7) Suzanne Kepes(1999, "The Repercussions of the Condition of Prostitutes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stitution*, Ed. Barry, 1999, 27쪽 제언함.

의 연속선상에 있다.

매춘 여성들은 성폭력을 강제적인 성행위 후 '돈을 못 받는 경우'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매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한 가지 예인데, 성매매와 강간은 '행동'이 아닌 '화대 지불'의 유무로 구별될 뿐, 남성이 사는 성은 비인간화된 육체인 여성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강간의 성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⁸⁾

한편 성매매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용될 수 있는 신체의 부분이 '성기'라는 점에서 훨씬 복잡한 양상을 갖는다. 만약 성매매가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매춘 여성 개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현재와 같은 무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성기 침투를 비롯한 성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이 놓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이 필요로 하는 성행위는 생물학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한 '성기 침투'에 있지 않고 여성의 '성적 서비스'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매춘 여성의 연령과 수입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데,⁹⁾ 성매매가 단순히 성기 사용만이 요구되는 행위라면 매춘 여성의 나이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성산업에서 일주나 남성 손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여성의 '몸'이고 이를 사용하는 성적 서비스이다. 그렇다면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통해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때 가학적 심리를 포함하게 되는지를 살펴

8) '화대 지불'이 매매춘과 강간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매춘 여성의 구술사를 보면 이들은 강간을 먼저 "손님이 성행위 후에 화대 지불을 거부하거나 돈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Barry, 1999, 36-38쪽).

9)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춘 여성이 얻어들이는 수입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성매매 산업에 오래 있을수록 한층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호, 1999, 14쪽). 매춘 여성의 수입은 성매매의 유형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매매춘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남성의 성적 서비스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대가 넘으면 흔히 '화대'라고 불리면서 상용 가격이 극도로 떨어지는 것이다.

보지.

매춘 여성의 몸은 성적 대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놀이의 대상이나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모든 가학적 행위는 '화대 지불'로 무마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술자리를 중시하는 직업 문화, 군대 문화가 일반화된 남성 문화로 자리잡혀 있는데 여기서 성매매는 남성이 남성성을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장이기 때문에, 성매매는 단순히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성고'가 아니라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매춘 여성은 남성의 욕망과 친목을 돈주기 위한 오락물로 전락하고 남성은 자신의 권력(위압, 돈 등)을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지배를 즐긴다.

남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열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성이며 여성의 몸, 몸짓이다. 따라서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이 매춘 여성에게 요구하는 비합리적 행위들은 제도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매매는 이러한 남성의 가학적 심리가 내재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고 매춘 여성은 화대 지불을 대가로 자아를 자신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의 몸에 대한 사용·통제권을 일정 시간 남성 손님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성에 대한 지배와 여성 미화에 있는 한, 매춘 여성에게 요구되거나 가해지는 남성 손님의 폭력은 소멸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화대를 지불하는 권력 관계에서 매춘 여성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2) 익명적 성 :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남성들이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욕구에는 '비밀 보장'과 '새로운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전제되어 있다. 익명적 성을 원하는 남성의 욕구와 전제는 남성들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성매매의

성격과 매춘 여성의 삶의 유형을 구성한다. 남성이 돈을 지불하고 성을 시는 이유는 익명의 상태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바로 그 익명성 때문에 성매매는 음성적 상태로 은둔·유지된다. 따라서 성매매가 법적으로 양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자체의 음성적 성격으로 인해 법적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남성의 새로운 여성에 대한 욕구는 구미력을 자극하는 원동력인데, 이러한 현상은 매춘 여성의 갖은 이동을 유발한다. 특히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한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동업소의 경우 업주는 남성의 익명성과 새로움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끊임없이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매춘 여성은 현재 일차적으로 그들이 유지해 왔던 사회적 관계나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주변화된다. 이러한 분리는 성매매의 익명성과 매춘 여성의 갖은 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산업의 업주가 남성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익명의 공간에서 남성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그 안에 있는 여성은 모든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된다. 또한 성매매의 경험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게 한다.

그들이 유지해 온 정체성에서의 분리는 성매매 세계의 생존 전략이 되기도 하는데, 매춘 여성 개인도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낙인을 인식하고 자신이 익명으로 성산업의 공간에 존재하기를 원한다. 매춘 여성은 성매매를 하는 동안에는 거주지나 업소 등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흔히 의료 보험이나 자신의 신분증이 드러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기피하고, 익명의 공간인 성매매의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한다.

그들은 업주나 성업자들이 만들어 주는 가짜 신분증이나 보건증을 사용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요구에 따라 욕망을 즐기는 존재로 가면을 쓰면서 자신을 성의 상품화와 분리시킨다. 이러한 분리의 과정으로 인해

성매매 공간에는 성적 대상으로서 가장된 여성의 경제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특히 여성이 가족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조건은 익명적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산업의 착취자들에게 주요한 동기가 된다. 때론 여성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받는 부당한 억압이나 폭력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울타리 없는 가족 출신이거나, 폭력적인 환경 속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온 여성들이다.¹⁰⁾ 아버지나 남편의 폭력, 근원 공간, 성폭력의 경험 등 여성을 가정 밖으로 내모는 상황들은 여성이 성매매 공간을 익명적 '도피처'로 이용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때론 여성들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가족과 순결 상실은 여성이 생산업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¹¹⁾

한편 유입 이전의 경험들은 탈선자들과 쉽게 친밀감을 가지는 여력이 되고 때론 여성에 대한 통제, 착취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업주는 남성 손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때론 여성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들을 '고립화, 원자화' 하는 전략을 펴낸다. 사회적 관계나 친밀한 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때론 여성은 쉽게 폭력이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성매매의 익명적 특성 때문에 모든 사회적 관심의 열외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결국 성매매의 '익명적 공간' 으로서의 특징은 '존재하는'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여성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 고립시켜

10) 때론 여성 대부분이(90.8%) 가족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박은경, 1996, 41쪽), 이러한 경험은 생산업의 착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현장 활동가 '기'의 조사에 따르면 생산업에 유입되기 전에 강간을 경험한 때론 여성 가운데 90% 이상이 근원 공간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11) 한국고용개선현황의 조사에 따르면, 때론 여성이 가족 동거 중 29%가 돈을 벌기 위해 서었고, 남자 친구로부터 순결 상실이나 근원 공간 또는 강간이 24%에 이르렀으며, 가정 폭력은 20%로 나타났다(박은경, 1996, 40쪽). 이와 같이 가혹한 여성에 일관된 상황을 이용해 이들을 유혹하는 생산업의 광고 문구 가운데 하나인 '속의 세상'은 여전히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손님과 도주의 통제, 착취를 더욱 쉽게 하는 전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된 익명적 공간에서 '익명'으로 존재하는 때론 여성은 자신의 경제성을 잃게 되고 과거와 경제성으로부터 단절된 여성들은 시민권을 갖지 못한 무력한 존재가 되어 남성과 업주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3) 생산업의 착취사슬: 성매매와 생산업

현재 우리 사회의 성매매는 유동업소나 알선 업체 등의 생산업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때론 여성이 남성 손님과 일대일 의 관계로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론 여성은 포주집부터 통살 등, 나이프클럽 등의 유동업소, 남성 손님과 각 업소에 여성을 알선하는 작업 소개소나 보도 사무소 등에 고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업소에서 때론 여성이 생활하는 형태는 나이와 경력, 미모, 강제성 등에 따라 감금 형식에서, 숙식하는 여성, 출퇴근하는 여성,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하다. 여성이 이들 업소에서 인신 매매나 감금에 의해 강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통제와 착취는 극도로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때론 여성 개인에게 그 동기가 자발적이든, 강압에 의한 것이든, 생산업은 여성을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생산업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도록 그들의 삶을 묶어매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다.

형식적으로 볼 때 업주와 때론 여성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은 상당한 높은 금액을 상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고용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때론 여성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거나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때론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최대에 대한 직접적인 착취나 업소에서 부과하는 벌금,¹²⁾

12) 예를 들어 특정 다방의 경우, 여성과 다방 업주는 보통 한 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이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 등 비가시적인 착취 형식을 갖는다. 또한 업주와 탈선 업자가 때론 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를 훨씬 쉽게 하는 것은 빚과 그에 따르는 이자이다. 때론 여성들이 빚을 지는 첫번째 이유는 가족 등으로 인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고, 작은 어둠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포주나 업주 등이 어둠에게 쉽게 빚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론 여성들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커다란 구속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때론 여성은 탈매춘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을 빚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 빚이란 때론 여성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업주가 때론 여성을 효율적으로 묶어 놓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¹³⁾

(그 동안 돈 좀 모았어요?)

돈을 모아? 통통이 하나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다행이겠? 거긴 돈 못 모아. 모을 수가 없어.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빚을 지게 되거든. 집 나온 애들이 뭐가 있어. 빈 통통이지. 땅세, 가구, 옷..... 다 빚이지. 매달 이자 물어야지. 빚에 묶여 있어 완전히 매인 몸이니 주인이 매달 따라다니는 거지. 그러니 누가 주인한테 따져 따지긴,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¹⁴⁾

기간 동안 여성이 하루 평균할 경우 15-2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업주와 계약할 월급은 100만 원에서 140만 원이었던, 성실한 사람이라도 15시간(오전 8시부터 11시)의 노동을 30일 동안 지키는 힘들다. 물어 아르거나 미용료, 복복합을 가져 오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내려면 대가를 써야만 하고,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이 3-4일은 대가를 치르고 한다(박은경, 1997, 42쪽).

13) 한 현장 활동가(기)의 조사에 따르면, 때론 여성을 매개 입자 손 30대 중반의 여성 '다'에 따르면, 빚이 많은 여성은 다른 때론 여성과 서로 '반대 보살'을 해야 하는데, 반달 한 여성이 빚이 많아서 도망을 치게 되면 반대 보살을 한 여성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고도망칠다가 잡히면 업주는 작은 돈 비용으로 보통 하루당 10만 원 이상의 빚을 부과한다고 한다.

14)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남의 집에서 머무살이를 한다.

빚은 여성을 자발적으로 생산업 공간에 묶어 두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장치일 뿐 아니라, 감금이나 업주간의 인신 매매 같은 폭력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 소개업자의 말을 들어 보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 별명이 '빨간' 라는 아가씨였는데, 노름에 빠진 거야. 노름에 빠지니깐 피곤해서 다방에도 잘 못 나가고, 일을 못 나가니까 고스란히 빚이 되는 거지. 노름빚에, 다방 주인에게 빨간 돈 있지, 일 안 나가서 소개소에도 빚이 있지..... 해서 700만 원 정도 빚을 진 거야. 그런데 도망을 간 거야. 애들을 몰아서 찾게 했지. 한 달 만에 찾았어. 찾아 놓고 보니 안됐더라. 근데 어떡해? 빚이 있으니..... 할 수 없이 장원도 0.0에 갖다 주었지.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의 경우는 거의 감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곳은 아가씨들이 많이 탈리거든..... 그렇게 도망친 아이를 잡아 온 경우에는 소개업자가 화가 나서 화물어로 '너 한번 고생 좀 해라'고 비싸게 돈을 물어 넘기지.¹⁵⁾

빚 때문에 산간 벽지나 섬으로 매매된 여성의 경우 탈매춘은 거의 불가능한데, 팔려 온 가격이 빚이 되어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곳의 경찰과 지방 유지들이 결탁해 있어 탈출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신 매매나 빚에 의한 감금과 같은 생활은 때론 여성을 노예로 만드는 구조물이며 이러한 폭력은 생산업의 착취 구조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성매매 시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때론 여성은 더 많은 빚을

가 공간을 당한 뒤 가출하여 감금의 연서, 사정기, 유동 업소를 거치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사례 제언문(박은경, 1997, 44쪽).

15)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가정 폭력으로 고등학교 때 가출하여 경기도 지역의 유동 업소, 다섯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 이들 업소에서 여성을 알선해 주는 작업 소개소에서 일하고 있다. 사례 제언문(박은경, 1997, 43쪽).

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지만 그 자체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현재와 같이 열악한 매춘 여성의 지위는 지켜야 할 순결을 상실한 집단에게 떨어지는 단순한 낙인이 아니다. 그녀의 지위는 최대 자물로 남성의 욕구를 용인하고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가부장제의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다.

돈을 받기 위해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결국 남성에게 종속되며 성적 상품으로 대대지기 때문에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매춘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여성 비하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의 지위는 별개의 문제라 하여 놓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남성의 권력 관계 속에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매춘 여성의 열악한 지위는 여성이 공공의 성적 대상이 될 때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이며 매춘 여성에 대한 성희롱, 강간, 살인, 폭력, 인신 구속과 매매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는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남성들은 생물학적 본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몸을 사 왔다. 남성들은 결코 매춘부처럼 자신의 몸을 파는 형식으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몸을 파는 것, 그 행위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더욱 근본적인 '권력'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성매매가 남성 지배의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사회의 밑바닥을 확립한다는 것이다(인도리아 드워킨, 1992). 성매매를 통해 모든 여성들은 물건처럼 취급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은 그 뒤에 서 있다. 성매매는 남성이 지배적인 권력의 혈통을 이어 나가려는 수단이다. 이 사회에서 모든 남성들은 그 남성이 실제로 매춘을 하든 안 하든 '여성들이 매춘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이익을 본다.

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의 '질탈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여성을 주변화하는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집약하고 실행하는, 잘 조

직된 사회적 행위이다. 매춘 여성은 성매매를 통해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 어떠한 개인적 이유와 의도에서 성매매를 선택하든간에 성매매를 하는 것은 결국 지배적인 가부장적 논리에 편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여성을 위한 직업으로 성매매를 옹호하려는 논리는 남성에게 의해 강요되어 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다른 영역에서 생계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불과하다.

남성에게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은 '여성'의 주변화된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존재이다. 여성의 정체성을 '성매매된 육체'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권력은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시킨다. 이로써 여성을 사회적 권력과 역사로부터 내몰고 주변화함으로써 이를 모든 여성에게 보편화시킨다. 여성이 성적 존재로 규정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개별 존재가 아닌, 남성과는 구별된 단일한 열등자 집단으로서 '여성'이 된다. 여성이 남성의 성적 존재로 대상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여성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매매의 존재는 이러한 가부장적 신념을 확립하고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대한적 노물이 될 수 있거나 평등하게 재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5. 성매매에 대한 가치와 규범 만들기

범이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윤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범이란 경찰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간의 관계와 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세계관이다(Wassila Tamrak, 1993).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도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의미하고 지시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처벌주의(penalization),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국가가 이를 규제하는 규제주의(regulation), 인신 매매나 중간 착취 구조는 처벌하되 성

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는 폐지주의(abolition)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제 시대의 공창이 폐지되고 1961년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표면상 성매매에 대한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1962년 4월에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 매매에 따르는 법칙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공동 사회의 복지를 해를 끼치는 것으로 규정한 '인신 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관한 유선 합의'에 서명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90쪽).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래로 1989년 4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발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한 남자 손님 두 명이 경찰에 입건되었을 뿐이다(동아일보, 1989년 4월 26일자).

성매매를 범죄화한 후, 매춘 여성은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었고,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었다.¹⁰⁾ 특히 여성들은 선도 보호, 사회 복귀라는 명목 아래 10개월 이상 열악한 보호소로 강제 입소되었다.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을 '요보호자'라는 특수한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여 실제 취업의 가능성이 없는 기술 교육, 현장 가능한 수를 기간, 군대식 훈련과 강요된 예매 등의 열악한 환경과 구타와 기합, 독방 감금 등의 인신 침해를 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1993년 10월 원성들의 방화로 최장살에 감금되어 있던 원성 40명이 사망, 12명이 부상한 경기도 여자 기술 학원 방화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1962년 내무부, 보사부, 법무부 등은 합동으로 전국 104개소에 특정 지역(기저촌, 사창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¹¹⁾ 공중 보건이란 명목으로 강제 성병 검진을 시행했다. 지

금도 매춘 여성에게만 국한된 성병 검진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 검진에서 실패한 여성들은 무조건 감금되어 치료를 받지만 여성들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남성들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성(특히 미군의 경우)들에게는 매춘 여성이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다고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들 지역에서 여성의 존재는 남성에게 깨끗한 성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그야말로 '성적 대상'인 것이다.

많은 남성을 상대하는 매춘 여성은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국가는 성매매 행위가 여성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홍보하지 않으며, 에이즈 예방에 본동이 얼마나 될 수 없는지, 매춘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매매를 그만두는 일이라고 교육하지 않는다. 남성 손님과 가족, 미군을 위해 감염된 매춘 여성을 색출하는 데만 힘안이 되어 있을 뿐 매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전체했듯이 성매매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내용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것은 '도대체 이러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이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가능한 것은 규제, 폐지, 금지라는 법 자체의 속성에 있기보다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일관성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되었던 정책들은 그 실행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구소련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전쟁이 매춘부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국이 성매매 현장을 덮칠 때 그곳에 있는 남성의 신원을 기록하여 공공 발달의 죄책이나 공장의 게시판에 눈에 띄게 붙였다. 또한 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서 미군 당국은 유족을 폐쇄하고 성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매춘부 집단에서 군인 집단으로 정책을 바꾸었는데 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보니 델로, 1992, 427쪽). 이처럼 성매매를 단속하는 정책에서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0) 1990년 가장 많은 성을 받고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강박 규범'을 명시했고 남성은 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전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1) 1964년 국가의 공적 정책에 따르면 기저촌 및 성매매 집중 지역의 수는 56지역, 여기에 있는 여성들의 수는 3022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특별위원회, 1994).

때론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규제, 처벌이 철폐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반대하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때론에 대한 규제 폐지를 통해 성산업에서 때론 여성이 주도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성매매는 이미 고도의 산업화된 자본주의 체계에서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과 때론 여성의 대부분이 펌프 등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펌프가 없이 자신의 몸을 거래하는 때론 여성들(특히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폭력이나 마약사용에 의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J. Miller, 1993).

배리(K. Barry)는 성매매가 금지되는 영역뿐 아니라 비범죄화된 영역에서도 펌프의 고도의 변화와 가부장적인 법률에 의해 때론 여성들이 착취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매매의 완전한 합법화를 통해 이득을 얻는 집단은 때론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K. Barry, 1993, 236쪽). 이들은 때론 여성에 대한 범죄화나 규제가 폐지되어야 하고, 남성의 착취와 이익을 위해 여성의 몸을 지배하려는 손님과 알선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차별적 범죄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매튜(R. Matthews)는 성매매를 탈범죄화하는 것은 대규모의 성산업을 창출하고 열악한 여성을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 속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인 정책과는 다른 '급진적 규제주의(radical regulationism)'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²⁰

때론에서 수익성과 성산업을 통제하는 이러한 대안적 규제 체계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강압과 착취를 감소시키고 때론 여

20. 그는 사회적 정책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 원칙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여성의 성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상품화되어야 한다는 반면 남성적 권력에 대한 다른 통제, 공공적인 소란이나 추행 소란, 셋째, 착취나 착취에 대한 처벌, 넷째, 성산업의 감소.

성의 파트너뿐 아니라 법적 제도로부터 가해지는 추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L. Stange, 1994, 82-87쪽).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때론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반면 성매매의 폐해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때론 여성을 지원한 성공 사례로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때론 여성들은 성매매 일을 그만둘 것이다"라는 견해 아래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말모(Malmö)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1977-1983년)는 때론 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주거에 대한 지원, 직업 알선 서비스 상담과 의료 서비스, 펌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도움 등을 때론 여성이 성매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대중 매체를 통해 성산업으로부터 빠져 나온 여성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여성의 탈매매를 지원하는 단체와 조직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이는 대중적인 성매매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1년까지 72.5%가 성매매 행위를 그만두었는데 나머지 여성들은 대부분 마약 중독자였고, 1983년 최종적으로 남은 여성은 겨우 60명이었다.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해가 된다는 기본적인 견해 아래 때론 여성을 감호, 장녀로 전락시키는 성산업의 합리화를 근절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다(Barry, 1993, 248-249쪽).

물론 이러한 성공 사례는 사회 복지 정책이나 성문화가 우리 나라와는 다른 '스웨덴'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대안이 주어진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길 바라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다. 성매매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벨기에 장관의 말대로, "문제는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존엄성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매매가 인권의 문제와 양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지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다. 합법과 불법의 양쪽 끝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아무 것도 없다. 당분간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만의 논리 속에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여전히 '여성' 자신일 뿐이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주의적 경향이 대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의 불법, 합법 논쟁에 대한 집착보다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과 성매매가 왜 인간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외적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6. 맺는 말

성매매는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 성매매의 문제를 가시화하지 않는 한, 언제나 그랬듯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성매매 공간에서 때론 여성들은 어디로도 갈 수 없고 어딘가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빔과 폭력'이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빔과 폭력이다. 그러나 빔을 탈출할 대안이 나 도움을 구할 곳도, 그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박과 대안의 가능성을 접할 기회를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여성일 수 있다.

한 현장 활동가는 때론 여성은 사회의 소외 계층이 아니라 단절 계층이라고 지적한다. 철저하게 봉쇄된 그들 내부에 폭력이 난무하고 성매매의 비가시성 자체가 행사하는 폭력은 때론 여성과 여성들에게 그대로

행사되고 있다. 그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동시대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동시대인으로서 갖는 의무적인 또는 호기심에 불과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때론 여성의 삶의 모습이 '나'를 '여성'으로 분류하는 인식에 확실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대부분은 때론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폭력 남편이 지배하는 가정의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듯이 성매매 공간 또한 그러하다. 폭력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한 폭력을 이용 없이 타인에게 행사하지 않듯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력을 자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와 폭력이 사회화 처리된 '자적 관계'로 행사되는 것처럼 업소 여성들과 도주, 폭력과의 관계는 잘 제어된 사회적 통제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창가와 입구에는 여객없이 제택의 수위실처럼 파출소가 세워져 있고 잘 구조화된 조직 폭력배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여성의 폭력에 대한 학대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드레아 드워킨의 많은 우리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들의 몸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되어 계속해서 반복, 반복, 반복될 때의 느낌을 느끼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성매매의 실체이다"(안드레아 드워킨, 1992). 성매매를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때론 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종류의 '일'로서 간주하든지 간에 성매매는 아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발생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은 곧 힘을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

라는 믿음이나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최소화할 선충한 태도와 준비,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는 용기이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성태에, 그 가부장제의 비뚤됨이 우리의 몸 속에 누워있어 슬픔을 작게 떨지, 우리 인식의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태에 반대는 인권을 향한 첫걸음이며 그 자체가 힘이다. 이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가 각자 선 자리에서 풀어 가야 할 과제이다.

나는 여러분이 여성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의 첫걸음으로 주변의 사찰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3-4명 정도가 한 조가 되면 좋다. 지나가는 남성들의 모습이 오빠, 동생, 애인, 아버지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지를, 성태에 남성들에게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인지를 느껴 보자. 성태에라는 특정한 성행위를 문제 삼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성과 태운 여성의 삶은 뭐가 다른지, 성태에가 더 이상 혐오와 공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슴에 알아 보자.

낙태 보고서

연애에 나타난 권력 자형도

우리 나라에서 한해 동안 이루어지는 낙태는 공식적으로 150만 건(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성태 조사」, 비공식적으로는 20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1년에 60여만 명의 아기가 태어난다는 통계가 있으니 낙태되는 아기는 태어나는 아기의 세 배가 넘는다.) 또한 우리 나라는 연간 낙태 건수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¹⁾ 그러나 낙태 문제가 사회를 뒤흔들 만한 주요 문제로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가끔 신문 지상에 종교 단체의 낙태 반대 성명이나 사회에 관한 기사가 몇 줄 오를 뿐이다. 미국의 경우 낙태는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만큼 커다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낙태의 윤리학적 측면,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성과 관련된 철학적 논쟁과 연

1) 한계학 박사가 실시한 「사무적 남성 성희롱 조사」에 따르면 여론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성경험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4.4%가 상대 여성에게 낙태를 하게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경험이 있는 남성 4명 가운데 1명 꼴로 상대 여성에게 낙태를 하게 한 것이다(한겨레신문, 1992년 8월 21일자).

2) '내일신문', 제287호, 1999년 1월 27일자.

성태에 대해 말할 자리

글: 레지카(Lecky) 01@empal.com / 연애에 변질일

서고려한 남자들, 사실은 하나의 목소리

성태에 특별히 대해서 남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자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술인과 높은 이론들이 보여주는 "정당가"에 의거해 제재했다고 믿는 보수층들과 함께 온정주의적 중도 우파(성)을 사고 라는 행위는 인간성에 위배되지 않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대표하듯)는 성태에 공지를 전성한다. 한편, 한나라당 김중환과 한겨레계연우원 최승호 원장의 발언이 보여주는 성태에 말지법을 남성들의 욕망을 숨겨주는 국가통제적 파괴정체이라고 보는 시각과 함께 사회전보원에 들어 모여있는 소위 "좌파"들은 이 말이 부르주아 여성들이 성태에 여성들의 생존권을 빼앗은 것이라며 반대한다. 자못 보면 좌우의 발언에도 있어 존엄스럽고 다양하기만 한 이 발언들을 사에서 좌우의 이해를요기화 노력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에 대한 이론이다. 알부주주의 이론에서는 여성을 어머니와 "황녀"(그들이 쓰는 그대로의 표현을 살리기 위해 무식한 이 말을 그대로 옮긴다)로 나눈다. 성자유주의 이론에서는 《출세권》 "황녀"와 《비밀현》에서 "황녀"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 이론에서 여성은 좌파만 아니면 모두 "황녀"거나 그와 다름없다. 좌익 이론에서는 권정부 부르주아 여성과 가난한 실노동자 여성으로 나누어진다. 어떤 입장에서건 여성은 성태에 관련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두 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성태에 여성들을 자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러한 이론들은 "여론 여성들은" 인간에 범주에서 사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정당화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

여성도 인간이다.

여성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

이 말한것은

(여론)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라 생물이다.

말한것은 인간이 없다.

모든 여성이 존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그렇다면 존엄성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행위를 우리네로가, 어머니, 아내, 동생)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다.

사실은 관심은 다르게 있는가 하나?

이 이론들을 쉽게 설명한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 남성들이 부르주아 지를 가진 여성들에게 성태에 여성들을 타락화 시키기, 말하고 호통을 치기 때문이다. 만약 부르주아 지를 가진 여성들이 성태에 여성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러한 논리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황녀와 어머니"라는 이론들을 고안해내고 실천한 남성사회의 성행위체사회의 있다. 2차적 책임은 지체 욕망을 세습화되도록 통해 세습하는 구체적 남성 개인들에게 있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게다가 이들이 성태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성태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거나, 성구에 남성들이 차지하는 인간적인 차이에 분노해서가 아니다. 이들이 성태에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이론법 통해 거두고 자갈의 정체를 비판하는 이유는 현실권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사회전보원에서는 성태에당 지법을 합법적 해운인 결혼제도를 강화하고 제법법적 해운을 통제하는 정부의 신자 유주의 정책과 여성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음모라고 분석한다. 성태에 숨겨주려는 근본적으로 황녀와 성녀라는 이론법에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 제적이며 유물노동자를 확보하려고 노동시장 유인성을 유지하려는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음모이므로, 현실법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결혼은 합법적 해운이라는 제도권 인식을 모든 제도화와 모든 법을 통한 해운에 대한 반대이다. 이들의 논리대로하면 성태에 합법적 역시 국가에 의한 통제이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투쟁은 바로 가족과 결혼제도를 재검토하려는 노무현 정권과의 싸움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좌파들의 함대기 이론이다. 모든 문제의 끝에는 정권교체투쟁이 있다는.

여(이)들은 갑자기 다르지도 않는다

사실 성태에 문제는 여성들에게 일종의 공포이다. 여성들에게 성태에 문제는 여성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성행위체화 묘사되고 있는 학파에 대해 눈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결혼과 법, 노동 과정에서 여성을 언제나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에 기반한 세스 "대상"으로서의 존재로 간주한다. 교육시장에서 여성의 부모의 나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점, 결혼시장에서 여성은 가짜 몸부림이 다른 어떤 자위보다 1차적인 자원으로 간주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여성의 상통의 문제와 연관되며, 여성의 상통화가 바로 성태에 문제의 핵심이다. 싸움인 여자는 여성을 상통으로 생각

책임 여성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성매매가 문제라는 한 여성은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arry, 2001) 바리는 왜냐하면 성매매의 한 형태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고용자들과 종신시장의 피보살임주, 성매매와 가정폭력 모두 성폭력의 한 형태이며 여성은 성폭력에 희생자라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문제를 "근원화"시키는 것, 그래서 결국 모든 여성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여성이 있다는 가장 근원적인 이분법의 함정으로 다시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든 여성들에게 성매매 문제와 "연관"된다는 말은 이 모든 문제가 문제로 "동일한" 문제라는 것과는 다르다. 성매매, 가정폭력, 성매매는 모두 성차별주의의 결과이지만 각기 연관되면서도 다른 책임을 필요로 한다. 성매매, 성매매, 가정폭력이 여성에 대해 하에서부터 저지른 남성적화물적 실패와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 그래서 모든 여성에 관해서는 사실 성폭력에 기반 해 있다는 인식은 여성화물을 교양시키는 것은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이 개념들의 결과에 따른 실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을 역시 동일하거나 관련하지 않다. 이분법은 그 둘의 논리일 뿐이다.

다르고 낯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가다듬기

한 가지 특정한 것은 성매매 여성 및 여성에게 여성이라는 이분법은 여성을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성매매 말하면 아무 생각 가장 고요 피상적인 변호 중 하나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성매매 여성에게 낙인을 찍으면서 다른 여성들은 성폭력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만들고 노력해왔지만 이제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공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녀와 성녀" 두 중요한 분화된 여성들이 이제 서로간의 차이를 드러내며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녀를 연인과 바람이 난 남편 때문에 피로 합출레스가 성매매라는 기존 여성, 성이 때 전일성을 대표하는 주인공이 모르겠다며 고개를 갇추짖하는 20대 여성, 농장이 매달 때 구해주러 오는 편장은 모두 일에서 일했으면 한다는 전보들의 여성, 나 어도 남고 사어고도 남아서 이해되지 못할 지방으로 성으로 물리는 수순인 남성과 그 함을 하는 여성들의 여성, 사실 나도 성매매 한 적이 있다고 세로표를 통해 고백한 대학 세대가 여성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성매매와 맺어온 다양한 관계들을 드러내고 있다.

섹시네스트간의 일상 세어도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4년 유년 특정한 행위를 기념하고 이사회 여성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기 위해 '특정+10 여성

NGO 포럼'이 8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역시 대회의 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이쪽 대회의 동등 여성들은 성매매에 여성이라는 용어를 "Sex Worker"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런과 별다른 여성은 이를 반대하는 등의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세스워커에게 세이크 세말과 이 나온 고용 환경을 세로매를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단체와 성매매 여성들이 특별한 일상 차이를 보이며 가두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후 주변인과 기자 등은 "여기도 잘 쉬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다. 하지만 현재 법과 정책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비판적인 입장은 남성과 정책추진권을 갖는 입장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그 외론 대담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위해 어떠한 성매매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반성매매 활동자들에게 모두서 찾아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나무 배운 세로표와 법제정 운동,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담론)사이에서 성매매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을 가진 여성은 피해 당사자거나 혹은 정책입안자 여성이거나 활동가 정도로 압축해 제한되어 가는 느낌이다.

남자들은 아무나 아무 말이나 다 하는데 말이다. 남자들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의 "다르고 낯선" 말을 무리화하면 할수록 성매매 문제는 여성들 간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남성 역권을 무리화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목소리들이 묻는 것을 무리화해야 한다.

남성들이 그동안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면서 쌓아온 지식의 함도없어지고 다르게 해석되는 상황을 해본다. 그들이 말하는 '사실상은 사실 성매매 여성이 세스를 받지 않았다는 게 드러날 때 관계없는 것들이지만 한때에 드러날수록 전전당당하는 세스 해리가 만들어낸 상상적 허구이며, 한편 성매매 여성은 물론 성매매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남성적화물성을 되돌아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모든 해담은 새로운 담론과 그 담을 세대로 말을 정지할까 보내는 시간속에 존재하고 있다.

- 기획정보연락 <http://www.jnews.org> 성매매방지법 논문, 두번째 '종교원' 문제임기
- 한국인민뉴스
- 미군정당 세스워커에게 노동운동! (오마이뉴스 2004-01-28 황윤선 기자)
- 인터넷 시사사 - 주제 : 1회 - 아시아의 성(1부) Q-channel

* 이 글을 써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연시일(www.amban.org.kr) 2003년 1월 독립 "성매매운동, 김오영, 물녀와 고라" 중.

전국 성매매피해여성의 실태 및 대안연구 1)

김현순서울대 교수

1. 연구의 중요성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성매매(sexindustry)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2002년 5월 10일 군산시 대평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여 있던 5명의 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2002년 2월 14일에는 부산시 해운동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여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고, 2002년 1월 27일에는 군산시 개항동의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역시 사망하여 있던 여성 14명이 사망했다. 이 화재사건들의 희생자들은 일시에 사망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성매매업소, 폭력, 폭력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렇듯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상태가 인하여 밝혀지고, 2002년 7월 12일에는 미국우상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자에게 한국을 인간매매(종교(적화물)이라고 규정한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해방당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는 '노라나'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문제로 여기시거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적인 논리는 아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성매매와 관련한 최근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매매추진위원회를 전 소로써, 서울시 등의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단체들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피해정황을 제시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군산대평동화재사건이 국가경찰청으로부터 드러난 피해여성들의 증언이었다.

모두는 돈을 두 사람이 겨우 누를 수 있는 폭력으로 나누어 놓고 모든 질문에 두꺼운 피갑을 입히고, 질문은 폭으로 받아 말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출입문은 안에서 열 수 없고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감시한 여성들에게 폭력에 직면하는 4-5명, 일하는 20명 이상의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화대를 선두 강제로서 폭행하였다. 모두가 시키는 대로하지 않는 여성들은 폭행을 당했고, 도망갔다가 잡혀온 여성들은 성폭력으로 인상에 되었다. 때문에 가거나 욕망에 잘 빠져도 항상 감시받기 마다하였다.

성매매에 대한 다른 관점은 일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법원, 학자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은 주로 인권을 통해 '성매매는 직업'이라고 규정하여 중립성을 주장해왔다. 중립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아이가 없거나 임신하면, 피로 노동자를 중 성폭을 못 하는 남자를 때문에 혼란하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필요적으로

사회 중립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중립에서 제일 큰 목적을 '여성인식 변화를 근간하고 성인 노동자를을 통해 중립자들을 보호해주며, 중립이 아닌 자에게서는 모든 여권, 우부, 학생들의 계층을 독립하게 하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중립에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문제행태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것으로서, 일부 유입자의 목적을 받아들여 도시의 특정지역으로 성매매를 제한하는 구체화를 실시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조직행위를 지원 하는 대신 특정지역으로 제한하여 허용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오히려 중립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연구자로 참여하여 30명의 발표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중립자들의 20.7%가 중립성을 반대하고 있었다. 중립자들은 성매매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모두의 인권침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여성들은 더 심각한 성매매의 폭력, 폭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고, 국가가 직접 특정지역을 만들고 관리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 자이르, 미국, 말바의 20명의 성매매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중립자들의 25%가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서 중립자들은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매매에서 폭력을 감소시킬 것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성매매의 합법화의 이러한 주장은 성매매는 직업이 아니며, 특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거나 직접화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이 아님을 제시한다.

특히 논쟁에서도 할 수 있음이, 성매매의 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정황을 고려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사하거나 피해해왔지만,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구나 집단, 집단, 인간관계 등 심각한 폭력에 시달려 왔다. 큰 연구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하는 폭력의 심각성을 알아내 성매매의 폭력에 특성을 규정하고자 한다.

마지막 큰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경험한 폭력을 조사함으로써 성매매에서 폭력은 본질적인 요소이며, 그 특성을 성매매의 특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피해부 스토리텔링에서의 심각성을 조사함으로써, 성매매의 심각으로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신체의 정산에 남기는 상처를 드러내고, 성매매의 폭력에 특성을 드러낸다.

셋째,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다.

2. 연구방법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면접조사는 2002년 1월부터 2002년 5월 사이에 서울하와이 경찰서(한미여성소) 피려인과, 진화담당, 면접담당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20여명의 성매매피해여성들 중에서, 마지막 성매매업소의 경찰이 1년을 넘지 않는 여성들로서 직접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여성 20명을 조사하였다.

1) 본 글은 저술자 두 가지 연구를 종합한 것이다. 저술자의 제원으로 이루어진 성매매피해여성의 전국적인 성매매 관련 연구(김현순(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피해부 스토리텔링, 성폭력학회와 저자(2002) 및 경기도와 저술자로 이루어진 경기도지회 성매매피해에 관한 연구(저술자(2002), 경기도 지회 성매매 피해 조사 및 정책적인 연구)이다.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02),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02.
3) 해운대(2002), 대평동사건 국가경찰청조사결과 종합결과서면, 2-4쪽.

4) Green, L. & Pinesha, G.(2000), Sex morality and the law, Routledge, 120쪽.
5) 김현순, 김현순, 김현순(2002),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정보지형 자료집, 저술자, 20쪽.
6) Farley, M. & Buel, L.(2000), Prostitution in five countries: violence and PTSD, San Francisco Women's Center, 12쪽.
7) 저술자는 동유럽에서 저지른 및 해외에서 저지른, 폭력적 성매매업소 집합지(1)과, 동아시아 집합소를 설치 하고,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성매매피해 여성들에 대한 권리로활동하는 연구자인 사 로지학적 저지현황을 밝히고 있는 단체로서, 전국적으로부터 성매매피해보고를 접수하여 피해여성들의 일상에서를 위한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상담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 안에 실문지는 연구자가 만들었으며,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학적 특성 및 상해에 유입변량 및 정교, 정밀한 상해예측 유형 및 지역, 법률적인 문제, 상해예측 결과로서 나타난 불일정성에 대한 처벌의 종류에 대한 등을 질문하였다. 이 설문지는 변질자가 상해를 통해 상해예측의 과학에 대한 진술을 들으면서 작성하였다. 두 번째 설문지는 Taylor가 개발한 척도이며,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해에 이성의 신체의 목적과 정교의 정밀, 상해예측에 있는 동안의 신체의 목적과 정교, 건강문제, 상해예측을 위해서 필요한 지반내용 등을 질문 하였다. 이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III.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1) 연령 및 거주지

<표 1>과 같이, 응답자들의 연령은 16세에서 20대까지이며, 평균연령은 17.7세이고, 표준편차는 2.25세이다. 연령별로 보면, 20-25세가 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5-20세가 19%, 25-30세가 19%, 40-45세가 13%, 30-35세가 11%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전국의 16개 시·도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표 2>와 같이 경기도 32%, 서울특별시 28%, 충청북도 22%, 전라남도 22%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 현재연령

	15-20	20-25	25-30	40-45	50-55	합 계
연 (N=11)	19	30	19	13	11	92
누적백분율(%)	19.6	59.6	78.6	91.6	100.0	100.0
평균연령(세)	18.79	24.69	28.38	46.89	54.18	26.79
표 준 편 차	6.71	3.81	2.33	2.27	2.64	12.25
분포형태(%)	16-18	20-25	21-26	42-48	51-58	16-58

By Taylor, M. & Bond, J. (1998), 19쪽

<표 2> 현재연령별 거주지역

	현재연령					합 계
	15-18	20-25	25-30	40-45	50-55	
경기도	66.60	12.50	16.20	3.20.00	0.00	98.50
경기도	67.60	12.50.00	3.00.70	1.6.47	3.27.27	20.26.00
충청남도	1.0.20	2.0.20	0.0.00	0.0.00	3.18.18	6.38.00
충청북도	0.0.00	1.0.20	0.0.00	0.0.00	0.0.00	1.0.20
충청북도	1.0.20	1.0.20	0.0.00	1.6.47	0.0.00	3.0.20
충청북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충청북도	0.0.00	1.0.20	0.0.00	1.6.47	0.0.00	2.0.20
충청북도	0.0.00	4.0.40	1.6.20	0.0.00	1.0.00	6.6.00
충청북도	2.0.20	2.0.20	4.0.40	5.0.50	1.6.18	16.6.00
충청북도	0.0.00	1.0.20	0.0.00	0.0.00	0.0.00	1.0.20
충청북도	0.0.00	1.0.20	3.18.18	1.6.47	0.0.00	6.0.00
충청남도	0.0.00	4.0.40	2.12.12	0.0.00	2.0.18	8.0.00
충청북도	0.0.00	2.0.20	1.6.20	0.0.00	0.0.00	4.0.00
충청북도	2.0.20	0.0.00	1.6.20	1.6.47	1.0.00	5.0.00
충청남도	2.0.20	0.0.00	0.0.00	1.6.47	1.0.00	5.0.00
충청북도	2.0.20	4.0.40	0.0.00	1.6.47	0.0.00	8.0.00
합 계	19	30	19	13	11	92

(%)

2) 응답자들의 연령별 상황

응답자들은 <표 3>과 같이 세 가지 범주의 심각도로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 연령별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현재 상해예측에서 일하고 있는 연령대로, 상해예측 후에 취업으로 경제적 지위를 이룬, 상해예측, 상해예측에서 도망치기 등이 가하는 상해예측, 상해예측으로부터 건강 문제로 상해예측, 상해예측에서 일하고 있는 상해예측보다 최근 1년 이내에 상해예측으로부터 상해예측이나 문제로, 상해예측, 상해예측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 응답연령별 심각도

	현재연령					합 계
	15-18	20-25	25-30	40-45	50-55	
15세 이전에 상해예측에 유입된 비율(%)	10.00.00	2.0.20.00	1.0.00.00	1.0.00.00	1.0.00.00	7.0.00.00
20세 이전에 상해예측에 유입된 비율(%)	10.00.00	2.0.20.00	1.0.00.00	1.0.00.00	1.0.00.00	7.0.00.00
상해예측에 유입된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상해예측(%)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상해예측에 유입된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상해예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해예측에 유입된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상해예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3) 상해예측정보

상해예측정보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와 같다.

By Roman, J. (1997), 61쪽.

이 같은 현실에서 활동하는 거지촌 여성노동자의 입장이 보여진 것으로서, **원정(原形)**과 **수정(수정)**을 통한 노동자들의 고집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1990년부터 거지촌에서 활동해 온 여성노동자들은 때를 놓친다.

2장 성적 권력

필리핀의 시골 농촌에서 태어난 리사 메르(Lisa Merced)은 자기가 자라 온 거대한 환경,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알해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산업화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아주한 많은 여자들처럼 리사도 도시에 가서 학교를 다닐 생각이었다. 가부장적인 전통 사회에서 여성들은 결혼이나 가족 밖에서는 거의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이농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사회적으로 이탈시킨다. 이런 조건하에서 여성들은 특히 성적인 착취에 쉽게 노출된다. 고향을 떠나 혼자자 된 리사는 사람에 빠졌고 임신하게 되었지만, 상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버림받은 후 혼자서 아이와 버티 보았지만, 아이는 8개월 되었을 때 죽고 말았다. 학교를 다시 다니려 해도 돈이 없었다. 결국 학교를 보내 주겠다고 나선 어떤 남자와 관계를 맺었지만 그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981년 10월에 리사는 그 지역의 검사장(judicial prosecutor)을 만났다. 그는 네덜란드에 있는 최고급 호텔의 접수계에서 고소록으로 일할 수 있다며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선했다. 자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주변화되는 여성들은 억압을 유일한 생존 방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때때론으로 불법 거래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농촌 출신인데, 이들은 한동안 남자와 결혼 관계나 애인 관계를 맺고는 버림받는다.¹⁾ 리사는 네덜란드에

도착하자마자 매춘업소로 보내졌다. 불법 거래된 여성들의 일반적인 경우처럼 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도망치기 위해 구매자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다. 1983년에 한 구매자가 리사의 이야기를 듣더니 도와 주겠다고 했다. 이것은 경찰이 현장을 불시 단속하기 2년 전의 일이다. 리사 매춘은 자유의 몸이 되자 내달란트¹⁾에 있는 필리핀 단체들, 그곳의 여성 단체들 그리고 필리핀 여성 단체들의 후원을 받으며 1983년에 법정 투쟁을 시작하였다. 1988년에 Jan Schoonman은 필리핀에서 추방되어 내달란트 법정에서 불법 거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필리핀 법원은 1991년, 그의 필리핀 거래 상대자였던 전직 국가 공무원 네스토라 플라세이서(Nestora Placencia)를 석방시켰다. 담당 판사는 도리어 “부정한 성에 대한 비난 취할 때문에 나타난 그녀의 명백한 비도덕적 행동”이라고 리사 매춘을 비난하였고, 반대로 플라세이서에 대해서는 “그의 성격은 트집잡을 데가 없고 그의 공적 생활에는 오점이 없다”고 하였다. 1993년에 그 사건은 항소심에 있었다.

식물의 가난을 빗자고 나온 여성들이 처한 취약한 조건에서 리사 매춘은 매춘으로 매매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나라에서 매춘은 산업화되어 가고 있었다. 군대, 특히 미국의 수백(Sabcs) 해군 기지와 클라크(Clarke) 공군 기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성 산업이 개발되고 있었다. 리사는 필리핀에서 내달란트로 매매되었는데, 내달란트는 후기 산업 국가들에서 매춘을 합법화시키는 데에 앞장섰던 서구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리사 매매이 매춘을 통해 달한 착취는 이 책에서 밝히는 성 착취의 네 가지 단계, 즉 ① 여성에 대한 불법 거래, ② 군대에서의 매매춘, ③ 성의 산업화, ④ 매춘의 정상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1) Frank Philippson, *From Prison Girl to Angel: Human Rights International Labor Office*, 1992, p. 22.
2) Gabriela Women's Coalition, "Highlights of the Court Decisions," Manila, March 25, 1991. Decisions of the Manila Regional Trial Court, Case of Nestora Placencia, p. 12-14.

성 착취의 역사적 단계

가부장적 권력은 여성을 성으로 환원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단일하지만 성적 종속을 발생시키는 정치적·경제적 전략면에서는 다양함을 보여준다. 성 착취는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여성을 종속시키기 위해 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전개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가부장적 권력과 성 정치학에는 단일한 전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 착취의 네 가지 단계들은 한 나라의 특정 경제 발달 단계나 역사적 시기에서 발전되지만, 경제 발전 및 변형과 더불어 서로 이어지는 점진적 진화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매매

이것은 특히 일차적으로 농경 사회로서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전(前) 산업 사회 및 봉건 사회에서 우세하다. 여성이 성으로 환원되는 것은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남편의 권력에 의해 집에서 무임 노동, 재생산 기능, 성 관계로 착취된다.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사회 존재가 되며, 집 밖에서의 노동도 공적 경제에 포함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 부문으로 제한된다.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지위에 가인하는 성적 종속과 경제적 의존은 결혼 봉건제(*marital feudalism*)라고 할 수 있다. 봉건 제하에서 남성은 아내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집을 두고 매춘부를 사도 일을 맡지 않는다. 이는 그들의 땅을 보장해 주는 남성 지배 세력의 특권이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의 성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강간과 강제 매춘을 포함하여

① 성적인 종속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종속임을 무시한 채, 여성이 성매매(*Sexualization*)를 문화적인 실천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성 정치와 독립성을 포함적으로 통칭하기는 불가능하다. 성 정치와 문화적 실천으로 종속시키는 일은 모두 남성 지배 권력에 여성에 대한 지극적인 착취의 의미를 속수무연히 입는다. 장단주의적 페미니즘을 문화적 페미니즘으로 환원시키는 전통적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근거하여 가부장제를 문화적 권력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Thanh-Dan Truong, *Sex, Money and Morality: Prostitution and Tourism in South-East Asia* (London: Zed, 1990), p. 44를 보라.

결혼 외에 그 어떠한 성적 행동도 장절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엄한 벌을 받는다. 가부장제의 사회 질서 밖에서는 여성에게 사회적 공간이 거의 없다. 남성을 위해서는 매춘이 성행한다. 가부장제의 사회 영역에서 여성과 소년들은 주로 아반적인 매매와 강제 매춘을 통해 매춘업소로 보내진다.

군대에서의 매매춘

전쟁 지역이나, 대규모의 군 부대가 있는 지역에서 군대 매춘은 군인에게 휴식과 오락(R&R, Rest & Recreation)을 제공한다. 전쟁은 주로 제1세계에서 혹은 전쟁 때문에 경제적 후진국이 된 동유럽과 같은 나라들에서 점점 더 많이 치러진다. 마찬가지로 군대 매춘은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취약함, 즉 전쟁중의 경제적 지체발 속에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전통주의적 가부장제 속에서의 강간으로 인해 군인일하지 않은 병참자이든 주로 외국인 남자이다를 위한 성 상품으로 자신을 팔 수 있는 곳에서 번성한다.

성의 산업화

경제 발전은 성 산업을 동반한다. 산업화와 공적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가정을 떠나 주로 도시 지역에 있는 공적 경제 영역에서 직업을 찾아나선다. 산업 경제가 국내 생산에서 수출 지향적 생산으로 바뀌어 갈수록 따라 서구의 성 산업체들이 해당 지역의 매매업자들과 거래하게 된다. 앞선업자들에게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적절한 대상이다. 가정에서 무임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이들의 노동은 공적 부문에서도 평가 절하되고 주변화된다. 가족 내에서의 착취는 공적 부문에서의 노동 착취로 이어진다. 산업화가 진전함에 따라 성 산업은 여성에게 수출 생산 노동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한다. 성 산업은 여성 인구의 상당 부분을 매춘으로 이끌어 서 더 이상 불법 거래에 의한 강제 매춘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진다. 이

단계에 이르면 주요한 성 착취는 여성에 대한 매매가 아니라 물리적 강제가 별로 없는 성 산업으로 나타난다. 이주 과정에서의 경제적 궁핍과 고용 기회의 부재로 여성에게 모든 가능성은 닫히고 만다. 성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일부 여성들에게 그것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온다.

매매춘의 정상화

이는 후기 산업 사회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자리잡는다. 발전된 후기 산업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전에 따라 남성은 결혼에서 여성에 대한 법적·경제적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이러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부장적 권력은 공적 세계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종속시키는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 낸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을 차폐하기 위해 성 착취는 개별화된다. 성 과학자들이 고무하는 '포르노그래피로 가득 찬 사회는 공적 영역에서의 개별화된 성 착취를 지탱시킨다' 어쩌면 달리 봉건 사회에서는 여성의 성적 종속에 대한 공공연한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은 결혼에 의한 사회 소유의 문제였고, 여성에게는 결혼 외의 다른 경제적·사회적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남편의 정당 한 소유물이었을 때에는 여성의 동의라는 이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르노그래피로 가득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종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동의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산업 부문에서 노동하는 여성들은 가족 내 남성의 통제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그 대신 여성들로 하여금 세속화된 매춘화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공적 세계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여성의 경제적 평등에와 잠재력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공적·사회적 착취가 생겨나는데, 이것은 이전에 결혼에서 탈피했던 성 착취에 기반한 것이다. 욕신이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여성이 역사적 현실로 등장했을 때, 성 착취의 공적 제도들이 그녀를

다시 성적 존재로 귀결시킨다.

이것이 바로 *아니타 힐*(Anita Hill)이 경험한 것이다. 차별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변호사인 그녀는 클라렌스 토머스(Clarence Thomas)라는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국회 위원회에 보고하여, 1991년 그를 미국 대법원에 서게 하였다. 힐이 국회에서 증언했을 때 국회는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성으로 환원되고 성애화된 몸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성적인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녀의 태도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즉 역사적으로 흑인 여성 노예가 백인 남성의 성적 소유물로 환원되었던 인종 차별주의의 성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다.⁹⁾

아니타 힐에 대한 위원회의 심문, 특히 편실베아니아 주의 상원의원 스펜더(Spencer)의 힘박은 단지 한 명의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었다. 전편 남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텔레비전을 통해 아니타 힐을 모든 여성의 본보기로 삼았다. 미국 여성들을 향해 던지던 메시지는 바로 후퇴하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 강도 높은 교화 심문을 통해 일말의 저의를 찾아내려고만 하는 가차없는 노력에 그녀가 용감하고 깨끗하게 버티었을 때 전 미국의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타 힐과 같은 여성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신들 중 어느 누구의 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클라렌스 토머스를 보호하던 남성 국회의원들의 끈끈한 유대가 만들어 낸 인종 차별주의적 메시지였다. 힐의 사건이 이토록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성적으로,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여성으로 환원되기를 거부하는 여성의 전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러한 거부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 되었다.

성문화와 섹슈얼리티의 구성

성적 권력은 사적이고 봉건적인 형태나 공적이고 산업적인 형태로,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형태로 여성과 삶을 조건 짓는 정치적인 것이다. 각각의 역사적 시기마다 결혼 봉건제에서 성 산업화와 정상화된 때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경제적 조건들의 기반하에서, 섹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또 사회적 규범과 가치들을 통해 그 사회의 특정한 가부장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형태 지어진다. 사회가 섹슈얼리티보다 선행하며 생물학이나 종족, 필요, 욕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 경험을 구조화·맥락화시키는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성적 교란의 행위를 속에서 지배 관계가 생산되며 이러한 행위들은 생리적 성 충동, 욕구 등을 형태 짓고 만들어 낸다. 성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성 충동이 선천적인 현실로 먼저 나타나서 성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틴 델피가 지적했듯이 “억압이 편지를 만들어 냈고 편지는 다시 때부학적 성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하나의 동일한 것을 두 개의 위계적인 것으로 나눔으로써 (그 자체로서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때부학적 차이를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단위로 변화시켰다.”¹⁰⁾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성 과학 및 그 반대 글루, 즉 매매춘의 시작적 제한물인 포르노그래피를 통해 “섹슈얼리티”라는 사회적·문화적 생산물, 즉 정상화된 매매춘의 섹슈얼리티가 발전하고 전개된다. 무로는 “19세기 이래로 성 과학(science sexual)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애술(art erotica)로 기능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¹¹⁾ 성은 공적·사회적 섹슈얼리티로서 전개되어 “욕제들을 만연시키고 혁신시키고 병합하고, 창조하고, 질

9) Patricia Hill Collins,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New York: Routledge, 1990), p. 107.

10) Christine Delphy, *On a Man*, trans. Diane Leonard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4), p. 144.
11) Michel Foucault, *History of Sexuality*, vol. 1 (New York: Vintage, 1980), pp. 70-71.

질 게부적인 방식으로 침투하고…… 점점 포괄적인 방식으로 인구를 통제하여” “남녀”들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를 통해 사회에 선행하는 정의나 의미가 없던 성이 성 차별적 권력의 조건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되었다.

한 세기에 걸쳐 서구의 개방적인 지역에서 성에 관한 공적·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남편의 권위하에 여성을 사유화하는 결혼이라는 것에서 남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을 공적으로 식민화하는 성으로 옮겨졌다. 후기 산업 사회의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여성을 가족 내의 재생산 및 성적 통제하에 가두어 놓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커플링(coupling, 결합 문화—*홀딩*)이라는 말에 대한 성적 차원에서 강요가 등장했다. 20세기 말에는 이 말이, 지난 몇 세기 동안 여성에 대한 통제라는 차원에서 교훈이 의미하던 바를 의미한다. 여성이 더 이상 아내로서만 규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제 여성은 누군가와 성적 결합에 의해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기대받는다. 커플링(결합 문화)은 여성이 누군가와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므로 (더 이상 결혼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통제하에 있다는 사회의 의미 작용을 하게 되었다. 여성은 성적 존재이며 또 그래야 한다는 명제는 (여성들 더 이상 결혼이나 경제적 차원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남성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최근에 구성된 사회적 권력이다.)

1960년대의 성 혁명은 성 과학자들과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의 작업을 경전으로 삼았는데 실라 제프리스가 지적했듯이 이들 두 집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 해방에 적대적이었다.¹²⁾ 결국 1980년대에 이르면 이들은 여성 ‘해방’의 뜻과 의미를 포르노그래피로 환원시키게 되었는데 (이때의 ‘해방’이란 전통적인 남성주의적 성 규범들을 깨고 여성을 섹스로 환원시키는 근대적·공적인 남성주의적 규범들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 과학과 포르노 담론에서

문장한 성 해방 문화는 섹스를 획득하는, 취해지는, 얻어지는 그 어떤 사물화된 ‘물건’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물건’은 오르가슴 속에서 사물화되었다. 스테른 히스가 지적했듯이, 오르가슴은 “성행위에서의 주요 작전이다.”¹³⁾

오르가슴이 무대의 중앙을 차지하는 한, 우리는 성 규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남녀의 ‘본성적’ 차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은 상물으로서의 성을 실현시키는 교란의 주제로 위치 지어진다.¹⁴⁾

서구에서 한 세기 동안 남성주의적 성 문화가 발전하는 동안, 섹슈얼리티는 강제적인 것이 되었으며 마치 강제적 성이 ‘정상적’ 성인 것처럼 취급되었다. 섹슈얼리티의 전개는 일반적으로 1960년대 초에 대량 생산을 위해 출현한 포르노그래피의 발전을 따라간다.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적 검열이 제거되자, 그 주제는 여자 내복 사진에서 점차 더욱 도전적인 포즈들로 확대되었다. 1967년에는 소비자들 성적 명확성을 더욱더 요구하게 되었고,¹⁵⁾ 결국에는 하드코어적이고 거칠고 모욕적이며 비화적인 섹스와 여성이 성행위중에 살해되는 스니프 필름 등이 생겨났다.

오늘날 남성 지배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긍정적인 인간 경험으로서의 성을 착취로서의 성과 구별하는 데 실패한 사회에 의해 많은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가부장적 성의 구성에 개입했다. 드워킨과 메키넨은 시민적 권리의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포르노그래피가 “섹스에 기반한 착취 및 종속화의 체계이며 여성들에게 차별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재규정하였다.¹⁶⁾ 드워킨과 메키넨이 포르노그래피를 때로운

12) *Ibid.*, p. 107.

13) Sheila Jefferys, *Amateu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p. 145.

14) Stephen Heath, *The Sexual Po* (New York: Schocken, 1982), p. 65.

15) Richard Barthes, “Photography and Sex: Given The Erotic Experience,” *Visual Pleasure and Photography* (London: Routledge, 1983), p. 207-208.

16) Andrea Dworkin and Catherine MacKinnon, *Photography and Civil Rights: A New Day for Women's Equality*

것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그것이 난폭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포르노에서 여성은 물건이나 동물에 의해 삽입당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상처입고 때를 받고 병든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 핵심에 있어서 포르노그래피가 침해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탈인간화된 성적 대상, 물건이나 상품으로 제시된다."¹²

법적으로 드워킨과 매किन은 포르노그래피의 주제가 "사진 그리고/또는 단어들을 통해 여성의 종속을 생산하는 성적으로 명확한 그래픽 표현"이라고 규명했다(강조는 인용자). 매किन은 포르노그래피를 실행에 옮긴 퍼전이다. 여기서 여성 종속의 시각적 표현은 살아 움직이게 된다. 매किन의 정상화는 사회적 삶과 관계를 속에서 포르노그래피가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매किन의 정상화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상업적인 성적 서비스로서 이용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일상적·주관적 경험일 뿐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매혹화를 통한 경험이기도 하다.

성을 자유의 한 형식으로서,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 경험을 증대시키는 데를 계 하는 상관없이 그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서만 잘라내었던 성적 자유론자들은 남성 지배를 옹호하기 위해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시민권적 접근을 떠난 하려고 움직였다. 1970년대에 이르면서 포르노그래피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매किन이 성적 행동의 정상적 모델로 자리 잡는 남성주의적 성 문화가 등장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육체를 식민화하는 이러한 서구 남성주의적 성은 서구적 세계모니의 주요한 차원이 되었다. 미국·유럽·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성들은 군대에서, 사업에서, 관광객으로서 이러한 성을 제3세계 여성에 대한 시장 수요의 형식으로 요구한다. 미국, 유럽 또는 여타의 침략군들이 제3세계 여성들을 강간하고 매혹을 하게 할 때 그들이 이런 종류의 섹스를 사용 발전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고향의 애인과 아내에게

로 돌아갔을 때 이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환원되는 각각의 역사적 시기(불건전 산업 사회, 후기 산업 사회)마다 여성의 종속은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① 여성을 생물학으로 환원시킨다. 즉 여성을 자신의 몸이 박탈되어 사물화되는 계급적 조건에 놓이게 하여, 여성의 성을 사회적 현실로서가 아니라 본질적 현실로 취급한다. ② 인간을 육체적 기능으로 환원하여 여성을 역사 밖으로 내몬다. ③ 초시간성, 여기서 여성은 시간 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성 착취에서 여성은 보편화되므로 역사적이지 못하게 되고, 생물학으로 환원되므로 사회적이지 못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서린 매किन은 성이 종속의 조건이 아닐 경우에 가능해지는 법적·사회적 현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양성이 평등하다면 여성들은 성적으로 배속되지 않을 것이다. 성적 권력은 배속될 것이고, 성 관계에 불평하는 일은 일상적인 현실일 것이며, (성폭행당한 여성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양성이 평등하다면 여성은 경제적으로 배속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질량과 주연성이 배당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강요된 의존이 성적·경제적으로 착취되지 않을 것이다.¹³

섹슈얼리티의 매혹화

매किन이 정상화되면 논의 교환이나 상대를 볼까 10분 정도 대했다는 점에서 최 익명성만으로는 더 이상 매혹 여성이 경험하는 성 관계를 일반 여성들, 상대들, 소녀들의 경험과 구별할 수 없다. 1990년대에 이르러 매혹 퀴어로

Copyrighted and published by authors, 1999, p. 35.
12) Ibid, p. 36.

13) Catherine McKinnon, *Toward a Feminist Theory of S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 223.

구매되는 섹스나 포르노그래피로 조장되는 섹스는 강간에서의 섹스 실패들이 데이트에서 강요받는 섹스 그리고 많은 사적 관계들에서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섹스와 유려미하게 다르지 않다. 이는 서구에서 강간, 매혹, 사회적 성 관계 사이에 정상성의 구분선이 흐려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1960년대의 성 해방 운동과 포르노그래피의 합법화가 남긴 유산은 여성의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섹슈얼리티의 매혹화였다. 1990년대에 비디오카세트 녹화기는 포르노그래피를 집 안의 침실과 사적인 성 관계에 끌어들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캠코더는 침실들로는 포르노그래피 즉 매혹화된 섹스가 펼쳐지는 어느 곳이나 포르노 제작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 매달 새로 나오는 대략 75개의 성인을 비디오의 3분의 1은 집에서 아마추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보고가 있다.¹⁴ 그리고 남편과 애인 들이 집에서 내밀한 개인적 경험을 찍는 것이 시장 가치가 있다고 보게 됨에 따라, 여성들은 성 관계 상황들이 점점 더 고문처럼 느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이애나 리젤은 강간을 연구하면서 인터뷰한 여성 930명 중 30퍼센트에게 포르노그래피가 실제의 성적 경험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여인: 애인이었어요 그는 포르노 영화관에 가곤 했는데 집으로 와서는 "영화에서 그런 걸 봤어, 한번 해보자"고 말했어요 난 어떤 물 속에 갇히는 것처럼 정말 착취되는 기분이었어요.

D 여인: 내가 그 남자 집에 머물었어요 그는 나한테 오랄섹스를 하게 하려 했어요 그는 침과 속에서 이보다 훨씬 더한 것들을 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문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F 여인: 그는 포르노 책에서 무언가를 읽었는데 그것을 나와 해보고 싶어했어

14) Bruce Glick, May 17, 1993.

요 그런 것은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철저 읽고 명령어를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가 나를요 나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 했어요.

H 여인: 그 카들은 막 포르노 책을 읽고 나서 내 명에서 그들섹스를 시도의 보려고 했어요 그들은 내 남자친구에게 나를 섹스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팔가짓은 세 돌아다녔고 난 정말 불편했어요.

I 여인: 사도마조히즘에 관한 것이었어요 매 맞는 일에 참여해 보겠느냐고 물어 왔어요 제인일 뿐이었고 실제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난 그런 말상 이 싫었어요.

인터뷰자: 당신을 파나게 하는 다른 것들이 있었나요?

J 여인: 황문 성교요 그것을 요구받았어요 하지만 전혀 즐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해야만 했었죠 아주 가깝요.

K 여인: 황문 성교 처음엔 나를 살살 섹스하러 했죠 그와 데이트한 기간이 좀 됐고 몇 번 자기도 했죠 한 번은 나더러 황문 성교를 해보라고 섹스하러 들었어요 처음엔 밀로 했고 나중에 침투를 하면서 그랬죠 내가 "싫어"라고 말했는데도 그는 그 것을 했어요 난 너무 아팠어요 정말 미치도록 아팠어요!¹⁵

사회과학자 필립 블룸슈타인과 제퍼 슈바르츠는 1980년대 초에 이상에 및 동성애 커플 1만 2,000명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성 관계를 더 규칙적으로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적 활동이 가장 내에서 증가하는 한편, 섹슈얼리티는 성적 선호/지향보다는 오히려 성별을 중심으로 분할되었다. 성적인 면에 있어서 "남편과 남성 동거인들은 아내 또는 여성 동거인보다

15) Diane E.H. Russell, *Sexual Exploitation: Rape, Child Sexual Abuse, and Workplace Harassment* (Berkeley Hills, Calif.: Sage, 1994), pp. 129-30.

는 게이 남성과 더 유사하다. 레즈비언이나 이성에 여성이 과기 게이나 이성에 남성과 비슷한 정도보다 오히려 레즈비언이 이성에 여성과 유사한 정도가 더 크다.”¹⁶⁶ 이들의 결론은 권력·통제와 관련된 성행위에 대한 선호도에 상당 부분 기반해 있었다. 섹슈얼리티의 성별화에 있어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기를 성행위의 주요 포커스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세스는 보다 많은 성적 대상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적인 경험과 세스를 분리시킨다. 이런 섹슈얼리티가 포르노그래피에 의해 모습을 드러냈는데, 특히 '목구멍 깊숙이'(Deep Throat)가 그렇다. 여기서 란다 러브레 이스는 실제로 포주(포르노 제작자인 척 트라이너에게 성적으로 노예화되어 있었다.

시로에게 상호적이지 않으며 상대로부터 분리된 세스는 경우에 따라 여성을 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분리시키고 탈신체화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성적 관계에서 상호성을 중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커플 연구에서 이성에 여성들은 성 관계를 상호적 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점이 그들의 성적 만족에 중요한 점이었다. 그러나 안드레아 드워킨이 지적하듯이,

여성들은 성 관계가 자신들에게 평등과 열성, 관능과 진정성의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여성들이 사랑에 대해 갖는 비전에는 인간으로서의 남성도 포함된다. 여성들은 남성의 인간적인 특성이 성 관계 행위 속에 포함되기를 원한다. 동등한 권력을 통해 존엄성을 잃지 못할 때조차, 여성들은 사랑의 구현적 잠재력을 말한다.¹⁶⁷

166) Philip Blumstein, *Payton Schwartz, American Capital: Money, Work, Sex* (New York: William Morrow, 1983), p. 309.

167) Andrea Dworkin, *Intercourse* (New York: Free Press, 1987), p. 128.

사회의 성애화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생활에서 성 착취가 심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은 상이한 지점에 도달해 있다. 드워킨의 말을 계속 인용하면, “평등에 기반한 인간의 관능에 대한 이러한 비전이 여성들의 열망 속에 있다. 그리고 성적 열등함의 악용조차도 이것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¹⁶⁸ 선택과 욕망에 있어서 남성 섹슈얼리티는 관계가 소원한 세스, 인간적 경험과 상호 작용으로부터 분리된 세스 그 자체를 위한 세스 등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이것은 성적 상호 작용을 파괴하며, 섹슈얼리티의 애춘화의 원인이 되는 대상화된 세스를 고무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세스로, 바로 섹슈얼리티가 성 차별주의적인 권력 관계의 요소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반학 자아가 성적 사물로 환원되는 섹슈얼리티의 애춘화가 성인 여성에게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다면, 십대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부과된다. 사회가 성애화되면서 보다 이른 나이인 십대에 첫 세스를 하게 된다.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의 데이트에서 성적인 용어들은 때때로 애초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후리다, 남아세다(looking up)”라는 말은 세스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를 의미한다. 1981년에 미혼 소녀의 19퍼센트는 15살 경에 성 관계를 가졌다. 1988년에 그 수치는 27퍼센트로 증가하였다. 1991년에 15~19세의 미혼 여성 30퍼센트와 미혼 남성 60퍼센트는 성 관계 경험이 있었다. 성적으로 활동적인 15~19세 소녀 3명 중 1명이 임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¹⁶⁹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십대 임신의 위기로 인해 1990년대 십대 중반 청소년들의 성적 절제를 권장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소녀들에게 세스에 대한 압력과 “남아세기”에 저항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마약을 권하는 압력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를

168) *Ibid.*, p. 129.

169) “Teenage Sexual and Reproductive Behavior,” in *Facts in Brief* (New York: Alan Guttmacher Institute, 1993).

거르지는 마약 예방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소녀들은 그들 자신의 목표를 확립하게 세움으로써 세스에 대한 압력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시도들은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와 ‘도시언어(Urban League)’와 같은 단체들에 의해 장려된다. 이 프로그램들은 십대들의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 결정권을 증대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 발달에서 초기 세스와 태도들에 직접적으로 맞서지는 않는다. 결국 이 순결 프로그램들은 도덕주의적인 경우가 많고 루시 퀘일(Lucy Quail) 행정부에서 추진된 반동적인 ‘가족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거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십대 임신의 위기를 이용하여 성을 억압한다. 이하는 달리 인간 발달 단계상 일속해질 때까지 성적인 활동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 성적·개인적 자율성을 무지시키려는 것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들은 십대 여성의 발달을 침해하기 일쑤인 성적 권력 관계에 도전하는 잠재력을 갖는다.

초기 성 관계의 빈도에서 인종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앨런 굿마허 연구소(Alan Guttmacher Institute)에 의하면 “1980년대의 여성의 성적 활동 증가의 대부분은 고소득층 백인 십대 여성층에서 발생하였다.”¹⁷⁰ 이러한 경향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착취를 통한 부르주아 상류 계급의 초기 성적 행동이 정상화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인데, 이를 통해 만들어진 기준은 점차적으로 노동 계급과 빈곤층에서도 착취를 생산해 낸다. 1993년 중부 태안의 사립 여자 예비 고등학교 상급생들에 대한 조사에서 1108명의 응답자 중에서 67명을 전제로 해서 40.3퍼센트는 세스 경험이 있었고 이들의 92.3퍼센트는 첫 세스를 15~17세 사이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백인이며 중·상류층 집단 출신인 이 학교 십대 소녀들의 1993년 성 행동 양식은 불분슈타인과 스타르크가 1983년 성인들에게서 보았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63.2퍼센트는 남학생을 오르가슴에 이르게 한 반면, 여학생의

50.7퍼센트가 남학생에 의해 오르가슴을 느꼈다. 여학생의 45.6퍼센트가 남학생에게 클라티드(여성기 남성에게 하는 구강 성교)를 해준 반면, 36.8퍼센트가 커닐링거스(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구강 성교)를 경험하였다.

페미니스트들이 오래 전에 확립해 놓았던 내용과 연관되는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브루스 암부엘과 클라라 라파포트는 “성적으로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단지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다음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14세의 백인 소녀 7퍼센트와 아프리카계 소녀 9퍼센트가 성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 중 백인의 2퍼센트 그리고 아프리카계 6퍼센트만이 자발적으로 세스를 하였다.”¹⁷¹ 이처럼 강제가 정상적인 성 생활의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성의 사회화는 섹슈얼리티의 애춘화를 통해 이뤄진다. 이것이 바로 강요된 세스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세스가 되는 기초 조건이다. 전미여대생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AAUW)가 행한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이것은 세스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에서의 성취까지 줄어들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경제적·정치적 종속을 만들어 내는 조건이다. 전미여대생협회의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81퍼센트가 학교에서 원치 않은 성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학생의 76퍼센트와 남학생의 36퍼센트는 성적 언사와 시선을 받았다고 했고, 여학생의 63퍼센트와 남학생의 42퍼센트는 성적인 접촉, 율커짐, 꼬집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치는 어떻게 십대의 성적 발달이 조기에 여성의 성적 종속을 가요지는지, 그리고 여성 발전의 잠재력을 갈라 버리는지 보여준다. 현재 십대들의 규범적 성 행동의 부정적 효과는 소녀들의 학교 생활 경험과 성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성애화에 종속된 소녀들 중 33퍼센트와

170) Bruce Arnsper and Julian Raygerson, “Developmental Trends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Sexual Competence in Context to Abstinence,” *Law and Human Behavior* 15, no. 1 (1993), p. 149; citing K. A. Mann, C. W. Nisbet, J. L. Foreman, “Spontaneous Sexual Activity among Adolescent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1, pp. 110~114.

소년의 13퍼센트는 학교에 가고 싶어하지 않으며, 소녀의 32퍼센트와 소년의 13퍼센트는 자신의 경험 때문에 학교 내에서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학교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여학생들의 30퍼센트는 절수가 많아졌고 17퍼센트는 전학을 생각하고 있다.²⁰

고등학교 교사인 에드 도넬란(Ed Donnellan)은 매년 14~17세 연령대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²¹ 도넬란은 성 착취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는 데 이 조사를 활용한다. 1992년에 조사한 70명의 학생 중에서, 17퍼센트는 그들의 의자에 반하는 섹스를 해야만 했다고 대답했다. 37퍼센트는 원치 않는 키스를 당했고, 23퍼센트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성기 접촉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1993년에는 여학생의 9퍼센트가 원치 않는 섹스를 당했고, 78퍼센트는 억지로 입적되다나 기강이에 성적 접촉을 당했다.

도넬란의 조사에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14살 먹은 한 여학생은 개인적으로 도넬란에게 와서 자신이 지난 9개월 동안 13명의 남자아이와 섹스를 했지만 "전 그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 걸요"라고 말했다. 포르노그래피와 언론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여성의 성매매는 실재 남자아이들의 섹스에 대한 기대를 극대화시켰고, 실재 여자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은 결코 "싫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믿음 속에서 성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의 경험을 극대화시켰다.

내가 도넬란의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몇몇 학생들은 아이 돌보기 아르바이트를 할 때 포르노그래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다. 나는 친구나 신뢰할 만한 가족 중 누군가를 전화로 불러 그들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하거나 집에 같이 가 달라고 해서 성적 착취자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단둘이 있지 달라고 강조했다. 몇몇 소녀는 이런 보호가 극단적인 반응처럼 보이거나 자신들을 약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보이게 해, 도리어 성적 인 압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조기 섹스 경험이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강제가 갈수록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면 여기서 우리는 여성 외혼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자율성, 독립성 그리고 물론 평등을 위한 기초로서 소녀와 여성들이 그들만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계획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연적이거나 본질적인 여성성 때문이라기보다 앞서서 언급한 것과 같은 조건들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의 성적 종속과 젠더 불평등의 토대이다.

성 착취를 촉진시키는 사람들이 매춘과 포르노에 참여하는 여성의 선택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성폭력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여성의 동의율 중요한 이유로 다루고 있다. 이 두 접근은 모두 남성의 성적 권력을 가부장적 억압의 체계, 즉 계급으로서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섹스 계급으로 편입시켜 종속시키고 있는 체계로부터 분리시킨다. 동의/비동의적인 순서는 거부권이 억압을 규율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을 억압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해한다면,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의의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피해자 개념은 가부장제의 정치적인 억압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면서, 여성과 소녀 들을 끊임없이 아만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고 폭력당하는, 비상호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성폭력을 당하는 위치에 배치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폭력에 종속되는 것은 성 착취와 억압의 연속체 속에서 발견되는 한 측면일 뿐이며, 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내용은 아니다. 폭력에 동의했다는 것은 억압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그것이 어떤 식의 억압이든 간에, 모든 억압에는 폭력에 대한 동의가 있다.

20)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Educational Foundation, "Heads Helms: The AAUW Survey on Sexual Harassment in America's Schools," researched by Louise Harris and Associates, June 1993, p. 7 • 8 • 13 • 16.
21) Comparisons and survey results from Ed Donnellan, 1991~92 and 1993.

노동으로서의 섹스

매춘은 여성을 섹스로 환원시키는 가장 체계적인 제도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모든 성 착취의 토대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성 착취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원형이며 모델이다. 다시 말해 만일 매춘이 성 착취와 여성의 성적 종속의 모델로서 인식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종류의 성 착취들도 효과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그 중의 많은 것은 아예 성 착취로서 인정되지조차 못할 것이다.

세슈얼리티의 매춘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매춘이 단지 새로운 노동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놀랄지도 않다. 매춘을 또 하나의 노동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노동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노예 노동인가, 봉건제의 착취 노동인가, 자본주의의 계급 착취인가?

노예 노동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의 결과물을 박탈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으며, 어린이 노동은 자유에 대한 부정이며 인간 발달상 너무 이른 시기의 노동이라고 여겨진다. 만일 동의를 기준으로 노예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졌다면, 노예 제도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노예 스스로 자신의 조건을 수용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종 차별주의와 성 차별주의의 자기 혐오가 매우 깊이 각인되어 있다.

수많은 노동 이론과 노동 시장 분석은 불평등과 이중 노동 시장을 폭로하면서 자본주의적 노동을 양어 가치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인(對人) 서비스 상품 생산에서의 노동을 생각해보자. 감정 노동을 포함하여 무보수이면서 착취된 가사 노동과 개인적인 섹스 교환 사이에는 시장 상품화된 일련의 개인적 서비스들(심리 치료, 살인, 물리 치료, 마사지 등)이 존재한다. 대인 서비스는 무엇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경계를 구분 짓는 것에서 시작한다.

심리 치료와 마사지는 특정 상황에서 가격에 따라 제공되는 적절한 치료로 규정된다. 이 행위들은 정서적·개인적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러한 처치를 통해 정서적인 그리고/또는 개인적인 만족과 쾌락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리 치료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 충동 또는 그 밖의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일부를 파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매춘과 다른 점은 섹스를 연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분야에서의 직업 윤리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손님에게 행하는 서비스가 성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모든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매춘이 노동으로서 착취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은 특정한 경험과 행동들이 과연 노동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위험하게도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가 노동에 대해 행한 연구를 페미니즘은 성에 대해 아직까지 행하지 않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자본가계 착취에서 해방된 노동, 그리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소유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은 그들이 바라는 해방과 모순 없이 미래 언젠가 여성들이 자유로운 성 노동자가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는가? 매춘이 가부장제의 성의 권력 관계의 모델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대까지 제기되지도 탐구되지도 않았으며 가망 없이 곤경에 빠져 있는 듯이 보이는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섹스가 어떤 것이기를 따르는가? 우리는 해방의 조건으로서 세슈얼리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해야 하는가?

여성의 무분가사 노동과 그것의 일부분인 감정 노동을 다루는 최근의 연구는²² '성적인 일' 또는 '성 노동'이라는 단어를 세력함으로써 위의 질문들에 대한 이슈와 답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성적인 일' 또는 '성 노동'이라는 용어는, 만약 섹스가 인신 매매자나 모주 그리고 성 산업에 의해 착취되지

22) See Arlie Russell Hochschild,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않는다면 누구나 사회 보장과 임금을 충분히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직업 또는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가와 남편들이 자행하는 노동 착취에 대한 정치적 의식이 결여된 세 '성 노동'이라는 용어는 정상적인 여갑을 부여받는다.

이 논쟁의 기저에는 보다 거대한 질문이 깔려 있다. 감정 노동이 착취적인 것은 무보수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서적·성적인 생활이 단순한 서비스로 판매 권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노동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인가?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여성 종속, 특수하게는 성 착취가 이전부터 제기해 온 질문이다. 광범위한 인간 경험의 나열에서 우리는 무엇을 노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착취적이지 않은 노동 조건을 획득할 수 있는가?

섹스를 노동으로 환원시키는 문제를 넘어서, 성 노동의 속성은 특별히 성별화되어 있다. 서비스는 남성들에 의해 구매되고 남성들을 위해 제공되는데, 성적 서비스는 남성 지배의 특권일 뿐 아니라 지배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공동체, 가족 그리고 개인들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좋아짐에 따라 생활 내부, 감정, 개인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다. 자아는 생활 내부와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발전한다.²¹⁾ 감정, 내부 생활, 개인적 영역은 성별화되어 남녀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감정 노동과 성적 서비스는 남자가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의 일부가 되었다. 남성의 정서적 발달과 성적 요구는 단순히 남성주의적 사회화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남성의 정서 생활 발육 추진과 성생활의 대상화가 권력의 배치 속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배치 속에서 감정과 섹스는 노동으로 전락되고 이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착취이다.

섹스가 가정적 의무라는 맥락에서 요구될 때, 그것은 일종의 노동이자 결혼

내 성적 권력의 차원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섹스가 또 다른 노동의 형태로 수용될 때, 인간은 인간의 성적 경험이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인간의 몸은 자아가 머무는 곳으로서 그 연합함과 취약성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몸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내면 세계에서 외부 세계로, 자아에서 타자세계로, 스스로를 넘어서 현실에까지 확장되며, 이러한 인간의 몸에는 연합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지배와 국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자본주의 시장은 우리를 인간 존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로 인도한다. 감정, 섹스, 재생산 활동이(상품화되는 것이 가능한가)를 물들 것이 아니라 상품화되어야 할 것인가?

나의 작업 원칙은, 여성 착취로서의 매매춘에 대항할 때 여성의 섹스와 재생산이 노동과 시장 교환의 행위로 환원되는 것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니스 레이몬드는 「자궁으로서의 여성」(*Women as Wombs*)에서 재생산의 아게일을 비판하였다.²²⁾ 페미니즘이 여성을 해방시키려면 여성의 섹스와 재생산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인간의 연합함과 취약성을 침해하기보다는 그것을 보호하는 경험으로서 섹스와 재생산을 다루어야 한다. 나는 성적 동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적인 경험으로서의 섹스 안에 있어야 하며 존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가부장적 지배 구조로서 결혼이나 매매춘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남자가 인간적 존엄성과 개인적 존중을 침해하지 않는 섹스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은 구조화된 가부장적 권력의 외부에 놓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세슈얼리티의 매춘화에서

21) Richard Sennett, *The Fall of Public Man: On the Social Psychology of Capitalism* (New York: Vintage, 1978), p. 27.

22) Janice G. Raymond, *Women as Wombs: Reproductive Technology and the Birth Our Women's Problem*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93).

생산되는 계급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의 논리는,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포르노에 대항하는 여성 운동의 모든 가정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즉 섹스가 해방의 조건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인간적인 경험이 될 것이고, 해방과 애정 그리고 인간적 존엄성을 가져다주는 개인적인 상호 작용이 될 것이며, 원하는이들에겐 재생산의 경험이 될 것이다.

매매춘 옹호론

소수이지만 꽤나 시끄러운 매매춘 옹호 운동에서, 일부 여성들은 그들의 매매춘을 '성 노동'이라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으며 억압되지 않은 섹스 경험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시모니조비즘을 여성들을 위한 성적 특유의 행위로써 옹호하는 일부 이성애자와 페즈비언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포르노그래피를 조정하기 위한 이 운동 그룹은 FACT가 이끌고 있으며, 케를 뎀스와 같은 이들이 이러한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²³⁾ 많은 여성들은 그들 삶의 선택된 영역으로서 포르노그래피의 세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동시에 또 다른 여성들은 '매춘 경제성'을 긍정적으로 주장한다. 이들은 이런 문리를 통해 비인간화된 것인가 아니면 다만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제성을 주장하는 것인가? 만약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포르노그래피와 매매춘의 섹스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 섹스가 선택된 것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해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매매춘에서 교환의 해악을 비가시화시키고 섹스를 삶 속에서 경험되는 풍부함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그것을 오로지 인간의 의지 안에 위치시키면서 매매춘의 경험을 동의의 문제 안에서 차폐시킨다. 이것은 소비주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선택을 강조

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이끄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변형이다. 이렇게 본다면 매매춘의 섹스는 여성의 계급적 조건이 아닌 개인의 사적인 선택으로 축소되어 버린다. 개인의 선택을 공공의 선택보다 우선시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선택된 가부장적 폭력은 자본주의적 시장 교환에 이바지한다.

성 착취에 대한 여성주의 분석은 실제로 살아 있는 경험 속에서 여성들의 계급 조건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에 대한 여성주의의 관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본래의 행위로, 살아 있는 경험으로, 섹스가 행해지는 그곳의 조건으로 되돌려서 그것이 인권 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인권에서 매매춘이라는 것은 그 행위, 그 경험과 제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이는 개별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여성의 계급적 조건이라는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그 행위가 착취적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인간의 삶과 복지와 존엄성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폭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별화되어 있어서 수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자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억압이다.

그런데 일부 매춘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 착취를 옹호하고 그것을 여성의 자유 혹은 자기 결정권의 조건으로 다룬다. 예리히 구르가 지적했듯이, "우리를 중 많은 수가 그 일을 하고 싶을 만큼 그 행위가 매력적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행위의 부정적인 측면을 '중성화'시키거나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없애 버려야 한다."²⁴⁾ 왜냐하면 "스스로를 정복하는 일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²⁵⁾ 그러므로 매매춘의 일탈적인 지위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해악을 중성화시키는 것과 그 해악을 제시하고 제임고 스릴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화시키

23) Carol Vance, *Plagues and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Berkeley: Routledge & Kegan Paul, 1984).

24) Erik G. Groll, *Deviant Behavior: A Feminist Approach* (New York: Praeger-Hall, 1978), p. 72. Based on Graham H. John and David Mann,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Dec. 1962), pp. 604-420.

25) Ibid., pp. 604-420.

고 장려하는 것이다. 매춘의 경우에 그것은 비인간화를 자신의 정체성 속에 적극적으로 통합시켜 그것을 삶 속에서 끌어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비인간화된 상이란 바로 그 속에서 자신이 탈속화된 성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비인간화 과정을 마치 인간의 본래적인 조건인 것처럼, 온전한 자아의 행위인 것처럼 경험한다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파괴화를 마치 적극적인 선택, 총체성, 제의와 즐거움인 것처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인간화를 자신에게 장려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의 사회적 낙인을 중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장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춘을 옹호 운동이 시작되고, 부부간·연인간의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섹스가 유희하게 되며, 레즈비언 사도마조히즘도 장려된다. 그러나 매춘의 장려는 단지 사회적 낙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만이 아니다. 매춘을 옹호론자들의 로비 활동은 성적 관계가 전반적으로 비인간화되는 문화 속에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세슈얼리티의 매춘화라고 간주한다.

매춘을 공개적으로 옹호한다고 해서 매춘이 중화되거나 낙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을 착취하는 섹스의 사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매춘을 옹호 운동의 정치적 맥락은 성적 권력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매춘의 섹스를 자신이 선택한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성의 억압을 촉진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매춘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구매자가 구매하는 비인간화되고 대상화된 섹스를 스스로 촉진시키는 것이다.

매춘을 옹호하는 여성에게 있어 매춘을 중화시키는 작업은, 매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매써 거리를 두고 자신들로부터 분리시켰던 그 모든 것들, 즉 그들이 거리 두기에서부터 탈신체화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계들을 거쳐

서 설정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면화하고 매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하던 것과 정반대로 매춘에서의 섹스를 그들 자신의 자발적인 경험으로 내면화하는 일이다. 매춘 여성이 매춘 행위를 하는 동안 자신의 육체에서 이탈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매춘화된 섹스를 체화하는 일이다. 거리 두기에서 탈신체화까지 모든 것을 경험한 여성은 소수의 매춘 여성들만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행위를 거부하지 않는다. 매춘은 성 착취이기 때문에, 자아에 해로우며 섹스를 통해 자아를 파괴하고 여성들을 비인간화시킨다. 즉 자신이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성적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곧 본래의 자아가 분리시켰던 그것을 다시 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방식은 있을 수 없다. 본래 본질적으로 체화된 매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매춘을 마치 성 착취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곧 성적 비인간화가 본래의 인간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전행적인 예로 매춘을 옹호 로비 활동은 매춘의 법적·사회적 수용을 장려함으로써 그것의 부정적 위상을 중화시킨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국제적 성 산업에서 세상의 눈을 끌리는 역할을 한다. 만일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매춘 활동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에 통합시키기 위해 단지 '일탈성의 중화'만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매춘이 안전 정체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탈적'인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매춘 여성 조직들이 자신들에게 붙은 일탈의 딱지를 떼어내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매춘 여성들이 일탈자로 여겨지는 한, 대상화된 섹스를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통합시키는 모든 여성들은 스스로가 매춘 여성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 문제는, 누군가가 생각하는 일이 사회에서 일탈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보는 '일탈성의 중화' 이론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매춘은 일탈로 여겨져 왔지만 세슈얼리티의 매춘화를 통해 그 일탈적

2장 성적 권력 101

성격을 잃어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매춘이 점점 더 정상적인 섹스 경험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춘 여성이 자신의 행위를 노동이라고 변호하고 장려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부과된 일탈의 딱지를 중화시키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위한 섹스의 교환을 그저 단지 섹스 로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섹스'라는 경험하여 포획되는 모든 형태의 대상화와 비인간화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세슈얼리티의 매춘화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매춘의 섹스가 정상화되는 방식이다.

포르노그래피의 정상화와 세슈얼리티의 매춘화 속에서, 섹스의 경험은 성적 고통이 있었는지 아니면 성적 비하가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권력 관련이 없어진다. 매춘의 정상화는 자유 의지 또는 동의만이 강조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산물이다.

많은 비매춘(nonprostitute) 여성들이 매춘을 옹호론을 지지하는 이유를 세슈얼리티의 매춘화에서 찾을 수 있다. 비매춘 여성들의 매춘을 옹호하는 매춘의 낙인을 없애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비매춘 여성들이 매춘을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와 매춘 여성 사이의 구분을 더욱 강조할 필요성에서 오는데, 특히 세슈얼리티의 매춘화로 인해 실행위 자세에서는 두 집단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매춘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세슈얼리티'가 단지 매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비매춘 여성들이 자신이 참가자가 아니라 관객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정 여성들을 매춘부라고 부르건 '성 노동자'라고 부르건 간에 어떤든 그들을 분리된 범주로 묶어 두는 것이다. 비매춘 여성들의 매춘을 옹호하면서, 비매춘 여성들과 매춘 여성들 사이의 분리가 유지된다. '성인들간에 동의한 섹스'의 매제-술간임을 하는 여성들이 '성 노동자'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으로써, 일반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혼, 데이트, 익명적 관계, 무탈(無傷)성 관계에서 똑같은 섹스를 하더라도 참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것을 한다.

성적 권력 관계

모든 성 착취를 가부장적 억압의 살아 있는 실제 경험 속에 위치시키는 일은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다. 성적 권력에 대한 이론을 탐구한 루소는 『성의 역사』(History of Sexuality)에서 상당히 가까이 다가갔다. '세슈얼리티'라는 용어가 19세기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루소는 성적 권력을 초역사적인 생물학의 영역이 아니라 역사 안에 위치시켰다. 그는 권력을 오직 국가나 일반적인 제국 상태 위에 있는, 다시 말해 공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서만 확립하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해를 거부하였다. 루소는 이전의 세슈얼리티 이론가들에게서 무시되었던 사회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끌어들이 이를 분석함으로써 성적 권력을 이론화하였다.

루소가 우리에게 말한 권력으로서의 섹스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 이것은 공산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강력한 단일성 아래 모든 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매순간에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⁷⁹ 루소는 성적 권력 관계를 "고유적 제국을 구성하고 작동하는 영역 안에 내재해 있는 복잡한 힘의 관계들"로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⁸⁰ 결과적으로 그는 섹스와 권력의 영역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예컨대 남성과 여성 사이,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사제와 평신도 사이, 행정 당국과 대중 사이에서, 권력 관계들을 위한 필요 있는 전이 지평을 구성한다. 세슈얼리티는 권력 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요소가 아니라 최고로 다양한 전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매커니

79) Foucault, p. 93.
80) Ibid., p. 92.

가 수많은 계층을 위해 유용한, 참으로 대단한 도구성을 부여받은 요소 중의 하나이다.¹²⁾

섹스가 어떻게 권력으로 구조화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개별적 내용들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그것이 작동하는 자점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푸코 이론의 문제점은, 그가 미시 영역에서의 성적 권력을 밝혀 노라 권력의 계급들을 만들어 내는 집단적 조건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¹³⁾ 성적 권력은 모든 영역에서 작동한다. 이것은 개인적 커를 관계 내에서, 그리고 동시에 집단적·제도적·공적 차원의 성적 관계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성적 관계에서 "권력은 어느 곳에나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오기 때문이다"라는 그의 인식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는 구조를 제거하였고, 그럼으로써 권력을 무형의 것으로 만들면서 권력의 위계성을 무효화시켰다. 권력을 정의하면서 푸코는 그것을 정의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이론은 권력에 대한 책임감을 덜어냈다.

푸코의 말처럼, 성적 권력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곳으로부터 오지만 그것의 작용은 관계성으로 나타난다. 푸코에게 "주체란 없다." 억압의 주체는 신분 확인을 교묘하게 피해 나간다. 권력에 대한 푸코의 정의는, 성적 권력이 "권력 관계들의 다중적인" 상호 그물망 속에서 "순간순간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푸코는 권력을 결혼, 어머니, 구조적 불평등의 맥락 안에서 성별

로 구조화된 위계로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결국 그가 의하리고 예했던 그 지점에 도달하고 만다. 권력에 대한 푸코의 정의는 국가 차원의 권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가부장제 권력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남성주의적 권력 이론을 강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푸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위하고 지배자에 의해 만들어진 피지배자는 단지 수동적인 존재로 행위한다고 보는¹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단순한 이분법적 대립¹⁵⁾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하다. 권력의 관계에는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이 존재한다. 권력은 상호 작용을 통해 생산되는데, 이 상호 작용에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억압된 '피지배자'와 '지배자' 양자 모두가 참여한다. 비록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능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다. 상호 작용을 탐구함으로써 권력을 드러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성의 권력 관계에서 특히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다. 여성 참여에서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당한 학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로소 의식이 노출되면서 이전에는 모호하던 권력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남성과 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성적인 착취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처럼, 권력은 한 성이 일방적으로 다른 성에게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남성과 소년들도 성 착취를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계급으로서의 여성 집단에 대한 성적 권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의 이분법적 대립개념적 남성 및 소년 대 개별적 여성 및 소년에 대한 집착은 대량남성들과 소년들이 당하는 폭력은 여성이 당하는 폭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낳고 이것은 소년에 대한 성 착취를 지배의 예외 조항으로 만든다.

그러나 푸코가 주장하는 이분법적 대립의 거부는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처럼 성적 권력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대립 넘어의 것을 보려는 여성주의 이론과 같은 전체에 근거하지 않는다. 푸코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12) *Ibid.*, p. 193.

13) Nancy Hartsock, "Toward an Epistemic A Theory for Women" in Linda Nicholson, ed., *Women's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Chapman & Hall, 1990), pp. 117-119에서는 푸코가 지배자를 어떻게 포착하고 있는지를 이율배반이라고 있다. 파도스온 이 책의 168-169쪽에서 푸코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회 구조의 차이를 놓쳤다고 지적한다.

있어 이분법적 대립을 거부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지배가 행해지고 끊임없이 성적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커를 문화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이탈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권력을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푸코는 권력의 주체를 비가시화시키기 때문에 권력 관계를 사라지게 만든다. 섹스와 권력을 연관 지으려는 노력 속에서, 푸코는 성적인 인간 관계가 변증법적으로 위계화된 성적 권력 관계로 변하는 커를 세도를 폭로한다. 그러나 이론가가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현실을 숨길 뿐이다. 사회로부터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적·개별적 권력 구조를 제거할 수는 없는 법이다. 권력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푸코의 '권력 관계의 다중성'은 그 자체가 담지한 다함성의 골자에 빠질 뿐이다. 지배는 이러한 권력의 다중성 속에서 개별화되고 결국 확인 불가능한 것이 된다. 푸코에게 있어 커를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개별화된 성적 권력 관계는 집단으로서 체계적인 지배를 가져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적 권력에 대한 그의 정의에서 푸코는 개인간의 성별화된 권력 관계로서의 계급 조건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개인간의 성적 권력은 그것과 구분되는 그 나머지 제도적·체계적·국가적 지배가 없다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푸코는 헤겔엘리타를 그 각각의 경우로 상대화시켰다. 헤겔엘리타가 "최고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최고의 도구성을 부여받았다"는 개념은 우리를 아무곳으로도 이끌어 주지 못한다. 하나의 성적 관계와 다른 성적 관계 사이에 아무런 유형이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권력은 관계적이다. 이것은 억압자와 피억압자 모두를 적극적으로 연루시킨다. '권력 관계의 다중성' 안에서 권력은 계급들, 즉 경제적 계급자본가와 노동자, 인종적 계급(백인과 유색 인종), 그리고 성 계급(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작동한다. 주인과 노예의 상호 의존에 대한 해설의 실패와, 자본가와 노동 계급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권력 관계가 힘의 위계로

변증법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피억압자를 착취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억압자들에 의해 유지된다. 억압은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퍼져 있기도 하다. 직접적인 폭력은 '타자'를 종속시키는 억압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입터로 가서 그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에 받는다. 그들의 노동 가치와 그들이 받는 임금의 차액이 바로 자본가의 이익이 된다.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는 임금과 이윤의 차감 계산 안에서 유지된다. 이것이 바로 지배의 상호 작용의 기본이며, 억압자와 피억압자 관계의 토대이다. 권력에 대한 관계적 이론은 종속된 자들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스스로의 종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곤 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해럴드 마르크스의 권력 이론은 억압을 유지시키는 상호 작용적인 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억압의 역동성을 밝혀 준다.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의 경제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권력은 상호 작용적인 성적 관계를 성적 착취로 만든다. 이로 인해 남성 지배의 관계적 권력은 개인과 몸이 도달한다. 성 착취를 살아 있는 경험으로서 고려하고, 통화에 의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성행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성 착취를 조정하는 제도 즉 매매춘과 결혼의 맥락에서 그것을 분석할 때, 억압은 실제적 맥락을 갖게 되고 성 계급이라는 조건이 드러난다.

여러 가지 지배 관계를 중에서 오직 여성의 종속만이 계급적 관계인 동시에 사적인 관계이며, 성 관계처럼 은밀한 상호 작용들이 동시에 권력의 관계가 된다. 계급으로서의 남성에 의한 계급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 차별주의는 개인적인 관계들을 통해 작동하는 계급 관계이다. 여성 계급의 종속에 대한 여성주의 권력 이론은 개인적 상호 작용,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차원에서 작동하는 신체적·정서적 관계들에서의 권력을 밝혀내야만 한다.

가부장제는 권력 관계의 계급적 조건들을 남녀간의 섹스젠더 관계 위에

없어 놓음으로써 계급 관계와 성별화된 대인 관계를 거의 완벽하게 일치시킨다. 이것이 여성 억압을 복수하게 만드는데, 세스가 연루되는 성별화된 대인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것은 고도로 공식적·가시적·구조적인 동시에 개인적이다. 즉 감추어져 있고 비밀스러우며 육체적·정서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성 권력의 권력 관계는 매매춘,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결혼 안에서 제도화된 동시에 개인화되어 있다. 세스는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진 가운데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관계적 권력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앙리 레비-스트로스는 "권력"을 지적한다.³⁴ 그들 세스 그리고/또는 집단 공간을 제외하면 성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권력 관계는 구조적으로 개인화되고 그러면서도 상업화되게 마련이다.

사회적 성적 관계에서의 권력이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성 산업에서의 권력도 부인된다. 세스가 사업과 다국적 복합 기업을 통해 산업화됨에 따라, 미국이 제3세계를 지배하는 권력 관계 안에서의 세스의 사용도 비가시화된다. 결과적으로 성의 권력 관계에서 개인이라는 단위는 여성을 매매하고 상품화하는 성 산업의 발전과 국가 정책에 의해 실현되는 동시에 유지된다.

이러한 성의 권력 관계화는 맥락에서, 즉 여성 억압의 개인적이고 성화된 자질에서, 여성들이 (여성주의 입파나 실질적 경제적 대안이 없는 상태로) 집을 떠날 때 서구에서의 기술, 제3세계에서의 이민 그들은 거의 대부분 세스의 공적·정치적 제도인 매매춘에 빠져든다. 또다시 유색 인종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대안을 가로막는 인종 차별의 권력 관계와 서구의 해체모이는 빈곤한

여성들을 위한 정상적인 조건으로서 매매춘을 불러들인다.

권력은 복이 된다. 그것은 "타자"를 종속시킴으로써 자제 계급을 위한 이득과 우월적 지위를 생산한다. 성 착취는 여성에게 심대한 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남성들이 얻는 이익은 단순히 남성에게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성 착취는 여성을 후퇴시키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악 속으로 퇴락시키기 때문에 발전과 성장을 향한 여성의 성취 능력을 좌절시킨다.

여성주의 정치 의식 대 이데올로기

십 년이 넘도록 나의 책 『여성 성 노예제』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에 귀기를 이면서, 나는 몇몇 여성들로부터 이 책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읽을 수가 없다"거나 "너무 기분을 차갑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듣는 한편으로, 그들의 경험이 착취와 노예 상태였음을 이 책이 폭로해 주었기 때문에 혹은 단순히 지혜가 명명되고 밝혀졌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여성들의 반응도 접했다.

이 밖의 다른 반응들 중에는 이 작업을 '피해자 페미니즘' 또는 '남성 죽이기'로 분류하는 것도 있다. 미국에서 이것은 그저 단순한 반응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다. 해방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페나 시끄러우면서 언론에 의해 과대 포장된 이러한 공격은, 페미니즘의 '정치적 올바름'을 공격하는 보수주의 진영과 자유주의자들과 손잡고 등장한다. 그들은 여성 억압을 부인함으로써 성 차별주의와 인종 차별주의, 동성애 공포증과 환경에 대한 사회의 저항 및 정치적 각성을 침묵시킨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변호라는 형태의 안티페미니즘이 여성 운동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익과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 세력의 연합은 새로운 것이다. 캐시 로이퍼는 페미니즘의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 우익 진영 및 자유주의자들과 공모한 위험한 여성 운동의 전형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결정 있는

34. See Alan Corbin, "The Secret of the Individual" and "Treasoned Beliefs," in Michelle Rose, ed., *Arthur Schlesinger, Jr., A History of the Private Life, Vol. IV*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pp. 277-314.

비판들을 출처로 인용하여 데이트 강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여성들이 4명 중 1명 꼴로 대학 내에서 데이트 강간을 당한다고 밝힌 메리 코스(Mary Koss)의 통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 운동을 옹호하면서 로이퍼는 여성들을 오토지 피해자로 보는 것과 "남성들은 모두 음탕하고 여성들은 무죄"라고 보는 관점을 문제 삼는다.³⁵ 로이퍼는 여성이 술을 마신 후나 미약을 한 후에 벌어지는 강간에 대해서 여성의 주체성을 지적한다. 마치 사회가 성별화되지 않고 가부장적이지 않다는 뜻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1960년대 말 미국 여성 운동의 출현 이래로, 좌익 정치 세력들은 오늘날 윈디 카미네(Windy Kamene)가 『뉴욕타임스』에 로이퍼를 옹호하기 위해 실은 다음의 글과 같은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탈정당화하기 위해 자학적으로 매번 한다. "자신이 성적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통해 특권을 여성에게 부여한 여성들이 인종 차별주의와 계급 차별주의 그리고 동성애 공포증의 피해자들에게 양도된 고결한 도덕성에서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³⁶ 로이퍼에 대한 카미네의 자지는 좌익 내의 안티페미니스트 여성 운동의 가원을 시사한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우익의 비난은 독자적 페미니즘을 특권을 부르주아 운동이라고 휘아내리면서 탈정당화하려는, 좌익이 25년간 밀어 온 캠페인에서부터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말하거나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게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좌익은 여성 운동을 무효화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성 착취에 대항하는 운동들은 페미니즘을 단순히 경제 계급의 이슈만을 다루는 것 이상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로이퍼는 비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운동을 하거나 여성 문제를 책이나

언론, 여성학을 통해 때론 일부 여성들을 대표한다. 전반적으로 여성학은 페미니즘의 행동주의와 분리되면서 정치적으로 여성에 대한 비정치적 학문이 되었다.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끌어올린 의식의 고양으로부터 태동했지만, 많은 여성들이 여성주의 의식과 정치적 해방을 개인적 선택(건강한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로 다시 대체시켰다. 점점 더 정치적 의식이 퇴락해지면서 운동은 개인적 선택의 차원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미국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와 거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초기 '나(I)me' 세대의 유산이다. 이것은 문제가 바로 옆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간에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나 권력으로부터도 떨어져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다루게 만들었다. 즉 어떠한 것도 그들 자신의 마법 세계 바깥에 존재하게 한 것이다.

1990년대 현재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볼 위험에 처해 있다. 1800년대에 이르기자 1850년대에 시작되었던 여성 운동의 정치적 의식이 사라져 갔다. 운동은 급속도로 비정치적인 개척으로 환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女權)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제외하면 세상의 나머지에 대해 확확적인 당시의 자체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받쳐 주었다. 그 세대가 페미니즘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것은 1960년대까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 차별주의에 대해 침묵하게 했다.

1990년대 중반 여성 운동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어렵게 정해진 의식을 통해 형성된, 여성 해방에 헌신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고집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 운동의 반응의 뿌리는 무엇인가? '남성 죽이기'라는 용어는 비난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첫째, 이것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여성들과 가장 반동적인 우익, 특히 이 말을 만든 러시 린코(Rush Limbaugh)와 같은 사람들의 공모를 상징한다. 이제 우익 선봉가와 성적 자유주의자들과의 반동적 제휴 속에서, 일부 여성들은 그들의 여성주의가 남성들, 인종 차별주의자들, 이성애적 성 차별주의자들, 도덕자들을 '죽이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35. Kate Knight, "Don Rap's Other Victim," *New York Times*, June 15, 1993, p. 40.
36. *New York Times*, September 18, 1995.

그 전략은 직접적이지도 솔직하지도 않다. 추측컨대 성적 권력 관계가 의식화
 와 여타의 운동들과의 행동주의 속에서 표면화됨에 따라, 일부 남성들, 백인
 들, 이성애자들 그리고 환경 오염자들은 자신들의 집단과 구성원들이 점차로
 부장직과 착취의 가려자로 인식되는 것에 불편해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성적
 권력에 맞서기보다는 억압을 드러내고 부장직에 대항하는 여성들에게 눈을
 돌리면서 우리가 여성을 피해자로 환원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주장
 은 정치적 의식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만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의식은 피해자
 라는 것이 단순히 수동성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제니스 레이
 온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오래 전,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되던 초기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선택이 가
 부장직에 의해 구성되고 부당 지워지고 몰 지어지고 손상되고 제약되고 제
 한받고 강요되고 형성된 것이라는 데 화전의 일치를 보았다. 어느 누구도 이것
 의 책임을 여성의 선택에 잘못 지어졌다거나 여성이 수동적이거나 가부장제의
 부당한 피해자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여성과
 삶을 변화시키는 페미니즘의 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분명히 가부장제
 의 손아귀에 있는 나긋나긋한 순종자이거나 사회적으로 결정된 역할 속에 있을
 때는 여성들이 변화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¹⁷⁾

지금의 운동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 불 붙던
 시기에 그곳에 없었던 여성들에 의해 갈수록 더 주도되고 있다. 수십 년간의
 침묵 이래 처음으로, 여성들은 스스로를 계급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에 여성주의 운동

을 특징 지었던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비정치적인
 개인주의의 수렁에 빠지 그것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이 바로 심라 제프리스가
 정의한 성 자유주의론인데, 즉 "성적 표현은 본래적으로 해방적이며 심지어
 이것이 타인에 대한 착취와 아만 상태를 수반하는 때에도 감없 없이 변성되도
 록 허락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정치적 신념과 행동의 양식"을 말한다.¹⁸⁾
 이제 분명해진 것은 '성 자유주의'도 '반동'counter도 개인적 선택이라는 물의
 식적 이데올로기를 지칭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익과 자유주의자 둘 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점점 더 여성 운동은 강간을 비난하기 위해서 강력한
 물리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지, 특히 성적 권력 관계가 사회에서 여성-
 남성의 상호 작용을 형성하면서 일상 생활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강력한 물리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1970년대에 우리
 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강간 반대 운동을 시작했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데
 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레이건 행정부 초기에 사회적 서비스 삭감과 사회
 저항 운동에 대한 검열 위협 이래로 성폭력에 반대하는 여성 운동이 수학적
 취지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 수많은 강간 위기 센터와 때 맞는 아내를 위한
 업터들이 서비스 대상과 내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사회 복지 서비스기관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 단체들은 그들이 받고 있던 얼마 되지 않지만
 귀중한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로이피와 소위 '남성 죽이기'
 운동으로부터 남성들을 보호하려는 여성 전위 부대는 레이건 반동 정부에
 의해 촉발된 자발적인 자기 규제를 지속시키고 있고 이것은 부시 행정부에서
 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우익, 근본주의자, 정치적으로 반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여성들 간의 이상하고도 위험한 중직함이다. 이들은 개인적 선택을
 주장하여 강간을 정상적인 섹스로 취급하고, 포르노그래피를 장려하고, 인종

17) Janice G. Raymond, "Sexual and Reproductive Liberation," in Doreen Leithold and Janice G. Raymond, eds.,
Sexual Liberty and the Attack on Feminism (Boulder, N.Y.: Praeger Press, 1998), p. 103.

18) Doreen Leithold, "Introduction," in Leithold and Raymond, eds., p. ix.

적 출산을 인종적으로 '순수한' 환경에 대한 개인적 선호로 여기고 동성애
 혐오를 레즈비언과 게이 조직과 동맹어저서 살며 일하고자 하는 개인적 선택
 으로 여긴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개인적 선택의 옹호가 자유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조건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여성 운동보다 우세해진
 다면 이것은 종국에는 자유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며 개인적 선택을 옹호하는 정치학과 캠페인의 때
 악은, 이것이 시장 경쟁과 소비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자본주의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표현이 됨에 따라 괴역압 집단들에
 게 더욱 가혹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적 선택이 그
 어떠한 집단적 선이나 사회적 인성보다 우선한다는 이데올로기 환경을 조성
 한다. 이때 자유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부터 사구와 제3세계의 관계에 이르
 기까지 구조적·정치적으로 부과된 불평등의 맥락에서 행해지는 개인적 선택
 으로 정의된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의식을 개인적 선택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구성된 물의의 문제로 돌려 버리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 이데올로기가 후기 산업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지배를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성폭력 반대 운동에서 "싫다는 말은 싫다는 것"(No Means No)이라는 슬로건
 은 여성들이 자신이 거절하는 남성에게 원치 않는 성적 경험으로 놓여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강력한 주장이지만, 동시에 여성은 동의가 없었을 때, 분명하
 게 싫다고 말을 했을 때에만 성적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은
 곧 여성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 여성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때 여성들은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간을 동의에 대한 침묵으로 정의하는 것은
 성을 착취하고 피해자가 되게 하는 행위로부터 개인적 의지의 문제로 정치적
 의식의 강조점을 이동시킨다. 이것은 억압 문제를 성 착취의 계급적 조건에서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파른다. 이렇게 해서 때론 여성들은 성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때론 여성들은 그들이 섹스의 대가로 돈을 받는 교관
 시장에 스스로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학대와 폭력과 비인간적인 섹스를 위해
 존재하는 여성, 즉 '타자'가 되기 위한 존재가 된다.

성 자유주의의 가부장적인 권력은 손상된 판단을 정상적으로 보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협소한 의미의 동의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를 전개시켰다. 가부
 장적인 법은 개별적으로 당하는 강제에 대해 대응 수는 있지만,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억압에 대항하는 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 착취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면 그런 식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대단한 범죄가
 아니게 된다. 그러한 법은 여성이 성적 권력에 종속되는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은 모든 사례들을 개별화시킴으로써 집단적 조건
 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자체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도 교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오로지 억압을 분석하는 집단적 해방 운동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여성의 종속은 우리가 그것을 여성의 정치적 현실로 의식하게 되기 전까지
 는 침묵 속에 가려진 채 정상적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극단적인 형태의 억압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은 우리를 여성으로서 비인간화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일이다.

침묵을 깨고 성 착취의 아만적 현실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정치
 의식화가 필요하다. 의식화는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새로운 담으로
 변화시켜서 권력을 폭력하게 하고 실현하게 한다. 성 착취에 직면하여 권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가 없는 채로 무지에서 담으로 나아간다면, 기존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또는 고통 그 자체와 만나게 될 뿐이다. 즉 성 착취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 의해 해체될
 수도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게 된다.

모든 성 착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갈망, 즉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분열과 침체이다.

매체론과 근친 강간은 행동이와 같다. 양자 모두 소녀 및 여성들을 스스로의 자아로부터 분리시키고 온전한 전체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 존재를 분할하면서 나눌 수 없는 것을 조각 내는 여성 종속의 태러적인 모델이다. 성 정치학에 대한 의식화는 과편화되었던 전체를 다시 복원한다. 이것은 자유 및 행동의 보대가 된다.

여성주의 정치 의식은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 또 우리 자신의 문화적·국가적인 특수성과 전세계적인 공통체 및 전지구적인 페미니즘 사이에서 변증법적인 상호 작용을 하게 한다. 정치 의식화는 우리 개인의 집에서부터 공동체로, 개별 국가에서 전세계 경제로 그리고 전지구적인 정치 질서로 사회적 지형에 대한 의식을 확장시킨다. 국제적 페미니스트 행동주의는 우리를 가부장적인 권력에 대한 분석으로 이끌게 마련이다.

의식화는 세스가 착취되는 조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과 세스 교환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의식화는 단지 지적인 과실이 아니다. 정치적 의식화는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경험을 고통스러운 종속자로서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잠재자로서 알게 해준다. 나는 여기서 초월성을 영적이거나 막연한 뜻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주의 의식은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지식인데, 구체적인 현실을 만들어 내는 지배에 대해 아는 만큼 이들 조건들을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여성주의 의식은 남성 지배의 전체적 지형, 즉 억압을 인식한다. 억압에 대한 의식은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고, 비전을 전체적으로 하여, 행동을 보다 심화시킨다.

페미니즘에 대한 온난 비판으로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피해자로 환원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합당한 자'로 파악함과 그 그리고 또는 때때로 자로 인식하는 일은 오로지 정치적 의식화를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의식화의 잠재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역동적이고 강력한 알은 '정치적 음파음'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정치적 의식화의 힘은 가부장적 지배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개인에게 태평적이다. 의식화되지 않았거나 의식화되기 이전의 알은 개인들에게 고립된 채 경험되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말해지지지도 않은 그 무엇이 된다. 알은 타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립은 알을 상대화시켜 개인 내부의 심리적 조건으로 규정해 버린다.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피해자로 환원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동안, 지배로 인한 여성들의 고립되고 억제한 분노와 고통은 임상적 조건들, 즉 고통의 물리적 근원으로 환원된다. 객관적인 지식은 자아의 인과 밖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억압의 경우에서처럼 자아를 의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의식화의 경우에서처럼 집단적 행동의 보대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객관적 지배를 극복하는 것을 의지의 행동으로서, 심리적 상태로서 다루는 개인적 힘의 태양(exposure)은 억압에 대한 지식을 개별화된 개인 감정과 선호 안에 파도리는 이상주의적 접근이다.

의식화는 객관적 조건들을 정치적인 조건으로 인식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개인화되고 고립된 지식을 재구성한다.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은 피해자화를 재정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이상 개인 내부의 경험으로서 인식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의지나 통제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과학의 가부장적 지배를 아는 것과 관련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성 억압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에 달려 있다. 내가 논하고 있는 의식화란 개인적 현실에 대한 정치적인 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행동은 현실에 대해 저항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바꿀 것이라는 바꿀야 한다는 알과 확신을 포함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알은 집단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고 그 가능성을 알게 될 가능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제한

을 넓어지게 한다.

의식화는 성 착취에 대항하는 여성 운동의 행동주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지식과 정치적 대결의 기반이다. 그것은 성 정치학에 대한 의식화이며 지배와 억압의 사회적·정치적 현실에 직면하는 의식화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개인적·집단적으로 강한 때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 자유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보대가 되기도 한다. 성 정치학에 대한 의식화는 여성들이 거리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집에서 도망쳤을 때, 그리고 또는 치료를 받으러 갈 때 만날 수 있는 지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의식화는 정치적인 투쟁과 알 속에서 구성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치적 의식화는 다차원적이고 내포적일 때만이 여성 주화적인 것이다. 그것이 전지구적이지 않다면 의식화가 아니다. 그것이 억압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을 다루지 않는다면, 단지 부분 수정을 통해 가부장제를 보다 잘 작동하게 하려는 개량에 불과하다. 만약에 여성 운동이 서구에서의 모로코나 제3세계의 안진 때에 문제처럼 성 착취의 문제가 되는 전체 조건들을 다루지 않고 오직 하나의 이슈에만 대항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여성주의 의식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단일 이슈 페미니즘은 억압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과 모순된다. 제3세계 여성들을 착취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성 정치학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서구 여성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등장하는 계몽적 페미니즘이 그렇다. 마찬가지로 전면적 있는 여성 미학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에 때문에 끝없는 빈곤을 남에서는 현실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극심한 여성의 생애화가 현실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 여성주의 의식은 이러한 현실들을 극복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의식화란 정확한 정치적 분석을 하거나 정답을 인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이다. 이데올로기는 특정 권력 배치를 정당화하는, 구조화되고 미리 만들어진 사고의 장치이다. 정치적 의식화 대신에 이데올로기는 현재 상황

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거나 미리 만들어진 정치적 분석을 하게 한다. 이라는 달리 의식화는 일상의 현실을 권력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구조화된 권력을 보고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의식화는 매일 일상 속의 권력과 지배와 종속을 드러내 주는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 접근될 수 있다. 페미니즘은 국가 내에서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공식적인 것에서만 아니라 침대 안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들에 저항해야 한다. 서구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을 위한 법적인 투쟁을 할 때 시장 경제를 합리화하고 개인주의를 고무하는 법률적 자유주의가 문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은 국가와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성주의 의식화의 실패가 비로소 등장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나의 작업으로부터 법률적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털어내기 위해서 그것의 한계와 대면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의식은 이러한 과정중에 있다. 1983년 나는 스페인의 연구자 한나 올슨(Hanna Olson)을 만났는데, 그녀는 중요한 정부 연구를 '매춘 보고서'(The Prostitution Report)의 책임자였다. 한나와 나는 이미 1981년에 스페인의 매춘에 관한 우리의 연구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었다. 우리는 지구의 다른 곳에서 살며 서로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었으면서도, 똑같은 주제로 연구했고 심지어 매우 유사한 결론을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출판했다는 사실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매춘 보고서'에서 한나가 "사랑 없는 남성 사회"에 대해 말하는 동안, 나는 나의 책 '여성 성 노예제'에서 포주들의 유인 전략으로서의 친절하기와 사랑하기(매매적인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1983년 내가 소집한 국제 회의의 긴급한 안건들을 뒤로 하면서 한나는 내게 솔직하게 물어 왔다. "말소사, 개시, 때 묻어 노예제라는 표현을 써야만 했죠?" 매춘이 얼마나 노예화시키는 일인지 그녀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질문 뒤에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나도 모르게 나는 여성의 선택이라는 '자유' 강제' 이론법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나의 생각 때문에 『여성 성 노예제』에서 매매춘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전략으로서 비범죄화를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시장 교환을 장려하는 개인주의에 의해 배척되고 제한된 미국적 권리 개념과 싸워야 하는 미국적 사고의 덫이라고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그 덫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 극도로 과도한 개인주의는 권리를 개인적 권리로 한정시키고 그림으로써 권리를 도구화한다. 시장 경제를 장려하는 개인주의 아래에서 권리는 온전한 인간적 조건을 함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 경제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으로 전락하고 결국 개인주의의 경쟁적인 측면을 촉진하게 된다. 안위를 개인의 동의로 축소시키는 것은 권리의 의미를 시장 경제에 봉사하는 것으로 도구화하는 말이다. 이렇게 도구화된 때 권리는 인간 삶의 질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 미국의 실 자유주의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권리는 시장 경제의 용어로 이해된다. 즉 개인의 선택과 의지가 인간 경험의 내용과 질보다 우선시되는 탈규제화된 인간 조건으로서 이해된다.

내가 이 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여성주의 인권 개념에 의하면, '동의'는 자유의 지표가 아닐 뿐더러 동의의 부재가 착취의 일차적 지표 또한 아니다. 자유주의적 동의 개념은 억압에 대한 여성주의 분석을 개인적인 잘못으로 축소화하고 페미니즘을 개인주의 윤리학 속으로 빠뜨린다. 이것은 섹스를 동의와 의지의 문제로 제한하는 것이고 섹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경험되는지, 어떻게 권력으로 구성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 및 제도의 차원에서, 비인간적인 섹스의 실제 경험은 여성에게 해악이 되고 섹터 계급을 유지시킨다. 이것은 억압이다. 억압에 동의하거나 대상화되고자 하는 '희치'를 갖는 것이 보이는 것은 억압의 한 조건이다. 이것은 결코 자유로운 선택의 표현이 아니다. 섹 착취는 억압이다. 이 말은 섹 착취가 피억

압자 집단 안에서 수용되고 심지어 장려될 것임을 뜻한다. 억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태의 억압이 유지되는 방식이다. 동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마도 착취의 한 측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착취를 규정하는 결정적 특징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자유가 일차원적인 동의 개념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전반적 조건, 여성의 조건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계급으로서 여성에 대한 모든 착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폭력을 반대하는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운동은 광범위한 성적 억압에 거는 결론에서 여성들의 성적 종속과 테이트에서 섹스들의 성적 종속이 포함되듯이 매매춘도 포함한다의 일부분에 대한 도전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나는 동의의 문제나 강제의 개념은 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매매춘을 강간으로부터 잘못 분리시킨다고 본다. 결론, 테이트 그리고 강간의 경우에 여성들이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그들이 섹스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창녀가 아니라는 사실. 즉 그들은 섹스를 위한 몸종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점점 더 "싫다는 말은 싫다는 것"(No means No)이라는 명제인 수준으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은 강간이 섹스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매장 투쟁은 이러한 일은 수준의 요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성적 권력에 전면적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여성들이 우리의 온전한 섹스를 생략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4장 성의 산업화

1970년 이래로 매매춘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매매춘이 산업화되고 정상화 되었으며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매매춘은 여성 특히 신흥 개발 경제 안의 여성들에게 밀려들었다. 현재 매매춘의 규모는 타이에 200만, 한국에 150만, 필리핀에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성의 산업화는 국내외 해외의 고도로 조직화된 여성 매매와 널리 퍼져 있는 비공식적인 앞선 방식을 통해 수십 억 달러 규모의 전지구적인 여성 시장을 형성한다.

산업화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교환을 위해 제조된 상품과 서비스의 대량 생산을 의미한다. 나는 이 글에서 '성의 산업화'를 상품화 생산, 즉 섹스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본래 섹스화되거나 매매될 수 없는 인간의 자아로부터 나오고 또 그 안에 있는, 원래 시장 교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상품으로 만든다. 성의 산업화는 대규모 상품 생산이다.

매매춘의 산업화는 ① 전쟁이나 외국 점령 시기의 군대 매매를 위한 대규모 여성 매점, ② 경제 발전을 위해 외화 소득을 올리는 관광 산업의 발전, ③ 특히 지역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면제된 수출 자유 지역의 여성 노동력 착취를 통해 여성을 주변화하는 수출 지향적 경제 발전에 뒤이어 일어난다.

매춘은 산업화는 각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첫째, 성 산업은 경제가 산업화되기 이전에도 외국 군대나 사업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번성했다. 군대 매춘과 섹스 관광은 산업화의 결과이기도했지만 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산업 발전에 선행해서 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매춘과 이와 관련된 성 산업들, 즉 거대한 국제 호텔 체인점, 항공사, 술집, 섹스클럽, 마사지업소, 매춘업소, 매춘 알선업자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중요한 경제 세력의 하나가 되었다. 여성매매로 어린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는 상품이고 산업은 이들을 통해 섹스를 판다.

둘째, 호텔, 항공사, 관광 산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거대 기업이라는 전통적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모주, 알선업자, 조직 범죄와 같은 대규모의 지하 경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성 산업은 여성의 몸을 사용해 남자에게 섹스를 팔아서 막대한 수입을 얻는다. 국가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 성 산업은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3장에서 설명할 것이다)에 있는 여성을 철저하게 착취한다.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여성이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 산업은 노동 시장이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 매춘에서 벌 수 있던 수입보다 더 높은 수입으로 여성들을 사게 된다. 개발 경제의 국가적·개인적 산업 통제와 산업화 이전에 이미 가족 내에서 할당된 여성의 노동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 때문에 매춘은 일부 가난한 여성들에게 유일한 경제적 가능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 전체 사회의 물질주의적 수준 향상을 가속화시킬수록 매춘은 여성들이 산업화의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훨씬 그럴듯한 수단이 된다. 여성들은 정상화된 성 산업의 맥락 속에서 물질적인 소득을 위해 매춘을 시작한다.

그러나 매춘 시장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의 수요에 의해 달려간다. 산업 경제 이전과 초기 산업 경제에서는 남성이 군 복무나 사업을 위해 집과 가족을 떠나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의 수요가 가장 컸다. 전쟁은 주로 여성

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난민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적 재배치를 야기한다. 전쟁중의 대규모 강간은 그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들을 성 산업의 상품으로 생산해 낸다. 강간당한 여성과 소녀들은 모주와 조직 범죄단의 그물망에 꼭혀 잘 걸려온다.

1992년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인들이 감행한 대량 학살에서 인종, 청소의 일환으로 자행된 대규모 여성 강간은 마을과 거리에서뿐 아니라 수용소에서 일어났고 일부 여성은 그러한 목적으로 수용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유럽공통법에서 파견한 전상 조사단은 분쟁이 시작된 후 약 2만 명의 이슬람교도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추정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인권 기관에서 파견한 또 다른 전상 조사팀들도 이슬람교도 여성에 대한 대규모의 강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이 1993년 보스니아에서 발생했던 강간을 조사하면서 그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3년 말까지 유엔은 신원이 확인된 800명의 희생자를 포함해서 3천 건의 보고를 받았다.

도움이 필요했던 보스니아의 여성들은 국제적인 여성 운동 덕분에 이러한 범죄에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수단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식 집계와 추정 건수 사이의 계속적인 불일치는 더 이상 여성에게 적절하지는 잔혹 행위를 물어 버릴 필요가 되지 못한다. 이치는 대조적으로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중에 발생한 여성에 대한 대규모 강간은 전쟁의 보이지 않는 결과였다. 1993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보스니아 인종 학살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규모 강간을 하나의 특별한 사건으로 다루었다.

여성에 대한 강간은 적남들을 모욕하기 위한 군사 전략으로 알려져 왔으나, 강간과 포로노그라피, 거기에서 파생한 매춘은 휴식과 오락(R & R)의 일종이었고 평화유지군도 분명 예외가 아니었다. 수용소에서 발생한 강간이 포로노그라피 영화로 만들어져 왔다는 보고 이후, 수용소의 군인들은 매춘

을 위해 이러한 여성들을 이용했다. 1993년 12월 유엔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라(Boutros Boutros-Ghali)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993년 말 소나스(Sepas)에서 이슬람교도 크로아티아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한 세르비아 군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라예보의 재판에서 드러났던 혐의들을 조사하도록 했다. 사라예보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소나스에는 레스토랑, 병거, 수용소 등으로 추측되는 것들이 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평화유지군이 그곳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1993년 11월 1일 뉴욕에서 있었던 재판에 대한 "뉴스데이"(Newsday)지의 보도에 따르면, 세르비아인들이 매춘을 위해 여자들을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동안 몇 명의 여성들이 유엔군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장교 한 명이 전했다. 강간과 매춘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경우에는 세르비아인이 평화유지군에게 여성을 성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별살바도르 시민 전쟁 이후 수도 산살바도르의 매춘 여성 수는 군대의 대규모 수요로 1991년에 1만 9천 명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³¹ 별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국가 테러리즘하에서 이루어진 정치·군사적 탄압에는 성 학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성적 학대는 국가 테러리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언급조차 할 수 없다. "어떠한 저항의 행위라도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모든 지원의 길이 막혀 있다. 이 때문에 단지 암묵한 경험으로 시작된 일이 마지막에는 끝나지 않는 재앙이 되어 간다. 파괴적인 경험, 자아의 말살은 모두 테러를 유발하는 보다 큰 그림 안의 하나의 세부적인 일부분으로서 존재한다.³²

여기에는 매춘이 포함된다. 매춘은 여성에 대한 중층적인 고문과 억압의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다. "젊은 여성들이 전체 군대의 공동 재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명의 군인에게 자신의 몸을 사용 재산으로 주는 관행이 별살바도르 전쟁 지역에서 목격되었다."³³

매춘은 자발적이건 강제적이건 상관없이 전쟁과 정치적 억압과 고문의 시기에 일어나는 성 학대의 한 형태이자 결과이다. 결국 매춘은 아드리안느 아론과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 확인된 군대 성 학대의 공식에 잘 들어맞는다.

확인할 수 있는 성적 학대의 형태는 그것이 다음 중 어떤 형태에 속하는지에 따라 잘 구분된다. ① 한 여성이 구금되어 있을 때 군대의 관리 운송 절차(XOP, medical operation system, 예를 들면 고문의 구성 요소로서의 강간) ② 여성이 지역 사회에 거주할 때 관리 운송 절차를 들어 군대의 연장으로 성적 학대를 허용받은 군인에 의한 학제적인 착취 ③ 야단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학대.³⁴

제3세계에 구금하고 있는 군인들의 성적 수요는, 사업가들이나 R & R 휴가 중인 군인들이 구매하는 여성들로 가득한 시장을 형성해 왔다. 매춘 알선업자들은 대도시의 버스 정류장과 기차 역에서뿐 아니라, 제3세계의 가난한 벽촌 시골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손에 넣어 일하고 있다. 이들은 군인과 사업가의 대규모 시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매춘의 섹스 서비스를 위한 여성의 대규모 산업화와 함께 많은 여성 인구가 매춘화되었다. 필리핀이나 타이와 같은 나라에서는 여군들이 모두 매춘 관행지로 변했다.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유감지라

31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in El Salvador, 1989-91," Children's Rights International, 1991, p. 26.

32 Adrienne Aron, Susan Gamet, Andrea Fordland, Barbara Zahner, "The Gender-specific terror of El Salvador and Guatemala: Paramilitary State Violence in Central American Refugee Wome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6, No. 1-2, p. 41.

33 Ibid., p. 40.

34 Ibid., p. 38.

군사 전략 기지가 된 인천, 필리핀과 타이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배앰은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이들 나라의 여성들은 경계를 살리기 위해 아내와 배앰부로 매매되었다. 남성들은 유럽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타이완에서 섹스 관광을 온다. 이러한 섹스 관광은 이 나라들의 주요한 외화 수입 원천이다.

군대를 위한 매춘 시장: 한국

전쟁중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섹스 시장에서의 여성 판매는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경제 발전 이전부터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중국의 일부 지역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점령 당했다. 전쟁중에 일본 군대는 10~20만 명에 이르는 한국 여성에게 일본군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도록 강요했다. 1944년 4월 일본 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야마구치 사령관이 발표한 동원령에는 전쟁을 위한 노동력 동원에 "황군들에게 봉사할 자원으로 100명의 한국 여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¹¹ 1991년 12월 도쿄지방법원에 세 명의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소인 중의 한 사람은 이 "자원대"가 여성을 납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성 노예로 모집한 여성을 위한 한국위원회의 증언자들은 "이들 중 절반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납치되었거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길을 가다가 경찰서로 호송되어 강제로 모집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²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소'(미군 R & R의 일본판에 매치

되었다. 위안소는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다.¹³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낸 고소장은 모집된 여성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군 위안소는 중국,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제도, 일본 등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었다. 전황이 악화되어 일본 군대가 철수하게 되었을 때 군 위안부를 중 일부는 버려졌고, 일부는 일본군과 함께 방배를 계속하도록 강요 당했으며, 나머지는 살해당했다. 이런 식으로 군 위안부들은 일본 군대에 의해 서 소모품으로 취급되었다.¹⁴

이들 군 위안부의 약 80퍼센트가 한국 출신이며, 나머지는 일본, 미국, 필리핀,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알려지지 않은 수천 명의 한국·중국 여성들이 섹스 감옥 안에서 죽어갔다.

위안소의 이용은 오직 군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고 '세카이칸'은 군사의 용명을 떨치고 있던 6연대와 9연대가 이용했다. 군인들은 위안소에 들어가기 위해 표를 사야 했다. 그들은 '사무실'에서 '이표'를 접어들고 돈을 내고는 표와 휴지, 콘돔을 받았다. 표에는 위안부의 이름과 발 번호가 적혀 있었다. 대개 군인들은 여자를 지명하거나 선택할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은 해당된 여자의 방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계급에 따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낮에는 사병들에게, 초저녁에는 하급 장교들에게, 그리고 늦은 밤에는 고급 장교들에게 시간이 배당되었다. 규칙을 어기는 군인들은 수감되었다. 한마디로 군 위안소 이용 규칙은 군대 규율의 일부였다. 실제로 현행은 이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11. From Petitio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y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Sexual Service to Japan, p. 16.
12. Ibid., p. 14.

13. Speech of President of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 12th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Austria, June 14-25, 1993.
14. Ibid., p. 23.

순찰했다. 군인이 위안소에서 소란을 꾀을 때는 헌병에게 보고되었다.¹⁵

한국과 일본의 여성 단체들이 수년 동안 계속 압력을 넣은 뒤인 1992년 초, 일본은 마침내 "여성들을 강제로 군인과 성 관계 하도록 하는 데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고 인정했다.¹⁶ 얼마 후 네 명의 중국 여성이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 한국 여성과 함께 매춘을 강요당한 수많은 중국 여성의 일원으로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¹⁷ 일본 정부는 문제를 통해, 군대의 관행으로 허용되는 전시 강간이 일본에 대한 정령지하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군인들이 점령 지역의 여성들을 강간하는 것을 막고자 매춘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들은 일본 정부가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완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한국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이용했던 일본군은 그 후 미군 점령기에 미군이 한국 여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인 기자 아요리 마츠키는 매춘이 종전 후 일본에 주둔하는 군대를 위해 준비된 조달품의 하나였다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 정부는 일본 여성을 미 점령군의 위안부로 제공했다. 일본이 항복한 날로부터 6일 후인 1945년 8월 21일 개최된 각료 회의에서 당시의 무임소장관인 고노에 후미마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우리는 섹스에 굶주린 미군으로부터 우리의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3일 후에 시정국장은 매춘업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놓고 "우리는 4천만의 꽃과 같은 일본 여성

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여러분이 미군을 위한 '위안' 시설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3천만 엔(현재의 돈으로 대략 3백만 달러)을 긴급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특수위락시설설립협회'(Association for the Creation of Special Recreation Facilities, 후에 위락오락협회[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RAA])로 불린다의 설립을 공포하는 법안이 8월 28일 미 점령군의 첫 번째 연대가 도착하는 때에 맞춰 광둥 할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곧이어 RAA가 지원하는 최초의 군대 매춘업소인 고마치 가문이 도쿄의 오모리가에서 개업했다. 8월 30일 전직 매춘부였거나 "선 일본 여성 모집, 숙식·외복 제공"이라는 광고에 속은 약 100명의 여성들이 미군에게 돈을 바쳐야만 했다. 일본의 군 사령관은 문자 그대로 공습으로 불타 버린 도쿄의 폐허 더미에서 연기가 새 시작지기도 전에 생겨나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25곳으로 늘어났다. 한창대는 7만 명의 '위안부'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¹⁸

처음에는 일본군, 나중에는 미 점령군을 위해 조성된 한국의 매춘은 후에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한 군대 매춘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는 일본인 사업가들을 위한 섹스 관광으로 발전했다.

베트남과 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은 남베트남공화국 군과 연합해서 싸웠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패배했다. 그들의 적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에 군대를 갖고 있던 베트남 공산주의자였다. 미군은 베트남의 적군을 조종하고 대상화하여 '노랑이'(gooks, 아시아 인종을 비하하는 속어—음진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마도 이들을 손쉽게 죽일 수 있도록 하려던 것 같다. 미군들에게 군복을 입은 '노랑이'

15. "Story of Being Sold On, Korean Women 'Comfort Women' Sold to Japan," statement prepared for the 12th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Austria, June 14-25, 1993.

16. New York Times, January 14, 1992.

17. New York Times, August 9, 1992.

18. Yajun Ma, "Sexual Slavery in Korea," *Perspectives: A Journal of Women's Studies* 2, no. 1 (Spring 1973), pp. 27-28.

는 종산주의자들을 의미했다. 그러나 어떻게 군복을 입지 않은 나머지 민간 베트남인과 이들 노랑이를 구별했는가? 신장이나 키였는가? 여성은 그냥 장녀였을까 아니면 '노랑이 장녀'였을까? 전쟁, 특히 베트남전쟁에 인종 차별주의는 군인들에게 이국적인 성을 팔기 위해 성 산업이 채택한 전략의 일부였다. 처음에는 프랑스 식민주의자들, 다음에는 미군 등 침입자들과 인종이 달랐던 베트남 여성들은 베트남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침입자들의 짝이었으며 동시에 돈을 주고 사서 소유할 수 있는 섹스였다.

베트남에서 매춘은 전쟁중에 벌어졌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중 하나였을 뿐이다. 전쟁중에 남성들은 대규모 강간을 통해서 그들의 적을 모욕했다. 아시아의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이 강간을 당하면 대개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거나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리 라이 핵이술원은 전쟁중에 베트남 중부에서 한 농촌 마을에 살고 있던 심대 소녀였다. 처음에는 베트남 공이, 그 다음에는 미군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공화국 군이 매일 마을에서 밀고 밀리는 가운데 그녀는 양편 군인들 모두에게서 강간을 당했다. 베트남전쟁에는 강간당한 여성들이 특히 불명예스럽게 여겨졌다. 그들이 강간당한 것은 가문과 마을, 지역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다. 매춘은 핵이술원과 같이 '결혼할 기량이 없는' 여성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이었다.¹⁵⁾ 전사의 성 산업은 성폭력과 강간이라는 군사 전략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강간당한 여성은 군사 전략의 피해자였지만 매춘의 유일한 공급원이기도 했다. 미국이 많은 군인들 베트남에 쏟아 붓자 매춘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남성이 돈을 주고 매춘 여성을 살 때, 자신의 부인에게서는 비밀이라는 점, 종교가 이를 금지한다는 점, 그리고 불법이라는 점이 남성들을 유혹한다. 군대 매춘의 또 다른 매력은 의심할 바 없이 마을과 가족을 강탈당한 다른 인종의 여성을 성적으로 미화시키는 것에 있다. 성 산업은 인종 차별적 편협함으로

시장을 형성한다. 그들은 다른 인종 여성의 몸을 섹스 시장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손님의 인종 차별적 호기심을 만족시킨다. 인종·민족·문화적 차이는 금지되어 있던 성 상품화의 일부이다. 구매자가 여성의 몸을 살 때, 다른 인종의 여성들은 흥분을 고조시키며 또 하나의 경계를 형성한다.

여성 매춘은 구매자에게 여성의 몸뿐 아니라 다른 인종 문화를 갖고 있는 '유색'의 몸을 제공함으로써 손님의 인종 차별주의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미군이 그들의 적을 노랑이라고 부르면서 대상화할 때 베트남 여성들은 성이 실제로 구매되는 것처럼 많은 장녀로 전략하였다. 베트남에서 미국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으로 대상화되거나 위협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걸프전에 참여한 여군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또한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위협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눈에 보이는 미국 여성들의 존재는 처음부터 장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군사 요원, 군인의 부인 또는 관공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종 차별주의는 피지배 인종 집단의 여성이 남성에 의해 강간이나 매춘을 통해서 성 착취를 받는 대상으로 선택될 때 지배 인종 집단의 여성적인 미국 여성을 성 착취부터 보호해 주는(보호) 역할도 하지도 않았지만 기능을 한다. 인종주의는 성 착취에서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의 분리를 유지시킨다. 그러나 1992년 미 해군의 태일족 회담(Tailhook Commission)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들이 드러났듯이, 특별히 인종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나 미국 여성이 임무를 수행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섹스를 위한 몸장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갖게 된다.

다음은 민족 해방 운동과 그 군대에 관한 이야기이다. 미군과 남베트남공화국 군과는 반대로 베트남 민족 해방군은 지역 여성에 대한 강간과 매춘을 금지하는 엄격한 윤리 강령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이 항상 현실은 아니다. 특히 남성 주도적인 혁명 운동에서 모든 군대가 여성 성 착취에 개입하고

(15) Li Lai Hsieh, with Jay West, *When Heaven and Earth Changed Place* (New York: Doubleday, 1995), p. 224.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중에 미국과 남쪽의 공화국 군 지휘의 사이공에는 매춘이 번성하고 있었던 반면, 북쪽 호찌민의 민족 해방군이 통제하는 하노이에는 매춘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타이와 필리핀이 미군의 K&D 휴양지가 되었던 것처럼, 군대 매춘이 섹스 관광으로 이어지는 양상은 베트남전쟁 동안 되풀이되었고 더욱 심화되었다. 베트남전쟁에 그리고 그 후에 베트남, 타이, 필리핀 여성의 매춘이 미군을 위해 단계별로 증진되었다. 방콕의 꽃동 거리는 성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꽃동 방콕의 큰 골목'(*Papong Bangkok's Big Little Street*)이라는 책에서 전직 '방콕 포스트'(*Bangkok Post*) 기자는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꽃동 거리가 지금과 같은 부화 명성을 얻는 것이 가능했을까 의심스럽다"고 되물어내고 있다.¹⁶⁾

1965년 남베트남에서 군대 매춘을 위한 모집은 동남아시아의 주요 문제거리가 되었다. 1965년 이워드 박사가 실시한 유엔 노예 조사는 라오스에서 매상 거래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매춘부 모집은 남베트남에서부터 타이, 라오스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⁷⁾ 처음에는 술집 여성, 그 다음에는 다남의 해군을 위한 아시아업소를, 그 뒤에는 "빈빈 사탕가와 아시아업소, 도그레차(Dogrecha)로 알려진 막막 거래지가 차례로 기지 주변에 생겨났다."

1960년 중앙 고지대 안케(Au Khe)의 제1기병대, 사이공에서 북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라이케(La Khe)의 제1보병대, 그리고 프레이부(Freibu)의 제4보병대는 기지 안에 공식적으로 군대 매춘업소를 설립했다.……

전쟁중에 집과 가족을 잃은 난민과 이전에 사이공 술집과 거래한 경험에 있는 군인들이 주로 매춘업소를 만들었다.……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매춘부의 알선과 가격 조정을 떠넘기면서 손을 대지 않고 있던 미군이 직접 건강과 안전

을 통제하고 관리했다.¹⁸⁾

결국 매춘부들은 "현지 내국인 방문객"으로서 베트남에 주둔한 미군 기지의 공식적 환영을 받았다. 사이공 근처의 롱빈(Long Binh)에서는 군인들이 군 기지 밖에서 기다리는 30~40명의 소녀들 중 아무나 현지 내국인 방문객 자격으로 기지 안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군대 사탕가는 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시설을 이차에서도 출입 통제 매춘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남쪽의 공화국 정부는 이 지역의 매춘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30퍼센트를 가져갔다고 알려져 있다.¹⁹⁾

사이공의 거리들, 불용의 군사 기지와 미군 주거 지역 주변 그리고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있는 지역들은 술집과 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술집들은 거의 전적으로 미군 남성들에게만 유흥을 제공해 주었고 어떤 때에는 각 술집마다 고객들과 약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게 부추기는 호스트스들을 5명에서 20명까지 보유하고 있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술집들이 비엔 호아(Bien Hoa), 농타우(Nong Tau), 나트랑(Nha Trang), 다낭(Da Nang)에 있었고 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작은 규모를 이루며 나타났다.²⁰⁾ 필리핀을 비롯하여 군대 매춘이 번성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마찬가지로 매춘을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쟁으로 사별한 여성이거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 아니면 강간의 피해자들이었다. 매춘 여성들은 가족을 타국 밖으로 내몰린 여성들이었다. 봉건 제도하에서의 떠돌이 여성의 지위는 전시에 전쟁으로 인한 사회 변동으로 더욱 악화된다.

종전이 되고 남베트남에서 철군할 때 많은 미군은 베트남인이 주도하는

(16) Alan Davies, *Papong Bangkok's Big Little Street* (Singapore: The Women Press Press, 1988), p. 25.
(17) Richard Pines Perle, "Vietnam, Consequences of the game," *Le Monde*, June 2, 1971.
(18) Neil Johnson, *Understanding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 315.

통일을 위해 밀고 들어오는 북베트남 군으로부터 남베트남의 매춘 여성들을 '구해' 내려고 했는데 이것은 여성들을 다시 매춘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젊은 미국인들은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술집과 매춘업소를 들면서 매춘 여성들을 찾아 모아 베트남 밖으로 탈출시켜 주었다. 어떤 남자는 사이공에 네 번이나 갔다 왔으며, 그때마다 다른 '아내'와 몇 명의 '처제나 처형'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함께 떠나기를 거부했던 한 매춘 여성은 그녀의 자칭 '남편'이 호놀룰루에서 베트남인들로부터 구성된 매춘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CIA에서 일했다고 말했다.¹⁹¹

디 데이 헤이슬립은 자서전 『하늘과 땅이 바뀔 때』(When Heaven and Earth Changed Places)에서 부패한 베트남인의 일선으로 베트남 주둔 미군에게 끌리고 있는 노예 매매와 군대 매춘을 설명하고 있다. 마치 선택되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뜻이. 매춘은 전쟁중에 여성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로 당연시되었다. 반대로 소녀들이 매매되면 임신 매매는 노예제로 간주되었다. 헤이슬립의 자서전은 그녀 자신을 비롯하여 거리에서 눈에 띄는 여성들을 누구나 매춘부라고 여기는 군인들에 맞서서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헤이슬립은 대부분의 경우 매춘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끈질기게 거부해야만 했다. 그녀가 거리에 나설 때마다 군인들이 그녀를 매춘부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과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미군에게 물건을 팔아 거리로 나설 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 그녀는 베트남 여성이었기 때문에 매춘부로 여겨졌고 심지어 아무리 강하게 거절해도 자신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미군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웠다. 한 번은 누군가 400달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면 자신과 어머니가 1년간 먹고살

191 Alan Hansen, *Fifties for Dop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5), p. 267.

수 있는 돈이어서 그녀는 매춘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날 이후에 이 두 명의 미군을 남자가 되게 해주는 거야. 아직 젊어 보지 않았던 일을 그들이 내게 하는 것뿐이야"라고 말하면서, 매여 매춘을 벌 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다.¹⁹² 베트남에서의 노예 매매에 대한 헤이슬립의 묘사는 자발적 매춘과 강요된 매춘 사이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살기시켜 준다.

이 소녀들은 매춘부가 아니라 시골에서 벌어지는 전부를 피해 버스를 타고 도시로 나온 젊은 여성들이었으며, 일부는 아직 사춘기로 지나지 않았다. 이 소녀들은 나치집 농촌에서의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였으며, 좀더 안전하고 나은 생활을 하라고 전직들이 도시로 보낸 아이들이었다. 한 대외 과난민 버스가 도착했을 때 아주 잘 생긴 젊은 남자 두 명을 동반한 젊은 여자가 버스에 탄 사람 중에서 가장 부나 보모 일을 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 왔다. 이러한 일들은 소녀들이 도시로 가면 찾아보라고 물어 왔던 작업이었고, 잘 생긴 남자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귀여운 어린 소녀들은 그 주변에 제발러 모여들었다. 그 여자는 좋은 가정에 편종은 임금으로 일할 가정부 자리를 약속하고는 "그 일을 할 수 있는자를 보기 위해서" 며칠간 거기가 사는 것으로 데려가 일하게 했다. 새로운 부리의 소녀들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면 여자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때때로 소녀들을 복속시킨 후 그녀가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첨부되기도 한다. 그녀의 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부패한 관료이거나 이상한 성격 취미를 가진 부자들이었다. 일부는 타이, 싱가포르, 심지어는 멀리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구매자들이며 이 소녀들을 넘기기도 했다.¹⁹³

192 Hayden, op. cit., p. 224.
193 Ibid., pp. 225-226.

전쟁의 격렬함 속에서, 억압은 전쟁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차이에 대한 구분과 통찰을 준다. 헤이슬립은 "정기적으로 매춘을 하는 여성은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했다"고 설명한다.¹⁹⁴ 매춘에 있어서 여성의 '선택'과 '자유 의지'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절망적 차이에서 나온다. 매춘의 세계에서 "군사 시설 근처에 있는 가장 빈 매춘업소는 길 주변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과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현지 소녀들에게 세를 준 작은 집이다." 거래는 때때로 술집이나 호텔, 클럽, 골목길에서도 이루어진다.¹⁹⁵ "소녀들 중에 많은 경우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나치집 강간을 당해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다."¹⁹⁶ 그 다음 계층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하는 매춘부인데, 그들은 마담과 매춘을 위한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는 매춘업소의 마담은 매춘 사다리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전쟁 피해자로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에게 "문제될 게 뭐야? 안 될 이유가 뭐야?"라고 하면서 적군의 매춘 요구에 용해 살아남은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있다.

1972년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1973년 남과 북이 통일을 했을 때 약 50만 명의 베트남 매춘 여성들이 있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매춘 여성들을 미국을 통해 얻은 남베트남 '피해' 정권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실서의 피해자로 간주하였고, 전쟁의 종결과 함께 베트남 새 정부가 국가 재건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성병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부 관리들은 강력한 정계인으로도 성병을 다스리는 데 6~8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⁹⁷ 매춘 여성의 34퍼센트가 성병에 걸려 있었다. 이들 여성들은 치료, 검진과 치료를 포함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지방 출신 매춘 여성

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했으며, 가능한 경우 가족과 재결합했다. 원래부터 도시에 살던 여성과 소녀 들은 기숙 학교인 여성재활학교(School to Rehabilitate Women's Dignity)에 보내져서 장사를 배우고, 작업 훈련을 받고, 정치 강화를 듣고, 문화 활동에 참여했다. 비용은 각 도시의 혁명 정부가 냈다.¹⁹⁸ 1970년대 말 베트남이 통일되어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게 되자 서구의 일부 인권 단체들은 정치범들, 즉 남측에서 미군의 후원을 받던 폐당한 공화국 정부의 동조자들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매춘 여성들과 함께 재교육 센터로 보내졌다. 매춘 여성을 위한 재교육 센터가 실제로 부속된 정치범을 위한 센터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1979년 비정부 기구인 휴메니타스(Humanitas)의 조사관들에 의해서 매춘 여성들이 정치범처럼 대우받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나는 1991년 1월과 1993년 1월에 베트남을 방문해 전쟁 후의 매춘을 통제와 감소 노력의 성공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다. 호치민 시의 사회학자이자 여성학과장인 부이 티 킴 부(Bui Thi Kim Quy) 교수의 말에 의하면 종전과 더불어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전시에 매춘을 했던 여성의 3분의 2가 전통 사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가난에 떠밀려 있던 전후 베트남에서 많은 수가 다시 매매춘으로 유입되었다. 재할 프로그램과 사회주의 정부의 금지령은 매매춘을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하에서 모호노 그라피가 사라지고 포주 행위가 통제되었으매 매매춘이 감소했지만, 시장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성은 계속해서 여성의 몸매에 대한 수요를 생산해 냈다.

1986년 '도이모이' 개혁, 베트남의 경제사회주의와 함께 자유 시장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자 매매춘은 즉시 증가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경제 상황이 향상되고 소비가 증가하자 남성들은 무엇보다도 여성의 몸을 사는

194 Ibid., p. 224.

195 Ibid.

196 Ibid.

197 *LA Press*, June 1, 1987.

198 "La réhabilitation des victimes prostituées au Sud Vietnam," *Forum et Réflexion*, no. 36 (Cahoy, France, 1987).

대 여공 돈을 썼다. 도이모이 전에 사이공의 매춘 여성은 1만 명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 내가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나는 그렇게 낮았던 수치가 3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아냈다. 1993년 하노이 여성연구센터의 레 티 퀴(Le Thi Quy) 교수의 연구는, 베트남에 10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 가량이 호치민 시에 있다고 추정했다. 사이공의 매춘부들은 1987년 1만 명에서 1991년 3만 명으로 증가했고, 1993년 현재 5만 명으로 증가했다. 매매춘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매춘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었다. 레 티 퀴 교수가 매춘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여성의 75퍼센트가 매춘을 자신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²⁷⁾

1991년 매춘을 위해 베트남 여성을 타이에 팔아넘기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인신 매매는 대개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 여성이 캄보디아에서도 매춘을 하게 되었다. 1993년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1만 명의 베트남 매춘 여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유엔 평화유지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고 있었다. 극심한 가난과 질병이 전후 몇 년 동안 베트남을 강타한 데다, 미국의 통상 금지 정책으로 더욱 가난을 부린 점 때문에 매매춘은 억제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지도층은 매매춘을 조장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일을 버리고 다른 이슈들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전쟁 전이나 전쟁중에도 사회주의 지도층은 여성 운동을 반역적인 일로 간주하였다. 여성을 위한 입법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여성 조직으로 여성연맹(Women's Union)이 있지만 당 지도부에 도전하지는 않는다. 그 당시에는 시장이 불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성 확립은 금지되었다. 이제 1990년대 베트남

에서는 시장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그 발전 과정에서 여성이 주변화되고 있으며 매매춘도 부활되고 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여성이 도시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적 성 산업이 이런 여성들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3년에 베트남 여성들의 의식 향상은 매춘의 급격한 증가에 강력하게 맞서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냈다.²⁸⁾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정부는 여성들을 보호할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매매춘을 1993년의 10대 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섹스 관광: 군대에서 비즈니스 시장으로

산업화된 대규모 매매춘은 몇몇 아시아 국가에 주둔했던 외국 군대에 의해 시작되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및 북아메리카에서 온 사업가와 남성 관광객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섹스 관광과 우편 주문 성우 사업은 군대 매춘을 바탕으로 형성된 두 가지 주요 성 산업이다. 남성을 위한 섹스 관광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두 개의 힘, 즉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과 미국의 아시아 전역에 걸친 대규모 군사적 배치에 있었기 때문이다.²⁹⁾ 제2차 세계대전중과 그 후의 군대 매춘에 이어, 일본 시장에서 매춘 섹스 관광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다. 일본의 섹스 관광은 처음에는 타이완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한국으로 옮겨갔다. 베트남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졌던 미국의 대규모 군사 매춘에 이어,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의 매매춘에 대한 시장 수요가 생겨났다. 이후로 섹스 관광 사업은 특히 타이와 필리핀에서 발달하고 있다. 1970년 말엽부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섹스 관광 시장은,

27) Le Thi Quy, "Social Policy on Promotion and Restriction of Prostitution in Vietnam," Vietnamese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lloquy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3.

28) William Bell, "From American Love to a People's justice," in *London Political Environment and French Initiative, Le de Gaul Time Ball Squandered and the U.S. Military in Asia* (New York: New Press, 1992), pp. 24-25.

일본인들이 미국인, 유럽인, 오스트레일리아인들과 함께 필리핀과 타이의 섹스 관광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이 지역에서 매춘이 형성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여성들의 이농 현상에 있다. 이 여성들은 매춘으로 매매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춘에 눈을 돌린다. 이 문제는 3장에서 다룰 것이다.)

한국

사업가들과 남성 관광객을 위한 섹스 관광이 1970년대 아시아에서 급증했다. 1980년대 타이완의 관광객들은 주로 남성이었다. 1984년 타이완에 여행 온 일본인 관광객의 81.8퍼센트가 남성이었으며, 이 중 70퍼센트가 사업가, 세일즈맨, 사무직 노동자였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페이의 주요 매매춘 시장은 후이샹(Huixiang)가의 똥간(Lungshan) 사원 주변에 노점상들이 벽책이 들어선 30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구역이다. 이곳에서 밤의 피와 술개들이 남성들에게 정력제로 팔리고 있다. 타이완의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 매매에 대항하면서 이들에게 합의를 제공해 주는 '타이완 무지개 프로젝트'는 1980년에 이 지역 매춘 여성의 40퍼센트 이상이 산악 부속에서 팔려 온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이라고 보고했다.

1970년대 초기에 일본 남성들의 섹스 관광 수요는 한국 기생 관광으로 확대되었다.³⁰⁾ 1972년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 사업가들은 타이완 매춘 관광을 남한의 기생 매춘으로 바꾸었다.

현재 한국에는 대략 1만 8천 명의 매춘 여성들이 27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4만 3천 명의 미군을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³¹⁾ 술집과 클럽이

있는 소규모 성 산업 도시들이 다른 지역들에서처럼 큰 가치를 몰아내고 발달한다.

군대 매춘과 이후 섹스 관광에 종사하던 한국 여성의 매춘은 1970년대 말엽과 1980년대에 들어서 한국 범죄 조직이 미국의 마사지업소 매춘을 위해 한국 여성의 인신 매매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1990년에 미국 이민귀화국(U.S. 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은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을 미국 범죄 조직(U.S. Syndicates)에 팔아넘길 목적으로 아들과 결혼한 군인들에게 대가로 1만 달러를 준 결혼 중개인들을 수사하였다. 미군들은 더러는 속아서 결혼한 경우도 있고, 더러는 본국으로 송환될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는 사기 사업을 벌인다. 미국에 도착하자 여성들은 이혼당하고 마사지업소에 팔려간다.³²⁾ 1980년대 중반 연태본에서 매춘 단속이 실시된 후 뉴욕의 한국 마사지업소 매춘은 1992년에 연태본에서 퀀트로 옮겨갔다.

서구의 사업가와 관광객들 아니라 일본인을 위한 섹스 관광은 기생 매춘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기생'은 원래 춤추고 노래하거나 손님을 영접처럼 대접하는 독립적인 여성들을 지칭했다. 하지만 이제 기생은 매춘 여성이나 화사가 경비를 지원하기도 하는 일본인 사업가와 관광객을 남한으로 끌어들이는 매춘업소 부어를 지칭하게 되었다. "2박 3일간의 공식 여행 비용이 섹스를 포함해서 200달러를 넘지 않는다."

야요리 마츠이에 의하면, 1984년 남한에는 8천 명 이상의 기생들이 매춘을 하고 있으며, 2천 명이 등록되어 한 달에 두 번씩 생일 검진을 받고 있고 서울에만 30개 이상의 기생집이 있다.³³⁾ 야요리는 매춘에 대한 소비자시장

29) Yippei Matsui, "Trafficking in Women and Prostitution in Japan," Japanese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lloquy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5.

30) "Trafficking in Women, Prostitution and Sexual Violence: The Situation of Sexual Exploitation in Korea," Korean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lloquy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3.

31) "Organized Crime in Pennsylvania: A Decade of Change, 1980 Report" (Harrisburg: Pennsylvania Crime Commission, 1990), p. 304.

32) Yippei Matsui, "Why I Oppose Escort Women," in Kathleen Barry, Chakrabarty Baruch, and Shirley Carley, eds., *121 Years of Moral Reform: Opposing Sexual Slavery* (New York, 1994), p. 67. Report of the Global Human Rights Foundation: Networking against Sexual Slavery (New York, 1994), p. 67.

수요 논리를 통해 자신의 매춘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사무직 노동자들의 말을 인용한다. “남한에는 여성들이 자신을 남성에게 완전히 바치고자 하는 정신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이들의 철저한 서비스를 물리치기 어렵다.”³⁰

일본인은 기생 관광을 위해 한국의 제주도를 찾은 일본 관광객들의 사진을 제공했다. 관아의 주력업은 입구를 지키는 제주도의 수호신 물하르방에서 시작하는 밭을 만하고 이국적인 경험이다. 밭을 만하고 이국적인 것이라면 음식과 술에서부터 숙소와 전통 한복을 입은 여성까지 무엇이든지 팔린다. 여성들은 밭을 준비하기 위해 오후 4시에 도착하여 고객들이 부를 때까지 지하에서 세비를 한다. 20명의 여성들이 자신을 자복해 밭을 같이 보내게 될 10명의 일본 남성을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저녁 식사 때 기생들은 자신을 선택한 일본인의 얼굴과 손을 닦아 준다. 저녁 식사에는 한국의 전통 춤과 노래가 곁들여진다. 이후 남성들은 여성들을 호텔이나 나이트클럽, 가락오케로 데리고 갈 수 있다. 여성들은 다음날 7시 경에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다.³¹

1973년에 아시아여성연합(Asian Women's Association)은 기생 관광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크리스마스 날 여성 시위대는 “단체 섹스 관광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저속이나 가라. 섹스 질송들!”이라고 외치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남자 관광객들에 맞섰다.³² 그러나 섹스 관광이나 다른 성 산업은 일단 한 지역에서 노출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 당시에 매춘 알선업자들이 상륙을 할 새로운 시장을 찾고 정부가 관광객들의 달력을 통해 피와 벌이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섹스 관광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여성들과 연대한 일본 페미니스트들은 그 지역 전체의

섹스 관광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고객들을 공개한다는 공식적인 반대와 위험이 있는 후에, 1981년 “필리핀을 방문하는 일본 남성의 수는 급격히 감소해 전년도에 비해 3월에는 1만 4,099명에서 1만 1,988명으로, 4월에는 19.7퍼센트, 5월에는 34.6퍼센트 감소했다.”³³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도쿄와 마닐라 간의 운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그 운동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이 나라들에서 관광은 여전히 일본과 서구 남성들이 주를 이루었다. 여성 매춘은 계속해서 점점 더 수익이 많은 시장으로 산업을 옮겨갔다.

타이

타이에서 매춘 규모는 장간 사건 수장 건수의 패턴을 따른다. 1993년 현재 타이에는 매춘 여성이 공식적으로 2백만 명 정도 있으며, 경제 발전은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피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매춘은 매일 매춘 여성을 찾는 45만 명의 타이 남성들과 매마다 섹스 관광을 위해 타이로 방문하는 340만 명의 관광객을 위한 가장 큰 상품이다. 섹스 관광은 타이 관광 산업에서 피화 벌이의 주된 원천이다. 경찰은 1974년에 타이에 약 40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이 여성들은 베트남전쟁 동안 휴양 & R중인 미군을 위해 주로 조달되었다. 그러나 섹스 관광과 매춘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 보건국(The Public Health Ministry)은 1992년에 전국적으로 단지 7만 6,863명의 매춘 여성이 있다고 집계하였다.³⁴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군대가 철수하기 전까지 성 산업은 타이에서 가장 큰 사업의 하나였다. 기본적으로 여성을 판매하는 데 전혀 제약이 없었던 타이에서 알선업자들은 미군에 피해서, 미군을 위해서 형성된 성 산업의 불이

Goldman, Remcoen, Netherlands, April 4-15, 1983.

31) Ibid., p. 46.

32) Kim Hye Woon, “The Business of Kissing Tourists in Okinawa,” in *Exploit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Guam and Japan* (New Delhi, India: Vikas Books, 1989), pp. 147-148.

33) Mann, “Why I Oppose Kissing Tours,” p. 71.

34) *Optima*, September 17, 1991.

35) *Asian Week*, November 25, 1991; Lilian S. Schmitt, “Touring Thailand’s Sex Industry,” *Asian Week*, November 1, 1991, p. 404.

지나간 후에 넘쳐나는 매춘 여성들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나갔다. 성 산업의 거래자였던 타이 매춘여성들은 다시 급격한 성 산업 몰락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들은 좀더 장사가 되고 이익이 될 만한 지역으로 거래되기 위한 담보물이 되었다.

경제적 조건과 자유 매춘법으로 인해 독일은 타이 여성 매매의 그럴듯한 표적이 되었다. 후에 네덜란드가 매춘을 합법화하자 필리핀이나 타이,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네덜란드로 여성 매매를 확대시켰다. 1977년의 한 보고서는 프랑스부르크의 한 집단이 타이 소녀들을 1인당 1천 달러에 구입하고 한 달 빌려주는 데 2,000달러의 밭은 것으로 보고되었다.³⁶ 일부는 아무런 계약이나 위장을 통하지 않고 타이에서 독일 매춘업소로 직접 보내졌다. 1977년 독일 거리에 버려져 있는 젊은 여성을 고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곳에 갔던 타이의 한 사회 복지사는 당시 1천 명 이상의 타이 여성들이 그곳에서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³⁷

1972년에 베트남에서 미군 부대가 철수한 이후, ‘태의 북부 편사’(Chenise Foreign Service)를 쓰고 있던 저널리스트를 데우는 타이로 방문해 매춘 지역인 ‘삼야 소녀들의 마을’(Village of Night Girls)에 남겨진 일부 매춘여성들을 발견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은 “매일 300달러에 농촌 출신의 젊은 처녀”를 제공하겠다는 포주들로 가득차 있었다. 암시장의 운영자들은 대부분 미군의 자녀들인 버려진 고아들을 이용해 큰 사업을 벌였다. 고아들은 암시장 기관을 통해 팔렸다. 태미는 땅목의 전형적인 마사지업소에 데리고 가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가 갔던 곳은 1990년대 마사지업소와 거의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김모습은 전체적으로 화려해 보였다. 입구 안쪽에는 벽화처럼 커다란 전열장

이 있다. 벽에는 붉은 벨벳이 쳐 있었다. 30개의 만능거리는 스포트라이트가 상륙을 비춘다. 상륙이란 거의 200명쯤 되는 소녀들이다. 모두 예쁘게 화장하고 짧은 색의 옷을 입고 통금 선발을 신고 있다. 그들은 한 줄로 피자에 앉아 있어서 소녀 합창단처럼 보였다. 내가 그들 중 누가 영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몇 명이 지적되었다.

그가 여자를 선택하고 10달러 정도를 지불하자, 어린 여성이 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목욕을 한 후 옷을 벗었다. 나는 그녀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치앙마이(Chiang Mai) 북동쪽의 농촌에서 자랐다. 그녀가 16살 때, 한 미국인이 그녀의 부모에게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선물로 돈을 준 후 그녀를 미군 기지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이 태어난 후 ‘남편’은 미국으로 귀환했고 떠나기 직전에 그녀를 자신의 친구에게 ‘위 버렸다.’ 그녀는 그 후 계속해서 여러 남자를 전전했다. 지금은 더 이상 ‘결혼’할 미국인이 없으며, ‘삼야 소녀들의 마을’에서 살고 있다.³⁸

베트남전쟁중에 “방목에 있던 조직적인 미국 R & R 사무소는 여행사를 경영하는 타이의 장군과 결탁하여 하룻밤에 5달러 이하의 호텔을 일련해 주었다.” 이 호텔들은 “새로 조성된 페치버라(Petchaburi)의 마사지업소와 대형 술집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³⁹ 휴가를

36) David Brown, “Intelligence Report,” *Parade*, November 13, 1977, p. 12.

37) Brian Eck, “Package Tour: Thai Provide a Wife,” reported from London *Observer* in *San Francisco Chronicle*, June 5, 1977.

38) Sam Wilson, *San Francisco Chronicle*, April 20, 1976.

39) Davies, *Fighting*, *Angels*, *Big Luck*, 1988, p. 40.

받은 군인들이 그 거리를 벗어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지역인 꾃퐁에서는 건설 노동자, 기자, 사업가 등이 전쟁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술을 마시며 사업을 하고 있었다. 좀더 바깥고 수준 높은 남성들의 주무대였던 꾃퐁은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나서 매춘과 섹스 관광의 중심지가 되었다. 1969년 꾃퐁에서 처음 고고 바가 문을 열었다. 그 후 "1973~79년 사이에 꾃퐁의 모든 상업과 사무실이 술집과 레스토랑으로 변했다."⁴⁰ 성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고 바는 실제 섹스 공연으로 변했고 작은 술집들은 대형 술집으로 확장되었다.

말라카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1982년의 한 연구에서, 저급한 마사지업소에는 일할 노동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소녀 들은 유리창이나 새장 안에 전시되었다.

소녀들은 인공 조명이 비추고 있는 새장 안에 앉아 있었다. 반대편 바깥쪽에는 피자가 잘 굽혀져 있어서 남자들이 앉아서 선택을 위해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곳에는 소녀들이 고객을 볼 수 있게 만든 유리가 설치되어 있기도 했으나, 가격이 더 높은 곳에서는 어둠만으로도 충분했다. 고객은 플라투스에 붙여 있는 번호를 보고 소녀를 선택하여 새장 한 편에 있는 계산대에 정해진 돈을 낸다.⁴¹

타이 북쪽에 있는 인구 25만의 도시 치앙마이에 1991년에 약 5천 명의 매춘 여성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매춘업소에서 여성들은 새장 속에 한 줄로 앉아서 선택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색깔별로 정해진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노란색은 4달러, 파란색 8달러, 붉은 색은 12달러, 무명함 것은

20달러."⁴²

1980년대 초반에 타이의 섹스 산업은 불경기였다. 1981년에는 성병에 대한 두려움과 남자 혼자 가는 여행에 대한 유럽의 비판 여론 때문에 정부는 매춘을 장한 단속했다.⁴³ 신시아 앤로에 의하면 "1986년까지 타이는 할과 같은 전통적인 수출 주력품의 경제 활동보다 관광을 통해 외화를 더 많이 벌어들였다."⁴⁴ 1990년까지 329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타이를 방문했다. 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매우 불균형하게도 대개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은 1992년을 여성 관광의 유체의 해로 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남성을 끌어들이는 또 다른 유인책인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발족에서 일련으로 이어졌다. 타이의 여성 단체인 EMPOWER에 의하면, 1993년에 매일 밤 약 50만 명의 남성들이 타이에서 섹스를 샀다.

또한 타이에는 군대 매춘이 계속되고 있다. 1992년 걸프전이 시작되자 미군 7함대는 타이의 관광지인 수빅과 파타야에 정착했다. 파타야의 경제는 걸프전 동안은 침체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이 휴가를 받은 군인들을 맞을 재미를 갖추게 되자, 한 술집 주인의 말 그대로 "앞으로 4일 동안 지난 3개월의 침체를 벌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⁴⁵ 소득은 대부분 타이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1990년 이후에 타이에서 에이즈가 크게 증가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자 피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의 매매가 증가하는 한편, 매매춘에 정부와 경찰이 연루되면서 나타난 부정 부패로 결국 어린이와 '강제적' 매매춘을 단속하게 되었다.

40) Scott S. Sanger, "A Paper Asian," *New York Times Magazine*, July 14, 1991.

41) Linda K. Baker, *The Politics of Tourism in Asia* (Stanford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p. 99.

42) Cynthia Enloe, *Making Feminine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Women, Sexes, and Ra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 37.

43) *New York Times*, March 23, 1981.

44) *Sci. Sci.*, p. 38.

45) Patrick Phangyuan, *From Asian Girl to Bangkok Woman*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82), p. 9.

1993년 초반에 이러한 단속이 실시된 곳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인 남성들이 매춘 관광을 오는 타이의 남부 지방이었다. 1993년 현재 "매춘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이 2~3년 전에 비해 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었다. 사업을 유지하고 번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연줄을 갖추게 된…… 남부 지역의 매춘업소들은 약 50명의 회원으로 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각자 조합장에게 회비와 매춘부 1명당 250바트에서 700바트 정도의 돈을 낸다. 이렇게 결한 돈은 관련자들에게 분배된다. 북부 도시인 치앙마이에서 여성들은 매일 경찰에게 30바트의 벌금을 낸다."⁴⁶ "피를 팔지 말자"는 타이의 슬로건은 북부 지방에 있는 노라티파츠 송기 콜릿(Noradhiwath Songi Kolor) 매춘업소를 급습한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이곳에서는 18세 미만의 고된 부족 매춘 소녀들과 함께 경찰에 큰 뇌물 장부가 발견되었다.⁴⁷ 이 단속이 있은 후 1993년 12월에 국회에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나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과 섹스를 하는 구매자는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받게 된다."⁴⁸

그러나 타이에서 매춘의 86퍼센트는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에 의한 것이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매춘 여성의 21퍼센트만이 강제 매춘을 했다고 주장한다.⁴⁹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이에서도 강제 매춘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성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전반적인 매매를 정상화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함이 작용한다. ① 여성 매매와 강제 매춘, 그리고 어린이 매매춘은 성 산업화와 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단속은 성 산업을 크게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② 매춘과 성 산업이 타이의 경제 기반을 크게

확장시켜 온 반면 매매되어 온 외국 여성들로 인해 지역 매매춘은 위협받았는데, 이 외국 여성들은 낮은 가격을 부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존 성 산업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다. 이 현상은 상당히 확산되고 있고, 여성들의 시장 관여에서 경쟁을 위해 전통적인 노동 시장에서 여성을 사온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필리핀

미군의 필리핀 지배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군 지배가 공식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말의 군사 기지 협정을 통해서이다. 1992년 파나부 화산 폭발은 몰라르 공군 기지에 잿더미를 쏟아 부었고 수백만 미군 기지의 일부를 파괴하여, 주저해 왔던 필리핀에서의 미군 철수를 마무리짓게 하였다.

화산 폭발 전에 알렐레스시는 몰라르 공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2만 3,330명의 미군들에게 용동을 제공해 주던 술집 거리였다. 1990년 당시 알렐레스시에는 1,367개의 술집, 마사지업소, 매춘업소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3,642명의 엔터테이너들이 등록되어 있었고, 마등록된 여자들이 수천 명 있었다. 수비민의 해군 기지에는 3천 명의 군 요원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함대가 보수와 정비를 위해 정박할 경우, 350대의 항공기와 90척의 함선에서 쏟아져 나온 7만 명의 군인들은 술꾼가로 시로 몰려들곤 했다. 1989년 술꾼가로 시에는 1만 1,000명의 매춘 여성들이 엔터테이너로 등록되어 있었고, 6천여 명의 술집 여자와 허가받지 않은 1만 4천 명의 거리 매춘 여성들과, 3백 개의 고고 바, 마사지업소, 매춘업소들이 총 10퍼센트의 소유주는 피명한 미군이었다고 있었다.⁵⁰ 신시아 앤로는 "매년 필리핀 여자와 미군 사이에서 태어나는 3만여

46) EMPOWER, "The Trafficking of Women and Girls for Prostitution," The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dification Agency for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5, p. 4.

47) *Nation* (Singapore), January 18, 1994.

48) *Singapore Post*, December 11, 1992.

49) Joint study of British and Development Division of the Police Department and the Population Institute of Chulalongkorn University, *Singapore Post*, January 5, p. 95.

50) Virginia Minnie, Gita Carlin, and Aida Pallares Serna, *Women Survivors in Anger and Grief: A Story from Manila: Women's Edu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Research Organization and KALAYAN*, 1995.

평화 어린이들 중에 1만여 명이 거리의 아이가 되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어린이 아이에 대한 이상 성욕을 가진 어른들에게 매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낸 바 있다.¹³⁾ 미군의 필리핀 철수로 술집 여자들은 그들이 낳은 혼혈 자녀들로 인해 양육할 수 있었던 의료 혜택과 교육 및 양육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올롱가포 시는 오로라 드디오스가 발한 것처럼 "전세계는 변명을 부리고 평화시에는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관광 센터로서만 존재한다."¹⁴⁾ 매년 2백만 명의 해군과 해병대원들이 올롱가포 시에서 6,600만 달러의 추가비용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 드디오스는 이 해군 함대가 올롱가포 시에 도착했을 때 필리핀 여성들이 매춘부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필리핀이 발발하기 직전, 전쟁 태세를 갖춘 32척의 군함이 2개월간 올롱가포 시에 정박하여 대기하고 있었다.¹⁵⁾ 전쟁이 끝나고 1991년 3월에 3척의 전함을 따라 선원과 해병을 태운 때 6척이 필리핀에서 돌아왔다.¹⁶⁾ 한꺼번에 7천 명의 미군들이 도착하자, 그곳에 있는 4백 명의 부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¹⁷⁾

1992년 11월 24일 미군은 필리핀에서 철수했고 이제 그 기지들은 필리핀 관리하에 있다. 거대한 성 산업이 추출하고 있지만, 군인 구매자들을 사업가로 대체하는 관광 경제의 발전을 통해 성 산업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군사 기지로 전환되면서 "수백만 기지는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또 다른 수출 가공 지역을 만들으로써 제2의 홍콩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올롱가포 시의 몇몇 매춘업소들은 "가라오케 술집으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타이완인과 일본인들을 끌어들이고자 애쓰고 있다."¹⁸⁾

타이완인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매춘은 정상화되었다. 매춘은 '유흥'(entertainment)으로 여겨지며, 매춘이 국가 경제를 위해 외화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매춘을 조장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47장 법 부분 참조) 1970년대에 필리핀은 외화를 끌어들이는 관광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입국 조건을 자유화시켰다. 1976~86년 사이에 여행사는 300개에서 491개로 증가했으며, 관광 안내원과 영업 사원들이 1,350명에서 8,120명으로 늘어났다. 마닐라의 '엔터테인먼트'들에게 발급된 건강 증명서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1980년에 1,699개의 증명서가 발급된 때 비해, 1986년에는 7,033개가 발급되었다. 관광청에서 관광 인구의 증가를 보고했다. 관광객의 67퍼센트가 미국, 일본,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에서 온 남성들이다. 이들 중 72퍼센트는 유일을 보내려고 필리핀에 온다.¹⁹⁾

현재 필리핀에는 30만에서 50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²⁰⁾ 필리핀 정부는 미군 철수 후 수백만과 할라코 공군 기지의 전환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성 교육·발전·생산성 연구 기구(WEDPRO, Women's Edu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Research Organization)의 1992년 6월 보고서를 무시하여 매춘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고려를 거부했다.²¹⁾ 전문 계획은 자유 무역 지대와 관광 개발을 요청했다. 술집 여자들은 그 다음에 있을 외국인들의 물결(사업가들과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나는 알겠

13) Letter to Kathleen Barry from Aurora DeCina, October 23, 1992.

14) Philippine Development Plan for Women, 1989-92, p. 130.

15) Aurora Javier DeCina,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in a Crisis Situation: The Philippine Case,"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Promoting Women's Human Rights from Sexual Exploitation, Violence, and Prostitution," Snow College, Pennsylvania, April 8-10, 1991, p. 4.

16) Ibid.

17) Daily Globe (Manila), 1991.

18) New York Times, March 25, 1991.

19) Ibid.

20) Ibid.

21) Ibid.

대가족의 중간 아이들이다. 그들은 가족 부양의 짐을 덜고자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이 조사는 전형적인 율령가포의 젊은 대혼 여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대가족의 셋째 아이인 그녀는 가난한 비자얀(Vizayan)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곳을 떠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복수이고 어머니는 주부였는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있던 그녀는 달콤한 말로 결혼과 가족 문제로부터의 탈출을 약속하는 남자와 연이가 되고 있었다. 그녀는 17살에 결혼, 즉 동거를 하게 되었고 자신이 아이와 함께 사악한 '남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자신과 아이를 위한 아무런 경제 지원도 없고 최소한의 정규 교육 처에는 아무런 직업 훈련도 받지 못한 그녀는 직업을 찾았다. 그러나 직업을 구하는 것과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녀는 직업을 구하는 동안 아이를 가족에게 맡기기로 했다.⁶¹

미군 기지 철수 3개월 후인 1993년에 율령가포 시와 앙겔레스 시를 찾아가 술집 여자와들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여자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아이와 아버지인 미군들이 돌아와 그들을 아내로 삼아 미국으로 데려가려하는 믿음과 희망과 소망이었다. 시골에서 율령가포나 앙겔레스로 온 많은 여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미군과 결혼해서 함께 미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춘은 파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술집 요금'을 내고 여자들을 수입간 혹은 수주일간 데려간 미군들은 이들을 여자친구처럼 대했고 그들에게 거짓 약속을 했다. 그러나 미군 철수 후 단지 몇 명의 아버지들만이 업서라도 보냈다. 몇몇은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개는 최신 주소가

없어서 그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돌아올 것이며 그래서 마침내 미국에서 살게 되려하는 희망에 매달려 있다. 매춘 여성들이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아무런 사회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매춘의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매춘과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또 다른 성 산업인 우편 주문 신부의 기반이 된다.

여성 매매: 우편 주문 신부

결혼은 매매춘의 또 다른 모습이다. 매춘 여성은 대개 버림받았거나 과부이거나, 아내 구타를 피해 다니고 있거나, 리사 매매처럼 가난한 사람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여성들은 결혼, 특히 부유한 외국인과의 결혼을 가난과 매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다. 베트남전쟁중 "베트남인과 서양인 사이의 결혼이 1963년에는 126쌍, 1968년에는 402쌍, 1971년에는 559쌍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베트남남녀끼리의 결혼은 1963년에 96퍼센트에서 1970년에 81퍼센트로 감소하였다."⁶²

경제 개발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빈곤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많은 전통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중매혼과 일부다처제를 불법으로 규정할 반면,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서양 남성과 제3세계 여성 사이의 중매 결혼을 우선해 줄으로써 돈을 벌고 있다.

시리온 스크로바네크(Siripon Sribanek)는 타이와 같은 나라에서 여성을 매매하는 우편 주문 신부는 부분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하려는 매춘 여성들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지적했다.⁶³ 대부분의 여성들은 매춘을 계속하기

61) Jaraman, op. cit., p. 158.

49 장 성의 산업화 191

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대안이 거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한다.⁶⁴ 차이는 별로 없다. 우편 주문 신부 산업과 여성 매매는 모두 매춘 여성과 가난한 여성,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 외국인과 결혼할 길을 찾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매매춘의 결과이자 중매혼의 또 다른 형태인 우편 주문 신부 관에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성의 산업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수십 년 전에도 우편 주문 신부 관에는 여성 매매의 한 부분이었으며, 종종 '위장된 매매'로 불렸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이후부터는 중요한 성 산업이 되었다.

수많은 대행사들은 타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신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수여 섹스 관광'에 관한 광고를 유럽의 신문에 실는다. 섹스 관광에서 첫 주는 (한한다면 몇 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원하는 여자를 고르면서 보낸다. 둘째 주에는 "관광과 야자수가 둘러싸여 있는 낭만의 해변에서 밀어를 즐기며 최종 선택이 이루어진다. 타이식 편부 시험을 보고, 타이의 전통 음식을 먹고, 전통 춤을 본다. 셋째 주에는 관광 진행자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소유물을 출국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할 것이다." 가격은 1,500~3,000달러이다.⁶⁵

다른 보고서는 일부 대행사들이 돈을 받고도 상품을 배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의 한 신문 광고에는 3주간의 타이 여행과 신부를 5천 달러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관광 진행자는 돈을 생기고 결혼식을 준비해 놓고는, '신부'를 나중에 보내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다. 이와 비슷하게 1975년에 홍콩에서 100명 이상의 남성들이 타이 출신 신부를 샀는데 어떤 이들은 1천 달러를 지불했다. 여자들이 결혼식을 한 후에 사라져 버렸다고 당국에

호소했다.⁶⁶

타이의 섹스-결혼 관광은 유럽의 남성 잡자에 광고된다. 1979년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인 크나이트 프라이덴톤드(Kjart Prydenlund)는 타이 정부에 이런 관광을 중단하라는 외교적 압력을 넣었다. 외무부 장관은 매매춘과 그 중개 행위, 그리고 노예 매매는 인권과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국제대회의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⁶⁷ 1987년에 섹스 관광 대행사가 여성주의 조직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법적 소송이 벌어졌을 때, 타이의 시리온 스크로바네크는 노르웨이 여성전선과 연대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매춘을 여성 착취와 여성 억압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이런 여성 억압이 제3세계에서 발생하고 산업화된 서구 산업 국가의 거대한 관광 산업에 의해 유지될 때, 독립없이 인종 차별적 요소가 성 차별주의에 더해진다.⁶⁸

독일의 한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의 안내 책자에서는 필리핀 여성을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그들은 일상적이고 관에 박힌 독일인의 피식과 달리 결코 애그라운 머릿결과 달래이 반도의 매혹적인 아몬드형의 눈을 가진 눈에 띄게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어 먹이가 되어도 후회할 필요는 없다. 문학작가와 여행기, 사진 작가, 패션디자이너들은 우아하고 활력하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자태와 거무스레한 얼굴을 한 필리핀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달나는 여자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 그런 피조물과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61) Siripon Sribanek, "The Power of an Illusion: The Women in Europe," *East East Asia Herald* 26, pp. 7-13.

62) Thach-Dan Thong, *Sex, Money, and Morality: Prostitutes and Porn in South-East Asia* (London, Ed., 1990), p. 287.

63) East, op. cit.

70) *Los Angeles Herald*, December 4, 1977.

71) *New Zealand Times*, January 5-16, 1979.

72) Siripon Sribanek, "Voice of Thai Women," April 1982.

제도가 계속되는 한 소중한 것을 얻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이 독일 남성들을 유혹하지 못할 경우에 안내 책자는 계속해서 "필리핀 여성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며, 사랑에 빠지면 침대에서나 식탁에서 남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1993년까지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는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을 통해 기편을 다녔다. 어떤 대행사는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다른 대행사들은 필리핀, 타이, 그리고 최근에는 동유럽과 러시아 여성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한다. 오스트레일리아로도 신부가 데려와 2만 건의 필리핀 여성과 오스트레일리아 남성의 결혼이 성사되었다. 1988~89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의 84퍼센트, 타이에서 온 사람들의 83퍼센트가 여성이었다.¹⁴⁾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제공된다. 이 남성들의 성 차별적 꿈은 언론 차별적이다. 아시아 여자를 신부로 사들임으로써 '해방된' 서구 여성들을 대신할 대안을 갖게 된다는 믿음이다. 이 산업은 엄격한 조건 속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가난한 여성들을 취할 뿐 아니라, 여성과 평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동등적인 여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남성들을 존속시킨다. 신부를 사는 남성들의 시각이 여성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 여성을 사는 남성은 단지 기만하게 여겨질 것이다."

1984년에 미국 남성들은 "직업 갖기를 원치 않고, 바깥일에 관여하지 않으며, 큰 보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참모 있고 내 주위에서만 행동해 사는 그런 신부를 원해요. 그리고 참, 그녀는 처녀여야 하죠"라는 말로 필리핀 신부를 사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6월 달러를 지불했다.¹⁵⁾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중반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우편 주문 신부 사업체는 12개 남짓에서 3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후로 그 숫자는 추정할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났다.

또한 우편 주문 신부 사업은 가사 노동자와 엔터테인먼트로 일하기 위한 여성들의 이민이 포함되어 있는 이민/취업 매개의 한 형태이다. 1988~89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국제 결혼의 비율은 4,043건에서 7,759건으로 94퍼센트 증가하였다.¹⁶⁾ 1989년에 우편 주문을 통해 7,759명의 여성들이 필리핀을 떠났으며, 1988년 이후 94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런 당국은 편파상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한 이러한 관행을 모르는 제한다. 편파상 이러한 관행을 쉽게 만들기 위해 미국의 이민국은 약혼 비자를 제공한다. 약혼 비자는 남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2년 안에 미래의 신부를 만났던 경우엔 발급된다. 약혼 비자가 발급되면 적게는 3달이 걸리고, 한 번 발급되면 여성은 약혼자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으나 도착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으면 90일이 되었을 때 미국을 떠나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제도는 남성들에게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결혼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여자에게 떠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 상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는 그들의 고객에게 여자를 그녀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도 다른 약혼 비자로 다른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바쁘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바로 그렇게 한다. 내가 전국여성협회(NOW)의 머리 호세 레갑과 함께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와 그 구매자들에 대해 반대 회사를 개설했던 한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한 남자는 네 명의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을 자랑하였다.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간단히 여자를 내뱉었다.

우편 주문 신부 판매는 여성 매개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가사

¹⁴⁾ Dee Garcia, "A Report on Australia," Australian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ustoms Agents' Association in Women's 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5.

¹⁵⁾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5, 1984.

¹⁶⁾ DeGuz, "Struggl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A Philippine Perspective," p. 12.

노동과 성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성을 사는 것으로 시작되는 매매혼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우편 주문 신부 중 적지 않은 사례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매매혼이 되었다. 걸프 지역에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들이 일종의 허위에 있음을 발견한다. 1984년에 필리핀의 한 전문직 여성은 캘리포니아의 발치로사의 아내로 미국에 도착한 후,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그녀를 자신의 형으로 삼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91년 또 다른 캘리포니아의 남성은 이미 자신이 사들인 필리핀 신부가 있는데도 타이 신부를 또 얻고 나서 중혼죄로 조사를 받았다. 우편 주문 신부 구입으로 초대된 마치 허락과 같은 상황은 타이 여성이 경찰에 연락해 자신의 구매자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했다고 고소함으로써 드러났다.¹⁷⁾

공산주의 전염이 무너지고 소련 연방이 러시아와 그 외의 국가들로 해체되자마자,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를 통한 동유럽과 러시아 여성들의 매개가 시작되어 급증했다. 1993년 북미의 남성과 라틴아메리카의 여성들을 연결하는 일을 4년 반 이상 했던 라틴어로 소개사(LatinEuro Introduction)는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러시아와 동유럽 여성으로 눈을 돌렸다.

스칸나(Scanna)는 러시아 여성 2만 명의 명단을 광고하는 대행사를 통해 3천 명의 미국 남성들이 러시아 신부를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 머리 중메사(American Russian Matchmaking)는 일성적으로 결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미국의 대행사이다. 이 대행사는 1992년 35달러를 받고 남성 구매자들에게 12명의 러시아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제공하였다. 여성들은 프로필에 올라가기 위해 한 달 월급의 3분의 1인 80달러를 내야 한다. 이 프로필에는 얼굴 사진, 전신 사진, 몸매 치수(가슴 허리 엉덩이)와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들어 있다.¹⁸⁾ 구매자는 3명의 여성들을 선택하고 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4천~5

천 달러가 드는 2주간의 러시아 여행을 떠난다. 대행사는 그가 최종 선택한 한 명의 여자를 위해 비자를 준비한다. 결혼이 48시간 내에 성사되면 결혼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2년 유효의 조건부 비자가 발급된다. 결혼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녀는 추방당한다. 이것은 자신을 산 '남편'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여성이 구매된 신부로서 남편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결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전국여성협회의 국제부장인 머리 호세 레갑은, 결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자, 결혼 매개의 경우에는 여성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자상 조건부 노예의 지위를 완화하는 미국 법이 최근 통과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이 결혼을 과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가면 법원은 그녀의 비자에서 그 '조건'을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결혼 대행사를 통해 모집되고 즉석에서 이루어진 매개 결혼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1993년 여성폭력방지법'은 미국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이민 자격을 직접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러시아와 동유럽 여성들을 비자가 필요없는 네덜란드로 매개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다. 로테르담의 경찰에 의하면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여성의 몸을 새롭게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 수요에서의 변화, 즉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사고자 하는 남성의 욕구 변화 때문에 아시아 여성 신부나 매운 여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¹⁹⁾

우편 주문 신부 판매를 구매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이 관행은 여성을 부모의 법적 소유물로 간주하며, 처분할 수 있고 남편의 법적 소유물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중매혼 관행/오늘날 세계의 여러 사회에 있는 관행이며 19세기 서구에 만연되어 있던 관행에 토대를 두고 있다.

¹⁷⁾ Knighted Post, January 2, 1991.

¹⁸⁾ Knighted Post, January 2, 1991.

¹⁹⁾ Guide de l'Europe, European service Bureau, appearing on Women's Studies List, BITNET, June 20, 1992.

우편 주문 신부를 구입한 남성은 인간을 사는 것이다. 결혼이나 약혼은 국경을 넘은 여성 매매를 보다 쉽게 만들 뿐이다. 여성은 심한 할수병에 시달리고 집에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많은 경우 '결혼'에 실패한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만족한 구입자 한 명이 설명한 것에 의하면, "그녀는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 붓고 내 손물을 정리해 주고, 매일 샤워를 시켜 주고, 밤마다 마사지를 해주고 구두를 닦아 주고, 옷을 벗기자마자 걸어 놓죠. 그녀는 대항사의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돈을 지불한 만한 가치가 있어요"⁸²

일부 '남성의 권리' 운동들은 독립적인 서구 여성에 대한 대응으로 이 사업에 뛰어올랐다. 남성권리연대의 뉴스 잡지(Men's Rights Unity News Magazine)인 '레방가(Liberty)'가 1991년 발행한 소식지는 "미국 여자들아여,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라고 경고하면서 "우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젊고 순진한 온두라스의 소녀들"을 광고하고 있다.⁸³ 우편 주문 신부 매매는 아시아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행들을 폭로하는 아시아 여성주의 단체들의 활동 때문에, 이 지역의 문제에 관해 좀더 많이 알고 있을 뿐이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국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압력이 강하고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일부 아시아 조직들은 소수의 여성들이나 위험을 감수하면 살이 할당될 수도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형태의 여성 매매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소수의 여성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성적·물리적으로 학대당하는 상황으로 팔려가고 매춘을 하게 되는 여성들의 수에 의해 상쇄된다. 결국 결혼을 위해서는 매매춘을 위해서든 물 다름 위해서든, 인간 매매는 근본적인 인권 파괴 행위이다. 이러한 매각을 놓고 실 착취를 정당화할 때, 여성을 소유물로 인도하는

것은 비공식적 '개방'이라는 접근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가정에 기반한다. 그 가정이란 ① 여성의 독립에 대한 남성의 반대와 ② 여성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 매매가 바로 우편 주문 신부라고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필리핀에서 시행된 새로운 법에 의해서였다.

법원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우편 주문을 통해 결혼을 중매하는 관행과 브로커, 전단, 기타 선전 문건의 광고, 출판, 배포를 포함하는 유사한 관행들을 위법으로 공표하고 벌금을 부과한다.(제1조)

이 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여성들이 아내로 수입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유사한 법의 시행은 물론이고 이반국의 감독뿐 아니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은 강력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는 비난이 필리핀 여성 단체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법외우편 주문 신부 매매는 범죄이다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러한 관행을 비난할 수 있는 도덕적 토대를 사회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다. 국가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리핀 여성들이 경제적 상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착취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⁸⁴

⁸² John Kirk, "The Unsettling Business of Imported Love: How Come the Bride," *Atlanta Journal* (Feb. March 1990), p. 17.

⁸³ *Liberty*, November 1991, 1.

⁸⁴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ection 1, Republic Act No. 1993.

서구 성 산업의 전개

선진 산업 국가에서 성 산업은 발전했으며, 폐기되기도 했고, 개발도상국에서 가능하게 된 새로운 시장을 준비했다. 내가 썼다시피,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화국을 고수하는 동안 시장 경제가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섹스 관광 업체들과 우편 주문 신부 판매는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할수 조치를 해제하고 베트남 정부가 시장 개혁화를 향한 산업화 노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자,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베트남을 몰래남략하면서 초단간 개발될 이 새로운 시장베트남을 착취할 태세를 갖추었다.

법의 조직에 의해 운영되었던 성 산업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동유럽의 공산 정권 붕괴로 만들어진 시장을 인수하였다. 구 소련에서 소비에트 마피아는 방문 사업가들에게 밤에 매춘부를 제공하는 호텔을 유지하기 위해 머스를 세내었다고 한다.⁸⁵

폴란드는 심지어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이전부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관례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폴란드에서 포르노그래피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8년이었으며, 이는 공산당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가 운영하는 통신사에 의해 배포되었다.⁸⁶ 부다페스트에서는 1990년 6월에 처음으로 스트립쇼가 공연되었다. 1989년에 검열법이 폐지되어 하드코어 포르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구로부터 수입되었던 포르노그래피가 거의 즉각적으로 국내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했다. 한편 낙태를 제한하려는 계획은 추진중에 있었다.⁸⁷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은 어린이를 착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했다. 기민당의 한

권리는 "포르노그래피는 민주주의의 일부"이라고 주장했다.⁸⁸ 헝가리의 제미니스트들은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에게 모욕적인 것이라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989년에 헝가리에서 실시되었던 여론 조사에서 73퍼센트가 매춘의 합법화에 찬성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정부의 허가 아래 성 산업이 운영되고 있던 서독으로부터 여성 매매업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동독에서 매매춘은 서양 방문객(여들은 때때로 일본의 원천이었다)을 위해 운영되던 국영 호텔 및 군대관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었다.⁸⁹ 라이프치히(Leipzig)는 시장 개방을 위해 서독에서 물려온 사업가들에게 매춘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 주택 구역을 세운 서독의 포르노그래피업자와 알선업자로 남게 되었다.⁹⁰

성 산업과 조직 범죄, 서유럽의 알선업자들이 동유럽의 여성과 소녀들의 가난 위에서 번성할 때, 서구의 방송 매체는 구 공산주의 국가에서 매매춘의 확산을 흔히 금지주의 제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의 측면에서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이 소비할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자 사치품 소비가 불균형적으로 증가했다. 만일 수입이 2배를 증가했다면, 매춘과 같은 품목에 대한 지출은 불균형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남자들은 처음에는 사치품을 사는 데 소폭을 쓰고, 그 다음에는 제법르게 개인적 만족과 권력을 위해 여성을 사는 데 돈을 쓴다.

산업화된 성 착취

역사적으로 매춘의 확대는 급격한 산업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

⁸⁵ *Le Figaro* Times, November 12, 1990.

⁸⁶ *Los Angeles Chronicle*, July 2, 1988.

⁸⁷ *Atlanta Journal-Constitution*, July 12, 1988.

⁸⁸ *New York Times*, May 12, 1990.

⁸⁹ *New York Times*, June 13, 1991.

⁹⁰ *New York Times*, May 12, 1990.

있다. 산업화는 새로 개발되는 도시 경제로 밀려들어 시장의 변동을 만들어 내는 노동력의 과잉 공급과 함께 전형적으로 대규모의 이농 현상을 야기시킨다. 산업화의 첫 단계에서 여성은 가정에서 시장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성에게 유리한 임금 노동으로부터 주변화된다. 일부 여성들이 산업화의 첫 단계에서 노동력으로 유입되기 시작할 때, 그들 대부분은 저임금의 하층은 직업에 배치되며 그 결과 가난과 궁핍에 처하게 된다. 산업 노동력은 전라산업 사회의 여성 권태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로 가족의 사회 영역에서의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는 빈곤의 성별 구조를 영속화시킨다.

수출 자유 지역(Free Zone)은 외국 기업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 내에 만들어진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풀리고, 주최국은 저비용으로 집중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원료와 자본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기료와 주택 임대료, 세금 삭감 혜택도 받는다.⁶⁹⁾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주변,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출 자유 지역은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력이 적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어필을 모집한다. 수출 자유 지역은 경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라진다.

이농 과정에서 소녀와 여성들은 수출 자유 지역의 생산을 위해 모집되며, 이들의 노동력은 생산과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수출 자유 지역에서는 최저 임금 규정과 근로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 지역이 여성들에게 사골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불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돈을 주지는 않는다. 알선업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매매춘의 정상화는 타이에서 내국인 구매자들

69) Katherine Horton, *Industrialism,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in Thailand*, New: London, 1986, p. 42.

의 대규모 수요를 창출했다. 약 75퍼센트의 타이 남성들이 매춘 여성과 섹스를 한 적이 있다.⁷⁰⁾ 타이의 성 산업은 충분히 발전하여 제조업 임금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임금을 여성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을 사들이 매춘에 종사하게 만들 수 있다. 1990년에 하루에 8~12시간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40~80달러인 반면, 동일한 시간을 일하는 마사지업소의 매춘 여성은 한 달에 200~320달러를 번다. 비숙련 고층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하루에 12~18시간 일하는 가사 노동자는 한 달에 12~20달러를 버는 반면, 동일한 시간을 일하는 상류 매춘 여성은 한 달에 40~80달러를 번다.⁷¹⁾

매춘 여성에 관한 1982년의 한 연구에서는 매춘이 어느 정도로 경제 발전의 수단이 되는가가 드러났다. 인터뷰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을 고향인 타이 북서 지방의 사골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생계 부양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모든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집에 돈을 부쳤다. 약 25퍼센트가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가족에게 말했다고 한다.⁷²⁾ "소녀들 중 8명이 이미 부모를 위해 고향에 집을 지어 드렸다고 밝혔고, 대다수의 소녀들은 이 일을 그만두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한 소녀는 집을 두 채 지었다. 하나는 그녀의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2년 안에 은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상금을 열기 위해 여전히 저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데는 10년이 걸린다."⁷³⁾

전통적으로 매매춘은 우선적으로 남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70) Han Han Pym, "AIDS and Prostitution in Thailand: A Case Study of Burmese Prostitution in Bangkok," *Their* May 1993.

71) Manuvelian Ramon, "Prostitu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in Thailand: A Case Study of Alumnas in A Chiangmai Village in Northern Thailand,"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in Women in Development Conference, Washington, DC, November 1993, p. 3.

72) Pongpichai, et al., p. 22.

73) *Ibid.*, p. 26.

개발 계획에 의해 산업화가 시작된 후에 확산된다. 그 다음에 산업화가 진행되고 여성이 더 나은 직업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매매춘은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러나 타이와 같은 신흥 개발도상 국가에서 매매춘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과 함께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⁷⁴⁾ 다시 말하면 매매춘은 산업화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발전과 함께 매매춘도 산업화된다. 다국적 성 산업 기업은 자율적인 경제 세력이 되었다.

전형적으로 매매춘에 대한 연구는 여성에 대한 연구이다. 전통적으로 매매춘에 대한 설명, 즉 '남성 구매자'(the customer job), '그 것'(trick)과 같은 말은 여성의 몸 위에 세워진 것이다. 수백대에 걸쳐서 수백 년이 아니라면 매매춘의 원인과 결과는 여성에게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수요가 없는 매매춘은 있을 수 없듯이, 상품에 대한 소비가 없는 성의 산업화란 있을 수 없다.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매매춘 시장은 외국 남성들(타이와 주판에 있거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군인들, 군대 매춘이 번성할 때) 그 이후에 섹스 관광을 지속시키는 사업가들, 섹스 관광을 즐기러 오는 남성 관광객들에 의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성에 대한 성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내국인 남성들에 의해 다국적 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

군대 매춘과 섹스 관광, 대규모 지역 매매춘의 증가와 함께 성 산업, 다국적 기업은 국제 시장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섹스를 위해 여성의 몸을 매매하는 국제 매춘 시장은 조직 범죄에 의해 영속화되고 여행사, 호텔 체인점, 항공사, 국제적 매매업자를 통해 작동한다. 매매춘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객 매매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익을 만들어 내는 물적 기반을 확립해 가면서 매매춘은 결국 개발도상국과 내국인 남성들에 의해 유지된다.

74) *Boydell*, Feb. January 1993.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이농 현상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전환과 함께 국가, 지역 사회, 가족 경제는 섹스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개발 경제의 노동력으로 여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춘 산업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매매춘의 합법화를 의도적으로 바라본다. 매매춘과 성 산업이 합법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사구, 특히 유럽 국가의 모델들은 합법화를 조장하는 데 기여한다. 합법화는 문자 그대로 비합리한 환경에 놓인 여성을 매춘에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 없는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다. 여성이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여성이 사회 영역뿐 아니라 공식적 영역에서 사회적 실제, 즉 법적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 매매춘은 여성을 경제적·법적 계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 매매춘은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산업 노동력 사이에서 여성들을 세게 끌어잡는 모태이다. 일지라에 대한 요구를 덜고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매매춘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춘을 일종의 노동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 안에서 여성은 주변화되고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받는다. 그러나 매매춘의 사회적 생산은 실제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 여성은 (선택하건 않건) 주변화되고 매춘에 귀속된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침략이다. 계급으로서의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조건을 보장받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엄한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매매춘이 여성의 인권을 저당잡고 있다.

1

매매춘의 파트너들

논 한가운데 눈에 띄는 도로 표지는 영어로 '아메리칸 타운'을 알여 준다. 아메리칸 타운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다. 1992년 봄, 나는 탈북감치 떨어진 논에서 그곳을 처음 보았다. 나는 언덕 위에서 타운의 한정된 풍경만을 바라보아야 했다. 담으로 둘러싸인 군 주둔지 주변을 따라 양어로 싸여 있는 가게 간판들이 보였다. 그곳은 시골의 마을이라기보다 상업 활동의 요새처럼 보였다. 그곳은 오직 초대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고립된 영토이다. 미국 병사의 군복은 그가 초대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며, 한국인 여군은 동복을 입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준다. 군인들과 여군은 여성들은 함께 마시고 춤추고 섹스를 한다. 군인들에게 이것은 휴식이 고 오라이지만, 여성들에게 이것은 노동이다.

아메리칸 타운은 남한 내 주요 미군 기지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수많은 기지촌들과 비슷하다. 한국의 여느 장소들과는 달리, 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섞여 기지촌의 주민을 구성하고 있다. 이 지역의 모든 비즈니스는 미국 병사들과 그들에게 성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 욕구를 만족시킨다. 군인들이 군무를 끝내고 들르는 바와 클럽은 맥주를 마시며 긴장을 풀고 여자를 교묘한 곳으로 기지촌 생활의 중심부이다. 불

업 업주들은 술과 음식 판매, 그리고 여성들의 성 노동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이 지역의 식료품가게, 술가게, 구멍가게 등 또한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돈을 자러입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한" 이용설, 화장실가게, 옷가게 등처럼 바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 사진관, 기념품 노점, 그리고 소위 결혼상담소들"이라 일컫는 곳 또한 넘쳐난다. 1970년대 초 이전에는 사실 성병 진료소를 또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내은 불빛, 울려 퍼지는 미국 음악, 담배 연기, 폭음, 어두운 조명과 바, 그리고 풍광리사를 말하는 서로 다른 인종간 커플, 이것들은 모두 기지촌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아메리칸 타운이 다른 기지촌과 구별되는 것은 물리적 거리— 그곳은 완전히 달로 막혀 있고, 경호병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다— 와 그곳의 결합된 지위 때문이다. 아메리칸 타운은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거기에 살며 일하는 모든 사람과 사업을 관리하는 회장과 이사회를 가진 자치 단체이자 일종의 주식회사이다. 자치 본부는 달로 둘러싸인 주물지 내에 작은 건물을 차지하고 있다. 원래 타운은 지방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으로 1970년대 초·중반에 건설되었다." 이 자치체는 비즈니스 관행을 감독할 뿐 아니라 타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아파트 건물과 하숙관을 소유하고 관리한다. 바에서 일하는 매춘 여성들은 거기에 살면서 자치 단체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방들은 거주지이자 그들의 매춘 장소로 쓰인다. 아메리칸 타운은 기지촌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메리칸 타운은 매춘을 위해 그리고 매춘을 위해 세워진 타운인 것이다."

매춘 여성과 그들의 생활 방식

기지촌 매춘 여성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등록원 여성과 등록되지 않

은, 소위 거리 여성들이 그들이다. 이 책은 등록원 여성들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정부에 의해 특수 엔터테이너 로 인가받은 여성들이다. 등록원 여성들은 기지촌 클럽에서 음료를 팔고, 미군과 춤을 추고, 손님을 맞는다. 이들은 거리 여자들보다는 좀더 나은 보호를 받는데, 그들은 돈을 팔아도 된다는 공식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손님을 팔 수 있는 합법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거리 여자들과는 달리 허가증이 무효가 아닌 한 매춘을 이유로 감옥에 연행되지 않는다.

클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앞으로 일하게 될 클럽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지역 성병 진료소에 가서 산부인과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은 후 보건증을 받아야 한다. 건강한 호스티스로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 주일에 한 번씩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보건증에 진료소로부터 "건강함"이라는 도장도 받아야 한다. 건강함은 성병 감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클럽 여성은 진료소를 방문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 만일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클럽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런 경우 진료소에서 "건강함"을 보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클럽 여성은 항상 등록증과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 보건사회부는 1960년대 초·중반 이후 이러한 규제들의 공식화와 시행을 감독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까지 이러한 조치는 기지촌 곳곳에서 매우 모순적으로 시행되었다. 1960년대 이전에는 미국 위생병들이 여성들의 성병 검사를 행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도 한국 땅국자들의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는 미 기지들이 매춘 여성들을 계속해서 검사했다.

일단 클럽 여성들의 삶은 지역 미군들의 스케줄과 포주 역할을 하는 클럽 업주/매니저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형적으로 주중에는 "하루(일)을 끝나고(기지) 출입문 밖으로 쫓아져 나오는" 미군들을 맞이 위해

정오부터 화장을 하고 돈을 자러입는다. 보통 오후 4시나 5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자정이나 새벽 2시까지 음료를 팔고, 남자와 어울려 춤을 추고, 엑스로 돈을 벌기 위해 손님을 유혹한다. 주말에는 더 일찍 시작해서 더 늦게 일이 끝난다. 클럽 업주/매니저는 미군들에게 가능한 더 많은 음료— 남자들을 위한 술과 여성 자신을 위한 "레이디 음료(보통 청량 음료)—를 권도록 여성에게 요구한다. 레이디 음료는 다른 음료보다 비싼데 작은 잔 하나에 약 5달러이다. 이는 미군들이 더 많은 음료를 사도록 함으로써 클럽의 수입을 늘리려는 속셈이다. 관례적으로 여성들은 그들이 판 음료의 수입에서 10~20퍼센트를 받는다." 많은 클럽이 여성들에게 음료 할당액을 부여하는데 만일 한 달에 최소 150잔의 음료를 팔지 못하면 수입에서 자기 돈을 받지 못한다. 어떤 클럽에서는 한 달에 600잔 이상을 판 여성에게 금반지를 주기도 한다. 한 달에 1천 잔 이상을 판다면 그 여성은 "특별 보너스"를 받는다. 군인들에게 음료를 강요하는 것은 그만둘 여성들도 계속해서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적으로 클럽 여성은 하루만 동안 20잔 정도의 청량 음료와 위스키를 마신다."

다독이 음료를 팔기 위해 클럽 여성은 하룻밤에 여러 미군들과 어울리며 계속해서 그들을 애무하고 또 애무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클럽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250달러를 호스티스에게 지불하였다." 그러나 음료를 파는 것은 여성들의 수입원이 되지 못했다. 음료를 팔고 받은 돈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고 게다가 많은 것들이 할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때문에, 여성들은 경제적 소득을 위해 미군들과 잠을 자야만 했다. 외정부에서는 1980년대 중반 "플라임(1박)은 20달러였고, '아웃링(시간당)은 10달러였다." 일반적으로 업주들과 포주들은 80퍼센트를 취했고 매춘 여성에게 잔당 소득의 20퍼센트를 주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호스티스 가실"을 갖추지 못한 채 그리고 미군들과

살을 섞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클럽에 들어온다. 클럽 환경이 낯선 여성들에게 초보들이 겪는 일련 과정이 종종 벌어진다. 어떤 여성들은 포주/매니저에게 강간당하기도 하고, 클럽 업주에게 특정 군인과 자도록 명령받기도 하며, 때로는 그들 스스로 비틀거리며 미군과 함께 침대로 가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경험 있는 매춘 여성에게 피해야 할 남자 유형(예를 들어 폭력적인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을 얻는다. "박탈"은 오산의 미군 클럽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혼동, 걱정, 두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록 기지촌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인 남자들에게 몸을 팔았지만, 기지촌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녀는 이전에 미국인이자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의 큰 제구를 다루어야 할지 걱정이 많았다." "특인 남자는 더욱 생소했다. 첫 특인 손님과의 관계에서, 그녀는 그의 페니스가 얼마나 길었는지 "만일 내가 그와 관계한다면 내 피부가 까여지는 게 아닐까?" 하고 염려하기까지 했다. 미국인과의 첫 성 관계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강요한" 클럽 업주와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손님들과의 성 노동을 할 때는 도롱이 피하고 술이나 약물에 취한다."

가끔 여성들이 손님들 고르기도 한다. 하지만 미군들이 특정 여성에 대한 호감을 클럽 업주/매니저에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업주/매니저는 그 여성에게 그 군인과 잠을 자라고 명령한다. 미군은 클럽 여성과 함께 그녀의 방으로 가는데, 그 방은 보통 클럽에 딸려 있거나 가까운 데 있다. 많은 매우 작은 방들로 나누어져 있어 한 줄로 죽 늘어선 벌집처럼 보인다. 다른 매춘 여성들도 그러한 방에 살고 있다. 벌집은 보통 클럽 업주의 소유이다. 업주는 누가 드나드는지 감시하기 위해, 엑스 요강을 팔기 위해, 그리고 여성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입구에 경비원을 세워둔다. 일부 오래된 벌집에서는 방에 들여다보는 구멍을 만들어서 여성들

이 성을 파는 동안 로주가 감시할 수 있다. 미군과 함께 달아날 공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몇몇기 행위들은 미군의 저물 회피를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많은 미군들은 여성들이 합법적인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가 매춘 여성이 '사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증거지를 쓰곤 한다.

매춘 여성들과 미군 관계자들은 클럽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손님을 구해 오는 것을 지켜봐 왔다. 「엔트 아리칼」에서 김연자 씨는 자신이나 다른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남자들을 유혹했는지 회상한다. 어떤 미 육군 군복은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매춘 여성 때문에 망한다"고 했다. 그리고 196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한 육군 대위는 불교 경험 없는 자발자들이 "돈 때문에 그 아이들을 욕위" "하러는 매춘 여성들에게 속아 쉽게 심각한 관계에 빠졌었다고 말했다.

매춘 여성들이 기지촌 환경에서 신체적·재정적·감정적으로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은 특정 클럽 업주/매니저와 그들이 접하는 미군 손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난희가 말하듯이, 어떤 미군들은 비열하고 억지 운데, 특히 술에 취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친절하고 정감은 이들도 있다. "최악의 경우, 1992년 10월에 일어난 촌감이 씨의 사건에서처럼 자신을 구타하고 살해하는 미군을 만난다. 케네스 마클(Kenneth Markle)이라는 사병에게 살해당한 뒤, 그녀의 사신은 화속집 주인한테 발견되었다. 그녀는 '덜거벗은 새로 피범벅이 된 몸은 타박상과 병문상이었는데, 범죄 현장에는 새까맣게 뿌려져 있었다. 게다가 불타병이 촌감이 씨 자궁 안에 주사되어 있었고, 우산대가 그녀의 직장 안으로 27센티미터까지 박혀 있었다.'" 가장 흔히 들은 경우는 미군이 본과 다른 필수품들을 제공해 주고, 장성껏 돌보아 주며, 마지막에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다. "꼭 저 결혼한 '문경'은 그런 행운아 중 한 명이다. 그는 '문경을 클럽에서

빼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돈을 본분이 모아 저축"했다. 나중에 "그는 결혼하기 전 그녀가 매춘 여성으로 일할 때 왔던 남자들과 함께 일했다."

나와 이야기 나는 클럽 여성 중 그 누구도 클럽 업주/매니저에 대해 편 잡다거나 친절하다거나 정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일부는 바 여성들을 구타하고 강간하는 아들처럼 학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업주/매니저가 그 여성들의 일상적 착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박양은 "업주들은 보통 용료와 섹스로 변 수입에서 여성들의 돈을 돌려 주지 않는 식으로 이득을 취한다"고 말한다. "성 노동의 세계에서 수익이 많은 여성들은 클럽의 매니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동정심을 갖고 매춘 여성들을 대하지는 않는다. 김연자 씨는 군단에서 마담으로 일했는데, 자신도 호스티스들에게 몹시 거칠게 대했다고 회상하였다. 바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퍼부으며 그녀들을 괴롭혔다." 전직 미군 여자 상병 관리자(그는 성병을 전염시킨 것으로 알려진 매춘 여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군대를 도하야 했다)였던 토마스 웰리는 마담들이 "[클럽 빚을] 갚지 않은 소녀들을 손보기 위해" 어떻게 "악랄한 소년들"을 보내곤 했는지 말해 주었다.

제무 속박 체계는 착취의 가장 두드러진 방식이다. 여성의 빚은 치료 받으려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고, 급한 일을 막으려고, 경찰과 성병 진료소 직원에게 뇌물로 주려고 업주에게 돈을 빌릴 때마다 계속 쌓여간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빚을 진 상태로 새로운 클럽으로 옮겨 일을 시작하는데, 그 빚은 보통 '소개비'와 선물에서 생겨난 것이다. 전형적으로, 바와 매대춘을 전문으로 하는 (불법적인) 직업 소개소들은 여성을 클럽에 소개하면서 클럽 업주에게 수수료를 물린다. 업주는 그 수수료를 고금리로 새 종업원의 '계산서'로 옮겨 떠난다. 박양은 어떤 클럽 업주는 10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한다고 말한다. "종종 여성들은 이전의 다른 클럽 빚을 갚기

위해 업주에게 선물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무의 순환은 계속된다. 또한 업주들은 새 종업원에게 가구, 스테레오 장비, 옷, 화장품을 등 미군 손님들 찾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들을 갖추게 하고 이 비용에 이자를 붙여 계산서에 첨부한다. 1968년 「알」지는 평균적으로 매춘 여성들의 클럽 빚이 1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이유로 여성들은 빚이면 빚이다 가능한 많은 미군을 낚으려 하며, 그렇지 때문에 자신의 위치대로 매대춘을 떠날 수도 없다. 난희는 빚에 눌린 상황들이 이렇게 요약했다.

어떤 기지촌 클럽에 빚이 없더라도, 그들은 이미 빚이 있어 빚지고 있다고 여긴다. 만일 정말 아무런 빚도 없다면, 더 나은 다른 클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곳을 떠날 수 없다. 클럽에서 도망치는 것은 쉽지 않다. 합법적인 여성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클럽에 머물면서 일한다."

기지촌 매대춘에 들어오는 거의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미 심각한 박탈과 학대—병든 공간, 연애타나 남편에 의한 반복적인 구타—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전쟁시 기지를 따라다녔던 이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았고, 그 수입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전쟁 시기를 거치며 살아온 한국인 기지촌 관계자들은 1992년 인터뷰에서 초기 세대 매춘 여성들에 대해 "그 당시 우리 한국인들은 모두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간에 저속하게 가난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탔고, 살아 남기 위해 존엄성을 던져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며 그들에 대한 연민을 표현했다.

낮은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빈곤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여성들이 기지촌 매대춘에 들어오게 되는 일반적인 이유였다. 땅 한 켠 없

이, 농사 지어 빚더미만 안고 자라난 이야기, 여덟, 아홉이나 되는 형제들 속에서 굶주렸던 이야기, 학교 교육이라곤 몇 년밖에 받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병든 부모를 돌보던 이야기들은 기지촌 여성이라면 누구나 처한 상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여성들 대다수는 1960년대 이농 흐름을 타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도시에서는 성공할 기회가 반만이라고 믿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그러나 일자리, 특히 자신과 시골에 있는 가족을 부양할 만큼 충분한 보수를 받는 일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미군의 보고서는 여성들이 기지촌 매대춘에 들어오게 된 요인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1965년 서울에 살고 있던 18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 가운데 60퍼센트가 실업 상태였다고 적고 있다. "여성들이 결혼에 종사하며 남편의 경제 기적의 근간으로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여성이 일자리를 얻는 행운을 가진 건 아니었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이라곤 받지 못한, 아이 딸린 중년의 이혼녀였던 '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미군 매춘 여성이 되었다. 공장 일은 대개 젊은 여성들에게만 주어지지 일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인신 매매단이나 로주들에 이끌려 강제로 매대춘에 유입된다. 인신 매매단과 로주들은 기차역과 버스 정거장을 거웃거리다가 일차라나 발을 걸어 준다거나 하숙을 얻어 준다는 약속을 믿고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 강간하고 그들을 성 산업에 몰아 넣거나 매춘 업소에 판다. 또 어떤 여성들은 하이프리스, 창고 관리자, 가수, 언더테이너와 같은 일자리를 약속하는 가짜 광고에 속아 매대춘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광고들은 '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한 여성은 자신이 기지촌의 바로 앞에 왔음을 깨달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브라운 컬러의 티셔츠와 핫팬츠를 입어야 했다." 그리고 "복종하라고 구타당하

고, 미군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했다.' 이것은 박탈과 학대의 역사적 정황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 한국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그들은 그녀를 소년 네 명을 돌보는 '노예'로 생각하였고, 입양아버지는 그녀를 강간하기까지 했으며, 그 아들들은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후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고 사장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한테 신체적으로 학대당하다가 갖 태어난 아들과 함께 버려졌다."

거의 모든 미군 여성들이 기지촌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빈곤, 낮은 사회적 지위, 신체적·성적·감정적 학대가 얹힌 생활을 경험했다. 그들은 이미 '박탈한 여성'이었다. 시나일도 잃어버리고 가족과의 연계도 거의 끊어지고 교육도 받지 못한 이 여성들은 종종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답어놓는다. 그들은 이미 '노아 위의 고기'였다. 김연자 씨는 1960년대 후반 다른 여성들과 달리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그녀는 자신이 기지촌 세계에 들어온 이유로 11살 때 사촌에게 강간당했던 일을 종종 이야기한다. 강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일 어머니가 집에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었다라면 자신과 같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까닭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항상 일을 해야만 했다.

기지촌 생활로 떨어진 여성들은 공식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나이도 어리서 일주나 모주의 학대와 착취에 더욱 취약했다. 여러합에서 언급했듯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다수의 미군 여성은 초등학교를 거의 마치지 못했다. 1992년 볼 내가 만난 몇 명의 나이는 여성은, 미군 여성으로 일했거나 아달으로 일했던 이들이었는데 모두 문맹이었다. 기지촌에 새로 들어오는 여성들은 십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으로 연령이 점점 어러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 보건사회부는 1977년 등록된 3만 6,924명의 미군 여

성 가운데 2만 1,305명이 20~24세이고, 7,669명이 15~19세라고 보고하였다." 난희는 29세라는 너무 늦은 나이에 "이런 종류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고 밝힌다. 소녀들이나 젊은 여성을 상당수는 자신들한테 부모/웃어른 역할을 하면서 여성들을 훈련도 시키고 (젊은 이자의) 재정적 압박에서도 자신들을 구해 주는 모주나 입주와 함께 갈자 그대로 기지촌에서 자라났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미군 여성들은 어머니나 큰언니 역할을 하면서 입신을 막고 경찰과의 마찰을 피하여 학대하는 업주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여성들의 미숙한 영어 실력은 학대와 굴욕감을 증폭시킨다. 그들은 미군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분명하고 충분히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적 서비스와 가격이라든지 시간을 할당할 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느낀다. 난희는 기지촌 클럽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 "영어 단어를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이 (미국인들) 내 이름을 묻는데도 나는 그냥 '엑스'라고 말했다. 그들이 비웃으며 나를 놀려대는데 나는 매우 당황했다." 이와 유사하게 영화 '랜드 아라할'에서 전주는 말을 알아들지 못하는 그녀를 '어리석은' 자로 대하는 미군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표현한다. 만일 어떤 여성이 'ABC'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면, 그녀는 다른 이들보다 한 발 앞선 것이다. 무대방의 사업 중 하나는 영어 공부를 원하는 클럽 여성에게 기본적인 영어 수업을 제공, 그들이 미국인 손님과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자신들의 이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60년대 초 이후 대부분의 기지촌에는 '자치회'가 있었다. 이들 자치회는 최상의 환경에서 일주, 미군, 지역 당국자들과 관계에서 클럽 미군 여성을 위한 지원 집단으로 기능하였다. 아대원의 자치회는 장의회, 송탄은 클럽회, 동두원은 민물여회라고 불린다. 일부 기지촌들은 클럽 호스의

스로 일하기 위해 허가증뿐 아니라 자치회 회원 자격을 요구하기도 했다. 각 회원들은 자치회에 월 회비를 내는데(1992년 군산은 한 달에 1천 원), 이것은 죽은 회원의 장례 비용이나 병든 회원의 치료에 보조와 같이 간접 사택을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 자치회가 회원들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가는 그 조직의 대표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최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1992년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기지촌 주민들은 영향력 있는 최장으로서 1970년대 군산과 송탄의 김연자 씨와 인정리의 이정자 씨를 언급했다. 두 여성 모두 미군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으며, 사실 성병 진료소의 착취(성매)에 대항하여 여성들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회가 결코 자율적이었던 적은 없다. 지역 경찰과 정부 당국자들이 자치회 대표를 선정하여 여성들의 활동을 감시하게 했으며, 각 경찰서는 자치회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을 두었다. 다른 여성들에 비해 영어를 잘 할거나 영향력이나 리더십이 있는 미군 여성이 보통 최장으로 선출된다. 경찰이나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치회의 목적은 성병 규제와 사업 수백 등의 문제에서 여성들이 서포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치회 회원들이 성병에 관한 규제를 따르게 하고 이에 순하지 않는 여성들을 혼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자치회들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거의 여자들(등록되지 않은 여성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회원들을 위해 활동하지 않은 대표들은 경찰과 당국을 위한 허수아비로 봉사하였다. 자치회와 관련한 1963년 미군 기록은 자치회 최장이 한국 정부와 미군대를 위한 정보원으로 일했음을 말해 준다.

한국 경찰 정보부문 이나와 대한민국 육군 제308방첩대로 최장을 가운데 엑스

씨를 활동을 목적으로 추정되는 정보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보 부대는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하여 못하도록 막거나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유사망을 유지한다."

기지촌 미군 여성들은 내부적으로 복잡한 세계의 위계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 여성들은 거의 여자들과 달리 허가증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회를 배후에 두고 있다. 젊고 매력적인 여성은 나이 들고 덜 매력적인 여성들에 비해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클럽에서 일할 수 있다. 기지촌의 나이는 '배대방'들의 상황은 최악이다. 그들은 클럽에서 일하는 데 필수 조건인 젊음도 없고, 노년을 생계 중 가족이나 재정적 지원도 없다. 최장부에서 명가세를 하는 아줌마는 몇 분의 딸들을 벌기 위해 65세의 나이에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군인과 결혼한 여성들이 기지촌 사회라는 사다리의 꼭대기를 차지한다. 여성들은 대부분 이 자리를 열망하는데, 미군의 아류가 아류/어머니라는 정상적 여성의 역할과 가장 유사하고 더 이상 클럽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미군들은 보통 결혼 과정의 첫 단계로 여자 친구/양친의 클럽 빚을 갚아 준다. 미군 아류는 부대 안의 배점과 PX를 이용할 수 있고 미국에도 갈 수 있는데, 이는 기지촌 미군 여성으로 일한 특권이다. 결혼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이 계약 동거인데, 이는 미군 여성과 미군이 합의된 기간(군인의 근무 기간과 훈련 스케줄에 따라) 동안 함께 살기로 하는 것이다. 미군 여성이 아류 역할을 하는 한편 미군 남성은 그녀의 클럽 빚을 갚고 재정적으로 부양해 준다.

기지촌에서 내가 만난 모든 여성은 미군과 결혼함으로써 미군을 떠나 가족과 가정을 꾸리며 정상적 삶을 살게 되기를 꿈꾸었다. 어떤 이들은 기지촌 미군을 떠나기 위해 직업 기술을 배우고 공장에서 정상적인 일을 하

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심리적으로 '정상적' 세계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낮은 임금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워 대부분 기지촌으로 되돌아온다. 어떤 경우에는, 난파의 경우처럼, 고용주가 여성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도 한다."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이 떨어졌던 소파로 가족을 부양한다. 부모의 치료비나 남자 형제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돈을 벌려는 것이 그들에게 공통된 동기이다. 미군의 1963년 연구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서 103명의 여성 모두가 7명에서 8명까지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³⁴ 남자 형제들의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을 위해, 혹은 부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기지촌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 이야기는 아직도 한국에 차고 넘친다.³⁵ 박상은 기지촌 클럽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인에게 성을 팔았는데, 남자 형제들의 미래를 위해 미국인에게 성을 팔기로 선택한 경우이다.

만약 내가 한국 남자와 이 일을 한다면, 언젠가 내 남자 형제들의 앞길을 막지 않지도 모르잖아. 만일 내 남자 형제들이 결혼하게 될 때, 신부측 가족이나 삼촌, 사촌 중 누군가가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지도 모르잖아? 여기는 좋은 세상이야. 나는 내 남자 형제들의 삶을 그런 식으로 망치고 싶지 않아. 내가 남자와 섹스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차라리 미국인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많은 여성들은 미군과 결혼할 때조차도 고향 가족을 잊지 않는다. 1988년 『알, 자는 미 대사관 자료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1명의 전직 매춘 여성을 따라 15명의 친척이 미국으로 간다고 보도하였다.』³⁶ 일레인 김(Elaine Kim)은 이를 두고 '꿈에 얽힌 이민'이라 부른다. 가족을 미국으로 초대할 수 없는 여성은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돈을 보낸다.

기지촌의 정치 경제

한·미 관계에서 기지촌과 기지촌 매춘부의 영구적 정착은 한국전쟁과 미군 주둔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북한군을 38선 위로 다시 떨어뜨린 것과 함께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이룬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지촌 매춘부가 무슨 전쟁의 영웅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국전쟁에 대해 다른 수많은 두꺼운 책들 속에 기록된 역사가 한결같이 이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 군대와 한국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그것은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섹스, 매춘, 아메리칸 아이, 여성에 대한 신채적 구타, 생명 정치, 테이프하기, 국제 결혼, 그리고 미군과의 결혼으로 인한 미국으로의 이주를 역사에서 빠뜨리는 것은 인로가 비현실적인 '전쟁 박물관'이라 일컫는 내용을 구성한다. 전쟁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은 그것들로 인해 돌아갈 수 없이 깊은 영향을 받았다.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고 그것을 '전쟁실' 바닥에 남겨둔 박물관 큐레이터—혹은 기자, 소설가 혹은 정치 평론가—는 청중에게 어떤 종류의 신화, 분노, 불평등이 전쟁과 군사화된 형태의 평화 유지에 연루되었는지를 곡해시키고 결국은 무기력한 설명만을 줄 뿐이다.'³⁷

한국전쟁 이전에, 가지를 따라다녔던 이들의 성 노동은 미공식적인 것으로서 규제되지 않았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미 점령군에게 성을 판 여성들은,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기지 공군자들처럼 섹스들을 팔아 주고 일부들을 배우고, 돈·음식·담배 같은 것을 얻기 위해 섹스를 제공하면서 부대를 따라다녔다. 미군 점령 초기 시기(1945~1948)의 매춘부는 미군의 박사와 편지집이와 불리는 초라한 임시 병동의 거주지에서 행해졌다. 점령기 후기(1947~1948)까지는 여인숙 같은 곳이 성을 교환하는 장

소가 되었다.³⁸ 그때까지 매춘부는 자급자립 무수한 성적 환상과 수없이 많은 형태의 엔터테인먼트—펄쇼(perp show), 스트립쇼, '질(질)로 흥전 잡기', '웃타일/웃타일' 등—을 만족시키는 휴식과 유흥 체계로 공식적으로 조직화되지는 않았다. 1960년대와 같이 피파를 떨어뜨리기 위한 탈옥스럽고 확고한 경제적 이해가 없었다. 또한 오늘날의 기지촌 지역들이 경험하는 미국화—벤디스, 던킨 도너츠, KFC(켄타키 푸라이드 치킨), 립 음악, 거울로 된 디스코장—의 한 부분도 아니었다.

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11월 발효)은 기지촌의 휴식과 유흥 체계를 위한 원료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전쟁은 빈곤, 사회적·정치적 혼란, 가족간의 이별, 수백만 명의 어린 고아와 과부를 양산하여, 가장이나 생계 수단인 없는 소녀들과 여성들을 '대량 생산된' 매춘 여성들로 만들었다.³⁹ 복지와 보화를 위해 그리고 사랑과 피난처와 일을 찾아, 기지촌 군사들은 유엔군/미군이 야영하는 지역에 모여들었다. 대부분의 전략적 지역들(북한과의 경계에 가까운)은 1950년대 중반에 휴식과 유흥을 위한 신촌 도시로 발전했다. 이 지역 대부분은 원래 인적이 드문 농촌이었다. 논밭이던 동두천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4개의 보병 사단(제3, 제1, 제7, 제2)이 들어서면서 가장 악명 높은 기지촌 중 하나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의 황금기 동안 동두천은 대략 7천 명의 매춘 여성을 과시했다.⁴⁰ 중단과 정주에도 한국전쟁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농촌이었지만, 1950년대 초반 이후 미 공군 기지촌의 전언이 되었다. 1951년 7월 9일 제417비행중대가 비행장을 짓기 위해 불도저를 가지고 송탄에 들어왔으며, 1천 명의 가족 혹은 3천 명의 사람들이 집과 땅을 팔았다.⁴¹ 또한 미 정부의 의견과 경제는 전쟁과 미군 부대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동아일보』는 1962년 7월 22일자에, 전쟁 이전 의정부군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짜단 계곡에 출사하는 인구 1만 명의 작은 마을이었으나

전쟁과 함께 전담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실업자와 미군이 모여들어 지옥처럼 되었다고 보도했다.

상호방위조약은 공통으로 인지원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맹 과보호로서 미국과 한국 두 국가가 함께 이행하는 것으로(군사 행동은 자국의 입법 과정에 따라 취해지게 된다). 미군의 한국 내 주둔을 공식적으로 인가한 것이었다. 1953년 초반 전쟁 당시 병력의 불수가 완료된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제7, 제2 두 개의 보병 사단에 대하여 지원 부대들과 몇몇 공군 비행 중대들이 한국에서 미국 방위 노력의 군간을 이루었다. 방위 조약과 함께 생겨난 부대들은 매춘부의 수요자로 일조했다.

표면적으로, 단순한 시장 경제학—'소년들이 있는 곳'—은 매춘 여성들의 수와 군대 매춘부의 고밀도 지역들을 보여준다. 1970년대 초기처럼, 여성과 다른 기지촌 주민은 부대가 불수하거나 이동할 때, 자기 물건을 팔고 들고 군인들이 재배치된 지역으로 따라간다.(상당) 1990년 이후 송탄에서는 휴식과 유흥 사업이 확대되었는데, 미군의 한국 내 영구 주둔 이후 서울에 있던 미군 본부가 이리로 옮겨를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1992년 봄 송탄을 방문할 때이다. 나는 활기로 고동치는 이 기지촌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곳은 한낮에도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요란하고 상거래가 번창하는 유일한 기지촌이다. 그곳의 나이트클럽 클럽, 시장, 기념품 가게 들은 한국인과 미국인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반면, 파주 지역의 기지촌들은—1953년부터 1971년 사이 미군 부대의 집중으로 인해 세워진 곳으로서 '미군들의 왕국'이라 불린다—낮에는 잡자는 빈민굴처럼 보이다가 밤에만 시시히 깨어난다. 오산과 군산의 아메리카 타운 처럼 동두천과 의정부도 휴식과 유흥의 중심 지역으로 남아 있다. 동두천과 의정부는 1971년 이후 한국에 남아 있는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을 만족시켜 주는 곳이다. 기지촌 주민들과 전직 매춘 여성들은 미군 부대 규모의 중요성

을 깨달아 갔다. 그들은 나에게, 남한에 주둔해 있는 미군 부대를 완전히 철수시키겠다는 카터 행정부의 강력한 개혁 정책의 결과로 1970년대 후반 기지촌 매춘 여성들의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1984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 부대 수를 늘리자 매춘 여성들의 수도 다시 늘어났다.”

미군 기지들은 합법적 고용(정원, 통역사, 통역 비서관 등)과 비합법적 고용의 주요 근원으로 기능했다. 기지촌에 거주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들의 경제적 생존을 거의 전적으로 군대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 의정부의 한국인 인구중 60퍼센트가 어떤 형태로든 미군을 위한 일에 종사했다.” 송만에서는 1970년 후반, 약 2,500명의 매춘 여성을 비롯해 6만 명 주변의 80퍼센트가 미 군대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미군들이 기지촌 내에서 재현하고 행사하는 경제력은 한국인 기지촌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성적 병합력으로 쉽게 전환된다. 1960년대에 남한은 “미군들의 천국”이 되었다. 그때는 “미 육군 장병들을 위해 세워지고 번성하고 지속되는” 마을에서 일반적으로 미군이 왕처럼 살 수 있었으며, 미국인, 특히 달러가 무한한 힘을 가졌다. 남성과 여성들은 총추고 취하면 서 값싼 술과 시끄러운 음악으로 마을을 채워 나갔다. 1960년대 후반까지 2만 명 이상의 등록된 매춘 여성들이 약 6만 2천 명의 미군들을 ‘서비스’하는 데 이용되었다. 시간당(소라일) 2달러 이하 혹은 ‘바웃업’에 5달러에서 10달러의 돈으로” 군인들은 매춘 여성과 섹스를 즐길 수 있었다. 군인들은 섹스 상대뿐 아니라 하녀, 하인, 신발닦이, 심부름 소년,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쉽게 구입했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1960년대를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 그때는 “노포크(Norfolk, 미국 버지니아 주 남동부의 항구 도시—송만)의 무일푼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 20년 후 한

곳에서 천축리 클럽처럼 살 수 있던” 때이며, “가장 높은 한국인도 환경적으로 결국 가장 낮은 미국인보다 못할” 때였다.”

신사아 인로는 “군 기지라는 소우주 안에서 군인 손님들은 남성성—그리고 그들이 재현하는 국가의 역량—을 기지 근처에 사는 여성들에 대한 성적 지배를 통해 보도록 배운다”고 말한다.” 나는 한국에서 미군의 성적 능력에 대한 매춘 여성들의 인식이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역량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기지촌에서 영업중인 매춘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적 기적으로 생겨난 자신감과 오만함이 때인 일부로 이야기한다. 1991년과 1992년에 나와 이야기 나는 모든 여성—젊거나 나이 들었거나—은 미국이 (이전 세대들이 가졌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미국의 잘못된 경제 관리, 높은 실업률, 공립 학교의 낮은 교육 수준, 인종 차별, 개발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행위를 비판했다. 박영은 기지촌 경험에 관해 들려 준 두 명의 한국인 여성 중 한 명인데, 그러한 감정들을 통렬스럽게 내뿜었다. 그녀는 미군에 대해 “한국에 있는 당신들은 돈 때문에 있는 것이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여성들은 “미군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고물가와 한국인의 높은 소비 성향을 따라갈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몇몇 여성은 독한 술을 살 행편이 못 되어 “매주 한두 병으로 끝낼 줄 아는” 미군들을 비웃었다. 그들은 미군의 경제력과 현재 한국 남성의 과소비 성향을 비교했다. 공통된 의견은 “한국 남성들은 바에 있으면 수백 달러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미국 경제력에 대한 그러한 낮은 평가는 미군들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일부 여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한번은 내가 의정부에 있는 두레방을 방문했을 때, (군인이거나 다른 매춘 여성이 보기에) 서재를 부르가에는 너

무 나이 들어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젊은 군인이 자신에게 강압적이라며 비웃는 일부로 그의 제안에 “허우나이고 우스웁스런다”고 말했다.

일부 기지촌 매춘 여성들이 말하는 미국, 특히 한국 내 미군 부대들에 대한 비판은 사회의 비판을 그대로 반영한다. 남한 사회는 “장기 고물”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몇몇 지역 중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국에 대해 비판의 시선이 퍼지고, 1980년 이후 학생 운동가들은 점차 반미주의자가 되어 갔다.”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에게] 전기와 물을 아끼라고 말할 때에도 미국 군대는 “전기나 물을 필요한 만큼 맘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박영의 불만”은 한국인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미국의 남비와 특권이라는 공물된 주체의 한 부분이다. 한국인 중 미군 기지의 용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자 종종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 미군 본부가 도시의 부들산을 가장 값나가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도시에서 미군 집값 때문에 경쟁하고 파질 인구로 슬악히 할 때, 미국인들은 넓은 주둔지에 머물며 용산에 18개 층을 가진 월드 로스를 짓는다고 불평했다. 1992년 나와 이야기 나는 몇몇 학생 운동가들은 미 주둔지와 그곳의 경제 심비를 때문에, 용산 지역은 서울의 지하철 노선에서 잘려 나갔다고 주장했다. 미군 기지를 지원하는 지하 파이프라인과 인프라 구조는 지하철 건설을 불가능하게 했고, 따라서 서울에 사는 많은 한국인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기지촌 생활에서 미국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민감함과 저항감은 1992년 가을 기지촌 매춘 여성 윤금이 세의 살해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기지촌 지역 밖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매춘 여성과 다른 기지촌 주민들과 연합하여 한국인에 대한 미군의 범죄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주한 미군의 윤금이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제2사단 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1992년 11월 7일) “이 범죄는 한 개인 병

사에 의해 저질러진 우발적 살인으로, 희생자와 범행자간의 ‘사적인 범죄’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미군이 한국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믿는다.” 또한 “미군 부대는 40년 이상 한국에 주둔해 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현실은 미군에 의한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범죄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민생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 시기 이전에도 매춘 여성들은 여성들에 대한 미군의 폭력, 특히 살인에 반대하는 소규모 시위들을 열었으나, 대중적 관심이나 기지를 얻지는 못했다. 기지촌 주민들, 특히 매춘 여성들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험했던 경제적과 정치학에서의 현격한 불평등은 점차 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자라나는 반미주의의 감정적 발로가 되었다.

기지촌 내 미군의 지배에 대한 이러한 감정과 저항은 필리핀과 오키나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에 느꼈던 적노”가 1995년 9월에 세 명의 미 해군이 12살의 일본인 소녀를 유괴해서 강간한 사건 이후 폭발했다. 그 남자들은 1996년 3월 일본 법정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을 받았다.” “미국에 대한 존경과 집단의 감정은 미·일 문명에 따른 공적 지분이 수년 사이에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것과 미국에 대한 거세 가는 반감으로 대체되었다.” 일본인도 한국인들처럼 점차 미국인을 약자를 괴롭히는 물방대로 보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미 군대 매춘

군대 매춘촌의 한·미간 역사는 다른 곳, 특히 아시아의 해외 미군 기지들에 존재하는 특징과 긴장들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기지촌 주민들의 미군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남한에만 있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오키나와의

정치 활동가인 타카자토 스즈오(Takazato Susuo)는 오키나와가 베트남에 있는 미 부대들의 휴식과 유흥 지역으로 기능하면서 달리에 의존하여 살았다고 보고했다.

한강 때에는 '인기왕' 박 나비(보통명, 음식장이 오키나와에 1,200개가 남았고, 군인들은 돈을 자유롭게 썼다. B-52 폭격기들은 거의 매일 카라나 (미 공군) 기지에서 북베트남을 폭격하기 위해 이륙했고, 베트남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호주머니에는 달러 지폐가 주워졌는데, 베트남은 하루만에 그 돈을 다 써 버리기도 했다."

미군의 수백 해군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가 위치해 있는(1992년 미군 철수이후) 필리핀의 올롱가포(Olongapo)와 앙헬레스(Angeles)에는, "약 3만 4천 명의 동북 혹은 미동북 태춘 여성과 총 2,182개의 휴식 및 유흥 업소들로 이루어진 '유흥' 업을 빼고는 사실상 아무 산업도 없었다." 미 군대는 1985년까지 4만 명의 필리핀 사람을 고용한,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고용주였다. "..... 그들의 월급 총계를 합산하면 1년에 거의 8천 500만 달러가 되었다."

인종과 국적을 둘러싼 이태종로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미 기지촌 지역 사회에서, 특히 태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에 기여했다. 인로는 "계급과 인종 차별이 미 군대와 주둔국 지역 사회간의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베트남과 한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미군의 인종 차별적 표현은 잘 기록되어 있다. 로이드 루이스(Lloyd Lewis)는 '군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군대의 모든 자부에서 적은 동양인이었고 열등하다'라는 동일한 교화를 받는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 용어들(gook, slant, slope, dink 혹은 a

half a dozen local variations)"은 "모두 이전에 미국인들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인에 대해 그리고 한국전쟁시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해 사용된) 용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것들이다."

맥스 해스팅스(Max Hastings)는 한국전쟁에 대한 저서에서, 1951년 여름 "미군은 주민들을 겁주고 한국인을 길로 몰아 도장에 빠뜨리는 것을 즐기는 군인들을 제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명령을 내려야 했다"고 밝혔다. 그 명령의 내용은 "우리는 정복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친구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해스팅스는 해병 셀린 핸들러(Celwyn Handler)의 말을 인용한다. "한국인들은 꼭 한 무리의 총프기를 잡았다. 누가 그런 사람들의 감정에 관심이라도 있었는가? 우리는 그 당시 매우 자부심 강한 미국인들이었다." 부로스 커밍스는 1960년대 후반 미국인, 군인, 외교관 가운데 퍼져 있는 인종주의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 "그들이 가진 인종주의로 인해, 그들은 내게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가 오줌에서 발효시킨 것이 사실이나 파쉬를 묻곤 했다. 왜냐하면 나는 한국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한국의 '경제'는 거의 개발되지 못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 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은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성 차별과 뒤섞여 아시아에서 미국인들이 기지촌 매춘을 하도록 조장한다. 군대 신문인 '성조기'(Stars and Stripes)는 군인들이 한국의 '밤 시간대 활동', 특히 가성 파티를 '최고의 경험'으로 탐험해 보라고 고무시켰다.

하나님이 이제껏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아름다운 무엇이 당신을 따라다니며, 노래하고, 춤추고, 먹여 주고, 주거나 먹우며 당신을 헛기고, 당신을 최고예요'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듣고 열망하던 음악이다."

1991년 4월에 인터뷰한 한 미 육군 군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인들이 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읽고 들은 것이 태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타이 여성들이 아름답고 순종적이라는 이야기는 무대선 것들이다. 미국 남성은 한국 여성에 대한 욕망에 빠진다. 빈곤, 사물, 노래..... 인종 차별주의, 성 차별주의 이것들이 모두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남성들은 그 여성들을 인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필요스러운, 먼저 먹여야 할 것들이다. 그들은 그 여성들에 대해 사소한 것을 다루듯 이야기한다."

오키나와에서는, 카라나 공군 기지에서 나온 미군들이 "갈색의 작은 섹스 기계 (sleazy brown sex machine)"란 의미의 LBSM 이 적힌 "모욕적 인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마을(나라)에서 볼 수" 있다. 갈색은 오키나와 군대 태춘 여성의 대다수를 이루는 필리핀과 타이 여성을 지칭한다. 아이다 산토스(Aida Santos)는 올롱가포에는 "별로 합리적인 갈색의 작은 섹스 기계"란 내용"이 적힌 다양한 종류의 티셔츠를 판다고 밝힌다. 그녀는 필리핀에서의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은 이제 국가 주권 문제의 핵심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은 아시아 주둔국 사회와 대량양 건너 미국 사회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변화를 초래한다. 탄담 트롱(Thanh-Trung)은 미 군대가 베트남에서 싸우는 미군들을 위한 주요 휴식과 유흥 기지로 타이틀 이용함으로써 현재 부흥하는 섹스 관광 산업을 낳아 전적으로 피프리스 타이와 '아시아의 매춘굴'이라는 수식어적인 이름을 얻게 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미군이 AIDS와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자신들의 나라로 들여 왔다고 비난한다. 올롱가포에 있는 태춘 여성들은 필리핀의 텔레비니스트 조직인 가브리엘라

(GABRIELA)를 비롯한 보건 조직들과 함께 '필리핀에 들어오는 모든 미군이 HIV 검사를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필리핀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1988년 필리핀 입국 감독관은 필리핀에 들어오는 모든 미군에게 그들이 AIDS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다육이 미국인 남성과 아시아 태춘 여성의 성 관계는 혼혈이라는 살아 있는 유산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 아이들은 어머니 사회와 아버지 사회 양쪽 모두에게 거부당하는 삶을 살아간다. 필리핀 기지 반대 운동의 리더인 마리아(Maria Socorro 'Cookie' Dickno)는 미군과 아시아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아메리사인 기념품 아기'라고 표현했다. ABC의 '프라이м 타임(Prime Time, 1993년 5월 13일자)은 군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곤궁해진 삶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파편과 쓰레기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아 태에는 필리핀의 아메리사인 아이들에 관해 썼다. 인로는 "꽤 다 필리핀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약 3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거리의 아이들이 되며, 대다수는 미국인 소아 성욕(pedophilia,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혼간)을 만족시키는 아들 매춘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다. 인로는 "많은 어린이들이 팔리고 있는데, 백인처럼 보이는 어린이들은 50-200달러에 팔리는 반면, 흑인 아메리칸 가진 아이들은 겨우 25-30달러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송탄에 있는 존스본의 엄마는 자기 딸을 포기한 후에도 아들을 또한 포기하고 입양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결국 태춘 생활로 되돌아갔다. 영화 '엘프 아리랑'에서, 송탄의 한 마을에서 일하는 여성은 자신의 아프리카계 혼혈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애통해 하고 있다. 흑인 아메리칸 아이들은 한국 사회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교육 기회와 미래를 위해 자식들을 미국으로 보내고자 한다. 그녀는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아이 모조리 찢어 버렸다. 강정이 북받쳐 올라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말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어머니가 한국인이며 그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편할 것이다."

1992년 필리핀에서 미 해군 기지 철수로 필리핀에 대학 5만 명의 아메리칸 아이들이 유산으로 남겨졌는데, 그들 중 1만 명은 미 수백 해군 기지가 있었던 올롱가포에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 버링게임에 있는 한 법륜 회사(Cochran, Blason & Fure)는 필리핀에 남겨진 아메리칸 아이들을 대신하여 1993년 3월 미국 정부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¹⁰ 고소인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의료비를 위해 이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해군이 그 비용을 책임질 것을 명령하도록 연방 법정에 요구했다."¹¹ 이 아이들의 어머니인 미군 여성들과 가브리엘라와 같은 몇몇 주도적인 필리핀 시민 단체 및 교회 협의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두 동원했다.

아시아 사회도 군사화된 미군에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어 왔지만, 미국 사회 또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 남편과 이혼한(한국인-미군 결혼의 80퍼센트가 이혼으로 끝난다)¹² 미군 여성 중 많은 이들이 미국에 있는 군 기지 지역 주변의 미군 생활로 되돌아간다.¹³ 필라 '이방의 여인들'에서, 만리탄에서 온 관제자들은 일부 미군들이 한국에서 여성과 결혼한 후 이 여성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인마 사술소나 미군굴에 남기고 대신 임신 미군들에게 돈을 받는다¹⁴고 말한다.

미 군대의 정책과 관행

성적 접촉이라는 개별적 순간들은 미국인과 한국인에게 개인적 상처(burns)와 도전일 뿐 아니라 대군모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화시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 군대의 정책과 관행을 분석하지 않은 채 개인적 행위에서 미군대의 결과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다. 미국 밖에 주둔하는 군인들에게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 지역민과의 친교, 언어와 문화 차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파견 근무 기간은 군인들의 미군 참여와 지역 미군에 제각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세계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 가운데 국무성이 군인과 동반하는 가족의 여행 경비와 생계비를 지불하지 않는 파견지¹⁵로 분류되는 두 나라 중 하나이다. 1991년 한국에 주둔해 있던 4만 명의 부대원 중 약 10퍼센트만이 가족을 동반하였다. 한국은 또한 '고성스런 파견지'로 인식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전쟁 지대로서의 위치 때문이며, 생활 질서, 언어, 문화의 차이들이 미국인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은 또한 단기 파견지¹⁶로 보통 1년 반 정도 머문다. 더욱이 한국에 보내지는 입대병들은 대체로 매우 젊은데, 대개 십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다. 그들은 가족이 없으며 (기술적인) 전투 지대에서 직접 경험들을 쌓는다. 이것은 미군 정책이 1980년대 이후 서독에 가족이 있는 기존 남성들을 보내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¹⁷ 한국과 독일 군대 생활을 잘 아는 한 미군 관계자는 미군대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독일 누른베르크 주변에 주로 독실 남성들이 배치된 시기의 통일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0년대 서독의 기존 군인 주둔 움직임으로 미군대 감소 결과를 가져왔다.¹⁸ 더욱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독일은 '고성스러운 파견지'

라는 반대로 정제 될 수는 주둔지로 여겨졌는데, 그것은 가족원이 유럽 생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미 군대 생활을 잘 아는 미국인과 한국인 들은 한결같이 내세 동반 가족에게 생계비 등도 지불되지 않고 근무 기간도 짧은 이러한 조건이 미군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부리를 내어 안정적 생활로 정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자원병들이 한국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퇴출되고 '고립되어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1년 안에 이혼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들을 쉽게 잠재적인 '미군부의 손님'이 되게 만든다.

사령부 정책들은 미군대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모든 사령부는 군인들에게 새로운 주둔지를 소개하는 브리핑을 통해 그들에게 건강상 특별히 위험한 것과 경계해야 할 것들을 알려 준다. 또한 군인들은 생방과 에이즈에 관한 성 교육을 받는다. 아시아의 각 주둔지에서 상관들은 지역 기지촌 환경과 미군대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책과 브리핑보다는 지역 사령관과 중간 상관이 태도와 행동이 현지 환경에서 군인들이 미군대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나와 이야기한 두 명의 군복은 '여성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의 상호 작용이란 측면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사령부가 결정한다. 사우디 아라비아(페르시아 걸프 전)에서 그것은 분명히 '그대 하지 말지니라 (Thou shalt not)'였다'고 강조했다. 다른 육군 군복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군인들이 지역 여성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리고 아랍인에게 잡히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붙잡았다. 우리가 얼마나 일컫었는지 모른다'며 이 말에 동의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한국에 있는 군대는 "예이, 이제 문화인 줄 아라고 말하며, 계속 논쟁이 된다"고 지적했다. 1993년 봄에 내가 만난 한 선원은 자기가 단 몇 개 필리핀이나 한국의 부대에 닿기 전 군체간의 보건 주위에 관한 브리핑 시간에 남자들을 모아 놓고 '바지 보충 카드'라도 되는 양 콘돔들을 던

져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장교들은 '아시아인에게 미군대는 살해한 방식이며, 아시아인들은 미군대를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다'고 덧붙였다.¹⁹ 필리핀에서 근무했던 전직 군인들은 ABC의 '프라이 타임'(1993년 3월 13일자)에서, 군대 장교들이 필리핀에서 미군대를 '법정적으로 조종하였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클럽을 가지고 여자들을 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군대는 한국에 있는 수천 명의 미군에게 일상의 경험이고 일과와 한 부분이다. 인적 요인 연구 (Human Factors Research)(미군)에 참여한 자자들은 1965년 조사에서 약 84퍼센트의 남성들이 한 가지 혹은 또 다른 목적으로 적어도 한 번은 미군 여성과 '관계를 가졌거나 깊이 피력하였다'고 확인했다.²⁰ 동요의 압력이 주범이었다. '대부분 남성들은 도박 직후 그들에게 '미군 여성을 찾으라' 행사하는 압력 중 하나가 다른 미군의 고무적인 태도이다'라고 말한다.²¹ 1980년대 초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한 육군 대위는 '입대한 남성들 사이에는 미군 여성을 찾으라는 상당한 문화적 압력'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²² 그는 미군대의 피악에 대해 쓴소리 치는 도덕 개혁자들조차 결국에는 미군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군은 도덕적 십자군처럼 미군대와 상행을 막으려 한 산발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의 사회·도덕적 개혁 노력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기록도 잘 되어 있다. 미군대와 상행을 관리하는 것은 '전쟁과 전쟁 준비를 위해 그대 제대되는 다른 모든 목적과 활동을 억누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국화' 상징의 한 부분이었다.²³ 여성들에게 이것은 '거리의 여성들에 대한 시민권의 전적인 폐지를 공인한 최초의 국가 조장 정책'을 의미했다.²⁴ '미군 여성은 국내 전선에서의 적으로 분류되었다.…… 전쟁 선전은 미군 여성을 전쟁에서 싸우는 남성들에게 독일의 어떤 전투 관대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는 악랄적이고 전염적인 존재로 묘

현했다.” 군대는 군인들 사이에서 높은 생명 발생율의 책임이 여성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알란 브렌트(Alan M. Brent)는 “전쟁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현역 근무 기간 중 거의 700만 일(日)을 생명으로 손실을 입게 되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감기이다”라고 지적하고, “게다가 ‘전쟁 동안 생명은 정부에 거의 5천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전체 육군 중 감염자의 76.6퍼센트가 미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군대는 진보적인 사회 개혁자들의 도움을 받아 일반적인 매춘과 성의 자유를 막는 법적·사회적 법안을 함께 추진했다. 성병에 감염되었을지 모른다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강제적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시키고 피리를 빨라는 등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사회 개혁가, 특히 진보적인 ‘사회 페미니스트들’은 학대와 관련한 활동에 연루된 소녀 및 여성의 복지와 보호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펼쳐 나아갔다.” 더욱이 개혁자들은 법과 교육을 통해 진보주의적 언어, 즉 ‘자기 결정,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통제’라는 용어들을 적용하려고 애를 썼다.”

“전쟁 정책 입안자들은 남자다움이라든지 스프라타식의 국가를 요구하는 종전 벨즈의 규율을 통해 남성의 동성(virginy)에 대해 만연한 부정적 태도들을 상쇄시키고자 했다.” 프랑스 수상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는 퍼싱(Persing) 장군에게 “공식적 국가”(프랑스 공화국령 장관실의 합법적인 시모닝(Simonin)이 부른)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현했는데, 퍼싱 장군은 프랑스에 있는 유럽 파견 미군을 위해 매춘을 특수 허우스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 당시 육군성에서 “장편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기지”를 만드는 책임자였던 레이몬드 포스디(Raymond Fosdick)은 육군성 장관 뉴턴 디 베이커(Newton D. Baker)에

게 이 사실을 알렸고, 후에 “여러분 레이몬드, 이것을 대통령에게 절대 보여주시 말게. 그랬다면 전쟁을 그만둘 것임세”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한 노력들은, 군대가 석슈엘리티와 관련한 사회 움직임과 지배적 가치에 부응한다는 것, 그리고 이상적인 용병으로서의 ‘군대 남성성’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 일부 군 관계자들은 군인들이 ‘결합적 성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비난했다.” 미8군의 전직 요인 연구(1965년)는 이 사항부가 매춘 문제를 “매우 걱정하여” “최근의 전체 규모의 음의 연구(이것은 자료화되지 않았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석슈엘리티에 대해 강한 기독교적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군대의 매춘 참여를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초 가치관 변화 운동의 미국측 주요 제안자 중 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선교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매춘이 그에 연루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부도덕하다고 믿었다. 게다가 사령관들은 매춘에 참여한 남성들이 한국에서 미군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과장하였다. 그러나 후에 한국에서 매춘 여성들을 철퇴하고 가치관 해악을 점차 줄여 나가기 위해 첫 캠페인을 개시한 기간 동안, 개인의 도덕성과 자기 통제는 공식적인 관심사가 아니었다. 군인이나 매춘 여성의 도덕적 자질이 문제시된 적은 없었다. 1970년대 미 군대와 한국 정부 모두에게 근본적인 관심사는 미군의 건강과 안락함이었다.

매매춘과 한국 사회

이론과 정상적 한국인의 눈에, 매춘 여성은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기능이란 한국 사회에 끼칠 외국적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들을 견제하고, “군중들을 만났던 소녀와 여성들이 미군

에 의해 매춘과 강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1963년 미8군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매매춘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억압적인 입안들은——한국인 중 일부가 반대할 것이다.——매우하면 그것은 미국인과 가깝고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여성(매춘 여성을 뜻함—옮김)이 ‘순수한 한국인 거주 지역’에서 침입할 정도로 강화되는 것을 피하게끔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들처럼 점차 가치관 매매춘이 필요악이라고 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국민이나 모국과 입주보다 여성들을 더 비난했다.

한국은 정부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성들과 그들의 석슈엘리티를 이용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려 시대(918~1392) 초부터 기생이라는 전문적 여성 엔터테인먼트가 왕실과 학자—관료 계층의 남성 구성원—들에게 음악, 술, 시, 대화의 기술로 봉사했다. 정부는 기생이라 불리는 기관에서 이 여성들을 공식적으로 훈련시켰는데, 이 여성들은 가장 낮은 사회 계층인 천민 출신으로 정부 관아에 속해 있었다. 비록 기생은 공식 교육(중국 고전들)을 받고(조선 왕조 시기 동안 다른 모든 여성과 낮은 계층의 남성 구성원에게는 교육이 금지되었다) 공개적인 외출도 할 수 있었지만(반면 상류층 여성들은 집 안에 갇혀 있었다), 모든 여성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존재로 낙인찍히고 도덕적으로 주변화되었다. 조선 통치자들의 성리학적 정책은 여성들의 순결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법적 강조로 이어졌다. ‘여성에게 순결은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 되었다.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순결을 여성의 가장 큰 덕목으로 칭송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런 이상에 집착하는 유일한 유교주의 국가이

다. 김재은에 따르면 조선과 달리 중국, 일본, 몽고에 퍼져 있는 민간 설화들은 순결을 모티브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한 사회에서 기생 여성은 조선 후반기까지 고급 장녀, 매춘 여성과 동화어가 되었고, 상류층 가운데 이상화된 정숙한 아님/도덕적 어머니 페르다다임의 반대 극을 대표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생을 아무 남자나 할 수 있는 길가에 핀 꽃으로 인식했다.”

기생뿐 아니라 다른 여성을 모한 정부를 위해 집단적으로 희생을 겪었다. 고려 왕은 중국에 원(元) 왕조를 세운 몽고로부터 인간 공물로서 기생꾼, 환관과 아울러 수천 명의 여성들을 바치도록 요구받았다.(1231년에는 1천 명의 여성을 바쳤다.)

처음 고려는 상류층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아내, 몽고 수도성의 무인, 속한 곳이 없는 여성들을 끌다 그 수를 채우고자 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녀들을 특별히 모아 달라는 몽고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후보자들을 탐색하기 위해 법감을 세웠다. 모든 집안에서 딸을 숨기거나 이론 나이에 결혼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정부는 또한 정부에 등록하기 전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소녀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하였고, 이 때문에 계속해서 결혼 연령이 더욱 낮아졌다. 이 시기의 역사 기록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심한 처벌을 받은 고려 관리들과 일반인들의 예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조국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순결과 삶을 희생한 여성들은 한국인의 기억 속에서 칭송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학교에서는 논개 이야기가 일본 지배에 대항한 역사에서 한국 여성의 개인적 헌신의 예로 찬양되고 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논개는 16세기 후반 전주 지역의 풍서자인 최경희 장군의 첩으로서, 1592년 일본이 한국에 쳐들어와 전주를 포위

하자 일본 지휘관 케다니무라 로무스케를 죽이기 위해 그를 유혹했다고 한다. 함께 술을 주면서 눈에는 그를 질벽 가장자리 쪽으로 끌고 가 강을 아래로 함께 몸을 던졌다. 때때 술에 6월 29일이면, 진주시 당국에서 세운 사당에 기생과 일반인이 논쟁에게 존경의 마음을 따지곤 한다.

기생 전통과 남성을 위한 연애인/학연으로서 여성들의 역할은 오늘날 남한 사회에 그대로 살아 있다. 고급 가생전/음식점으로 가능하는 요정은 정치인, 사업가, 학자 등을 포함한 부와 권력을 가진 남성들을 제후해서 만족시키고 있다. 매매춘과 여성 복지에 관한 법률들을 통과시킬 권력을 가진 그들이 바로 성적 서비스의 이용자들이었다. 1950년대 국회의 사정 위원회에 속한 한 전직 의원은 "자살상 고급 요정의 야담들은 자음당(그 당시 집안) 실패자들의 후원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찰 병장이 감히 그 현관문을 엿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¹⁰

이에 대한 문화적 설명들은 그 출발점을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남한 사회에 존재하는 성적 서비스의 형태와 정교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은 되지 않는다. 첫째, 거의 모든 문화들이 어떤 형태로든 매매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화들이 정부가 인가하고 후원하는 성 산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둘째, 매매춘 문화는 사람들과 그들의 성적 활동에 관한 본질주의적 관점을 가정한다. 세, 한국인들이 여성과 매매춘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물학적 혹은 심리학적 이유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커밍스는 "북한에는 매매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변화하지 않는 한국의 '정통 양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946년 남한 공권은 매매춘과 축첩을 불법화하고 여성에 대해 법적으로 형식적인 평등을 확립하였다.¹¹

문화보다는 국가 건설, 국가 안보, 경제 발전을 여성의 사회 복지와 사회에 도덕적 질서에 대한 관심보다 우선시하는 남한 정부의 우선 순위가

매매춘과 관련한 정책들을 결정했다. 무대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1961년 11월 윤락행위방지법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행정 조치였다. 1961년의 법은 기본적으로 매매춘에 연루된 여성과 남성(소년과 포주)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남성은 가려운 곳 방향으로 물러나는 반면 매춘 여성은 처벌을 받았다. 여성들은 극심 재판에 기소되어 구류 판결을 받고 구속되거나 강제로 직업 훈련소에 보내졌다.¹² 그 법은 이름하여 '강제적 매춘 여성'('요보르 여성'), 즉 가난하고 병든 여성, 독신모, 기술 소년 그리고 다른 부랑자 등을 수용소와 직업 학교에 수용하도록 했다.¹³ 본질적으로 그 법은 매매춘을 처벌하고 금지하는 두 개의 날을 가진 칼이었다.¹⁴ 처벌 기능은 경찰에 의해 실행된 반면 보호 기능은 보건사회부 부녀국의 일이었다.¹⁵

윤락행위방지법이 실행되는 데는 8년이 걸렸으며(1969), 그 법을 강요하는 세부 규칙들이 덧붙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¹⁶ 그 법은 박정희의 전임자 이승만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타락과 사회적 혼란을 정화하기 위한 박 정권의 정치적 행동이었을 뿐이다. 매매춘 단속을 통해 박정희는 자신을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국가 지도자로 위치 지어 자신을 반대측과 구별하고자 했다.¹⁷ 그러나 1년도 채 못 되어 정부의 입장은 매매춘 금지에서 규제로 바뀌었다. 1962년 6월에 법무부, 내무부, 복지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합동 조치로, 104개의 매매춘 특별 구역을 제정했다. 1964년까지 그 수는 145개로 증가하였고, 그 중 60여건도(60% 지역)가—미국 부대를 만족시키는 약 1만 3천 명의 매춘 여성들과 함께—경기도에 위치했는데, 경기도는 이곳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다.¹⁸ 1972년 이후 약 70개의 구역이 여전히 영업중이다.

비록 그러한 특수 구역들에 관한 법적 기준은 없었지만 한국 정부는 다음의 정당화 논리를 제공했다. ① 일반 시민의 문화와 교육에 매매춘의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② 포주의 복지에 대항하여 매춘 여성들의 집단적 방어 정신을 조성하기 위해, ③ 성병 전염을 확립함으로써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¹⁹ 정부가 공언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한국 페미니스트 학자인 조형과 장필화는 이 기지촌 지역에 반장하는 매매춘의 현실이 1961년 법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1962년 경찰을 타협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한다.²⁰ 게다가 박 정권이 윤락행위방지법 공포식 달 전인 1961년 8월에 관광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은 매매춘 중심의 정부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실제로 지난 25년 동안 한국 관광 산업은 세스 산업과 손잡고 전성기를 이루었다.

구단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에 외화 소득을 증가시키는 한 방법으로 매매춘을 적극 지원했다. 1973년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민관익은 도쿄를 방문했을 때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소녀들의 출생은 진실로 칭찬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내 여성 단체들과 반목을 맺고 언론을 시끄럽게 만들었다.²¹ 여성 단체인 한국교화여성연합회는 한국 정부가 한국국제관광공사를 통해 외국 남성들을 위해 매춘 여성으로 일할 여성을 인가하고 "알성한다"고 보고하였다.²² 한국국제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매춘 여성들이 받아들인 최화가 우리의 경제 발전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외국인 손님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전쟁 후 일본 소녀들이 국가 건설 시기에 매매춘을 통해 활약을 했을 일으로써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관한 "유명한 인사 및 교수"의 강의를 포함하고 있다.²³ 한국국제관광공사는 유동업 서비스 회사 허가증을 발행하는데, 이것은 매매춘과 호텔 출입을 위한 허가증으로 사용된다.²⁴ 신혜수는 한국의 경제 개발과 여성의 성적 서비스의 성장은 서로간에 육성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조형과 장필화의 1990년 연구는 한국 정부가 매매춘에 관해 지난 40년 동안 벌인 논쟁에 관한 것으로, 기지촌 매매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실용주의적 관대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들은 1948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국회의원들이 여러 형태의 매매춘 가운데서 미국 매매춘에 반대했다고 설명한다.²⁵ 의원들은 국내 중심의 매매춘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 혹은 제지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 중심의 기지촌 매매춘은 지지하는 등 국내와 외국인 중심의 매매춘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²⁶ 1959년 10월에 한 의원은 분명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미국 군인들을 만족시키는 매춘 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국내 손님을 만족시키는 매춘 여성과 미국군을 만족시키는 매춘 여성을 구분해야 하며, 외국인을 만족시키는 여성에게 미국 관습, (오래) 제주 혹은 언어의 예의 것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²⁷

한국의 입법자들은 남성의 본성 때문에 매매춘은 군대 내 '필요'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을 고수한다.

미국이 한국에 계속해서 머무는 한, 우리는 군인의 대다수가 독신이고 인간 본성은 욕망(섹스)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매춘 여성들의 문제를 따로 논하기보다 그들에게 특별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남성들에게 [음식과 욕망을 위해] 일본에 갈 필요가 없도록 서울 주변에 아주 저렴한 숙박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²⁸

조형과 장필화는 입법자들이 미국 기지촌 매매춘을 "국가 방어" 혹은 GNP 성장을 위해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위한) 그 보상으로 매춘을 조성하는 정책들'을 지원하였다고 결론 지었다."

기지촌 매춘은 인보문 아니라 한국 정부의 경제에도 기여했다. 1963년 미군 집결국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매춘과 관련한 활동들로부터 국민총생산에 상당한 양을 얻고 있는 정부가 중요한 소수원을 잃어버리는 법안을 시행하는 데 열정적이고 전지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보건사회부의 한 한국인 관계자는 '당신 미국인들은 정부에 아무런 기금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수천 명에게 생계를 제공받는 수입원을 자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의 한 정보 장교는 군대가 1960년대 남한 GNP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1987년 미군은 남한 경제에 10억 달러를 기여했으며, 이것은 전체 GNP의 약 1퍼센트에 해당한다." 1964년에 미군 집결국은 지역 기지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매춘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명했다. "지역 사회 수준에서 성매매는 경제에 타격을 미칠 만큼 충분히 큰 소득원으로 여겨진다." 이와 유사하게 1992년 봄 동안에서 매춘 여성 공동체를 운영하는 어느 한국 개신교 목사는 매춘과 관련한 산업들이 동안 경제의 60퍼센트를 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아시아에서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남한 정부는 성 상품화의 성장을 성중 산업으로 부추기고 공인한 책임이 있다. 1973년 가을 이후 한국 정부는 여성들의 성적 서비스에 기반한 적극적인 관광 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일본 남성 관광객들이 타이완에서 한국으로 발길을 옮긴 것은, 1972년 일본과 중국의 외교 정상화(일본은 타이완과의 관계를 단절했다)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즉 일본 남성들은 더 이

상 쉽게 타이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세스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것이다." 일본인 관광객들—그들의 85퍼센트가 아내나 여자 친구 없이 여행하였는데—의 수는 1971년 9만 6,531명에서 1972년 21만 7,287명으로 1973년에는 43만 6,405명으로 명증 뛰었다. 1979년에 그 수는 64만 9,707명이었다. "1978년 한국 경제는 매춘을 통해 일본인으로부터 70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교통부에 의해 주도된 한국 관광 산업이 "필요는 일본인 관광객들에 대응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약진하는 과감한 변화를 겪었다"고 덧붙인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숫자는 1961년 1만 1,108명에서 1978년에는 160만 명 이상으로,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해에는 23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호텔의 숫자도 1967년 42개에서 1978년 130개로, 그리고 1988년에는 276개로 늘었다."

1989년까지 할라 산업—나이트클럽, 바, 매춘의 세계—은 전체마치 4조 원 이상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GNP의 5퍼센트를 차지한다. "서울 YMCA는 일반적인 유흥 산업, 특히 세스 산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1989년 연구에 따르면, 40만 개 이상의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고, 120만 명 내지 150만 명 사이의 한국인 여성(15-29세의 남한 여성 전체 숫자의 5분의 1)이 성을 팔았다." 성적 서비스의 다양성 또한 엄청나다. '홍살봉'은 남성들이 사임을 위해 혹은 술과 음담과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밤과 여성을 빌리는 곳인데—여성들은 때로 세스에 이용되기도 한다—오늘날 남한에 있는 할라 업소의 일반적인 흐름을 이루는 곳이다. 홍살봉은 학교 근처의 곳에서 매우 호화롭고 티무니없이 비싼 곳까지 여러 가지다. 더욱이 이발소, 만아소, 바, 다방 그리고 호텔—지방 여인숙부터 서울의 화려한 숙박 설비까지—성적 서비스를 위한 여성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상업적인 몸과 함께 대낮에 인신 매매단에 납치된 여성들에 관한 뉴스들이 보도되면서, "1980년대 중반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대중의 인식이 생겼다. 이의 반응으로,

정부는 일련의 행정적 조치들—불시 단속, 피의적인 것이 발견되면 영입 허가 취소, 무허가 영입들의 강제 폐쇄, 사실상의 영입소의 세무 조사, 그리고 1990년 1월 이후의 일적으로 자정 이후 출몰금 금지—를 내놓았다."

신화수는 외국인들을 위한 업소와 관광 호텔 안에 있는 업소는 "이 조치에서 제외되었고, (피해를 위해) 관광객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정부 정책을 다시 반영하여 최소한 새벽 4시까지 영업하도록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일 남한에 매춘 문화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 성장과 관광에 대한 국제적 압지도를 관광을 통해 찾아야 하는 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있을 뿐이다. 성을 파는 일이 너무 흔해서 고상한 여대생들이 이런 식으로 용돈을 번다는 얘기도 한국인을 사에 예시는 종종 회자한다. 1992년 봄, 이태원에서 매춘 여성 공동체를 운영하는 가톨릭 선교사 무자아 장은 몇몇 미군 매춘 여성들은 돈 많은 여대생들이 미군을 납기 위해 이태원 클럽에 자주 온다고 불평을 넣어놓았다고 전한다. 어떤 이들은 성적 만남을 갖기 위해 미군에게 기금 재직, 보석 등의 선물을 준다. 이런 일은 매춘 여성들의 삶을 많이 사는 것인데, "부유한 소녀들이 자신들의 잠재적 손님들을 가져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스를 하고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남자가 돈을 주고 세스를 하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올림픽 이후 남한에는 개슬린 해리(Kathleen Barry)가 '섹슈얼리티의 매춘화'(prostitution of sexuality)라고 부른 것이

한일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성적 담나이 만연한', 그리고 '여성의 몸—그것을 얻고 취하는—과 동일시되는' 사회이다."

한국 사회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은 오늘날의 매춘 역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16년, 일본 식민 정부는 한국을 통치하는 일본인 엘리트를 위해 일본인 매춘 여성들을 처음 들여오도록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매춘을 합법화했다. "일본인 매춘 여성들은 1906년 2,947명이었고, 1908년에는 4,253명, 그리고 1910년에는 4,417명이었다." 결국 한국 여성, 특히 가난한 여성들도 이 합법화된 매춘에 참여했다. 몇몇 한국인 연구자들은 "[남한에서] 현재의 풍습가 대부분은 이때 생겨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한국 여성들의 세슈얼리티에 대한 일본인들의 조직과 관리의 대학 20만 명의 소녀와 젊은 여장을 오늘날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정신대와 일원으로 모집하고 배치한 데서 정점에 이르렀다." 후에 이 일본군 성 노예들은 한국에서 미국 중상의 매춘의 역사적 원형으로 기능한다. 두레방의 일부 간사들은 나이 큰 매춘 여성들의 개인적 역사를 종합해 본 결과, 일부 전직 위안부들이 기지촌 성 노동자의 첫 세대로서 미군 매춘 여성으로 일하기도 했었다고 이야기한다."

연합군에 의한 일본의 패배와 연이은 한국의 해방은 후에 남한 정부에 의한 매춘의 공인이라는 상태로 나아갔다. 미 군정(1945-1948)은 1946년 보건사회부에 여성분과를 처음으로 만들어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여성 복지 정책을 제정했다. "미국 군정 당국자들은 1946년 5월에 여성 매매 및 매매를 위한 여성들의 제약을 금지하였지만, 매춘을 불법화하지는 않았다. 미 군정의 민정국장인 아처 러쉬(Archer Lusche) 장군은 정부가 매춘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47년 11월(발효는 1948년)에 매춘에 연루된 손님 등 관련자 모두에게 2년 이하 그리고/혹은 5만 원 이하의 처벌을 부과하여 허가받은 매춘을 금지

시켰다.” 그러나 1948년 선거 후 한국측으로의 정부 이합과 미국 거지 주변에 이미 넓쳐나는 마군 테레촌은 이 법의 시행을 가로막았다.

한국인들은 점차 한국에서의 테레촌,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섹스 관광의 역사를 한국에 대한 외국 지배의 한 표현이라고 보기에 이르렀다. 신체 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 여성들의 성 노동을 끌어들이는 것은 남한의 종속적 개발 상태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정확하게 한국 여성들은 1970년대 초-중반 일본 남성의 기성 관광 활동을 1910~1945년까지의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로 간주했다. 남한의 대표적인 여성 고용 교육 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들은 기성 관광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저항을 공론화했다.

우리 나라가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정책으로서의 관광 관광이란 명분하에 많은 여성이 35억 달러의 외채 상환을 돕기 위해 경제 침수들에게 먹이로 팔리고 있다. 일본인들이 나락인 소리가 이제 그들의 문화 소리로 대체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또다시 이 땅에 우리의 보스로 오고 있다.”

미국 거지 반대 활동가들과 한국인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점차 거지촌 여는 여성들이 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희생양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안보와 관련한 연구들은 국제 관계에서 종과 폭탄에만 초점을 맞춰 왔을 뿐 국가간 관계와 여성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오래 전 현실주의 전통—오늘날 안보 연구는 이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의 대부인 투키디데스(Thucydides)가 멜로스(Melos)에 보낸 아래에 사절단의 밑에서 국가 사이의 정치학과 여성간의 연관성을 잘 요약한 것이 보인다. “강자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약자들은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을 한다.” 그는 선택이나 장복이나를 통해 아래층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되는 약자로 멜로스를 언급하고 있다. 멜로스의 지도자들은 독립을 선택했고 이에 대해 값어치 있는 댓가를 지냈다. 아래층 해군은 그 상을 무력으로 장복해 젊은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들을 노예로 데려갔다.” 여성들은 전쟁의 희생양이자 전승물이었다.

전통적인 안보 연구는 종에 관계를 언급하고 국제 체제와 국가 사이의 상호 작용의 관계에 초점을 두지만 “여성과 권력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조직 행동(조직 정치학)에 관한 연구들은 제도과 최고 정책 행위에서 엘리트들의 이해 관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국가가 단일체의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며 국민들이 의사 결정의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여전히 여성과 권력에 관해 침묵한다. 대부분의 안보 연구는 국가의 자원이자 후원자로서의 잠재성 외에 일반인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셸링(Thomas Schelling)은 일반인의 주된 역할이 고통과 고난의 잠재적 혹은 실제적 수용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실주의 사고 방식 속에 공약의 냉소를 숨기고 있다. 그는 이것을 “태를 가하는 권력”이라 하여 권력의 한 형태로 보았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여성과 전쟁에 관한 지식의 공백을 채워 넣고자 많은 글을 써 왔다. 엘리자베스(Elsbeth)은 정치 이론가의 관점에서 전쟁과 평화에 얽힌 여성의 관계와 남성의 관계의 성별화된 도덕적 초점을 맞추어 여성과 전쟁에 대한 최초의 개관적 관점을 제공했다.” 스파이크 피어슨(Spike Peterson)은 여성의 진정한 보호자이기보다 약탈자로서 협업적 폭력을 행사하는 근대 국가의 성별화된 특성을 도발적으로 비판했다.” 진노빅스(Geane Vickers)와 츠하이 베렌스-베라시(Tschi Berens-Selander)는 엄청난 군대 예산 때문에 여성을 위한 목지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저자들은 여성이 희생자로서 경험하는 전쟁의 공포를 성장하게 그라 냈다. 전쟁중 강간에 관한 수잔 브라운밀러(Susan Brownmiller)의 설명은 고전적 예이다.” 일간지들은 요한나와 브론디의 여성 난민 기사를 통해 오늘날 전쟁으로 야기되는 인간의 극악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이것과 다른 기사들을 통해 종과 폭탄 그리고 여성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이 있고, 그 관계가 대부분 실적인 것으로 정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과 전쟁에 관한 수많은 글은 국가간 관계에서의 권력 불평등이 어떻게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글들은 성별화된 전쟁

물과 국제 정치학의 결과에만 초점을 둔 문 성별화 과정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학자들과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활동가들은 투키디데스가 국가를 혹은 정부들간의 권력 불균형을 여성의 몸을 통해 재현했던 점에 주목한다. 그 주장은 약소국의 상대적 약함이 자국 여성들을 강대국과 강대국 행위자들의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취약하게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약소국은 자국의 여성에 대한 자국의 지배(경제적·정치적·성적)를 불려들린다. 예를 들어 마에스(Maria Mae)는 “제국주의 산업 자본은 제국주의 군대의 뒤를 따르고 이 둘은 성 산업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좌파 한국인들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와 신체적 폭력의 책임이 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무례함의 공물 창시자인 유봉림 또한 이런 관점을 공론화한다. 전직 기지촌 테촌 여성인 최씨는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의 힘을 기지촌 여성을 자신의 무력함과 연결시켰다. “한국은 미보물만 사는 땅이었어.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이해를 보호할 수조차 없었어.” 25년 동안 테촌 여성이었던 김연자 씨는 이러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되풀이했다.

기지촌 테촌 여성들은 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보와 다른 정부 정책에서) 이해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한국인이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전쟁으로 있는가? 과연 있는가? —

정복하는 국가와 식민지를 둔 국가 들어 식민지 여성에게 성적 요구를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이 20만 명의 한국인 여

실제적 영향 강제 매춘은 최근에 일어난 무지악한 사례이다. 푸리(Frederick Cooper)와 스콜러(Ann L. Stoler)는 식민지의 「정복 입안자들」 사람들이 밭에 하는 일에 대해 환상을 가지면서 매춘, 속임, 건강한 부부의 성 행 식민지 권위를 지키 주거나 회복할 수 없이 손상시킬 모태라 하여 일차원적으로 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미 기지촌 매춘에 대한 역사적 조망은 여기에 역설을 제기하고, 강대국의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와 권리를 지배당하는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약함과 완전히 동일시 하는 것에도 차이를 제기한다. 남한에서 미 군대는 1960년대 초에는 기지촌 매춘 여성들을 관리하지 못하다가 1970년대 초에야 미로소 어들을 관리하기가 이르렀다. 1964년에 미1군단 사령관인 육군 중장 던(J.W. Dunn)은 미군 총사령관인 해밀턴 하우즈(Hamilton Howze)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매춘과 성병에 관해 맹렬한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국에서 미군에 대한 비참한 서비스 조건들을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수 용」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여성과 성병을 관리하는 한국 정부도 별로 무력에 관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불가피한 지역들로부터 대개 말이나 인시지래일 뿐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불평했다.

1960년대 초 주한 미군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설득할 수 없었다. 미군 국제관계국의 한 관계자는 미군 보좌관보에게 보낸 미군식 사한에서, 「우리의 항상 자제가 약해 보인다. 이는 한국이 그들의 노력을 개선하도록 제압할 자량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에게 성병 문제는 주권지이다」라고 소견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기지촌 매춘과 성병을 미국의 문제로 여겼고, 따라서 미 군대 당국자들에게 아무런 특은 별다른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

1971년 한국 정부가 기지촌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어렵고 불법적인 행동

들에 대한 주한 미군의 불평에 즉각적이고 후속적으로 반응한 것은 한·미 군사 관계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이때 처음으로 한국 정부는 민간 관계를 다루며 이전의 자세를 버리고 미군 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시작하였다. 1971년 이전 한국 정부는 기지촌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 예를 들어 합동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유일하게 언급되었던 1968년에만 하더라도 미국의 불평은 사건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 당시 합동위원회 미 대표는 오산 지역의 무법으로 인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한국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대표는 미국 측의 상황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더러 미국이 알고하고 한국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1968년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안전에 관한 공산주의자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한 미군의 평가를 한국 정부는 위험이 아닌 것으로 일축했다. 그러나 3년 후 한국 정부는 일차적으로 미국이 내부 문제(특히 인종 차별과 부대 훈련의 무관심)로 묘사한 것을 한국 문제로 인정했다. 분명히 한국 정부는 1968년부터 1971년에 미국의 요구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고 느꼈고, 한·미 안보 관계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기지촌에 관계의 중요성을 훨씬 중요시했다.

내가 만난 몇몇 전직 매춘 여성은 1960년대를 그들이 가장 자유로웠던 때로 회상했다. 그때만 해도 미군들과 공개적으로 술을 마시며 싸우고 멧대로 나돌아다녔다고 한다. 또 과격한 다툼을 벌이기도 했고 서로를 영달히 겨루하며 머리통에다 유리병을 내려치기도 했다. 그들은 뽀뽀스키 있고 정부의 권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경찰조차 자신들을 무시되하여 내려쳐를 정도였다고 자랑했다. 1960년대 초에는 그 여성들이 두려워할 정부의 권위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한국 정부가 여성들의 활동을 비롯해 기지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발입주어 정책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국가간 관계와 여성 85

한국은 1960년대 초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1970년대보다 훨씬 취약했기 때문에 미국에 더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1961년 남한의 1인당 GNP는 82달러에 불과했지만, 1971년에는 285달러로 한국전쟁 후 10년이 채 못 되어 복원을 앞질렀다. 또한 1970년대 초에는 10년 전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군대를 보유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매춘 여성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70년대 초이다. 1970년대에 급대된 한국의 경제력·군사력—논리적으로는 한·미 관계에서 미국의 지체가 약해져야 하는 것—과 베트남에서 미국의 재국주의적 간섭의 축소는 한국인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통제와 학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외국의 통제와 지체가 가변적이며, 국가간 관계와 여성 억압 사이의 미로소주의적 상관 관계가 어떤 가변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기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상관 관계가 강대국과 약소국의 상호 작용 사이에 세로성(vertical) 관계를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제도적 행위, 큰 권력-작은 권력 관계, 종속적 개발」에 관한 연구들은 국가의 실제적인 교섭 활동이 권력상의 불균형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은 이해 관계와 공약(commitment)이라는 특정 맥락화에서, 약한 권력이 강한 권력 앞에서 세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묘사한다. 이때 강대국-약소국 관계를 상호 작용적인 과정으로 본다면 국가간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질문과 역할에 대해 보다 개방된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다국어 국가간의 권력 관계를 정적인 이분법으로만 보는 것, 즉 약소국의 여성은 언제나 강대국의 남성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한다고 보는 것은 착취와 착취의 내용과 정도를 분리해서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미 권력 관계와 군대 매춘이라는 측면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설명을 하고자 노력하는가? 성매매의 원인과 특성은? 여러 군 기지촌 가운데

매매를 관행의 변수는? 시대에 따른 체계 변화는? 또한 우리는 매매춘 체계 속에 놓인 개별 여성들이 직면한 빈곤, 사회적 지위의 하락, 잔학의 종류와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 책에서 내가 하려는 것은, 국제 관계와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독립된 접근들을 끌어 오으로써, 국가간 관계와 여성의 삶 사이의 상호 교차를 이해하기 위한 틀의 윤곽을 그려 내는 것이다. 특히 국가간 관계의 표현으로서, 기지촌 여성들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곤경의 일반적인 면보다 그들의 특수한 측면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사회적으로 아무의 막달당한 여성들일지라도 세계 정치학의 역할자(player)로 볼 필요가 있다. 자기 행위성과 희생자성이라는 양극단을 오가지 않고 중간 지대를 발견해야 한다. 이 책에서 언급되는 기지촌 매춘 여성들은 확실히 자율적인 행위자들은 아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달당한 자들이다. 더욱이 그들은 종종 신체적으로 자유를 제한당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토주, 불법 매니저 혹은 미군 손님에게 성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정부 조치의 단순한 수용자 이지만은 않다. 그 사실은 주한 미군과 한국 정부 모두 이 여성들을 평화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자로 인정하고 대우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특정 기지촌 프로젝트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캠페인의 성공은 이 여성들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었다. 여성들의 참여는 자유로운 협력은 아니었지만, 모른 여성이 자신의 삶에 미친 미 외교 정책 변화의 결과에 대해 복종이나 침묵으로 응하지는 않았다. 여성들은 그들 삶에 대한 미군의 지배에 대항하여 스스로 기지촌 주민의 감정을 조성하도록 복종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캠페인의 억압적인 정책 중 일부를 이용하기도 했다.(6장)

여기에서 조국의 정치학에 대한 케오한스(Robert Keohane)와 나이(Nye)의 초기 개념(국제 정치학의 주된 현상은 다양한 자율적 혹은 반자율적 행

히 주체들(단기 정부만이 아니라) 사이의 교섭이라는 세계 정치학의 개념”이 도출된다. 그러나 비록 초국적주의가 무국적 행위 주체들을 포함하는 국제 공간을 개량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세계 여성의 거의 대다수가 포함될 수는 없는데, 여성들에게는 케오헨노와 나예가 초국적 행위 주체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문제 영역들에 대한 ‘중요한 자원’ 혹은 ‘실질적 통제’를 가질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초국적주의자들에게는 여전히 엘리트와 다국적 기업, 적십자, 국제 엠네스티 같은 강력한 초국적 조직이 그들 정치학의 자원이고 초절이다. 만일 우리가 국제 행위 주체의 그러한 특성화에 따른다면, ‘중요한 자원’과 통제가 결합되어 있는 한국의 기지촌 여성들이 어떻게 기지촌 관계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자원의 내용을 단지 돈, 출, 외교적 영향력, 여론뿐만 아니라 엑스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도록 사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여성들의 몸이 기지촌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일상의 접촉점으로 기능하는 한, 기지촌 정치학에서 ‘적합자’로서 그들의 역할은 부인될 수 없다.

케오헨노와 나예가 처음 공식화한 비정부 행위 주체라는 개념은 약 2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의미 있게 확장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행위 주체의 정의를 가장 가난하고 박탈당한 여성들에게까지 적용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996년 웨이스(Tomas G. Weiss)와 골덴커(Leon Gordenker)는 미국이 행위 주체의 특징을 정의함에 있어, 조직과 국제적으로 승인된 대상”을 강조한다. 그들은 무엇을 미국이 행위 주체라고 부르는 간에 “그 조직들이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여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 내려는 목적화에 개인들 사이의 지속적이고 제한적이며 자발적인 관계들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다시 이 제한은 세계의 여성들 대부분을 인지된 정치 과정 영역 바깥에 두고, 희생자 혹은 방관자로 남겨둔다. 가난한 여성들의 정치적 관심은 매일매일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지 제한적인 자속성이 아니며, 특별한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기술을 통해서가 아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세계 속의 어떤 틈새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한다. 그들이 경계를 가로지르는 정치학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즉 생존, 적응, 조깅, 비판, 저항한다는 관점에서 권한 없는 여성들을 세계 정치 속의 역할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초국적 조직들이 하듯이 국가의 주권을 누그러뜨리지도 않으며, NGO처럼 경계를 가로질러 이해 관계와 제동을 만들지도 못하지만, 그러한 여성들은 “이전에 비정치적이던 것을 정치화하고 지역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을 결합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물론, 국가간 관계의 역동성과 여성들의 삶이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강대국’, ‘군대’, 심지어 ‘자본주의적 이해관계’ 하나의 통일체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둘 필요가 있다. 1989년 11월 발행된 ‘아메리칸 에ثن노로지스트’(American Ethnologist)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한 지역 내에서도 식민지 게척자와 식민지 주민이라는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경쟁하는 ‘식민주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군대가 늘 동일하며 변함없는 전력과 조직 이해를 견지하지도 않으며, 이 이해가 백안편이나 의회와 언제나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군대는 지역 여성과의 종교와 성적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다른 해외 기지 지역에서 상이한 규범과 관행을 보여준다. 조직의 연구는 우리가 이러한 규범을 견지하도록 도우며, 여성과 관련한 특별 정책 결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한 방식으로 기록권을 가진 집단 사이의 경쟁과 교섭 활동을 보도록 권고한다.”

관료 정책 모델 또한 초국적 연구처럼, 정책 결정에 있어 엘리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군대에는 많은 여성들이 이 조직의 고위직에 올라 여성 지향적 정책을 만들도록 도전에 따라, 우리에게 조직 문화가 성별 중립적

이 아니며 따라서 정책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도 가치 중립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카르담(Nuket Kardam)과 워트워스(Sandra Whitworth)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여성 친화적’ 직무와 프로젝트 조사 개발과 여성 노동의 차이, 맥락, 목표에 대한 성별화된 편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의 예를 보여준다.” 카르담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율’과 ‘효과’에 대한 세계은행의 편견이 개발도상국 여성의 사회 복지 요구와 형평성을 무력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인로와 다른 사람들도 군대 기관들이 그들의 조직 구조와 문화에 있어 심각하게 성별화되었다고 소견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인로는 “군인 보편은 변함없는 장년의 얼굴에 대고 교육적으로 남자 같으니! 전투 태세를 갖추려면, 군인이 되려면, 남자는 모든 여성적 속성들을 벗어날 한다고 의지해 그를 유권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 군대가 여성성을 비하하고 남성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직 위계와 성별화된 이해충돌기를 확립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개척자적인 연구들도 이 조직들이 어떻게 협상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보라는 질문을 남기고 있다. ① 그들이 후원받거나 기금 받는 국가(들)와 그들이 도우려 하는 국가(들) 사이의 더 큰 권력 불균형, ② 주권국 국가와 지역민의 이해 관계와 능력, 더욱이 조직과 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에게 관료 정치와 가장 가난하고 무력한 여성들의 상호 작용에 대해 별로 얘기해 주지 않으며, 조직들의 성별화된 이해충돌기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여성을 그러한 이해충돌기에 가난한 행동의 수용자로만 설정한다.

종속성과 종속적 개발을 연구하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국제 경제 체제와 그 체제에 대한 개발 국가 정부의 제한적 통제력의 연관성, 성별화된 이해충돌기에 기반하여 정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성을 이용하는 것과의 연관성, 여성들이 노동 선택과 성적 조건과의 연관성을 그려 왔다.” 예를

들어 토목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엑스 관광 산업을 아시아 정부와 국제 조직들 그리고 부유한 국가의 다국적 기업들간의 이해 관계와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연구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녀는 실제로도 성 산업에 참여하며 매일 운영을 감독하는 특수 지역 주민과 당국자 들을 엑스 관광 건설 과정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그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 교섭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수용자일 뿐이다. 다른 종류의 연구에서, 파드(Kathryn Ward)는 종속성(상호 집중과 국제 무역 구리)과 여성들의 지위 및 생식의 통계적 상관 관계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행위자들과 그들의 이해 관계 그리고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 작용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얻지 못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넓게 정의된 국제 행위자들, 그들의 이해 관계와 자원들, 그들의 성별 이해충돌기, 그리고 그들의 상호 작용 과정에 우리의 질문을 맞추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속성과 종속적 개발 접근들은 정부와 비정부 엘리트들이 국가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계급과 집단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그러나 이것이 한 나라의 모든 여성이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간 관계의 역동성에 포함되거나 영향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지는 않는다. 계급, 지역 문화, 인종은 특정 외교 정책 문제와 정부의 이해 관계 그리고 능력을 조정한다. 편견은 어느 때 어떤 성별화된 방식으로 여성들이 외교 정책 문제라는 정치학과 동일시되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계급, 교육 수준, 그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낙인어린 점에서 ‘바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한국의 기지촌 예컨대 여성들의 지위와, 그들의 자원이 엑스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그들의 주된 역할은, 기지촌 평화 운동을 통해 그 여성들을 외교 정책을 위한 공동 정부의 도구로 쉽게 변환시켰다.

다음의 장들은 권력 불균형이 국가간 관계를—1970년대 초반 한-미

관계를 좌우한 낙은 독트린—의 알관적인 틀을 지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때 관계, 교섭 도구,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 사이의 제휴에 관한 역동성이 국가간 관계와 여성 사이의 관계를 결정한다.



미정부의 영토 스캔의 인간-비인간적 상호작용의 시점



미정부 영토 스캔의 시점



미정부의 영토 스캔의 시점



미정부 영토 스캔의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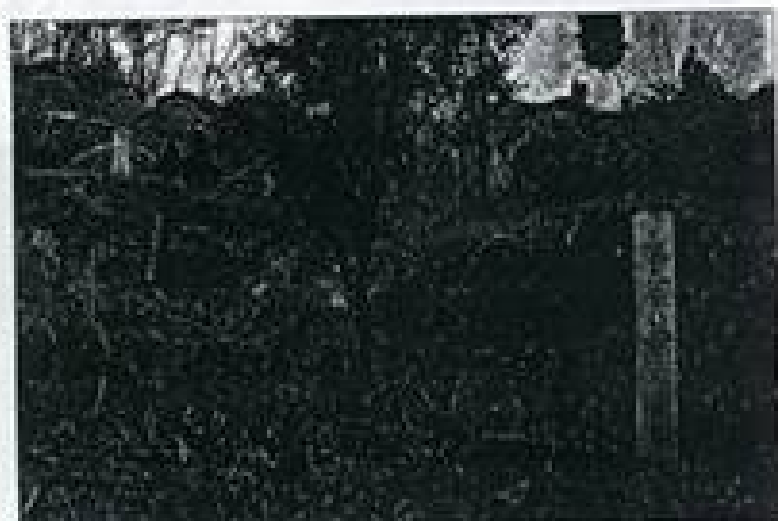
미정부의 영토 스캔의 시점



미정부 영토 스캔의 시점



여성들의 모임



여성들의 모임. 기지촌에서 두거나 마을에 의해 강제된 기지촌 여성들이 여기에 몰렸다고 지역민들은 말한다. 대부분의 무당에는 아무 표시도 없다.

196. 함께 찍은 사진

5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 기지촌여성운동사, 1986-98

정희선*

1. 들어가며

1958년 한 일간 신문은 당시 우리나라의 매춘여성이 30여만 명이라고 보도하였다. 그 중 내국인을 상대하는 매춘여성이 40.9%, 유엔군을 상대로 하는 소위 '할광주'가 59.1%를 차지하고 있다(경향신문 1958. 8. 11). 현재 시점에서 보면, 외국군 상대 매춘여성의 비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주둔한 지 50년이 넘는 지금 기지촌은 어떻게 변모하였으며 기지촌여성과 기지촌여성운동의 상황은 어떠한가.

태평양 이후 가폭전 개정 무장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전제' 민족민주운동과 차별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를 성별적(gender)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여성운동 조직체들이 1980년대 초 중반에 창립되었다(1983년 여성

* 이 책의 기획, 편집자로 서강대 종교학과를 졸업하였고 한국여성학전학에서 3년간 일하였다. 현재는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생으로 있고 기지촌여성운동에 새롭게 관심을 가진 여성과 인권연구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학, 특히 여성성별론, 여성학 방법론에 관심이 많다.

3.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301

의전화(여성평우회, 1984년 또 하나의 문화 창립) 한국 사회에서 전제 사회운동의 구도 속에서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한국화' 여성운동가들은 이제까지 '여성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본질 혹은 '기원'이라 전제 운동의 부분이며, 무차별적인 사회 문제, 여성운동은 중산층 부르주아 운동'이라는 비판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게다가 민주화운동(사회운동) 내부의 성별 분업과 전제 운동도 하고 여성운동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은 여성운동가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춘여성운동은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주변적이다. 그간 한국의 여성운동은 매춘 문제에 대한 관심, 여력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춘여성운동은 '주변부의 주변부'로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가 제 4차 민경자의 매춘여성운동사 창조. 어느 여성운동가의 고백대로, "우리는 페미니스트이면서 직장 여성, 이혼 여성, 상류층 피해 여성일 수는 있어도 매춘여성일 수는 없었다."¹⁾

이 글에서 기지촌여성이란 주변미군 주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말하며 뒤에 상술. 기지촌여성운동이란 현장출신 여성운동가들을 포함하여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의 기지촌여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매춘업 산업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나중엔 하게 되는 매춘이라는 뜻인 '막장 인생'의 기지촌여성들에게 대해서는 '말한(국내) 매춘여성들조차 우월감'을 갖는다. 외국 군대에 몸을 파는 '할광보'로서, 우리 사회의 성원전(成員)을 가질 수 없었던 기지촌여성의 삶은 그래서 더욱 오랜 기간 정치화, 사회운동화되지 못했다. 사실 기지촌에서 '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²⁾

기지촌여성운동은 매춘 문제 자체의 복잡성과 해결의 어려움, 외국군의 주둔, 분단, 군축, 인종, 지역, 계급 문제, 사회운동권의 무관심이라

1)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내의 연구 동아리 '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소식지 창간호(1996, 여름).

는 집결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기지촌은 군사주의와 매매춘, 외국 군대의 주둔과 분단의 핵심 코드이다. 분단 상황은 군사주의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부장적 성별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1998년 수정(道院)예산은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3%(96년에는 22%)였다. 국가 예산의 1/5 이상을 군사비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성관련부나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92년)~0.02%(93~95년)에 불과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군사주의, 전쟁과 증오, 분단은 여성 억압을 기초로 유지되고 있다. 군사주의는 폭력적인 남성성을 미화하여 성적인 이미지(sexual image)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기지촌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모순과 억압을 응축한 공간이다. 기지촌여성운동은 인권과 평화라는 새로운 세기의 화두를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며, 여성인권에 대한 성찰 없이 인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일깨워준다.

다른 부분의 사회운동이 대부분 남성들의 주도, 지도로 이루어진 반면, 기지촌(지역) 운동의 경우는 예초부터 여성들의 주도로 시작되어 기지촌여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났다. 기지촌여성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두레방이 개원한 1986년으로 본다면, 전후분 정권시절인 86년 당시 우리 사회에서 빈이나 미군기지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또 남성중심적인 빈이운동은 기지촌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지촌운동은 여성운동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지촌운동은 곧 기지촌여성운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기지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매매춘 지역이라는 성차별적(sexual)인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기지촌 지역운동을 하는 남성운동가들은 대체로 자신을 기지촌 활동가라기보다는 빈이운동가, 지역운동가라고 정체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매매춘(국내 매춘) 현장 중에서 가장 열악한 기지촌에서 매춘여성운

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난 것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소위 민족민주운동과 맺는 관계를 설명해준다는 데 윤금이 사건에서 상술, 남녀를 불문하고 기지촌여성운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기지촌 문제를 여성 문제라기보다는 빈이 문제로서 인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지촌여성운동이 조직운동의 차원에서 시작된 1986년부터, 현재(1999년 4월)까지의 운동사이다. 이간행 원고를 제외하면, 그간 기지촌여성운동에 관한 글은 주로 윤금이 사건을 다룬 것으로서 남성 시민운동가 이교정(1993), 재야(在野) 페미니스트 김현숙(1998)과 문형선(문형선 문, 1998)의 연구가 있다. 기지촌여성을 소재로 한 소설로는 안일순의 '벚꽃'(1993)이 있다. 안일순은 1992년 윤금이 사건을 계기로 기지촌여성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 여성주의 작가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시, 소설 등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고 각종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안일순은 기지촌여성운동가 김현숙과 함께 군사주의와 여성, 군대와 매매춘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교정은 한국과 같이 사회적 억압이 심한 사회에서는 시민운동조차 민족민주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예로 윤금이 사건을 동두천시 시민운동과 같이 언급했다. 김현숙은 기지촌여성운동에서 기지촌여성, 출신을 페미니스트, 남성 민족주의자의 정치학이 갖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기지촌여성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지촌여성운동가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으로서, 현장(매춘여성) 출신 운동가들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1986년부터 기지촌에서 활동해온 여성운동가들은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로서 현장에 투신한 경우이다. 이 글은 이들 여성운동가의 관점에서, 이들의 기지촌여성운동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때문에 기지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매춘여성 출신 현장활동가들의 목소리를 거의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이 글은 많은 여성운동가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가능했다. 그들은 인터뷰, 논평, 필자와 회의, 토론, 영티, 아이디어와 자료제공, 수 차례에 걸친 워크숍 등으로 이 글이 완성되는 데 전적으로 기여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공동작품이며 필자는 대표 집필자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현장 운동가들의 목소리는 다양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필자의 입장에서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음을 밝히둔다. 유영남두레방 원장, 윤영애(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전 한소리회 회장, 서울여대 생활관장), 김현숙전 두레방 사무국장, 새올리 대표, 정유진전 두레방 간사,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사무국장, 박진아전 참사관/센터 간사, 새올리 전문상담원, 한국여성전화연합 정책부장, 정선아전 두레방 간사, 이화여대 여성학과 학사과장, 서민숙전 새올리 간사, 임상매전 두레방, 새올리 간사, 한소리회 간사, 이지영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시온성교회 담임 전도사, 남승재전 한국여성전화 홍보부 차장, 최희섭(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부장, 경희대 연구원), 새올리 상근자 여러분(김주영, 김미숙, 강옥경, 정강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소모임 피스 메이킹(Peace making), 이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님, 여성과인권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진, 음인물, 해외 인쇄물 등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공해주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의 정유진 사무국장과 수 차례에 걸친 인터뷰에 성실하고도 열정적으로 응대준 새올리 김현숙 대표, 훌륭한 아이디어와 재미 있는 제안을 많이 해준 박진아에게 특별히 감사한다.

2. 기지촌,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현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어느 곳에 몇 개인지 정확히 알기는 매우 힘들다. 1992년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

위원회'가 모체가 되어 만들어진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와 '우리 땅(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등 관련단체들조차 미군기지 실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부나 주한미군 관계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①②

① 1998년 현재 이남의 미군 기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 주요도시와 충남 당진의 망일산, 경기도 화악산, 제주도 송악산 등 총 96여 곳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은 지속적인 감축(減縮)으로 지금은 36,430명밖에 미군이 근무하고 있고 미군 기지와 기지 시설 면적은 총 8,054만 평에 이른다(정유진·김동실, 1997). 이는 1997년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가 국정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밝힌 것이다. 1990년 통일일보 특별취재반의 자료로는, 남한의 미군기지 면적은 약 1억만 평으로서 이는 임야 전답을 제외한 대지 면적으로만 보면 전체 남한 땅의 17.7%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한국인의 주거 면적(1억 2, 800만 평)에 버금가는 땅을 한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 아래 미군이 무상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부산민족민주연합 회, 1993). 1960년대부터 미국의 베트남 전쟁 때, 미국 내 반전운동, 소련 핵 전력의 증강,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등의 영향으로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왔다. 1969년 7월 25일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팜 독트린'(닉슨 독트린)을 발표, 박정희 정권을 '말안개'에 몰아넣었다.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라는 말로 압축되는 팜 독트린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말에 약 6만 2천 명이던 주한미군은 71년 3월, 2만여 명이 철수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군과 보강(1980년대 레이건 정권 때)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장성철, 1988).

어느 시대 사회에나 매매춘과 매매춘 집결지는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현재와 같이 매매춘이 구조화, 정책적으로 변장하게 된 것은 일제 시대의 식민지 정책과 한국 전쟁, 미군의 주둔 때문이다. 외국 군대의 주둔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매매춘 지역을 만들고 관리하게 되는

게기가 된다. 근대 한국 매춘의 역사적 뿌리와 대중화는 일본 제국주의의 공작(公作) 정책이다. 일본은 조선을 침입하면서 자국의 매춘여성들을 데려와 조선사회에 유곽을 형성하고 점차 확대시켰다. 이에 국가는 1910년 '유곽법 장기 취제 규정'이라는 매춘에 관한 법률 만들어 공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후 1916년 일제는 경부총감부령으로 '유곽법 장기 단속 규정'을 실시하였다(강영수, 1988). 일본의 대(對)조선 공장제도의 핵심은, 매춘업 국가화(公營化)와 매춘여성에 대한 성병검사제도 실시이다. 일제는 자국 내와 조선 내 일본인 거주지에는 따로 유곽을 설치했지만, 조선에는 주택가에 산재한 매춘업소를 공인함으로써 결국 조선사회 전반에 매춘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아사다 명에, 1992).

공장제도 확립과정에서 매춘여성에 대한 성병 검사가 일관되게 중요시된 것은 성병 예방이나 매춘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성병 도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현재 기지촌여성에 대한 성병 검사 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성을 사는 사람에게서 성병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사람에게만 집진을 의무화, 강제하는 것은 실제 성병을 전혀 예방할 수 없다. 이같은 성병 정책의 이중성은 미국의 AIDS 예방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기지촌여성들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매춘(買春)을 하는 남성들에 대한 성병 검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미국 당국과 한국 정부가 기지촌여성의 에이즈 검사를 확인하듯이 기지촌여성들도 남성들에게 집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태평양 후 미군이 새로운 점령군으로 주둔하면서 기지촌에는 미군과 기지촌여성, 그들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이 어우러져 상권을 형성하였다. 외국인 전용 술집,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건을 거래하는 블랙마켓(black market), 암달러상, 포주, 미장원, 세탁소, 양복점, 양품점, 사진관, 기념품점, 초상화점, 당구장, 국제결혼 중개업 사무소, 번역소 등을 무대로 기지촌 문화가 정착하였다(김현선 외, 1997).

부산의 서면 일대의 소위 '학아라야 부대'(Camp Hialeh)와 해운대의 탄약부대, 범일동의 미 53보급장, 초량동 지역과 군산의 아메리가 다운,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현제는 시, 부평 등은 대표적인 후방의 기지촌 도시였다. 포천, 동두천, 의정부의 뱃뿔, 파주의 통주골, 문산의 선유리, 서울 용산의 미 8군 기지, 이태원, 후삼동 등도 기지촌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뱃뿔은 기지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뱃뿔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스턴리 부대(Camp Scanley) 주변의 기지촌 매춘 집결지를 말한다. 뱃뿔은 의정부 시내버스를 타면 정거장 이름으로도 표지가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도 공식화된 지명이다. 현재 지방의 옛 기지촌들은 단속이 심한 서울을 피하러온 국내 매춘 업주들이 정착하면서 국내 매춘 집결지로 유명해졌다. 매춘업소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포주들은 매춘여성을 감시·통제하기 쉽고 행정당국은 단속하기 쉽기 때문이다. 매춘업 집결지는 다른 사회와 구분되어 매춘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

기지촌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군 당국의 통제는 1950, 60년대보다 70, 80년대가 더 심했다고 한다. 50, 60년대 한국 정부는 기지 내 매춘 문제를 일차적으로 미국의 문제로 보았다. 70년대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전후의 극심한 가난은 한국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는 매춘여성을 비난했지만 일정 정도 공감하고 통정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 60년대 한국의 베트남 참전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계기가 되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미국은 주한미군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다(Moon, 1998).

그러나 베트남과 아시아의 전쟁상황으로부터 미국의 이탈을 의미하는 베트남 독립과 아시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감소는 상황을 역전시켰다. 주한미군의 감군은 곧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위기를 의미했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에게 기지촌의 환경개선을 담당하게 요구할 수 있

게 되었다. 미군간의 흑백 갈등, 미군과 한국인 간의 인종적 갈등, 미군 병사들에게 안전한 성병, 기지촌 시설의 비위생적인 상태, 필수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는 1971년부터 1976년까지 '군기지 평화 운동'을 벌이게 된다. 1971년 여름 미군들끼리 인종차별로 인해 싸움이 일어났을 때, 미군 당국이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기지촌 여자들이 매우 더럽다. 우리는 한국을 구하러온 VIP들한테 대접이 너무 소름하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지촌여성들을 관리하게 된다. 기지촌마다 성병 진료소를 만들고 매주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게 하였다. 기지촌여성에게는 보건증이 주입통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기지촌 매춘을 직접 관리, 단속하게 되면서 정부는 기지촌여성을 대상으로 '민들레회'와 같은 강제 자치기구를 조직한다(김현선, 1998).

정부가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군의 건강을 위해 기지촌여성들을 관리, 통제하는 것은 매춘에 대한 이중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기지촌여성들을 '가장 더러운 여자들'로 낙인찍으면서도 동시에 '외화를 버는 애국자들', 심지어 '민간 외교관'이라고 칭송(稱揚)하기도 하였다.

기지촌 매춘 여성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지촌 매춘 여성 중 클럽에서 일하는 성년 여성들만 성병 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같은 공식 통계에 포함된다. 일명 '쓰레기'(국내 매춘을 규하는 유동적인 매춘 여성), '전화방이'(여관 중에 대기하다가 전화로 호출받고 매춘하는 여성), 미성년 매춘여성, '히바리'(나이가 들어 매춘업소에 고용되지 못하고 거리에서 직접 손님을 잡아 매춘하거나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 미군과 계약 통거하는 여성의 숫자를 모두 파악하기는 힘들다. 태평양 후 기지촌 매춘 여성의 총인구를 25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김현선, 1998). 현재는 보건소에 등록된 여성들의 경우 최소 5,000여 명에서 최대 18,000명으로 추정하여 그 외 약 9,000명의 여성들이 클럽 바깥에서 매춘을 하고 있다고 본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Margo, 1997; Sturdewan & Sothof, 1995;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Asia Pacific의 연도발행 자료)

3. '현장' 출신 기지촌여성운동가들

조직적 차원에서 기지촌여성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1986년 3월 17일 의정부시 가농동에 '무려방'이라는 단체가 생기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기지촌여성운동은 1970년대부터 송탄과 군산 기지촌에서 활동해온 김연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김연자는 1964년부터 89년까지 25년간을 기지촌 매춘 여성으로 살아온 소위 '현장' 출신의 여성운동가이자,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초의 기지촌여성운동가이다. 그동안 각종 여성인권대회, 학술대회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삶을 증언하였다. 그녀는 그동안 한 번도 가시화되지 않았던 기지촌 매춘의 실태와 기지촌여성들의 삶을 세상에 알렸다.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기지촌여성관련 증언과 생애사(life history)는 김연자의 증언과 무려방 활동에서 채록된 상담기록에 의한 것이다. 정신대 문제의 최초의 증언자가 고(故)김학순이었다면 '현대판 정신대'라는 기지촌에 있어서는 그녀가 최초의 증언자이다.

그러나 그녀의 활동은 '증언자'적 존재를 넘어선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기지촌여성이 다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기지촌여성을 '인간 이하'로 보는 것, 동정하는 것, 반미의 상징으로 이미지화하는 것, 제국주의 침략의 가장 큰 희생자로 보는 것에 모두 반대한다. 오히려 그녀는 한국 사회 내부의 가부장제와 계급 문제를 비판한다. 사회운동권과 여성운동세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녀는 스스로 말하고자 하고 기지촌여성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화되기를 원한다.

내가 기지촌에서 25년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그들(여성운동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현장의 목소리, 현장을 확보하지 않고 어떻게 여성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어요. 여성운동, 나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주연은 여성운동가고 조연 엑스트라는 현장여성들이었어. 그걸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거기구나 저저거리가 아니에요. 기지촌여성들을 연구 자료로 쓰려고한 하지 정작 중요한 개선책에는 얼마나 노력해주었나요?"

그녀는 우연히 기지촌여성들에게도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기지촌여성 자치회가 실제 기지촌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기는커녕 '합법적인 착취기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치회를 개조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다. 자치회는 일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적선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모주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자금 지원에 운영되어 지역 유지와 모주들이 기지촌여성들을 용이하게 통제하기 위한 기구였지만, 조직구성원의 성격,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기지촌여성들의 진정한 자치기구가 될 수도 있었다. 70년대 동두천 지역의 자치회에서는 기지촌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조직화하기도 했고 기지촌여성자치회 전국회의가 열리기도 했다.²⁾

1971년 송탄에서 미군들이 최대의 기지촌 물가가 비싸다며 신발과 쇼트 타임(short time) 최대를 3물로, 롱 타임(long time) 최대를 10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배포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미군들의 최대 배덕기와 최대 인하요구에 대항하였다. 천 명이 넘는 동료 여성들을 조직하여 '우리는 신발이 아니라 인간이다'(We are not shoes! We are human beings!)를 외치며 미군부대 앞에서 데모를 벌였다. 살벌했던 유신시절, 기지촌여성들의 작은 권익을 찾기 위한 노력조차 '북한과의 연계'로 몰려 그녀는 경찰서에 끌려갔다. 이때 당한 협박, 구타, 고문의 경험은 그녀에게 더욱 큰 좌절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모주와 미군들의 잔인한 폭력, 살인사건

2) 선언문, "기지촌 생활 25년 김연자 씨의 본적 중안 내가 겪은 양곡주, 미군 범죄의 세계, <일> 1993. 12.

3) 이 내용은 기지촌여성운동가인 협상자의 증언이다.

이 아무런 처벌 없이 지나가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

"1976년부터 그녀는 군산의 이예리가 타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군산은 송탄이나 동두천의 기지촌과는 달리 기지촌여성에 대한 통제가 심했던 곳이었다. 민간인과 기지촌여성이 한 동네에 살았던 다른 기지촌과는 달리 기지촌여성들을 방 번호가 붙은 소위 '달장 집'에 집단 수용해 놓고 집 근처에는 높은 담을 치고 경비가 지켰다. 일명 '실버 타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정부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50%를 지원하고 모주가 50%를 투자한 실제 주식회사 형태의 '여자 파는 회사'였다. 그녀는 그때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는데, 그녀들이 바로 드러나지 않은 '순금아'들이었다.

"1977년 6월 12일 동료 이복순(당시 25세)은 목에 연타나 줄이 감긴 상태에서 불에 타 숨졌으며, 한달 뒤 열쌍에 살던 이영순(당시 28세)이 밤에 떨어져 숨졌다. 당시 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던 김연자는 이복순이 죽었을 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범인을 못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영순의 시체를 발견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때 빠져 수감된 기지촌여성들이 마군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었다. 범인은 미 공군 스티븐 워렌 타워먼(Sтивен 워렌 Towerman, 당시 20세) 일명으로 이복순과 이영순을 연이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븐은 아영순 살해만 인정하고 이복순 사건에 대해서는 끝내 부인하였다. 그는 주한미군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 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타운 안의 여자들이 불에 빠져죽고, 연탄가스에 중독되고 불에 타죽는 등 열 몇 이상이 연달아 죽음을 맞이하였다."³⁾

"동료들의 줄이든 죽음에 증거를 받은 그녀는, 연도날과 매주영으로 자매를 일삼던 홍순덕(가명, 당시 24세)과 함께 있는 돈을 모두 털어 타운 근처 공터에 천막을 치고 일종의 성터를 만들었다. 그녀는 천막 안에 '백합선교회'를 만들어 매일 밤 기지촌여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고통을 나누었다. 마을주민들이 여자들의 불곡소리가 시끄럽다

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천막을 철거하라고 압력을 가했으나, 끝까지 버텼다. 이후 그녀는 전복신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어 1989년, 송탄에 '참사랑 선교회'이라는 기지촌여성 성서를 마련한다. 혼혈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어머니 영어교실과 한글교실, 선교 활동 등을 준비하다가, 92년 8월 학생운동가와 두레방 자원 활동가 출신들과 결합하여 '참사랑 성서'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원하게 된다. 김연자는 앞으로도 기지촌여성과 혼혈아동을 위해 여생을 보내고자 하며 지금도 강연과 공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경기도 화성부 뱃별 지역의 5물집에서 일하던 사장이(가명, 당시 20대 후반)의 활동은 기지촌여성들의 주체성과 능동성, 기지촌여성에 의한 기지촌여성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5물집은 화정부에서도 가장 학명 높은 곳으로 유명하였다. 주로 학력이 낮고 청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다른 물집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주면서 이중 장부를 만들어 착취하였다. 사장은 모주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동료들을 설득하여 이중 장부에 대해 모주에게 항의하였다. 또한 다른 여성들과 함께 빚갚기 계를 조직하였다. 기지촌여성들이 할대준다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빚과 건강 문제이다. 자신은 빚을 갚을 아비가면서 돈을 모아 10명이 넘는 여성들의 빚을 갚아주었다. 이후 여성들이 전업(轉業)하거나 결혼할 때 다른 여성들과 함께 도와주었다. 김현선 외, 1997).

일부에서는 김연자나 사장의 활동을 기지촌여성들의 '자생적' 투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는 자생적인 투쟁을 '목적의식적인' 투쟁과 대립·분리시키거나 혹은 목적의식적 투쟁의 전(前) 단계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1980년대 한국 사회운동 일부에서는 사회운동을 자생적 투쟁과 목적의식적 투쟁으로 분리하여 목적의식적 투쟁의 우월성,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여성주의는 이러한 사회변혁 모델 자체가 남성중심적이며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고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관점이라고 비판해왔다.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운동이론은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주변인의 일상적 투쟁을 운동의 주요 영역에서 배제시켜왔기 때문이다.

기지촌여성 중에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로 돕고 고통을 나누면서 자신의 매춘환경에 대해 일상적인 저항을 해가고 있는 제2, 제3의 김연자, 사장이가 많이 있다. 이들의 투쟁을 기존의 '주류' 여성운동권이 어떻게 평가, 연대, 지원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4. 두레방의 시작

1986년 3월 17일, 두레방은 문혜림과 유복남에 의해 개원했다. 두레방은 '돌앗이, 두레'할 때의 두레로 여성들이 서로 돕는 곳, 성터라는 의미이다. 영어 명칭은 My Sister's Place. 문혜림은 원래 미국인으로 미국에 유학 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게 된 여성이다. 그녀는 남편(민중신학자 문동환 박사)이 민주화운동관련으로 구속되자, 아르바이트로 미 8군에서 국제결혼한 여성들을 상담한 것이 계기가 되어 두레방을 열게 되었다.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여성으로서, 여성운동가로서 기지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외국교회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다. 문혜림은 91년 12월 미국에 돌아가서도,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여성들을 위해 일하였고 송중순 사건이 끝 제8집 '기지촌여성의 아메리칸 드림' 송중순 사건 참조) 때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녀의 종교인(기독교)으로서의 동성과 여성을 사달하는 마음은 많은 기지촌여성운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문혜림은 같이 일할 상근자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사람을 알아보았다. 주위에서 모범생 스타일의 여성들을 추천했으나 문혜림은 이들 모두 물리치고 현장 여성들과 친화력이 뛰어난 유복남을 선택하였다. 유복남은 한신대 출신으로 70년대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활동가이자 뛰어난 여성운동가였다. 두 사람의 상근자를 갖춘 두레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

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산하의 특수선교센터로 출발하게 된다.”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교회여성들의 투쟁과 노력은 잘 드러나지 않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교회 여성들은 70년대부터 정신대, 매매춘, 여성노동운동, 빈민운동, 반전·반핵 운동, 통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정신대, 매매춘 문제는 교회여성들의 선구적 노력에 의해 확산된 경우다.⁴⁾ 무례방 역시 교회여성운동의 힘으로 시작된 단체이다. 무례방은 기지촌 매춘여성들과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스스로를 해방하여, 하나님에 주신 본래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선교적 사명으로 하였다(최지 창간호에서 인용). 초기 후원자들은 거의가 교회여성들이었다. 개별 교회, 지방 여신도회 회원들과 이우정, 이희호, 김경희, 박순금, 박용길 등 당시 교회여성운동의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였다.

여러 교단 중 특히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민중신학의 근거지로서 전보적 교단으로 유명했다.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매춘여성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한 교회는 없었다. 기지촌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매춘여성을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취급하고 회회식과 절충장을 설교하였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는 매춘여성들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이므로 가장 많은 헌금을 내야 한다며 가난한 매춘여성들에게 삼일초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무례방을 최정무 지역에 세운 것은 최정부와 동무원이 대표적인 기지촌으로 기지촌여성의 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례방은 처음부터 선교적 사명과 동시에 매춘여성운동, 제3세계 인권운동, 여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4) 교회여성운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현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5년사, 1992』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열린 희망 한국 여인 10년사』(1998), 중 권이경·김원자·심미영의 『교회여성운동』,과 한영숙의 『통일·평화운동』을 참조.

기지촌여성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여성의 문제 ... 우리나라 여성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성들도 손잡고 노력해야 ... 한국과 미국의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3세계 인권 문제, 특히 매춘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특히 미군기지가 있는 제3세계의 운동가들과 자료를 주고받으며 공동 대처하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도 현장을 인식 실무자 양성을 위해 애씁니다. 자신의 뼈저린 경험을 통하여 의식화된 여성 실무자이므로 이 일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무례방 회지 1호 중에서).

무례방의 주요 사업은 상담, 영어교실, 공동식사, 탁아, 탈매춘을 위한 전업(轉業) 사업, 기지촌 활동이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지촌여성들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을 만한 대화 상대자가 없었다. 이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며 동등한 처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많지 않았다. 기지촌 여성들이 무시와 천대, 감시, 주눅, 자기 학대, 자포자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여유와 공간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례방 활동 초기에는 무례방을 찾아오는 기지촌여성들을 포주들이 가두어 놓고 때리거나 협박했기 때문에 기지촌여성들은 길거리에서 무례방 활동가를 만나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기도 하였다.

무례방의 프로그램 중 특히 상담은 기지촌여성들이 자신을 객관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담을 통해 인간적인 관계와 교류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력이 가능했다. 자신의 한 많고 기구한 인생이 순전히 자신의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들은 자기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단 자기도 타인에게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무례방의 회원들은 일반 여성운동단체처럼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회원이 아니라 무례방과 연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는 여성들이었다.

영어교실은 영어를 몰라 미군들에게 회대를 빼이는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남편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미군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도 시도했으나 호응이 없었다. 공동식사는 생계

가 막연하거나 식사를 제대 못하는 기지촌여성들과 함께 식사 준비와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혼혈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놀이방 운영과 대학생들의 기지촌 활동, 전업 프로그램으로서 무례방 밖 사업, 기지촌여성의 삶을 알리는 각종 장편과 최지 창간 등이 있었다.

5. 기지촌여성의 이야기

무례방은 상담을 통해 기지촌여성의 삶을 구술하거나 수기를 최지에 실었는데,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어느 날 포주가 잠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몇 때문에 포주에게 골짜못하고 있던 나는 포주를 따라 포항으로 내려갔다. 한 겨울이었는데 언덕에 가서 천막을 친 자판들에 들어가 하루 20~30명을 상대했다. 몇 날 온 혼란(혼란스런)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미군들의 혼란장소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했다. 나는 그 자판에 입신을 하고 자연유산을 해서 심하게 화를 냈지만 매춘을 계속했다.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김형진 회, 1997: 61-62).

내 이름을 매의 첫번째 기억은 김태를 해서 먹던 일이에요. 나를 남자와 우리 전부는 나를 고아원에 보냈는데 저녁밥을 먹고 나면 보모들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밤에 오줌을 한다네요. 내가 여섯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한 일은 갖은 짐작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이었어요. 보모들이 우유를 주고 나가면 아기가 울고 있던 우유 목지를 얼른 해서 내 입에 넣었지요. 나는 항상 배가 고프어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전라도의 어느 교장 선생님을 집으로 입양하였는데 오빠들만 낳긴 집안이었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어차도 할 거 같고 부모를 내보내고 온 집안일을 내게 사였어요. 학교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고아원 때 다닌 국민학교 3학년 1학기가 지금까지 내 학력의 전부예요. 남의 집 일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일을 할 때 이웃집 일손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 피로로 수없이 앓았어요. 나는 스물 일을 먹은 지금까지 물을 세우처럼 꾸부리고 지요. 방이 많은 집이었지만 내에게는 방이 없었어요. 지금도 반듯하게 누우면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답니다. 스무 살이 되던 때에 나는 (아버지에게) 강간당했어요. 아버지가 눈치를 볼 것 같

은데, 거만 죽일 년 같듯이 죽이는 바람에 사육으로 하여 잡아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때 물에 오빠가 제 월급에서 2,000원만 빼고 다 가져갔어요. 나는 30살이 되어서야 월급을 했어요. 2,000원은 생리대 값이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한푼도 저축하지 못했어요. 그 공장 사장님이 나를 기뻐하게 보아 자기 혼전수첩 결혼시켜 줬서 그때 처음으로 주전동복종을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미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저를 두들겨 때고 뜨거운 국물을 얼굴에 붓고 ... 저는 갈 곳이 없어 옮겨간 했어요. 남편은 내 돈을 벌여오지 않느니와 성화에서 합당한 용으로 약을 먹여가며 공장일을 했어요. 관입에 불아를 하니 너무 많이 와서 약을 많이 먹었는데 정박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남편의 때는 더욱 심해지고 병신 아이를 낳은 나는 그자를 둘 수 없었어요. 두 달 동안 집에서 부엌만 돈 10만 원을 저기 열에 두고 무작정 출근을 나섰어요. 여섯 월간지에서 온 광고에 감도 제하고도 월급도 후라 다기에 연락하니 어떤 이름자가 와서 저를 다른 남자에게 넘기더군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문신, 기지촌이었어요(무례방 회지 3호, '열린 집'에 실림사 다, 중, 발행).

원래 그녀는 양송대까지 다녔고 영어도 브로큰이 아니라 제대로 했기 때문에 플럼에서 미군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가슴을 반복했던 사고로 인해 친오빠가 부모님이 없는 사이에 그녀를 강간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게 못하지 못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곳,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다가 기지촌까지 오게 되었어요. 기지촌에 와서는 플럼보다도 무례방 사람들이 더 친하게 지냈고 직접적인 매춘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군 병사를 만나 사랑에 빠져 혼전신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미군은 무례를 그냥 나하서 플럼 때문에 미움하게 되었고, 돈도 벌지 않고 늘 그녀 없이는 못산다고 매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서울로 나와서 학원같이 돈을 벌었어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녀는 이리다가는 평생 그 미군을 위해 살아가 할 것 같아서 미국에 있는 사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사어머니가 자판일에 갔다고 거짓말로 아들을 설득해 귀국하도록 했어요. 그녀는 다시 전업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살아 놓고 들어가 생계를 꾸려가는데 아파도 분당금, 많이 많아서 집안행동이 어려웠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녀를 부르더니 돈을 벌러 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저씨 너는 그런 볼 하나냐'며 대방을 나가든지, 술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날로 집을 나와 다시 기지촌으로 들어와 매춘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미군 유부남을 만나 돈에가 베풀려하도록 연계를 했는데 물론 그 미군은 이혼하겠다고 늘 그녀를 안심시켰지요. 그녀는 미군들 사이에서 누구의 여자로 찍히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서 그녀에게 결혼을 선언한 거예요(기지촌 활동가와의 인터뷰에서).

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괴롭힘이다. 한 번은 8개월째 '낙태'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니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어서 무척 마음이 아팠다. 나는 낙태를 열여섯 번 정도 했다. 하지만 낙태를 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임신중에는 물론이고 낙태한 다음 날에도 다시 배운을 하는 일이다. 김현선 정리, '나의 살아온 이야기',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정유진·유대희 공역, 미진행, 1993.

기지촌여성들의 낙태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877명) 기지촌여성 중 인공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3%, 1회가 40.9%, 2회가 29.1%, 3~4회가 20.3%, 5~10회가 7.6%, 10회 이상이 1.9%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어떤 여성은 무려 25회의 낙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취기'(기지촌에서는 혼혈아들을 'half-person'이라 부른다)를 이 세상에 데려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무제, 1997).

혼혈아의 입양인 김진자 씨(가명, 38세)는 동두천의 D클럽에서 18만 원의 월급을 받아 18만 원은 택이소에 내고 8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 여중생이다. 그녀는 1994년 3월 29일 4시에 미군 지프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녀는 몇 분간 가물었는데 운전술 하던 미군은 그녀가 깨어나자 손에 약 30원(2만 원)을 쥐어주고 그냥 가버렸다. 그녀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그녀는 자신이 숨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가해 미군을 찾은 것을 모가했다. 두레방은 사고 난 미군을 찾아가 했으나 그녀는 거부하였다. 그동안 기지촌에서는 클럽의 여중생들이 미군 별파를 신고하면, 미군들이 신고한 여중생을 할로 데려가거나 구타, 강간하고 클럽의 장사가 안 되도록 보복해준다. 여중생이 당해도 모루들은 여중생들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망친다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히거나 다른 기지촌에 팔아 버렸다. 김진자 씨는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두레방 회고』 13호, '고통사고도 신고할 수 없다나...', 중 발행).

20대 초반에 가출한 후 클럽에서 일했다. 같은 클럽의 여중생과 미군 손님들 서로 먹고 뺑기는 일들이 있어서 힘들어 하다가, 숨에 취한 모루에게 구타당한 다음날 도망쳤다. 몇 때문에 다른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살당자 기지촌 활동가와 함께 여권을 전전했다. 이후 제과점 등에서 일했으나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자살은 한국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 힘든 노동을 무척 두려워 한다. 살당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힘든 일 하지 않고도 놀면서 사는데 나는 왜 그럴 수 없느냐, 나도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매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운을 통해 관계하는 미군들과 연인관계도 맺고 싶어 했다. 미군들은 이런 심리를 알고 화대를 지불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그녀를 이용했다. 끊임없이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린다. '대학을 졸업했다. 부모가 부자였다' 등의 거짓말로 자신을 다른 기지촌여성과 구별하고자 한다(1997년도 새누리 사업평가자료(미진행) 중에서).

그들의 인생 역정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억압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순의 총집약이었다. 그들의 삶은 기지촌여성운동이 여성운동이자 매춘근절운동, 성폭력 반대운동, 지역운동, 빈민운동, 학아운동, 노동운동, 군축, 반미, 통일운동, 혼혈인의 인권운동이라는 다량하고 복잡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여성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고정된 여성의 역할(gender)과 이중적인 성(sexuality)윤리가 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착취와 고통을 주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6. '기활': 기지촌여성운동과 학생운동

기지촌여성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적·조직적 도움을 주었던 세력이 교회여성운동이라면, 사안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여)학생운동과의 연대가 큰 역할을 했다. 두레방 활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기지촌 활동(이하 기활)과 탈매춘을 위한 전업(轉業) 사업이다. 기활은 농활(농촌 활동), 빈민(빈민 활동), 공활(공장 활동)처럼 대학생들이 직접 기지촌을 방문, 기지촌여성단체(두레방, 새누리)의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운동의 연대 사업을 말한다. 기활은 1990년 여름 이후

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여, 92년부터는 서울지역예대생대표와 협의회(서여대협)에서 '반미사업'의 일환으로 공식 참가하였다. 이후 전국 각지의 대학으로 확산되어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부터 98년까지 9년 동안 남녀학생 연인원 2,000여 명이 참가하였다.⁵⁾

기활은 기지촌 문제를 대학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곧 기지촌여성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가시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두레방에는 대학생 살대의 원고 요청이나 강연 요청이 들끓듯 들어왔다. 기활을 통해 기지촌여성운동은 두레방 밖 판매부와 자원 활동가, 후원의원을 모집할 수 있는 중요한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현재 기지촌여성운동가들도 대부분 기활을 통해 기지촌여성운동을 결집하게 된 경우이다.

문혜림, 유복남에 이어 90년부터 기지촌여성운동을 해오고 있는 김현선 새누리 대표, 전 두레방 사무국장은 87학번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의 전형적인 세대에 속하면서도 기존 학생운동권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4학년 때 저는 학생운동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5학년, 6학년 운동(을)을 후배도 학생운동에 남아 후배들을 지도하거나 사출원, 전대협 등 상층 학생회에서 일하는 것이 유행이었었는데 4학년 시작하자마자 활동을 그만두니 굉장히 유독했죠. 저는 선배들이 졸업 후에 일과 행동을 정리하면서 사는 데 많이 실망했어요. (노동)현장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금방 아무 생각 없이 시집가고...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그 아무래도 여대 다니다 보니 여성운동이 어떨까 싶었어요. 4학년 봄에 우연히 <한겨레신문>에서 김미경 기자가 쓴 두레방에 관한 기사를 보았고, 학업하는 여성들이 희망을 갖고 산다는 데 너무 감명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두레방에 찾아가서 자원활동을 했고 그 때 여학생 학생회 라인을 이용해서 복날 연니랑 피는해 3주 동안 기활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여대인데도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성운동은)서서하다. 왜 노동운동은

해야지 그런 걸 하냐는 거죠. 학생운동하면서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애들, 운동권은 아니지만 착하고 현실적으로 살려는 애들이 주로 참가했고 요즘이 대인했어요.

기활에 참가하게 된 학생들의 동기와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여학생과 남학생, 대학의 소재 지역, 각 대학 기활의 역사, 여성외식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다. 기활에 참가하기 전에 학생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은 전반적으로 반미에 대한 내용이 강조된다. '술기학이 부러지도 미국 때문'이라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자료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학생 운동가인 반면에 실제 기활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소위 일반 학우들인 경우가 많다. 학생운동에서 반미운동은 자국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기 때문에, 사실 기지촌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 반미를 고민하는 학생운동가들 자체도 극소수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시에 학생들은 반미의 차원에서 기활에 참여한다. 때문에 학생들은 같은 계층운동단체지만 '반소련회'에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 하지만 기활에 참가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여학생들이고 남학생들은 주류 학생운동권이 아닌 상대적으로 착하고 순한 '여성적인' 학생들이다. 이들은 모두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경우이다. 이들은 반미 문제 외에는 기지촌 매춘을 현장에 접근할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활에 참가하는 이유를 제대로 정식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자대학교 기활 경험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기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 대해 스스로 문제제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것, 여성 문제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90년대 초반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동활에 비해 기간은 짧지만 기활은 참가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제까지 창피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성(sexuality)이 기지촌에서는

5) 두레방과 새누리의 기활을 합친 수치이다.

적나라한 실상이 되고 공론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남녀 학생 모두 '기존 여성들 앞에서 위선적인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성폭력·피해, 가해' 경험 등 이제까지 성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기지존여성들에 도움을 주려고 혹은 교육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배우고 여성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일종의 여성 의식향상을 경험하게 된다. 기합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대중운동이 되었다. 기합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합은 대학생들 중 가장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반미운동, 민족주의운동에서 기지존이라는 현상은 별로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는다. 미군 철폐에 대한/관심조차 '저서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80~90년대 대학가에서 그토록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반미운동, 통일운동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의 성과가 기지존여성운동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사실 1980년대 학생운동세력은 두레방의 존재조차 몰랐다). 그래서 기지존여성운동의 현장은 반미운동이 활발했던 1980년대에도, 소위 '여성운동이 됐다'는 90년대에도 여전히 열악하다. 이러한 관점은 여대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90년대 초 중반 들어 여학생운동을 학생운동이라기보다는 대학 내 '여성'운동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이지는 못하다.

여학생운동은 부분 제일 운동 ... 43년 이후 미제가 남한을 장악하면서,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할 통치를 고안했고, 이 중 하나가 여성을 구별로 하여 운동목적이 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고 ... 여학생들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알기 피쳐문화의 부산물인 임신배,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⁶⁾

우리는 종종 우리 사회가 미국에 의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좌지우지 당하는 식민주의를 잊게 되지만 기지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지존 사람

6) 필자미상,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충청지역출판문화연구회자료 발간집, 1998.

에 대한 애정 어린 눈감에서 출발해 민족사랑의 마음을 배워 오고 주한미군들의 학악한 행위를 통해 미국놈들의 본질과 반미가 왜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인지에 대해 깨닫는다. 조선대기지존학생연대본부위원회, 1996: 31.

이들처럼 아직도 일부 학생운동세력은 (여성학이 대학 내에서 어느 정도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90년대 후반에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임신배, 성폭력이 '미 제국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는 1992년 손금이 사건 진행과정에서도 참예하게 드러났다.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저명한 한국학자 브루스 커밍즈(Bruce Cumings)는 1967년 평화봉사단원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그는 「미국 남자」의 달연한 권리로써 「한국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관유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그런 상황을 거절하느라 애를 먹었던 경험을 기술하였다(Cumings, 1993). 호텔에 투숙할 때, 영어강사 할 때, 미군 부대를 방문할 때, 연구를 위해 현지조사 갈 때 통통 가는 곳마다 「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자를 불러다 주겠다」는 한국인, 미군들의 장면을 받았다. 그는 유교적 형식주의(Confucian formalism)가 강한 한국에서 왜 그토록 할라·외설 문화가 번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종속관계를 남녀의 성적 종속관계에 비유했다. 미군이 침수하면 한국과 미국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것이며 「언제든지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한국 여성(available women)」을 놓고 미국과 일본의 남자들이 더 많은 희대를 지낼하겠다고 경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았다. 강대국은 남성이고 약소국은 여성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평등해진다면 애매혼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통상, 제3세계, 약소국을 여성화(feminize)하는 이같은 견해는 권보적 남성들이 기지존예혼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한다.

그러나 기지존여성운동가, 기지존여성들의 증언은 위와 같은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민족 모순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통일이 되면 이 여성들 기지존예혼이 많이 혜택을 보겠으나, 예혼이 없어지겠으나입니다. 반미적인 초점을 맞춘(남자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도움받은 것도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지존여성운동이 「예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지존예혼과 국내 예혼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팔라틴 사람들이 미군기지연환운동들 열심해 해서 기지가 없어진 대신 미 군 할바산업이 생겼는데 저는 우리도 이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군이 침수한다고 이 여성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70년대 미군 침수 반대 때로써 기지존여성들이 벌인 것도 당장 미 여성들은 미군이 침수하면 생존의 근거지를 잃게 됩니다. 기지존여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예혼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기지존여성운동가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김연자 반이 주장에 기지존여성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대할 때 흥분한다. 「미군은 나쁘고 양공주는 불쌍하다」 그러한 단서로써 시작으로 미군 철폐를 보면 논리의 바탕을 가져온다. ... 끝으로, 미군인사이드, 맞지도, 아이 코로, 락으로 여자들을 이면쪽에 배치하는 동안 조선의 사대부들은 한양에서 지칠을 거느리고 아내를 데리지 않았는가? 자신들은 군대가기 전에 딱지 떼고 사창가로 돌려가면서 첫날밤 신부의 처녀막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열매나, 화순에 돌보상에 국산인 남자들, 말이고 처제고 어쩔이고 가리지 않고 겁탈하는 그들의 정해 ... 조금 장담해 되었고 태국으로 팔로로 국제예혼의 대열에 선 남자들 ... 기지존을 대대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앞서, 케네스 카운슬링이 할바에게 물을 던지기에 앞서 나는 이 나라 남자들이 먼저 눈 뜨기 바란다」⁷⁾

7. 땅과 허브: 할바예혼전업사업

두레방은 1989년 10월부터 기지존여성들의 할바예혼을 위한 전업사업으로 땅 사업을 시작한다. 예혼여성운동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예혼여성이 예혼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다. 예혼업(賣婚業) 자체를 과학화하고 예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면서

7) 언필은, 「기지존 생활 23년 김연자 씨의 본지 증언 다거 겪은 양공주, 미군 철폐의 세계」, 《월》 1993, 12.

여성들을 강제수용하는 기존의 정책은 할바예혼정책이 아니라 예혼여성 처벌정책이었다.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2). 이 제목은 우리 사회의 예혼여성에 대한 일관적 통념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예혼업(賣婚業)을 윤락(淫亂)으로 표현, 도덕적 기준으로 가치평가하면서 할바예혼을 사회복귀로 보고 있다. 예혼여성을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의미는 이미 예혼을 지역을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혼 지역은 사회가 아닌 것이다. 예혼 지역을 우리 사회로부터 단절하고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여성들)에게 사회적 성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곧 예혼 지역에서는 아무리 끔찍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도 「사회」와 똑같은 기준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 그 여성들은 그런 결과오하고 사는 게 아니냐, 「거기는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기지존여성운동가들은 할바예혼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비판한다. 두레방은 땅 프로그램에 당시 40대 후반의 기지존여성을 노동자로 고용하고 이후 현장여성 3명을 더 고용했다. 순우리말로 만든 땅방부처 땅과 과자를 교회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판매하였다. 우리 사회 최초의 예혼여성 전업(轉業) 프로그램이었다. 상근 실무자들은 공동식사, 상담, 공부방, 놀이방 등 일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직접 땅을 들고 수요자를 알릴이 찾아다니며 판매망을 개척했다. 주로 교회에 판매했기 때문에 일요일도 없었다.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예혼여성들이 만든 땅이니까 더럽다고 안 먹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 두레방은 노태우 정권의 사람과 상근자들에게 대한 구속위험, 야간수색 등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땅방장이 불법적 몰취생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땅 만드는 현장여성 여성에게 고통을 주어 정보를 캐내는 이른바 크라치 활동을 시켰다. 경찰은 「두레방 실무자들이 통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가, 미국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가」를 묻고, 「대학생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가는가」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이 여성은 두레방 상근자들과 신뢰가 생기면서 크라치

활동을 그만두었지만 이같은 사상은 김영삼 정부 때까지 계속되었다.

오랫동안 기지촌에서 태운을 해온 여성들이 기지촌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지촌 밖에서 이 여성들은 사회적 상권이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기지촌여성운동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다른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지촌여성들은 자신이 남자들에게 구타당할 때 아무리 기지촌여성단체의 공간이 좁아도 서울에 있는 여성단체의 센터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1978년 여름 경기도 북부지역에 수해가 있을 때도 이 여성들은 다른 지역으로 피난가지 못하고 15평 공간의 새울터 사무실에서 30명이 함께 지냈다. 태운여성들이 탈태운하는 데 어려움은 빛과 모주로부터 쫓김, 폭력, 협박, 사회적 낙인, 경제적 자립기반 없음, 건강 문제 등이다. 혼혈 아들이 있을 때 기지촌을 떠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결혼이나 전직 등으로 탈태운에 성공했을 경우라도 기지촌에서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과거의 '손님'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국내 태운여성들의 공포라면, 기지촌여성들은 자신이 기지촌에 있었다는 것, 자신의 태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할까 두려워 한다. '기지촌' 자체가 너무나 큰 사회적 낙인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탈태운 이후에도 늘 꼬리꼬리하게 지내게 된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남자와 결혼생활에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매우 많은 수의 현장 여성들을 고용하지는 못했지만 두레방의 전업사업은 태운여성정책에 본명한 대안을 제시했다.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의 감사와 탄압까지 받아가면서 민간 여성운동단체가 태운여성 전업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다. 1993년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방화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이제까지 국가의 태운여성정책은 강제수용, 처벌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두레방의 방 프로그램은 태운여성들에게 대안만 주어준다면 얼마든지 탈태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어느 기지촌여성운동가의 표현대로 "만일 10년을 태운했다면 그 경험을 극복하는 데에는 30년이 걸릴 정도"로 태운 폭력 기

지촌태운은 극단적으로 소외된 노동이다. 그 만큼 탈태운의 과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방 프로그램은 최초의 전업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태운여성운동과 국가의 태운정책에 훌륭한 모델을 제공했다. 그러나 국가의 체계적 지원과 태운여성에 대한 낙인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단체의 전업사업은 상징적 의미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특히 전업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자원이 빈약한 여성운동의 힘만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두레방은 의정부에 이어 1990년 동두천시 보산동에 사무실을 내고 두 곳을 운영했으나 93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동두천 두레방은 폐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레방의 활동 주체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여성 출신과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갈등을 빚게 된다. 이는 운동 노선상의 갈등을 포함하여 지도력 부재, 개별 활동가들의 경험과 개성, 사업 방식, 정서적 차이 때문이다. 크지 않은 조직에서 개인의 문제는 종종 조직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학생운동 출신의 젊은 실무자들은 더 이상 두레방에서 기지촌여성운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993년 12월부터 새로운 기지촌여성운동체 '새울터'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새울터는 두레방 활동가 중의 딸의 이름인 '새울'어를 딴 것인데, '새울(새마)이 묻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새울터는 동두천에 사무실을 두고 몇 가지 운영원칙을 정했다. 기존의 일부 여성운동조직처럼 명당거나 소위 '어른'을 이용한 빌려대포로 하지 않는다. 실제 일하는 활동가를 대표로 두어 일하는 사람과 이름내는(?)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또 운영비를 확실하게 내고 현장 여성운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하여, 일부 단체처럼 운영위원이 사업의 지원자이기보다는 실무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 결과 당시 29세의 김형선을 대표로 하고, 창사를 임태, 두레방, 여성외전화 등 일선에서 일했던 젊은 활동가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새울터는 1996년 가을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약 13평 정도의 가정집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밥·보육과 전업 프로그램인 허브(herb) 사업이다. 다른 취업여성들과 달리 기지촌 여성들은 주로 밥에 일하기 때문에 저녁주로 혼혈아가 있는 여성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아이를 팔람에 데리고 가거나, 문을 잠가놓고 가두거나, 아이를 옆에 재워두고 혹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태운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밥·보육 프로그램은 기지촌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으나 2년 정도 운영하다가 현재는 잠시 운영을 멈춘 상태이다. 상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새울터 상근자들은 급여는 월 20만 원 정도인데 그나마 책물이 많아서 새울터 근무를 하면서 서울과 동두천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르바이트와 알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밥·보육을 지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력의 한계를 가지었다.

새울터는 1998년 '시민운동지원가' 1300만 원과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탈태운을 위한 전업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금 900만 원을 받아 98년 9월 26일 동두천에 허브 가공 가게를 열고 현장출신 여성 1명을 고용하였다. 이 가게는 지역에서 '여성센터'라고 하는데 허브 화분, 풀이꽃, 향기나는 주머니 등을 직접 만들어 팔고 전시한다. 이후 '실업과북국민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로부터 '기지촌 지역 실직여성 다시 세기 일 공동체'라는 프로젝트로 기금 61,462,300원을 지원 받아 현장 여성 10명(상근 3명, 반상근 3명)을 고용하였다. 물론 위의 지원금은 새울터 활동가들의 급여 지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허브 가게를 지속적으로 꾸러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그러나 어쨌든 새울터의 전업 프로그램이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지원 액수 1위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몇 년 전 정부로부터 사찰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는 기지촌여성운동단체를 '민간 단체'보다는 '불우여성 복지시설'로 인식하고 지원금을 주거나, 여성특별위원회의 달

당사자들이 '수해 피해는 없었느냐'고 안부전화를 할 정도로 상황이 변했다. 정부나 학계는 기지촌여성, 태운여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전업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여성운동의 성과를 배우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태운여성에 대한 정책 자체가 기존의 처벌 위주에서 전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지촌여성운동에서 태운 전업사업은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서울에 비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바뀌지 않으며, 기지촌여성운동단체는 여전히 지역 유자주로 모주들과 긴장 관계에 있다. 하지만 어쨌든 정부의 사업지원금을 받으면서 정부가 인정한 단체라는 이미지는 지역 사회에서 기지촌여성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새울터는 기지촌여성들의 삶을 담은 기록영화 <아랑의 여인들>(감독: 박혜경·J.T 다카키/1993년 제작, 60분)과 <엘프 아리랑>(감독: 이윤경·다이아나 리/1993년 제작 완성, 25분)을 제작하는 데 같이 참여했고 현재 한국 상업권을 가지고 있다. <아랑의 여인들>은 1996년 미국 공영 TV PBS로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고 1996년 제1회 서울인권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엘프 아리랑>은 1993년 마가렛 메드 다큐멘터리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새울터는 흑인 혼혈 여성아미 시인 이영철의 시집 '나는 바보가 좋다'(개마서원, 1997)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새울터는 기지촌여성들의 삶의 기록과 활동 내역을 자료화하고 출판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레방으로서는 그간 중심이 되어 일해왔던 젊은 활동가들이 그만두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합을 통해 확보되었던 자선 활동가와 학생운동과의 네트워크는 물론 각종 활동 프로그램의 노하우가 활동가의 이동과 함께 모두 새울터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현재 두레방은 문혜림, 이성희 원장에 이어 유복남의 언니 유영남이 수고하고 있다.

8. 기지촌여성의 아메리칸 드림: 송중순 사건

1992년은 송중순 사건과 윤금이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기지촌여성 운동이 우리 사회에 대중적으로 알려짐과 동시에 매우 치열하게 전개된 해이다.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덜어지고 '존재'의 역할성이 보장되는 미국으로 (미군과 결혼하여) 가는 것은 많은 기지촌여성들의 꿈이자,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그러나 매춘여성에 대한 경제적·문화적 처벌이 미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국제결혼한 기지촌여성들의 삶에서 그대로 증명된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기지촌여성이 이국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다. 게다가 미군이었던 남편이 마약중독이거나 생활무능력자, 구타자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 연결망이 전혀 없는 아내의 약점을 잘 아는 미국인 남편들의 학대와 매춘으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강요는 다시 여성들을 매춘으로 몰아넣는다.¹⁰⁾ 대부분 기지촌여성의 국제결혼은 이혼으로 결말을 맺고 미국에서 이혼당한 한국여성들은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된다.

송중순 사건은 기지촌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송중순은 어려서 부모가 잇달아 사망하자, 오빠의 생계를 맡아주고 오빠와 동생들을 위해 기지촌으로 오게 되었다. 그녀는 영국군과 결혼하여 아이를 하나 낳았으나 영국군은 아이만 데리고 돌아갔다. 그후 평택 기지촌에서 만난 미군을 따라 19살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미군과는 미국에 온 지 2년만에 이혼당했다. 이후 다른 미국인과 결혼하여 모세, 에스다라는 이름의 두 남매를 낳았는데, 미국의 사회복지사와 영어를 몰라서 아이를 맺진 경험을 했던 그녀는 아이를 집에서 낳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1987년 남편의 구타와 가난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가솔하여 북부 캐롤라이나의 잭슨빌(Jacksonville)이라는 마을·슬럼에서 일하게 되었다. 두 아이를 맡길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허편방'에 아이를 가두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소리를 못 듣도록 TV를 크게 틀어놓고 출근하곤 했다. 그러기를 두 달여, 새벽에 일을 하치고 쫓겨난 송중순은 세 살 짜리 아들 모세가 TV가 넘어져 깔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찰과 보도진이 여관에 찾아들었을 때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계속되는 질문공세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자포자기 상태가 된 그녀는, "내가 자식을 죽인 에이입니다. 모두 내 탓이 어요(my fault)"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한국의 희생적인 어머니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재판정에서 그 말은 '살인에 대한 자백'으로 처리되었다. 이국 땅에서 통역도 없이 5일 동안 속성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그녀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북부 캐롤라이나 말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 여처구니없는 사건이 1990년부터 교포사회에 알려지면서 말리 시와 뉴욕 시를 중심으로 후원회와 석방대회위원회가 꾸려졌다. 당시 미국에서 살고 있던 두레방 창립자 문해림과 여금현 목사, 민경숙, 박혜정, 김혜선, 유춘자 등은 거의 결사적으로 석방운동에 참가하였다. 청문회를 열어 이 사건의 억울함을 알릴 기회를 얻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차례 찾아가 상황을 반복하여 설명하였다. 92년 두레방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송중순 씨에게 편지 보내기, 실금모금3천 달러를 모금하여 송금, 주지사에게 편지 보내기, 한국후원회 조직,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 언론홍보 등 구명운동을 펴게 된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당시 한창 인기 있었던 TV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하였다.¹¹⁾ 그녀는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도중 자신을 학대한 남편에게 "그 분이 저를 때리셨어요"라고 할때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송중순(만 31세) 92년 12월 31일 오후 2시 수감된 지 6년만에 석방

10. <국민일보> 'NYT지 보도 미국 안아시술소 한인(韓人)여성고을 반대영입', 1993. 5. 30; <한국일보> '한국여성 뉴욕에서 매춘 실태, 상담수가 남편에게 매달리는 주한미군까지', 1993. 5. 30.

11.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최후의 참소-세이코로 송중순 여인 이름 담긴 사건" 1992년 8. 13 방영.

되었다. 우리 사면 운동을 벌였으나 가석방 조치로 풀려났다. 대역리가 뉴욕 시에 있는 여금현 목사¹²⁾가 운영하는 국제결혼한 한인 여성들의 센터 '무지개의 집' 보조 아래 2년 동안 돈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외로움, 불안과 공포, 지역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통역권도 없이 진행된 재판은 국제결혼한 한국여성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은 수없이 많았지만, 송중순 사건은 기지촌여성의 '아메리칸 드림'의 실상을 세상에 널리 알렸고 이후 김분임 사건¹³⁾ 처리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9. 윤금이를 둘러싼 정치학

1) 처참한 죽음

일반인들도 기지촌여성 문제하면 윤금이를 떠올릴 정도로 윤금이 사건은 '희생자로서 기지촌여성',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서 윤금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 대중화시켰다. 윤금이는 자신의 죽음으로 '주한미군 범죄

피사의 전대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해방 후 거의 최초로 한국의 사회운동세력이 미군 범죄를 문제화·정치화한 사건이었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유엔의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는 유엔에 제출한 1994년 1월 26일자 '무력 갈등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in Times Of Armed Conflict)' 보고서에서 아이티, 보스니아, 티벳, 르완다 등의 사례와 함께 윤금이 사건을 다루었다.¹⁴⁾ '두레방'과 '새물터',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는 여성인권관련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윤금이 사건을 소개하고 연대를 호소하였다.¹⁵⁾

그러나 윤금이 사건이 기지촌여성 문제, 매춘여성 문제가 아니라 민족 문제와 미군 범죄의 문제로 일반화된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우리

12) 아래는 보고서의 원문이다.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ase of Yoon Kyeum E.(미국 윤금이 사건)

13) Kenneth Markle, a private in the United States Army stationed in the Republic of Korea, battered Yoon Kyeum E. to death with a coke bottle and then stuffed it into her vagina, and shoved an umbrella into her anus. In order to eliminate evidence of her murder, he spread soap powder over her body. Lastly he stuffed matches her mouth. (주한미군 제네스 마클 여인을 윤금이를 코카콜라 병으로 구타하여 살해한 후 음도강을 그녀의 질 속에 쑤어넣고, 항문에는 우산을 밀어넣었다. 살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녀의 몸 바깥에는 세제 가루를 뿌렸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에 양초를 쑤어넣었다.)

14) The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Private Markle to 15 years' imprisonment. Abuses committed by foreign military personnel, including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have raised some important issues. Questions arise as to which courts should try them and whether humanitarian law applies. There is a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 with this issue in a more systematic manner, especially if there continues to be a need for international peacekeepers. (한국의 대법원은 마클 이병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을 포함하여 외국 군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그 간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각국의 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인도주의적인 법칙을 어루가 문제점이다. 특히 국제적인 평화유지 활동이 지속되어서 한다면,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좀더 조직적인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15) <동아일보> "아시아주권 미군 성범죄 동경서 청문회 열려", 1994. 3. 14; <조선일보> "아시아주권 미군 성범죄 동경서 청문회 열려", 1994. 3. 14; <한겨레신문> "미군 범죄 금지 상설법 제정", 1994. 3. 25.

10) 여금현 목사의 활동은 <한겨레신문> '동로여성 영혼 가슴 사랑으로 달린다', 1996. 10. 25) 참조.

11) 미군과 국제결혼하여 이혼 한 김분임과 그녀의 두 남매가 1994년 6월 13일 오후 2시 20분경 미국 플로리다 주 로프 월튼 소재 자택에서 사해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김씨의 시신은 생선피처럼 난지되어 있었고 3구의 시체는 선혈이 난지되어 목로에 끼워져 있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18년간의 근무 중 보아온 사건현장을 가장 참혹하다고 표현했다. 김안에서는 범행도구라고 짐작되는 40센티 미터가 넘는 칼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김 씨의 남편 에드워드 자르레보스키를 불구속자를 발인으로 지목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1992년 전남 진주에서 태어난 김 씨는 진주신문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영어를 배우면서 서울에서 미군과 결혼한 후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으로 간 직후 바로 이혼하였고 자르레보스키를 만나 재혼하였다. 자르레보스키는 술과 마약중독자였으나 김 씨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다치고 김 씨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정유진·김동일 공역, '우리의 편지를 되찾기 위하여-주한미군 범죄 제로화' (가판), 1997. 9-10쪽.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이 사건은 민족민주운동중심의 사회운동에서 여성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와 여성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맺는 관계, 사회운동 내부의 가부장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1992년 10월 11일, 자신의 생일 전날 윤금이는 동두천시 보산동 431-30번지 16호 김성출 씨 집으로 찾아와 셋방살이를 하였다. 월세 4만 원을 선불로 내고 2명 남짓한, 비슷한 처지의 '양육자' 14명이 함께 사는 '별집'이었다. 그로부터 17일 후인 28일 윤금이는 바로 이 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1966년 전북 순창에서 3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난 그녀는 가난으로 중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17살 때 서울로 올라왔다. 봉제공장에 취직했으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여군을 상대하기 시작했고 행복과 안정이 가지촌까지 흘러들게 되었다. 가지촌을 전전하다 동두천 보산동으로 온 그녀는 사건 발생 2년 전 동거하던 미군에게 버림받은 후 복음상태에서 각성제를 복용하고 돌면서 자주 행위를 부렸다. 그로 인해 미군 상대 클럽들로부터 쫓겨났고 곧 장사회하층의 허파리들이 하는 장사로서 연인처럼 보이는 매매를 남녀에게 밤에 길거리에서 한 송이씩 꽃을 파는 것, 구걸, 허파리로 생계를 이어갔다.

10월 27일 저녁 7시부터 클럽을 술에 취해 전전하다 미군 한 명과 경찰을 따라 미 2사단 쪽으로 갔었다. 그는 미 2사단 제20보병연대 3대대 소속의 마클 케네스 리(Mark Kenneth Lee, 1972년 생, 당시 20세) 이 명이었다. 집 앞에서 두 사람은 미군 제이슨 램버트(21세) 상병과 실랑이를 벌였다. 램버트의 공범 여부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전상규명 취지가 없었고 재판을 조속히 종결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램버트는 전날 밤 윤금이라 잤는데 그날 다른 기지촌여성과 가짜 문제로 피의대상자가 '어젯밤 여자'가 다른 미군의 몸에 안긴 것을 보고 시체를 잡으려다 새벽 1시 30분 계속 귀찮게 하는 램버트와 한바탕 싸운 마클은 윤금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마클은 풀라명으로 금이의 이마를 여러 차례 힘껏 후려쳤다. 이정부 경찰서에서 일하던 '사건발생사실확인서'에는 4회 가짜하였다고 나와 있다.

이마에서 피가 솟구치고 윤금이의 반항이 멈추자 마클은 방안에 있던 우산을 윤금이의 팔목으로 휘서 넣어 직장 안으로 27cm까지 들어가게 하였다. 그녀의 몸에 뿌려진 세제는 '스프레이'였다. 알몸 상태로 과살된 그녀의 손목은 피멍이 들어 있었고 자궁 속에는 태주병 2개가, 질 밖으로는 물라병이 1개 밖에 없었다. 사체 부검 때 태주병에서 발견된 지문은 범인집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윤금이의 사인(死因)은 '전두부(前頭部) 열상(裂傷)에 의한 심혈(失血)'로 밝혀졌다. 사망 시간은 28일 새벽 2시로 판정되었고 10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 주인 김성출 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경찰은 윤금이의 시신을 가족입회하여 10월 31일 화장하였으며 미 2사단 연대장은 위로금으로 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윤금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지게 하고 범인을 잡거한 것은 동료 기지촌여성이었다. 김성출 씨 외에 최초의 발견자는 김순재가명, 당시 30대 초반. 바로 '윤금이'가 사는 '별집'에 놀러갔다가 경찰들이 몰려와서 사건을 듣고 웅성거리는 것을 보고 동두천의 기지촌여성, 아동들의 열터인 '다비타의 집' 전우집 목사에게 알렸다. 사건 발생 1주일 후야 이 사실이 '동두천민주시민회'에 알려졌고 '동두천민주시민회'는 두레방으로 연락하였다. 경찰에 접수한 사건신고서에는 신고자가 김주연 김성출 씨로 되어있으나 실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갑장'이라는 30대 초반의 기지촌여성이었다. 자신이 '몇몇지 못한' 기지촌여성이기 때문에 김주연 이름을 빌려 신고한 것이다.

기지촌여성자치회 '만들레회'의 탈단 지파를 모두 잡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생체와 함께 '○갑장'로 불렀다. 그녀는 오랜 기지촌 생활을 통해 매춘여성이 미군에게 죽어도, 수사를 하거나 미군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런 식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 2사단(가) 앞에서 마클을 기다렸다.

14) 이 글에서 그녀의 생체를 밝혀지 않기로 한다.

15) 주한미군의 주미 부대인 미 2사단은 미군 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부대이다. 미 2사단의 요어는 슬랭은 주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ive by Choice)이다.

마클의 흰 반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도 경비 현병은 마클을 물어보려고 그녀를 막았다. 달치가 있던 그녀는 순식간에 달려들어 마클의 허리를 잡고 나와 경찰에 넘겼다. 그녀는 전날 윤금이라 마클이 싸우는 것을 직접 보았고, 마클이 범인이라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갑장은 행방불명되고 만다. 경찰에서 '잡다루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 도주와 연결된 장래들이 죽었다는 등 소문은 무성했는데 어쨌든 이후로 동두천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집에는 쓰던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연락을 두절시킨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2) 18개월간의 투쟁

이후 사건의 진행과정은 투쟁 주체들이 '자유한 영원한 감시의 대가'라는 말을 그대로 직행한 기간이었다.¹⁴⁾ 케네스 마클의 윤금이 폭행됨에 따라 94년 3월 17일 한국 정부가 마클의 신병을 미군 당국으로부터 인도 받아 원안 소년교도소에 수감하여 사건이 일단락되기까지 18개월 동안 싸우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마다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윤금이 공동대책)는 매회 300~1,000명의 방청객을 조직하였다. '살해 미군 구속 처벌과 공정한 재판권 행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사건발생 후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역에서 집회를 가졌고, 사건을 전국적으로 여론화하였다. 그 외에도 미국 정부와 미군 당국, 한국 정부, 한국 경찰에 항의 편지 보내기, 전화, 단식 농성, 배상금 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두천민주시민회를 중심으로 동두천시 택시기사들이 '미군 승차거부

운동', 상인들이 '미군 손님 안 받기 운동'을 벌였으며 11월 7일 윤금이 공동대책위원회 시면규판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2,000여 명의 동두천 시민¹⁵⁾이 모인 가운데 미 2사단 정문 앞에서 열렸다. 기지촌여성, 전달, 혼혈아들 등 가릴 것 없이 참석한 이 시위는 동두천시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시민이 모인 날이었고 오후 4시에 시작된 집회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언론은 이렇게 대중적인 호응과 분노가 큰 이유를 너무 참혹한 사건이었다는 점과 한국 경찰의 비굴한 태도가 주원인이라고 보도하였다. 사건 관할사였던 외정부경찰서는 피의자신문 조서도 받지 않은 채 마클을 미군범죄수사대(CID)로 인도하였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은 재판 종결 이전까지는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미군 당국의 관할하에 두게 되어 있다. 주한미군 피의자를 체포하면 한국 경찰이 먼저 피의자신문 조서작성 등 기초 조사를 마친 뒤, 미군에게 범인의 신병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 경찰은 이 권리마저도 포기한 채 미군에 마클을 넘겨준 것이다.

당시의 신문보도들은 모두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¹⁶⁾ 특히 1991년 부분적으로나마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외무부의 공식 명칭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로

17) 1990년도 11월 1일 당시 동두천시지 전체 인구는 71,448명이었다.

18) <국민일보> '이명사 한국여성 전국살해 파문 동두천 시민 분노 확산', '보지 수사 재판권 행사 요구, 경찰조서도 안 받고 미군 측에 넘겨지 않단, 1992. 11. 5', <한겨레신문> '미군 범죄 제 수사 못함나까', 1992. 11. 6, '세월 정정할 것, 범인 잡지 못하' 동두천 미군범죄의 전국연파에 대한 정부 책임, 1992. 11. 7, '한겨레 논란 피지도 못하고 잡구나', 1992. 11. 7, <국민일보> '살해미군, 범행구속하나 한화나', 1992. 11. 13, <조선일보> '윤금이사건대처, 공개재판 요구', 1992. 11. 13, <한겨레신문> '범인 구속성 여부 핵심 경찰 공동회 민족 자존심 걸렸다 공정관할 촉구', 1992. 11. 17, <중앙일보> '전북 형의 증거 확보가 열쇠', 1992. 11. 23, <국민일보> '마클 일명 요충 대법원전고, 형화될 뻔 '한국' 수감', 1994. 4. 29, <중앙일보> '한국에 신병 넘겨주지 말라 마클 이명 미 대법원 전원 재판과정에 상정될 뻔', 1994. 1. 15.

Choice, 살인은 자임(Choice by Proficiency)이다.

19) 사건의 자세한 전개과정은 정유진 조계학 공전,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 사건 자료집', 미군법, 1994를 참조.

로 한국 정부가 미군 범죄에 대해 초등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미군의 눈치를 본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였다는 것이다. 사건발생에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18개월 동안 핵심적인 질문은 '공정한 수사'였고 이는 한국의 민족적 자존심과 제3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가 갈등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같은 사태는 1993년 7월 10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절정에 달했는데, 윤금어 사건과 미국의 쌀개장 합의가 맞물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반미시위가 일어났다.¹⁹⁾ 그러나 윤금어 사건 이후에도 많은 기지촌여성들이기운, 강은경, 차혜선, 허주연, 정종자, 전지나, 박순녀(환관상), 신자금(씨름) 미군에 의해 강간, 살해되었다.²⁰⁾

3) 윤금어, 양공주에서 민족의 상징으로

윤금어 사건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반미운동으로서의 민족담론이 여성운동을 압도하여 여성 문제를 비가시화시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지촌여성운동의 성과를 강조하는 사이다. 즉 이때까지 수많은 기지촌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그간 기지촌여성운동의 성과로 인해 윤금어 사건이 '뜨러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은 기존의 추상적인 반미운동을 '현장'으로 끌어내었고, 남성 반미운동가들을 미군의 주동으로 가장 고통받는 구체적인 인생들—기지촌여성—살에 직면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운동가들은 일반시민과 재야운동가들에게 기지촌여성운동과 기지촌여성의 존재를 알렸고, 재야운동가들이 기지촌 문제를 보는 관점을 변화시켰다. 또한 윤금어 투쟁 때 학생들이 갑자기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말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기지촌여성운

19) <한겨레신문>(1993. 7. 11), <중앙일보>(1993. 7. 10).

20) 이 중 박순녀, 신자금 씨의 경우는 평인이 미군인지 한국 남성인지 밝혀지지 않은 미제국 사건이다.

동이 학생운동을 견인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윤금어 사건은 기지촌여성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군 범죄, 민족 자존심의 문제로 집중되었다. 윤금어 사건에 참여한 운동주체들이 강조한 것은 매춘여성 인권유린 문제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실이 중요하기보다는, 기해자가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미군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주요한 의미였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기지촌여성의 존재와 그들이 그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간주되어 왔는가 아니라, 해방 이후 발생한 미군 범죄가 약 10만여 건이었다는 점,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1차 재판권 행사율이 0.7%에 불과(필리핀은 21%, 일본 32%, NATO는 32%)했다는 점이었다. 즉 이 사건은 우리 민족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결국 윤금어 투쟁은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미군지지 문제를 주권이나 영토침해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그 안에서 여성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비가시화시킨다. 이러한 접근에서 여성은 민족의 주권을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Enloe, 1987). 기본적으로 기지촌은 성차별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는 공간이다. 군대와 기지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에 기반한 성의 정치가 필수적이다. 기지촌에 우연히 매매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의 매매춘 자체가 기지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에게 기지촌매매춘은 민족주권의 상실을 상징한다. 외국군에게 몸을 파는 여성들의 존재는, 그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지켜야 할 재산으로 간주하는 남성들의 정제상에 상처를 준다.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은 기지촌 문제를 매매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들은 기지촌 매매춘의 가부장제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다. 기지촌매매춘여성의 문제가 윤금어 사건에서는 '기지촌'에만 양점이 찍힘으로서 매춘여성의 인권유린 현실이 조명되거나, 이 사건이 여성인

권운동으로 인식될 여지는 매우 적었다. '화대'지불이라는 명목으로 기지촌여성들이 '남성 손님', 토주, 지역 장래, 경찰, 클럽 주인 등 한국 남성들로부터 당하는 강간과 폭력은 전혀 문제화되지 않았다.

(화대) 여성운동을 말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이 사건을 여성중심으로 볼 것이라면 그렇게 크게 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민족 문제니까 그나마 그렇게 대중화된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운동단체 일을 많이 해보았지만 이 사건처럼 시민들이 호응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이 사건이 여성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본질'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민족 문제라는 말이고), 그렇고 그것이 구체화된 '현상'이 윤금어를 통해 나타난 거요. 거시적인 문제가 미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여성운동가들하고 일한 것은 처음인데 때는 그 때요. 나는 그 여성들이 그렇게 사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당시 '윤금어 문제'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재야단체 활동가와의 인터뷰에서,

민족 문제가 '본질'이고 여성 문제는 그 본질이 희화되는 형태일 뿐이라는 생각,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분리하는 이 활동가들의 사고양식은 당시 윤금어 사건에 참가했던 거의 모든 활동가들의 의식이었습니다. 몇몇 여성운동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성운동이 언제나 전체 운동의 부분 운동으로 취급되는 본단국가에서, 민족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로 자신의 정치학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현재 우리는 이 사건 실무자들 꾸릴 때 재야나 학생운동 애들을 부르지 않았어. 군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사무실로 먼저 찾아 왔다라구. 한어디로 '간수' 잡았다 이거지. 나는 경찰청 학생운동출신 남자들에게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 왜 일했어. 어떻게 늦게 나오면서 어찌 힘들어 진 거. 그런데 재야들이 실제 사람들을 다뤘고 '법학'이 되기 때문에 군 2년 동안 전대했(1992년까지 전대했. 1993년부터 현충원-필자 주)에서 동원은 다했으니까, 일주일이 될 다 하고 집회를 하는데 학생들 없으면 불가능하지. 우리 여성운동가는 (동원)에 많이 안다고 할당 사람들이 '우리 나라 여자가 이렇게 당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윤금어 문제)에 관련된 여성단체 활동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 사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청년학생의 경우 반미 투쟁의 촉발점으로(그것도 참여학생회중심, 총학생회는 1992년 말 대통령 선거투쟁에 주력), 종교계는 인권, 민족주권의 문제로, 시민운동세력은 반미, 민족주권의 문제로 여성계는 여성인권, 성폭력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물론 공통적인 것은 전인한 살해에 대한 분노였다. 한편 공무원, 경찰, 보수적인 일부 시민들은 '양공주 하나 죽었다고 세상이 왜 이래 시끄럽냐. 하찮은 여자 죽음으로 한미 관계에啥이 가져 할 수 없다. 그런 여자는 어느 정도 좌오하고 사는 것 아니냐. 참피한 일'이므로 파벌리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²¹⁾

사회운동권의 민족주의의 시각과 '여자 하나 때문에 투쟁을 불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내용상으로는 상반되지만, 여성이 이 사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논리이다. 그럴수록 윤금어는 '순결한 희생자'로 지리해잡아야 했다. 이에 대해 한 기지촌여성운동가는 매우 분개하면서, '그때까지 기지촌여성의 존재 자체도 공인을 사담들 재야운동가와 일반시민이 평소 양공주라고 천시하던 기지촌여성을 민족의 딸이라고 서슴없이 호명하는 데 거기 막혔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지촌여성은 민족과는 상관없는, 도저히 민족의 성원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이 글의 제목대로 기지촌여성은 '알기'에게 살해당해버린, 죽어야만 비로소 민족의 성원이 될 수 있었다. 기지촌여성은 살아서는 인간으로 간주되지 못했고 우리 사회가 부정하고 싶은 그리고 실제로 부정된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을 민족주권의 상실로 상징화하려는 세력에 의해 생전과는 반대로 민족의 정수(精髓, essence)가 되었다. 죽어야만 사는 여성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대국 ○○ 시민여러분: 우리의 딸이 저렇게 살해되었습니다. 평민은 미군

21) '여성과인권연구회'대표 김은실, 김성래, 김현희주최, 여성인권 재야단체, 정유진씨 발의(『미군 범죄와 여성』에서 발췌) 1994. 5. 15).

달리하였다.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실무진에 재야 학생운동세력으로 전국연합 최최실 부장, 여대협 대표로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이경희와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이승아, 전대협 부총장장 강대호(가명), 서울권 반미특위장 조재학이 결합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윤금이 부정부패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최초 여성단체들의 주장대로 여성인권 문제로 표명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다. 처음 이 사건이 두레방에 알려지고 두레방은 이를 한소리화해운동 활동가들의 모임에 알렸다. 한소리화에 참가하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당시 같은 전불(한국기독교연합회)에 있던 여성운동단체들을 모아 첫 모임을 가졌다(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회전과, 한국여성학자협의회, NCC여성위원회).

당시는 여성운동단체조차 매춘여성 문제, 더구나 기지촌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었기에 “매춘 문제를 들고다니나도 괜찮을까?”, “혹시 그 여자(윤금이)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가 아니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등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항해와 대중성, 탄압에 대한 걱정과 회색이 많았다. 여성운동 내에서도 매춘운동은 주변적이어서 처음에 어느 정도 망설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성운동 내의 갈등은 크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운동 내부의 성별 분업이었다. 이는 여성운동, 매춘여성운동의 일약한 현실과 맞물리면서 더욱 정당화되었고 운동이 대중화, 주류화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학순환을 합리화했다. 왜 두레방이 공대위 활동에서 주도적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당시 두레방 상근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단 그런 회의에는 어른이 가서 좀 말씀을 세워야 하는데 당시 우리는 그 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부터도 그런 연대회의 같은 데 나가서 일하기보다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서면 욕먹는다는 그런 장막관념도 강했고 ...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윤금이 공대위 활동으로 이후 두레방 일을 5개월 정도 여겼어요.

“그 때 ‘일’과 ‘과로’ 쓰러졌거든요. 아침에 두레방 가서 밥하고 뭘 주문 받고 언니들(기지촌여성)하고 얘기상담하고 오후에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내려와서(공대위)사람들이랑 회의하고, 정말 힘들어서 내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 ...”

“우리는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 해야 하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나서고 메스킹 하고, 경찰과 협상하고, 원불(원불교)하고 그런 일은 남자들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죠. 물론 그 사람들이 여의의식은 없었지만 여자의 윤금이 일이 여성화시킨 거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내(미군)병의 자리가 심각한 건 사실이고 ...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없으면 힘은 무장이었기 때문에 ... 남자들은 우리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이 없고 그런 일만 하면 되니까. (학생운동가 같은 거요), 일종의 그랜드 오퍼라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편지 공대위 일은 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일에서 하겠지 했고, 여대협에서 학생들이 오긴 했는데 남자들이 특강했어요.

“윤금이 사건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기지촌여성 살인사건이 나서 우리가 가면 경찰사에서 “아, 고을 아가씨들이 왜 이러시냐”, “현장남에서는 집에 가시지, 어떤 형편 때는 올 곳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아예 상대를 안 해줘요. 농담 따먹거나 할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을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서면 이슈화가 안되니까요. 사건이 풀린단 말이 어쨌든 기지촌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까지 인터뷰에야.”

일상적인 운동은 여성들이 하고 그것을 사건으로 사회문제화하는 일은 남성들이 해야 한다는 성별 분업논리는 노동현장, 가중, 지식생산 현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에도 있었다. 여성운동가가 외부회의나 연대회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임금노동에 진출한 기존 취업여성처럼 이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협소한 매춘여성운동의 입지와 기지촌운동의 일약한 환경 속에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여성운동가 스스로 뒷바라지하는 일에 익숙하고 지도자가 되거나 ‘나서는 일’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도 문제였

23) 남성 지식인은 전체 문제만 연구해도 되지만, 여성 지식인은 여성 문제로 연구하고 전체 문제로 연구해야 한다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성별 분업과 역할의 이중부담을 말한다. 조순경(1992) 참조.

다. ‘현장’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일이지만 그것이 정치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을 때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남자들의 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은 윤금이 공대위 활동에서 빠지게 되었다.

사실 윤금이 사건에 대한 당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의 관심은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자, 기지촌여성의 현실을 알리자’에 있지 않았다. 당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제까지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기지촌여성들처럼 이 사건이 묻혀버리는 것이었다. 기지촌여성들이 당하는 폭력과 죽음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은, 이후에도 계속 미군들에게 살인 면허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사건을 드러내는 것 자체, 반드시 미군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투쟁 목표였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나 매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의 힘은 너무 약했고, 윤금이 운동에 남성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제할 수 없었다.

윤금이 투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체가 교회운동세력이다. 당시 교회운동세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은 윤금이 유가족이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중요한 대의 협상력을 발휘했다. 1993년 8월 미국 정부는 윤금이 씨 유족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실 자체는 미군 범죄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한 교회운동세력은 ‘과격화’ 재야, 학생운동에 대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과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김경남 목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윤영애 총무가 특히 역할을 했다. 언론 중에서도 기독교계인 <국민일보>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윤금이 사건을 기사화하였다.

윤금이가 죽은 지 1주기가 되는 1993년 10월 26일, 이지영, 조재학 등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회계 재야지도자의 주도로 ‘윤금이 공대위’는 미군 범죄에 대처할 상설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로 전환하게 된다.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기지촌여성운동 출신의 여성 실무자와 학생

운동 출신의 남성 실무자가 같이 일하게 되었다. 미군기지 문제를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가 ‘운동본부’ 활동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운동본부’ 산하에 여성인권위원회를 두는 문제와 사업의 방향을 미군기지 반란, 한미행정 개정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겪게 된다. 여성에 대한 미군의 폭력을 둘러싼 성별차별적인 갈등은 필리핀과 일본 오키나와와 미군기지에서조차 똑같이 나타났다.

오키나와 현은 일본 전국토의 0.6%밖에 안되지만 일본 내 미군기지의 75%가 집중되어 있다. 1993년 3명의 미군이 오키나와 소녀를 강간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분노하자, 남성들은 ‘이 사건을 여성 문제로 축소하지 말라. 이 사건은 일본과 미국의 문제’라고 야유하였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이 사건은 여성인권 문제인 동시에 안보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여성들에게는 정치의 문제나 여성인권의 문제나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여성 문제가 바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그렇게 사고하지 않는다(다케시타 사요코, 1998).

10. 기지촌여성운동의 미래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은 대부분 1980년대 학생운동의 성장과 함께한 사람들이다. 거의가 소위 민족해방계열(NL)의 학생운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족해방 계열이 반미와 분단 문제를 주요 이슈로 했기 때문에 기지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이다. 반미운동을 하려고, 학생운동관원으로 수혜생활 중에 읽은 두레방 회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성운동을 ‘현장’에서 가장 억압받는 ‘민중’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보다 더 과격한 여성들은 없을 것 같아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분야라고 생각되어서 등 기지촌여성운동에 진입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다. 대학 재학중

경험했던 기쁨이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반미운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의 가장 전진기지'인 기지촌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반미운동이 남성중심적이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기지촌여성운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1~2명을 빼고 대부분 현장에서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카드로 나의 인권과 그 여성들의 인권이 대립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내 생각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걸 모두 놓아야 하고... ○○언니가 계속 버티는 이유는 그 여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1년 근무 현장 활동가.

먼 처음 떠돌은 대안했지만 너무 외롭고 누구랑 의논할 사람도 없고 (사회로 부터) 고립되었다는 생각... 같이 자내는 사람과 문화가 다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우리 집에 ○○들이었는데 동무 전까지 왔다갔다 6시간 걸렸어요. 계엄장이고, 월급은 자비로 다나가고... (1년 9개월 근무 활동가).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 운동인가 있었어요. 산문 볼 시간도 없고, 하루종일 하는 게 일이지. 식사 준비, 공동 식사당당이었던거죠. 그렇게 1년을 보내다가 운동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1~2년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운동의 본질이 이런 일의 반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1년 6개월 근무 활동가.

학생운동 출신이 생각하는 사회운동의 일반적인 모델은 '일상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역동을 보이는 변화'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사회운동은 정의한 보편적인 사회운동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기지촌에 들어와서, 기지촌여성의 삶은 다른 사회운동과 같은 경로를 밟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상을 조직화해 나가는 것, 아니 일상을 건다는 것 자체가 힘든 운동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기지촌여성운동

은 기존 사회운동의 틀에서 보았을 때는 운동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운동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운동처럼 운동을 계속하여 조직이 확대되고 '명랑가'가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기본적인 급여와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고(저임금 장시간 노동), 자기 출전이 안 되는 소모전과 파로, 무보상, 일상노동의 지겨움은 '나(활동가)'와 '언니들'(기지촌여성)의 인권이 대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갈등에 빠지게 한다.

다른 여성운동은 운동의 주체와 대상이 일치한다. 나를 위한 여성운동인 것이다. 그러나 기지촌여성운동은 아무리 누구를 위한 운동은 아니라 해도, 기지촌 활동가가 기지촌여성들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9년에 기지촌 현장 활동을 해오고 있는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흔히 일반적인 여성운동, 사회운동의 방법, 목표, 아젠다를 가지고 기지촌여성운동을 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이 운동이 아니라 종교사업 같다고 봐요. 우리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사회운동의 이미지-정체 모나타하고 이슈 화이랄 하는 것-가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죠. 물론 기지촌여성들을 '도파관다'와 '같이 한다' 사이에 붙이는 활동이 있어요. 그들과 신뢰를 쌓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지촌은 변하고 있다. 기지촌매춘과 일반 매춘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경제형 매춘에서 전화방이, 핫사지 걸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춘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으며 미군과 즐기기 위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재발로' 기지촌을 찾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²⁶⁾ 지속적인 감군과 범죄예방, 탈리화 노력으로 인해 88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해외거지에 여군을 배치하고 가족과 동반하여 거주하게 하는 등 미군 주둔 한

26) <경향신문> '출판 미군 클럽 매춘업 종결 술과 먹고 미국 본거지 만년, 1995. 2. 18', <조선일보> '동두천 기지촌에서 무로지 매춘소', 1998. 7. 28, <한겨레신문> '조계사의 매춘소, 지속 살포 담뚝주 그늘진 곳 조경', '소셜 부대' '동두천 매춘업기 문제 없었', 1996. 8. 31.

경 자체가 변모했다.

최근 기지촌의 가장 큰 변화는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 매춘여성들의 등장이다. 불법체류하던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이 기지촌으로 유입되거나 '한국특수관광업협회' 주도로 동남아 등지에서 여성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여성보다 대체로 더 젊고(여리고) 영어가 유창하며 무엇보다 몸값이 쉽다.

1998년 2월 초 군산 아메리카 타운의 한국 기지촌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육인문을 군산대학교 학생과 택시 기사들에게 직접 배포하면서 집단적인 '데모'를 벌였다.

학생여러분! 이 글을 쓴 우리는 바로 학생들 때문에 상주하여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편을 쓴 이유는 한국인으로서 분노를 느끼는 일이 있어 학생여러분이 도움을 주실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입니다. 업주들은 일정한 상금으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하여 한 문이라도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외국여성에게 선물로 주며 우리 내국여성에게는 선물 여자를 받는 죄를 지는 한들입니다. (일어를 영어로 잘못했다는 우리에게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하여 죄를 받도록 하는 업주들의 행태는 애국입니까? 애국입니까? 우리는 이 나라 정세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여성들 때문에 애국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어요. 반납사다 부하합니다.)²⁷⁾

외국인 매춘여성들과 경쟁을 벌이면서, '애국'의 차원에서 생존권을 호소하는 이들을 여성주의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성주의는 이제까지 매춘은 필요악이 아니라 사회악이라고 반대해왔다. 매춘에 대한 이러한 기본 입장과 매춘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은 어떠한 연관을 가질까? 이 문제에 관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의 견해는 앞으로 기지촌여성운동에 대한 중요한 전말을 시사한다.

저는 그들의 논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27) 오현호, '출처 불명 인터뷰: 동두천군 기지촌에 수입된 필리핀 여성들', <한> 1998. 3월호, <한겨레신문> '미군 기지촌여성들의 막대한 호소', 1998. 2. 21.

봐요. 그들의 생존권을 존중한다는 것과 매춘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매춘 폐지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매춘여성의 자기 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를 우습지만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했다고 할까요? 무례한이유를 대를 때가 때론 기지촌여성운동은 전체 기지촌여성운동의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지촌여성운동에 대한 다양한 그들들,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서 모순하고 충돌하기를 바랍니다.

기지촌여성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후 기지촌여성운동의 전향일 것이다. 기지촌여성운동은 매춘여성운동의 중요한 모델이다. 그간 기지촌여성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매춘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낸 점, 철저하게 현장 여성을 중심으로 한 운동방식, 전업사업 프로그램 제시, 군대화 매춘 문제 등 우리 사회 운동의 소중한 이슈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기지촌여성운동은 이들이 실제 이룩한 성과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평가되거나 드러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탈매춘을 위한 전업 프로그램과 매춘여성을 위한 상담사업의 전문성은 정부, 학계, 다른 매춘운동 세력이 그들로부터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평화와 인권은 새로운 세기에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절실한 가치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지촌여성운동은 이 화두를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일지도 모른다. 기지촌여성운동은 매춘 자체의 근절과 함께 군속, 통일, 평화, 반미 문제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요구한다. 이제까지 평화는 전통적으로 전쟁 개념과 함께 존재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거나 평화는 전쟁 전후(前後)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 평화는 정적(靜的)이고 고정화된 상태로 이해되되어 왔다. 전쟁이 능동적, 역동적, 남성적인 이미지라면 평화는 이런 적극적인 것들의 부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주의는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난다. 여성주의자들에게 평화란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상태를 말한다.

(Inke, 1993)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 한국 기지촌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도 이와 같다.

참고문헌

- 강성훈 1988, 『주한미군』, 일송정.
 강영수 1988, 『한국 사회의 매춘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김은실 1994, 『민족당론과 여성』,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10집.
 — 1996, 『시민 사회와 여성운동』, 한국학술단체협의회 주최 심포지엄 발
 표문(미간행).
 김현선 1998, 『기지촌 매춘의 분석과 가능한 정책적 대안』, 고려대 석사학
 위치원회 <석학> 14호.
 김현선 외 1997, 『기지촌 기지촌여성 종합 아동 실태와 사례』(미간행).
 다케시타 사오코 1998, 『여성에 대한 알알의 폭력과 인권』, 제24-3 제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한국위원회(미간행).
 동아일보 특별취재단 1990, 『불지 배부 주한 미군 90년 한국기차상 수상자,
 동아일보사.
 매춘을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1996, <매춘의 소식> 1호(미간행).
 박석봉·박은봉 1994, 『순금야 현대판 '정신대'도 지다』, 『한류여성』 한국
 연, 새날.
 박종성 1994,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반 보연 1998, 『군사의 본성시 여성의 인권』, 한국여성학회 <여성의사
 여성인권 위해 활동과 성폭력>(미간행).
 박재희·장금나 1997, 『관공공구 지점을 통해서 본 국가정책의 여성적합성
 과 경기도 동두천 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매춘의 소식> 2호, 이화
 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매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미간행).
 부산연속연구위원회 1991, 『너희가 몰라나야 우리가 산다』, 힘.
 야마시다 영미 1992, 『한국 군대 공창제도 실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서울지역여성학대표자협의회 1989, 『피해의 성 실태와 매춘』(미간행).
 안일준 1997, 3, 『기지촌 문제, 한국은 왜 침묵하나』 프론티어인 페미니즘 여
 성대회 참가기, <말>.

- 1993, 『별집』, 공간이다.
 — 1996, 『음갈 10달러까지 여자의 인권』, <여성의 눈으로> 7호, 한국
 여성학회.
 3기 서울지역여성학대표자협의회기차상활동추진위원회 1996, 『3기 기지촌
 활동 자료집』(미간행).
 오연호 1990, 『더 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말라』, 백산서당.
 — 1989, 『식민지적 아들에게』, 백산서당.
 유복남·전도, 미상, 『기지촌 매춘여성 분단 조국의 속죄양』.
 유영남 1998,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
 회한국연합회 <여성도회> 104호.
 유은자 1993, 『송중순 씨의 석방과 그를 위해 활동한 대륙위원들의 고백』,
 <한국여성학> 제13호,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유철민 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 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32호.
 윤영미 1996, 『한소녀의 매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함께 가는 교회여
 성』.
 원미혜 1997, 『한국 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
 여대 석사학위논문.
 이교경 1993, 『전북적 시민운동의 이해를 위하여』 동두천 민주시민회의 일년
 경협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이상성 1998,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한길사.
 — 1992, 『미국의 대한민국도 정책 한국 안보와 남북한 통일 문제를 중
 으로』, 민족통일연구원.
 이석우 1993, 『한미정경협연구』, 민.
 이현숙 1992,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5년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장필화·조현 1992,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논
 집> 제8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전남대·조선대기차상활동추진위원회 1996, 『기지촌 탐방단 자료집: 너희가
 몰라나야 우리가 산다』(미간행).
 정유진 1998, 『미군 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 모임 창립 10주년기념 인권논의상 공모 수상작품집』, 연변 개원.
 정유진·조재학 공역 1994, 『주한미군의 순금이 세 살해사건 자료집』(미간행).

- 정유진 1997, 6, 『오카나미 미군기지 주변을 출산율도 낮다』 여성, 군국주의
 인권 오카나미 국제회의 참가기, <말>.
 정유진·김동성 공역 1997,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주한미군 범죄 자
 료집』(미간행).
 조순경 1992, 『여성학의 발전과 한국 사회학의 변화』, <여성학논집> 제9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조순경·김현숙 1993, 『민주민주운동과 가부장제』, 광복 50주년기념논문집 8
 『여성』,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주한미군의 순금이 세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993, 『우리들의 글』(미간
 행).
 장시량 원디 1994, 『94 송탄 여름 기지촌 활동 자료집』(미간행).
 전집부 편 1989, 『피해의 성 실태와 AIDS』, 『사랑의 불꽃이 그 태워진 성』,
 문예.
 필자미상 1998, 『자주적 여행은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충청지역총여성연구소
 연회자료집(미간행).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7, 『매춘 문제와 여성운동』.
 — 1996,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구를 위한 모토의 자료집』.
 — 1996, 『매춘과 순화행위방안지침』.
 한국여성개발원 1992, 『음력여성의 사회복구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단체연합회 1998, 『열린 희망 한국 여인 10년사』, 동덕여대 한국여성
 연구소.
 — 1998, 『수입이 완전 보장된 에이즈』, <민주여성> 합본호 중 <민주
 여성> 5호.
 한국여성학회 1983, 『인신매매와 매춘여성』.
 홍순희 1998, 『주한미군 기지촌여성의 '애국'과 '애국'에 관하여』(미간행).
 <경향신문> 1998, 8, 11.
 — 1993, 2, 10.
 <국민일보> 1992, 11, 3.
 — 1993, 2, 13.
 — 1994, 4, 29.
 — 1995, 3, 30.
 <동아일보> 1994, 3, 14.
 — 1994, 5, 5.

- 1993, 2, 10.
 <말> 1993, 12.
 — 1997, 3, 6.
 — 1998, 5.
 <시사저널> 1999, 1, 7, 『기지촌여성과 허브가 만났을 때』.
 <여성신문> 1998, 12, 23,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6 김현선 대우미 대표』.
 <조선일보> 1993, 2, 13.
 — 1998, 7, 28.
 <중앙일보> 1993, 3, 25.
 — 1993, 7, 10.
 <한겨레신문> 1992, 11, 6.
 — 1992, 11, 7.
 — 1993, 2, 17.
 — 1993, 7, 11.
 — 1996, 8, 31.
 — 1996, 10, 25.
 — 1998, 2, 21.
 <한국일보> 1993, 3, 30.
 SBS TV 1992, <그것이 알고 싶다>, 『최후의 장소: 재미교로 송중순 여인 아
 들 살인사건』(1992, 9, 13) 방영.
 <두레당> 1991, 『91 기지촌 활동 자료집: 기지촌의 조국』(미간행).
 <두레당 회지> 1-19호.
 <대동리 회지> 1-16호.
 서울대 운영위원회 회지록.
 Cumings, Bruce 1993, "Silent But Deadly: Sexual Subordination in The
 U.S.-Korean Relationship,"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주한미군에 의
 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유린에 관한 보고』, 정유진·유대희 공역(미간행).
 Cho, H. J. 1993, "The Women Question in the Minjok Minju Movement: A
 Discourse Analysis of A New Women's Movement in 1980's Korea,"
 Hyung Cho & Pi-Wu Chang(eds.), Gender Division of Labor in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Chomsky, Noam & Edward S. Herman 1973, The Washington Connection and
 Third World Fascism, 『미국대외정책론: 제3세계 정책을 중심으로』, 집재

정 출판(1985), 일일서지.

Coomaraswamy, Radhika. 1998, *Violence Against Women in Times of Armed Conflict*.

Enloe, C. 1989, *Bananas, Beaches & Bum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Univ. of California Press.

_____. 1995, *The Morning After: Sexual Politics at the End of the Cold War*, Univ. of California Press.

Kim, H. S. 1998, "Yanggongju as an Allegory of the Nation: Images of Working-Class Women in Popular and Radical Texts," Elaine Kim & C. M. Choiled,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Routledge.

Moore, H. S. Katherine. 1998, "Prostitute Bodies and Gendered Senses in U.S.-Korea Relations", Elaine Kim & C. M. Choiled,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Routledge.

Morgan, Okazawa-Ray. 1997, "American Children of GI Town: A Legacy of U. S. Militarism in South Korea", *AJWS* vol.3 no.1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Scoler, L. A. 1997, "Carnal Knowledge and Imperial Power: Gender, Race and Morality in Colonial Asia", Lancaster & Leonsidered, *The Gendered Sexuality Reader: Culture, History, Political Economy*, Routledge.

Strandervate, Sandra & Brenda Strandervate, 1995, "Tongdichun: The Bar System,"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주한미군에 의한 여형과 어린이의 인권유린에 관한 보고, 정유전·송대희 출판미간행.

심대 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유동업소 경험을 중심으로

이 글은 김은경의 석사학위논문(성학박사, 1998)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들어가며

심대 학생들의 기술과 학업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대 여성이 김대부도 일을 하는 현실 역시 사회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유동업소 아르바이트도 바라하지 않는 요즘 아이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경험은 이들 10대 여성의 유동업소를 선택하게 되는 사회의 조건으로서 생산업의 다양한 매기니즘과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문제를 은폐하고,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시킴으로써,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실력적인 대안의 모색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심대의 상을 급기의 영역에 묶어두는 성인중심적인 성담론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선, 10대 여성들의 생각과 경험은 무시되거나, 모든 10대들의 성의 문제가 동질적인 것으로 통용그러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10대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적 서비스 매체의 경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화한 성의 권력관계로 경험하고 인식하는지를 간과할 뿐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치를 설정하는 데 어떻게 연관시키는지도 질문하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급진주의적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성적 서비스의 매체를 여성의 억압과 권력의 문제로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개인이 성적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가를 분석하여, 선택과 합의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밝히고, 그 일을 지속하게 되는 기제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하여 궁극적으로는 심대 여성이 성적 서비스 제공자로 유입 혹은 계속입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 글의 의의이다.

이와 같이 심대 여성이 유동업소에서 경험한 것을 평가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적이거나 표현적인 대담 여성의 진정한 경험까지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심층면접, 관찰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면접은 심대를 이 많이 모이는 거리봉, 문임동, 산촌, 화양리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출한 심대 여성이 많이 모여 산다고 알려진 거리봉 지역을 관찰하였다. 거리봉에는 강남의 영동, 명태를 지역보다는 저렴한 단란주점, 적재, 노래방이 많으며, 연구자는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심대여성들의 의견을 통해서

거주한 심대 여성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단란주점
을 포함하여 유흥업소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심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은 이 글에 나오는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사례(가명)	연령	학력	찾가출시 기	현재의 지위	취업 경험
나리	15	중2	중1	학생	단란주점(이과 주점)
영희	16	중3	중2	학생	호프
선정	19	고3 재퇴	고1	판매직, 유흥업	주점
희숙	19	고1 재퇴	고1	무직	커피숍, 미용실
강이	19	고1 재퇴	고1	유흥업	가라오케, 주점, 노래방
효연	18	고2	고1	학생	주점, 전하방
수진	16	중3	중1	학생	주점, 커피숍
꽃별	16	중3	중1	학생	주점, 커피숍
순경	16	중3	중1	학생	주점, 커피숍
진숙	19	고2 재퇴	중2	서비스업	노래방, 주점
경주	17	중1 재퇴	중1	유흥업	중국집, 주점
재희	17	중2 재퇴	중2	유흥업	커피숍, 주점

2 심대 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맥락

여기서는 성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심대 필대부”라는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90년대의 사회적
인 맥락 속에서 심대 여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남성 수요자: “영계” 선호의 남성 성문화

...오늘은 바깥 태어나면은 굳이 여잔대를 찍어서 부조지는 암고장 여잔대가 되니깐 부조지요.
... 어떤 여잔은 뽀짝 태생에 뽀짝지 많았기 때문에 신신한 노릇을 주셨어요. ... 물론 그런 것 외에도
는 여잔이 있어서 더할 노, 수고송 그렇게 많이 드니깐고 우뚝나려 지공은 누워서 뽀짝이 뽀짝이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오 ... 석옥은 언젠가 생기고, 각각의 돈이더 뽀짝이 돈은 뽀짝이 있어오, 뽀
소매에 뽀짝이 여잔들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돈주고 뽀짝하게 되는 거요. ... (수남, 사육자 대를 신
영 사육인 2008 44년)

심대 여성이 “영계”로 상품화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여성에 대한 남성 손님들의 선호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이를 남성 손님에 대한 논리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존재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지
지 않았다. 그런데, 남성이 성숙의 태도와 섹스의 섹스의 도구로써 나이가 어린 여성을 원하는 것은 성적
없이 없는 여성에 대한 환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성적 즐
거움, 섹스의 측면보다는 성대를 통제하고 임도할 수 있는 권력의 성격을 보여준다. 반대로 남성을

에게 있어서 “심대 필대부”를 통해 성적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은 인상을 즐기면서 사는 방식의 한
가지로 혹은 일종의 놀이 있는 남성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즉, 심대 여성의 성적 서비스 구매는 일
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야망을 구현하는 통로이자, 한국 남성의 성적 태
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성적 서비스의 소비는 개별적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개인관계에서 뿐 아니라 친구나 동
료들과의 연대를 위한 수단으로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공유하려는 것은 여성을 놀이의 대상으로
사물의 시키면서 남성성을 획득하고, 기존의 남성 성문화를 공고히 하는 기원이 된다. 이와 같은
남성들의 유흥공간이 많아지면서 심대 남성들도 성적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 상업적인 성의 매
에 익숙해지게 되며, 남성들의 성숙함의 표시로서 남성의 성적 함의로서 성적 서비스의 소비자가 되
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계” 선호는 남성성남의 연장과 무관하게 심대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상품
화하는 남성의 성문화의 일부로 자리잡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중간 매개자를 통한 접근의 다양한 시도

유흥업소 업주들은 손님들이 심대 여성을 찾기 때문에, 또한 “영계”를 미끼로 손님을 더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심대 필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심대 여성을 고용하게 된다.

여를 들어 거리를 지역의 업주들은 심대여성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업소 앞에 구인 광고를
붙이거나, 업주가 직접 거리에 돌아 다니는 심대 여성에게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 형
식으로 “영계”를 고용한다.

한 코사는 거리를 지역에서 업소에 붙은 광고를 보고 일하겠다고 찾아가는 심대의 심리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 뽀짝 여잔들이 뽀짝 여잔 보듯, 수석 계를 여잔에 뽀짝이 많을 수 있겠어요? 뽀짝이 어디까지 여
잔잔을 뽀짝이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보면 뽀짝이 많을 수 있겠어요...

고객의 돈과 숙식을 제공한다는 조건은 심대들에게 유흥업소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한다. 특히 참
거리의 맥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 가난한 심대 여성의 경우 숙식제공은 마음을 동요시킬만한 요인
이다. 업주가 거리에서 심대 여성을 만나는 경우에도, 인신매매와 같은 강제적 폭력을 동원하지 않
으면서도 심대 여성에게 일할 의사를 질문하여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점검한다. 이러한 방식은 법
률적으로는 “미성년자 학식, 유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심대 여성이 스스로 유흥
업소에 일하려 가는 형태로 이해된다. 이외에도 생활정보지를 통해 업주가 심대 여성을 고용하는
방식도 심대의 과발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평가된다. 길거리에서 일게 구할 수 있는 신문의 “용
모객”, 학력 저변, 연봉 제한 있다”는 광고에 심대들이 유흥업소에 문의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
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심대 여성들이 유입되면, 유흥업소 업주들은 또한 승려
할 수 있는 임금 조건을 제시하거나, “미성년자”가 일을 하기 편하도록 보건증을 만들어 주는 등

의 지원으로 심대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하고자 하는 자들을 고무한다. 최근에는 정규와 심대 여성을 연결시켜주는 조직적인 행태가 등장하고 있는데 직업소개소와 보조사무실이 대표적인 예이다. "보도"는 전문적으로 심대 여성을 유용업소에 소개시켜주는 불협 조음소개소의 일환으로, 사무실 없이 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하고 있다. 또한 유용업소 업무도 여성을 필요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며, 심대 여성들도 유용업소에 고용되지 않고, 무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으므로 선호한다. 심대 남성들은 보조를 이용하여 유용업소에서 간헐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일인원자의 역할을 하며, 알고 지내는 여자 친구들을 동원함으로써 중간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유용업소에서 일하는 남성들은 심대 여성을 일원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유용업소에 일할 여성을 공급한다.

이는 광고와 정규의 직접적인 교환, 보도 사무실 등의 중간 매개자를 통한 다양한 시도들이 심대를 사이에 유용업소를 가깝게 인식하게 만들 뿐 아니라, 유용업소에서 일하도록 일선하는 역할을 통해서 건전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놀이'와 '일'에 대한 심대 여성의 욕구

... 아르바이트 하면 사람도 많아 먹고 재밌잖아요. 돈 많기는 정도. 그렇지 않나? 뭐... 나는 저 회사에서 일할 때 그랬는데... (수정)

— 그리고 재밌다고 하는 장소가 생각잖아요. 누가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던 우- 물려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

유용과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도래 문화는 심대 여성들에게 소비의 욕구를 만들어 내며, 심대 여성들은 부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소비와 놀이의 욕구를 충족시킬 돈을 위해 일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때, 심대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시장 자체가 성립하진 않을 수 없다. 이 심대 여성들은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선택'한 행의 자책에 만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대 여성들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생산업으로의 유혹을 받게 된다.

특히 심대 여성의 가치는 "여성"이고 "미성년자"이면서 물질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 지점, 인간 관계로의 이동 현상이며, 이 과정에서 취약성은 유용업소의 유혹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심대 여성은 가솔린 후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지만 그럴 만한 공간이 없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숙식을 제공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보장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심대여성이 발전하는 제3의 공간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심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본적인 생활에서 발전하는 공간, 혹은 "선택"한 공간이 현실에서는 유용업소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대 여성의 가치는 유용업소에 아들이 유입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 이러한 심대의 가치를 잃는 가족, 가정문제로서만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사실 도래의 영향력이 큰 심대들에게

가솔린 도래와 함께 지역민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공간이 일 지리의 의미보다 놀이공간의 확대로 생각되는 것도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심대 여성의 '놀이'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4) 단속의 전개

... 우리 단속은 큰 거. 공무 일감잖아요. 거기서 사복 경찰이 있는데 내가 일할 때도 보면 단속 나온다고 부인들한테는 받고 다 거르고 나오. 그러면 사복 내리고 일에서 좀 안 일러요(영희)

— 단속을 해도 경찰이 들어오면 아르바이트를 다 중지해서 부 수도 없어요... 그리고 모퉁은 거기 다 다쳐 하는 거지 경찰이 다쳐요. 다 다쳐도 경찰은 거기요. 일구니 뭐하냐고 오며, 오며 뭐하냐고 물어요. ... (영희, 62세, 20여 년간 일함)

정규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되는 배경에는, "심대 집단부"에 대한 경찰의 단속 미비와 행정적인 규제가 불거지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한다. 유용업소에서 일하는 심대 여성들은 경찰의 단속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묵과하거나, 직접 성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을 통해서 정규와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알게 된다.

그럼에도 위에서 나온 경찰의 경우는 심대 여성이 유용업소에 강제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통념에 근거하여 정규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는 현상을 합리화시킨다. 이는 '자발적' '강제'와 상관 없이 심대 여성은 '미성년'이므로 충분히 단속 이유가 될 수도 불구하고 집단부도 일하는 심대 여성의 현실에 대해 묵인하는 단속 기관의 인일행과 유착행정의 실상을 보여준다.

현재와 같은 단속은 행정적인 메로유출, 경찰관의 의사 수준의 문제, 경찰과 정규와의 유착관계, 성격 서비스의 매력을 공공연히 용인하는 사회 문화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도 인해 현재를 갖는다.

2 유용업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그렇다면 심대 여성들은 유용업소에서의 성격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업무, 손님과의 관계에서 변형, 유지 혹은 갈등, 보완되면서 수용하게 되는가?

1) 심대 여성의 서비스에 대한 자기 규정

심대 여성들은 다른 서비스업과 유용업소에서의 성격 서비스를 어떻게 구별지으며, 이는 어떻게 심대 여성들이 유용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가? 또한 이러한 구별의 한계와 모순은 무엇일까?

(1) 성기 중심적인 범주화 “1차”와 “2차”

흔히 노년층이나 포르는 성적 서비스와는 무관한 곳으로 인식되며, 심대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유혹업소의 절대부위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다음 시에는 성적 서비스가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심대 여성의 아포리아트 경험에서 이러한 개념의 경계가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 포르에서는 여성들이나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기 때문에 정적이긴 하지만 4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리는도 구경은 잘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 포르에 오는 손님들이 무척 좋아해서 활동했어요... (인사)

포르에 오는 손님이 “황리박”이라며, 포르와 구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손님에 대한 자신의 당혹스러움을 설명하는 심대 여성의 이야기에서, 공간과 일에 대한 이해와 역할이 심대 여성과 손님, 업무 사이에 불일치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심대 여성은 유혹업소의 성적 서비스와 포르의 서핑이 심대 여성에게는 명확한 차이를 갖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은 유혹업소의 성적 서비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그 경계가 모호하게 인정되고 있다.

(시리도 그리는도 나그나) 나그나! 여기는 구경하러 왔는데도 안보니까요. 여성들이 오는 것도 정적이요. 그리는도 아예 나보니까요. (2010)

... 처음에는 1차로 받았다고 그랬고, 그러면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여성 거예요. 나그나를 돈 받고해서 그건 거 아니냐.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2차도 하라고 그랬고요. ... (인사)

— 그러면 그 사람이 나그나를 2차 안하라고 그리는 거예요. 뭐가 뭐냐고. 나는 싫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인사)

또한 심대 여성은 유혹업소 안에서 “1차”와 유혹업소 밖으로 연장되는 “2차”에서의 성적 서비스를 전혀 상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성적 서비스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한다. 그러나 업무와 손님은 유혹업소의 성적 서비스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한다. 처음에는 “1차”만 하겠다고 생각했던 여성의 경우에도, 업무는 더 많은 수입을 위해 “2차”를 유도하거나, 손님의 요구를 밀어붙여 “2차”를 강제한다. 따라서 심대 여성은 유혹업소에서 일하는 조건을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성기 중심적인 성적 서비스를 거부하지만, 본인의 의지는 좌절되거나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유혹업소에서의 서비스를 성기 상업 여부로 분류하는 심대 여성들의 인식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교란된다.

한편 “2차”를 거부하는 심대 여성의 태도는 “1차”에서의 성적 서비스를 성적 의미가 왜곡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1차”와 “2차”에 대한 심대 여

성의 구분은, 성기 감촉을 배제한 성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허용적일 수 있도록 만들고, 이는 심대 여성들이 유혹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2] 몸과 마음의 분리

심대 여성은 유혹업소에서 하는 일에 대한 “1차” “2차”와 같은 의형적인 구분 이외에 일에 대한 또다른 규정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심대 여성이 성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유혹업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심리적, 주관적인 차이를 개념화하는 정도와 관련된다.

우리는 정말 무지하게 좋아 하니까요. ... 그러면 일하면서 정말 좋아하는 것 많이 많으니까요. ... 손님도 정말 좋아하니까요. ... (인사)

서비스를 할 때는 다른 사람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짜로 하면 생각도 없고, 아저씨들하고 만나서 생각도 없고, 정말 좋아하니까요. ... (인사)

이와 같이 심대 여성은 (감정노동은 포함하여) 성적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몰입되지 않고, 감정의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본다. 즉, 유혹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손님과의 관계는 감정의적으로 모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님들 기준으로 유쾌한 행동을 해도 그것은 “일”이며,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성적 서비스로 치여하는 분리된다. 이와 같이 유혹업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대상화시키고, 감정을 가장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불일치, 혹은 몸과 자아의 분리에 따른 소외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2) 성적 서비스의 수용 과정

다음으로, 심대 여성들이 유혹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수용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성적 서비스는 심대 여성에게 어떤 느낌을 갖게 하고, 이러한 느낌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가?

(1) 수용의 태도: “두려움과 수줍음”

처음에 우리 세 명에서 처음부터 같이 일해서 한 명에서 일하는 중에 부동에서 단칸구경에 갔어요. ... 그러면 그 아저씨가 제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손을 잡아 놓고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를 몰라서 몰라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어요.

자신보다 더 그렇다고 하면, 나보다, 나중에도 더 후생되는 생각에 놓고 그렇다라고요. 우리는 여러가지 경우라고요. (서명)

실제 여성에게 성의 서비스는 손님에 성의 행동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요구이며 자신의 수치스러운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실제로 “죄송”이고 “나이가 어려서” 공포스럽게 다가온다. 그럼에도 실제 여성이 성의 서비스의 책임성에 직면 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뛰어나지는 것인데 이는 손님에 행동에 대한 무기력함을 나이가 어려서는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아래의 예에서는 이러한 수치심과 공포가 작용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업부터 어떤의 영화는 여동이라고 하더라도 경우는 많아요. — 서명(서명)도 하고 ... 아주 또 공격적으로 공격해보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막 안지거나 그러면 저는 용인시 나오거든요. — (서명)

음, 영화까지 보는 것 중에, 그 경우는 ... 이 말은 여자도 생각나요. 사람들이 안하고, 특히 그치거나, 네 고신여 학교, 성학하게 되고, 무서워하고, 인본으로 밖에 느껴지고 있을 때 ‘난 돈으로 밖에 안보’ 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감당해요. ... 이 시간 영화도 후회한다는 이유는 여자 수가 많기 때문일 것 같아요. 보면 생각여걸어요. — 그리고 여자로서는 사실 고학의 경우라고요. (서명)

성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성의 대상으로 혹은 통제된 위급한 때 모험감을 가지게 한다. 손님의 지대 아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과 요구들, 성의 행위를 통해서 성의 행위자로서의 낮은 지위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동업소에서 몇 시간 일한 실제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고, 공포와 두려움의 전령이 남게 되는 이유이다. 또한 유동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욕설과 학대는 가장 일반적이며 이는 여성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만든다.

하지만 유동업소에서 성의 서비스 제공자는 “관리가 못나가”라는 이유로 남성의 성의 통제를 수 용해야 한다고 요구받기 때문에 남성 손님을 “진”으로 대상화시키는 방식 등으로 성의 수치심을 극복하려 한다. 또한 이를 실제 여성들은 여성을 남성의 성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성의 행위에 대한 의무부여를 따지고, 이를 통해 성의 서비스를 비밀만한 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동업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실제 여성에게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성의 행위를 수용해야 하는 존재가 되도록 요구한다.

(2) 제국적 전략: “손님에 대한 경멸”

제국적으로, 여자의 요구를 받고 얻어도 노력하고 상해서도 그러다라고요. 배후 연구는 제 통제를 하는 것으로, 다문화에서는 다른들 돈을 벌 수가 많잖아요. (서명)

여아 같이 실제 여성이 유동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돈도 벌고 재미있는 일로 생각한다는 것 때문

내 성의 서비스의 관리를 즐기고 있다는 동념이 형성된다. 그렇다면 제 실제 여성이 유동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재미있다고 말하고, 성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쉬운 일로 여기게 되는 것일까?

... 나도 나중은 말도 안되고 하면서 공부까지 하는 사람이 되길 싶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 중 고생 안해요. 양에서 양에서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돈주면, ‘이 돈 주면 공부까지’ 그러고 그러오. 그래서 손님들도 뭐고 안 배고. 자립하게 나가거든요. (서명)

... 오빠 나 여자 나한테 배웠다가 그리고 여자 중에서 통제로 말다 여자 중구 말았어요. 5학년만 가고 2학년 2학년만 가도 공부하고, 팀도 다 3학년밖에 들어 그리고 우리까 어린 사람이 너무 귀찮아서 ‘오빠 저를 좀 해주세요’ 하고는 3학년만 하고 다 배우고 끝내다도 모로다라. 해봐 — (서명)

이러한 사례들은 실제 여성이 유동업소에서 일함으로써 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유동업소에 오는 손님들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여성의 거짓말, 손님들 속이는 행동들, 외모 바꾸기 등은 유동업소에서 하는 일들 중첩해 한다. 손님들 이용에 먹는 것, 적당한 요령을 짜주는 것이 실제 여성에게 손님들 조종하고 있다는 패권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동업소에서 실제 여성이 어떤 일을 하는가의 의미는 성의 서비스의 내용보다는 손님과의 관계에서 성취되는 재미와 무수적인 표적들에 주어지고 있다.

모닝(서명): 음용 영조에 오는 손님 중에서 다들 저 친구에서 돈이 많은 안락한 일(서명)도 보면 안락요, 돈 많은 사람으로 ... 그걸로 돈 내라는 생각 안해요. 여자가 서로 어떻게 하는 것(서명). 우리는 돈 벌고 그걸로 돈은 스토리도 하고 ... 여기서는 사람은 다 배워 걸어요. 경험은 사람 안해요. (서명)

음용 영조까지 알았단 말 안지니네 손님고 그러고. — 여자 손님고 그러면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 만에도 당황해서 그걸까 주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사람도 있어요. — 이, 이들을 모두 배워서 말하네 나중에는 내가 어를 배워서 말(서명)도 배우고, 그걸로 되고, 그걸로 그걸까 요(서명)도 배우고 배워 배워 배워요. (서명)

위의 사례에서 손님에 실대는 여성은 “스토레스 해소”와 “관리가”라는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진다. 실제 여성은 이러한 상호적인 교환관계에 대한 철저한 계산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손님들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의 서비스는 서로의 목적을 위해 교환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실제 여성에게는 손님들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무로게 하는 행위에서 일 수 있도록이, 본거지를 갖추는 일과 적응하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제국적으로 자신이 상황을 주도한다고 느끼는, 실제 여성은 유동업소에서 자신을 본래의 모습과 분리시킨다. 실제 여성에게 성의 서비스는 자신과의 본질을 확인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며, 그러한 본질을 자유롭게 통제하는 현실에 대해 무지한 손님들 경멸하고, 무수하게 여긴다. 유동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일종의 연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현실성이 없는 일종의 계

한·일·미·EU·ASEAN 11국 정상회담

[illegible]

4. 우물쭈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상과 중도

다함으로 그 우월성을 얻기 위하여, 자유적으로 일하거나 재취업되는 불경으로서는 우월성을 얻지 못할 우월성의 사회적인 관계의 변화나 많은 규정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II. 경찰의 포박 집단과의 협력

먼저 음풍악소에서 일하는 실례 이상의 기술과 학업중단은 이들의 모라집단 및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재구성하는가?

(1) 학생신분에 대한 신빙성 기각판

[illegible][illegible]

한글 사용 여부에 따른 사용여부 조차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4)

[illegible][illegible][illegible]

(2) **원격교육과정의 발전**

[illegible]

（4） α 的取值范围是 $0 < \alpha < \frac{\pi}{2}$ ，且 $\alpha \neq \frac{\pi}{4}$ 。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혼은 영적 세계에 속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므로 무연가혼으로부터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영혼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혼은 영적 세계에 속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므로 무연가혼으로부터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영혼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혼은 영적 세계에 속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므로 무연가혼으로부터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날은 엘리사 아사랴의 아들도 있는 날에서 온갖 성읍으로 가겠어. 영소를 옮길 때에다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와서 온 것을 알리는 큰 세겜하고 함께 가겠어. 33세겜에 가겠어. (민 32)

一、三、四、五、六、七、八、九、十、十一、十二、十三、十四、十五、十六、十七、十八、十九、二十、二十一、二十二、二十三、二十四、二十五、二十六、二十七、二十八、二十九、三十、三十一、三十二、三十三、三十四、三十五、三十六、三十七、三十八、三十九、四十、四十一、四十二、四十三、四十四、四十五、四十六、四十七、四十八、四十九、五十、五十一、五十二、五十三、五十四、五十五、五十六、五十七、五十八、五十九、六十、六十一、六十二、六十三、六十四、六十五、六十六、六十七、六十八、六十九、七十、七十一、七十二、七十三、七十四、七十五、七十六、七十七、七十八、七十九、八十、八十一、八十二、八十三、八十四、八十五、八十六、八十七、八十八、八十九、九十、九十一、九十二、九十三、九十四、九十五、九十六、九十七、九十八、九十九、一百。

(調子) 東門の白馬橋 芝罘 龍口 威海衛 煙台 威海衛 龍口 芝罘 東門の白馬橋 ...

可₁ 可₂ 可₃ 可₄ 可₅ 可₆ 可₇ 可₈ 可₉ 可₁₀ 可₁₁ 可₁₂ 可₁₃ 可₁₄ 可₁₅ 可₁₆ 可₁₇ 可₁₈ 可₁₉ 可₂₀ 可₂₁ 可₂₂ 可₂₃ 可₂₄ 可₂₅ 可₂₆ 可₂₇ 可₂₈ 可₂₉ 可₃₀ 可₃₁ 可₃₂ 可₃₃ 可₃₄ 可₃₅ 可₃₆ 可₃₇ 可₃₈ 可₃₉ 可₄₀ 可₄₁ 可₄₂ 可₄₃ 可₄₄ 可₄₅ 可₄₆ 可₄₇ 可₄₈ 可₄₉ 可₅₀ 可₅₁ 可₅₂ 可₅₃ 可₅₄ 可₅₅ 可₅₆ 可₅₇ 可₅₈ 可₅₉ 可₆₀ 可₆₁ 可₆₂ 可₆₃ 可₆₄ 可₆₅ 可₆₆ 可₆₇ 可₆₈ 可₆₉ 可₇₀ 可₇₁ 可₇₂ 可₇₃ 可₇₄ 可₇₅ 可₇₆ 可₇₇ 可₇₈ 可₇₉ 可₈₀ 可₈₁ 可₈₂ 可₈₃ 可₈₄ 可₈₅ 可₈₆ 可₈₇ 可₈₈ 可₈₉ 可₉₀ 可₉₁ 可₉₂ 可₉₃ 可₉₄ 可₉₅ 可₉₆ 可₉₇ 可₉₈ 可₉₉ 可₁₀₀ 可₁₀₁ 可₁₀₂ 可₁₀₃ 可₁₀₄ 可₁₀₅ 可₁₀₆ 可₁₀₇ 可₁₀₈ 可₁₀₉ 可₁₁₀ 可₁₁₁ 可₁₁₂ 可₁₁₃ 可₁₁₄ 可₁₁₅ 可₁₁₆ 可₁₁₇ 可₁₁₈ 可₁₁₉ 可₁₂₀ 可₁₂₁ 可₁₂₂ 可₁₂₃ 可₁₂₄ 可₁₂₅ 可₁₂₆ 可₁₂₇ 可₁₂₈ 可₁₂₉ 可₁₃₀ 可₁₃₁ 可₁₃₂ 可₁₃₃ 可₁₃₄ 可₁₃₅ 可₁₃₆ 可₁₃₇ 可₁₃₈ 可₁₃₉ 可₁₄₀ 可₁₄₁ 可₁₄₂ 可₁₄₃ 可₁₄₄ 可₁₄₅ 可₁₄₆ 可₁₄₇ 可₁₄₈ 可₁₄₉ 可₁₅₀ 可₁₅₁ 可₁₅₂ 可₁₅₃ 可₁₅₄ 可₁₅₅ 可₁₅₆ 可₁₅₇ 可₁₅₈ 可₁₅₉ 可₁₆₀ 可₁₆₁ 可₁₆₂ 可₁₆₃ 可₁₆₄ 可₁₆₅ 可₁₆₆ 可₁₆₇ 可₁₆₈ 可₁₆₉ 可₁₇₀ 可₁₇₁ 可₁₇₂ 可₁₇₃ 可₁₇₄ 可₁₇₅ 可₁₇₆ 可₁₇₇ 可₁₇₈ 可₁₇₉ 可₁₈₀ 可₁₈₁ 可₁₈₂ 可₁₈₃ 可₁₈₄ 可₁₈₅ 可₁₈₆ 可₁₈₇ 可₁₈₈ 可₁₈₉ 可₁₉₀ 可₁₉₁ 可₁₉₂ 可₁₉₃ 可₁₉₄ 可₁₉₅ 可₁₉₆ 可₁₉₇ 可₁₉₈ 可₁₉₉ 可₂₀₀ 可₂₀₁ 可₂₀₂ 可₂₀₃ 可₂₀₄ 可₂₀₅ 可₂₀₆ 可₂₀₇ 可₂₀₈ 可₂₀₉ 可₂₁₀ 可₂₁₁ 可₂₁₂ 可₂₁₃ 可₂₁₄ 可₂₁₅ 可₂₁₆ 可₂₁₇ 可₂₁₈ 可₂₁₉ 可₂₂₀ 可₂₂₁ 可₂₂₂ 可₂₂₃ 可₂₂₄ 可₂₂₅ 可₂₂₆ 可₂₂₇ 可₂₂₈ 可₂₂₉ 可₂₃₀ 可₂₃₁ 可₂₃₂ 可₂₃₃ 可₂₃₄ 可₂₃₅ 可₂₃₆ 可₂₃₇ 可₂₃₈ 可₂₃₉ 可₂₄₀ 可₂₄₁ 可₂₄₂ 可₂₄₃ 可₂₄₄ 可₂₄₅ 可₂₄₆ 可₂₄₇ 可₂₄₈ 可₂₄₉ 可₂₅₀ 可₂₅₁ 可₂₅₂ 可₂₅₃ 可₂₅₄ 可₂₅₅ 可₂₅₆ 可₂₅₇ 可₂₅₈ 可₂₅₉ 可₂₆₀ 可₂₆₁ 可₂₆₂ 可₂₆₃ 可₂₆₄ 可₂₆₅ 可₂₆₆ 可₂₆₇ 可₂₆₈ 可₂₆₉ 可₂₇₀ 可₂₇₁ 可₂₇₂ 可₂₇₃ 可₂₇₄ 可₂₇₅ 可₂₇₆ 可₂₇₇ 可₂₇₈ 可₂₇₉ 可₂₈₀ 可₂₈₁ 可₂₈₂ 可₂₈₃ 可₂₈₄ 可₂₈₅ 可₂₈₆ 可₂₈₇ 可₂₈₈ 可₂₈₉ 可₂₉₀ 可₂₉₁ 可₂₉₂ 可₂₉₃ 可₂₉₄ 可₂₉₅ 可₂₉₆ 可₂₉₇ 可₂₉₈ 可₂₉₉ 可₃₀₀ 可₃₀₁ 可₃₀₂ 可₃₀₃ 可₃₀₄ 可₃₀₅ 可₃₀₆ 可₃₀₇ 可₃₀₈ 可₃₀₉ 可₃₁₀ 可₃₁₁ 可₃₁₂ 可₃₁₃ 可₃₁₄ 可₃₁₅ 可₃₁₆ 可₃₁₇ 可₃₁₈ 可₃₁₉ 可₃₂₀ 可₃₂₁ 可₃₂₂ 可₃₂₃ 可₃₂₄ 可₃₂₅ 可₃₂₆ 可₃₂₇ 可₃₂₈ 可₃₂₉ 可₃₃₀ 可₃₃₁ 可₃₃₂ 可₃₃₃ 可₃₃₄ 可₃₃₅ 可₃₃₆ 可₃₃₇ 可₃₃₈ 可₃₃₉ 可₃₄₀ 可₃₄₁ 可₃₄₂ 可₃₄₃ 可₃₄₄ 可₃₄₅ 可₃₄₆ 可₃₄₇ 可₃₄₈ 可₃₄₉ 可₃₅₀ 可₃₅₁ 可₃₅₂ 可₃₅₃ 可₃₅₄ 可₃₅₅ 可₃₅₆ 可₃₅₇ 可₃₅₈ 可₃₅₉ 可₃₆₀ 可₃₆₁ 可₃₆₂ 可₃₆₃ 可₃₆₄ 可₃₆₅ 可₃₆₆ 可₃₆₇ 可₃₆₈ 可₃₆₉ 可₃₇₀ 可₃₇₁ 可₃₇₂ 可₃₇₃ 可₃₇₄ 可₃₇₅ 可₃₇₆ 可₃₇₇ 可₃₇₈ 可₃₇₉ 可₃₈₀ 可₃₈₁ 可_{382</}

[illegible]

2) 정제된 유체를 100%

[illegible]

(1) 일차적인 아도비프의 저술을 "일차적-종교-문학-운동"에 포함시켜 본다. (1)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Figure 1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생각할 때, 무엇이든 의문적으로 다 물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 무엇이든 의문 가지면 안 된다. 관찰하고 생각하고 의문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왜”이다.

그런 통째 그릇밖에 없었어. 다들 먹는 음식에 무슨 돈을 넣으니까 돈이 없었어. 금방 사서 그 돈에 주걱을 해서 돈을 주니까 사먹지 못하게. ... 여쭙는게 먹을 거에 돈이 도둑 두게 해주는 일도 있어. 통째 음식에서 일할때도 그렇지만 해어발각 서브스 오공을 팔고 있거든. 그래서 일사를 할때마다 벌이 300정도 되잖아. 그러면 벌 때문에 할복살아 일하러 보오. 처음에 일할 때 돈을 주지 않아서 아, 여기는 여간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불교가요. (리수)

[illegible][illegible]

한국의 하루 단위로 하여지기 때문에 매일을 위해서 지내하거나 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
지 수없는 한 자원으로 하여지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할 여력이 부족할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들여 살때 역장의 유물업소 이외에 다른 일지리를 찾는다라고 해도 유물업소에서 일하면서 보면
제 되는 것과 이차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지 않으며, 일때 역장이 유물업소에서 자
력으로 일하는 것이 다른 장전적인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것만 더불어, 제
물업소, 소위기종의 학회, 생명, 집합 위험, 일상의 내력 등의 건강 문제가 일때이기 때문에 더 신
중하게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함을 주는 것이 아니며, 유물업소에서 자신의 역할을 "일"일 뿐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도 여성들은 "복순이" 등으로 호명되어도 모래길 건너편의 동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은 성직 서베스 제본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이들은 일어난지 변화가 가능하고, 가능성 있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연령으로, 유물업소에서 일하는 현실에 대해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여성은 일명에 강한 종사하는 일이 없으므로 계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돈맛"이라는 말로 유물업에 불구하고, 불쌍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유물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일어난지 일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어부들의 고정관념을 벗우고, 규범적인 생활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합리라는 합리적 조건을 가정한 유물업소에 고용되는 것은 사회로 부러 "일발자"라는 불명예와 성적 소모품으로써의 정체성을 강요받게 된다.

6.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유물업소에 유입되는 성도 여성의 자발성이란 성적 관념으로서 여성이 상품화되는 현실에서 성도가 유물업소에서 "영제"로 평가되고 인정받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상품으로 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물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자의 역할은 성도 여성이 자신을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위치의 역할을 더욱더하게 되는 것일 것이다. 성도 여성은 성적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규격화된 아름다움과 기능적으로 요구되는 몸을 가진 관념으로 평가됨으로써 여성을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보조적이고 대상화된 존재로 파악하게 된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간에서 이들의 몸은 여성, "여성성"의 주제를 형성하는 기반이며, 권력을 집행하는 장소이자 역할을 수행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모든 문제를 사회적 소수집단으로 존재하는 성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성도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사고 파는 시스템을 재검토시키고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남성 개인과 업주, 단속기관, 부모와 교사, 교육제도를 비롯해 이 사회의 성문화와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도 여성의 일상이 어떻게 시장의 움직임, 자본의 흐름에 의해 구획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 성도가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꾸준히 전개하고, 이를 여성 운동의 흐름 속에 정치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성도 여성이 패권적인 삶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이유와 상황에서도 "영제"로 취급되어 남성의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신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실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고전주의(기원, 47세, 미혼) 저를 아주 대하고 마음속에 담아둔 제안을 성사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언제고 편한 때에 나가 다시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과 솔하게 많은 약속을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제정하는 버릇을 익혀온 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다. 모두가 약속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쓰고 몸을 통제한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몸과는 생활을 오래하여 익힌 습관이라고 표현한다면 여성들의 자각에서 그다지 반흔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인해 된 빛과 병을 비롯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황제 된 사건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성매매 체제 안에서 버티 내기 위해 그뻘들 자신을 집들여 가는 것에는 함부로 가능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단함이 배어 있다.

어느 날엔가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했다.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술과 약에 취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하루쯤 폭 쉬고 싶은 날이라고 했다. 그런 날을 나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보내겠다는 그의 마음씀이 고맙게 느껴졌다.

내가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굳이 내가 있는 곳으로 왔다. 그날 나는 이 작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 뒤로 우리는 오롯이 이 작업만을 위한 만남을 갖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인터뷰 제안을 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나는 달리 아주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너도 건강에 관심이 있지."

인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연주 씨는 단번에 그렇게 말했다. 하

'갈보' 혹은 '성 노동자'의 인권론

갈보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경험과 생각에 관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눌 여성이 어떤 젊은 시절을 보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이어 달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여성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살아온 연혁이 중요하지 않다가나, 이미 많은 사람에게 한 여성이 베푼 여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저 그런 신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의 살아온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성매매를 이해하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나름의 생각에서이다. 또한 그의 요청에 따라 기업을 사용할 것이며, 그가 말하고 있는 자적이나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세심하게 밝히지 않기로 한다.

인권에 관심 많은 여자

나는 여러 번 망설임 끝에 그에게 피눈내고 싶은 게 있다고 전했다. 그는 딱 한 번 약속을 옮겼을 뿐, 피눈내고 싶은 게 있다는 나의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나와 한 약속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귀에 지저 지는 듯했다. 실형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 얼굴은 약간 수줍음을 타고 있는 듯 보였다. 사실 나는 이 인터뷰 제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서 여러 번 생각을 했던 터였다. 그의 입을 통해 어떤 내기 이미 알고 있을 그의 이전 경험을 다시 듣고, 거기에 얹힌 그의 생각을 들어야 하는 일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연주 씨가 그 사실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제안을 어뗌거리게 한 가장 큰 까닭 중의 하나였다.

다른 얼굴 살의 연주 씨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 다른 이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때론 어눌한 어조로 때론 속사포처럼 빠른 말투로 자신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드러낸다. 그렇다고 나사자나 말에 사족을 달지도 않는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말본새가 참 소박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은 한다. 연주 씨는 말할 때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며 말을 살짝 올리는 버릇이 있는데 마치 수줍게 동의를 구하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한때 참 이상하게도 그런 말에맞은 나로 하여금 오직 그의 얘기만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처럼 작용하는 것 같았다.

몸에 남겨지는 것과 마음에 새겨지는 것

"오늘 아침 뉴스에서 천호동 사망자 여자들이 인권위가 머시건가에 물어 가서 막 뭐 하더라, 이렇게 마스크 쓰고 뭐사냐, 그,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 만, 나는 그거 보고 어머 가슴이 밀렁밀렁 뛰는 거야. 눈이 안 뻛어지더라 고."

연주 씨는 서울의 천호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성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냈다. 그곳은 오래 전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지금은 그 규모가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오래된 성매매 지역 중의 하나이다. 그 지역 여성들은 지난 1월, 단속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

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천호동 여성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당시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나는 연주 씨에게 그 뉴스 기사를 봤을 때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였느냐고 물었다.

"그거 보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지. 우리 같은 여자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그 전에는 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여자를보고 손가락질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나 할 수 있었다니? 난 그거 보고 참 흥분했어. 내가 막 천호동에 가 보고 싶더라고 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야."

천호동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연주 씨의 질문을 댔다. 천호동 여성들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나는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그와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터였다. 이들은 모두 경찰들이 행한 성희롱 여부보다도 당사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움직였다는 것에 훨씬 큰 관심을 보였다. 어떤 과정으로 그 여성들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했다. 누구로부터 그 집단 행동이 시작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의문 속에는 그것이 어쩌면 여성들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 아닌, 또 다른 권력에 의해 제기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내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함부로 확인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보도를 본, 상대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자신의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여성들은 누구에 의해서든 자신을 안에서만 희생되던 부당한 일들이 그 여성들의 입을 통해 표출되고 알려졌다는 점에 큰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다.

연주 씨는 내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경험을 꺼내 놓았다.

"나도 단속 자주 걸리잖아.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지만 전에는 단속 걸려서 구류 살면 편장은 사람들은 몰래몰래 담배도 피우게 해주고 그랬거든. 거기 있을 때 가만 보니까 남자들이 어디 문을 열고 나오면 거기서 담배 넣

새가 꼭 밀려 나오곤 해. 그래서 거기가 담배 피우는 덴가 보구나. 하고 말 좋아 보이는 경찰한테, 아씨(아저씨) 나 담배 하나 피우게 해줄래요? 그러면 선뜻 그러라고 하더라고. 근데 한 사십대를 뛰어 보이는 남잔데, 나한테 담배 주고 불도 붙여 주고 그러면서 천천히 피우고 나가. 웬? 하면서 내 젖 가슴을 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기본이 좋지 않지."

나는 연주 씨의 이야기를 들던 중 성희롱이라는 낱말을 고집어 냈다.

"그래, 그게 보니까, 그런 게 성희롱이더라고. 나는 그런 것도 성희롱이라는 걸 요즘에야 알았어. 뭐 인제는 직장에서 상사가 어떻게 해도 그게 성희롱이라든 교육도 시키고 그런대?"

물론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주 씨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경찰에 피한 성희롱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는 무척 많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굴욕감이나 수치심 따위의 느낌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것이 성희롱이라는 낱말로 정의되는 것인지를 몰랐으며, 실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감히 나서서 어떻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입과 굳게 제법해 뒀을 뿐이다.

"나? 그냥 만자나 보다.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연주 씨는 그때의 경험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만일 천호동 사건이 화제로 오르지 않았다면 떠올려지지 않았을 만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듯 비워졌다. 하지만 나는 경찰에게 당한 그런 정도의 성희롱은 쉽게 제념하면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남해 내던진 말뚝 아디는 두고두고 기억해 내는 걸 여러 번 보았다. 연주 씨의 경우도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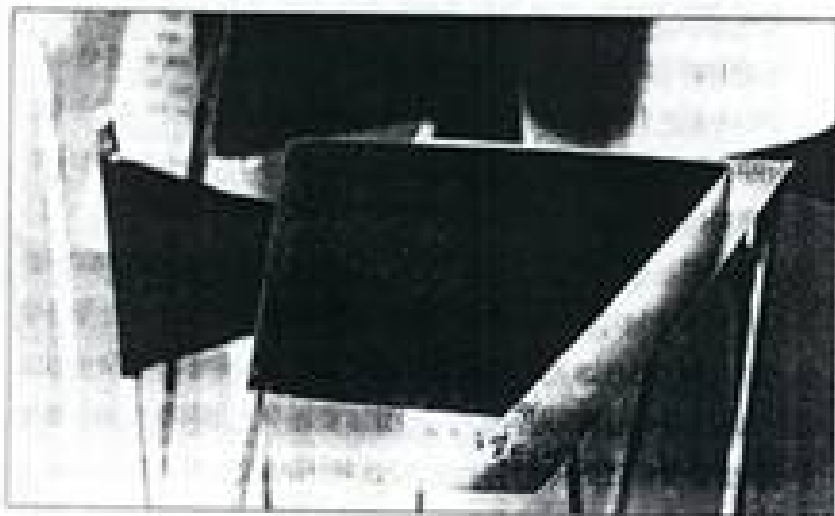
연주 씨는 영업을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을 정확히 구분해서 생활한다.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은 막(환다계)도 먹지 않으며 단골손님이 찾아와도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 요일을 정해서 쉬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저 자신의 몸

이나 기분 상태에 따라 쉬는 날을 정한다. 그 싸움이 떨어진 날은 모처럼 큰 담 먹고 쉬기로 했던 날이었다.

여성들 사이에는 서로간의 구역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선으로 그어 놓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가 영업을 하기로 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침범하지 않는 것이 나름대로의 '예의'이다. 이것을 어겨 여성들 사이에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었다.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 하는 여성들이 지나가는 남자의 특징, 예를 들면 '굵은', '대머리', '가방', '한정',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남자의 특징을 나름의 표현으로 '공표' 하면 어느덧 남자는 그같이 공표한 여성이 호객 행위 대상으로 삼아지며, 주변의 여성들은 그 남자를 자신의 호객 행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일종의 몰치럼 통용되고는 했다.

다른 얼굴 살의 연주 씨처럼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인근의 소원도에 있는 젊은 여성들에 비해 더욱 단단에 자신의 몸을 내주었고, 소원도의 젊은 여성들이 상대하기를 꺼리는 '젊어 보이는' 허름한 손님들을 주로 상대했다. 연주 씨가 살고 있는 곳의 주변은 대부분 그렇듯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서로간의 구역을 정해 영업을 했다.

영업을 하지 않던 어느 날, 누군가와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가던 연주 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자판기 거품을 몰아 건넸다. 그러자 어떤 여성이 다가와 제 자기 구역에 들어와 영업을 하느냐고 따지자 아내 시비가 붙었다. 그곳은 그 여성의 영업 구역으로서 연주 씨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연주 씨는 영업을 하기 위해 서성였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 여성은 막무가내로 따지고 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연주 씨도 지지 않고 설명했지만 어느새 그 여성 주변에는 함께 생활하는 젊은 업소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사소한 시비는 어느새 싸움으로 이어졌고, 혼자 몸이었던 연주 씨가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여자들보고 손가락질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나
할 수 있었나? 난 그거 보고 참 흥분했어.
내가 막 천호동에 가 보고 싶더라고.

90. 흥분한 여성들, 천호동으로 달려온

기려던 그였다. 그런 연주 씨가 곧이어 '갈보'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얘기할 때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30년 가까이 상을 팔아 온 여성이 그말 한 마디에 말인 감정을 그토록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잊어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라 전만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몸과 말이 준 상처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몸으로 당한 성희롱의 기억보다 말로 당한 성희롱이 더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런 것 같아. 우리들은 어떻게 웬? 몸으로 웬, 그러잖아. 그러니까 경찰 물어 내 잘못 만져도 속으로는 그래도, 그냥, 아예(아저씨) 왜 이래요, 하면서 넘겨갈 뿐이지. 한데 그때, 갈보라는 말 들었을 때는 좀 다르더라고.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런 일 있구 나서 누가 도와 줘 가지고 내가 전정사까지 갔어. 그게 결국 뭐 호지부제되고 말았지만, 하여튼 그때, 다른 것 같아. 다르더라고."

복소리에 힘을 주어 '다르다'고 말하는 연주 씨의 얼굴은 마치 무언가를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결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연주 씨는 그 일을 '경찰 많이 속상했던' 기억으로 떠올렸다. 그는 무언가를 표현할 때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싫은 것은 싫은 것으로, 그리운 것은 그리운 것으로 군더더기 표현 없이 소탈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따라서 연주 씨가 '갈보'에 얽힌 속상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일은 결코 그저 그런 일상 중의 한 보좌에 지나지는 것은 아니었다.

몇 년 전, 내가 아는 여성 한 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 구류 통발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졌던 일이 있다. 서울의 오래된 상가에 저역 중의 한 곳인 C 지역에서 일하는 그는 당시 연행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악전 패전'의 집이네'라는 말을 들었다. 경찰이 단속 나왔는데도 다른 여성들처럼 도망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유치장에서 그 여성이 경찰에게 들었던

92. 흥분한 여성들, 천호동으로 달려온

몸이 영망이 된 연주 씨는 본을 삭히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당한 여성들은 연주를 꺼고 영업을 하는 처지였는데, 이런 경우 혼자인 연주 씨가 상대적으로 귀어야 하는 심리적 위축감은 당연했다. 그런 처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쪽은 주인까지 물어와서 왔다갔다하고, 많이 다친 사람은 나였는데, 그때 내가 많이 맞아서 허리를 다쳤거든, 웬? 근데 내가 경찰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부터 허리 디스크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이나 하고, 나한테는 몇 마디만 물어보고, 웬? 신고한 사람은 나였는데, 나보고 전단서 들어 오려면 들어 오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뭐 말하더라고 내가 좀 울분이 났었어."

'연주가 있어서 좋은 점은 그럴 때였다. 단속이 시작될 때 미리 정보를 알고 대처한다든가, 이웃과 자음이 났을 때 술자리가 되어 준다든가. 하지만 연주 씨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연주 씨를 우울하게 했을 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연주 씨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난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여자들을 그렇게, 웬, 그렇게 물어 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뭐 남미, 웬? 없잖아, 갈보 이런 말은 잘 안 쓰잖나, 웬? 차라리 흔하디 흔하잖나, 애송, 애송 여성, 뭐 그런 말로 하기도 하고 그러잖나. 그때, 역시 내가 애송 여성인 건 맞아. 맞지만 민중의 지랄이라는 경찰이 웬? 차라리 역 앞에서 왔다든가, 그렇게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하는데, 근데 경찰들이 나보고, 아님부터 갈보네들이 와서 지랄이라고 나 그때 정말 비참했어."

연주 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좀 전에 경찰사에서 당한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담담하게 그저 대수로운 것 없는 일상 중의 한 보좌 정도로 얘

93. 흥분한 여성들, 천호동으로 달려온

기한 과잉죄를 들먹이던 말보다 더 깊은 모욕감을 안겨 주었다. 경찰은 그에게 '몸 파는 주세', '개한테 못한 인간'이라는 식의 말을 해왔고 그 여성은 '개한테 돈 받아먹는 나네'도 개 같은 존재'라며 맞섰다.

그 여성에게는 경찰이 던진 비하의 말들이 단지 말로 그치지 않았다. 여전히 혼돈스러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확인, 그로 인한 좌절을 동반하기 때문이었다. 경찰로부터 겪는 '우리 같은 여자들'에 대한 비하는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산명하게 그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그렇듯 지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온 했다.

그 여성은 직원들이며 수감자들이 온통 남자뿐이던 그곳에서 본을 삭히지 못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버린 채 합의를 했다.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남성들에게 조롱과 드악함을 동시에 받으며 이른바 나체 시위를 벌인 것이다. 경찰 중 한 명이 공무 집행 정해에 대한 증거로 남기겠다면서 비디오를 들고 나와 나체로 버티고 있는 그 여성을 촬영했다. 여성은 제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복지'가 돌아 이런 사실을 기자와 여성 단체에 다 알릴 테니 두고 보라며 끊임없이 더욱 막을 쓰고 철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경찰들은 이내 사과를 하였고 여성은 복장으로 옮겨졌다. 혼자 남겨진 여성은 사를 동안 단식을 하며 그 비디오 테이프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여성의 요구에 따라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는 지워졌다. 며칠 뒤 여성은 구류 기간을 아치고 밖으로 나왔지만, 그에게 남겨진 모욕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나는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잘 잊는 것'이라고 했던 연주 씨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나쁜 기억, 슬픈 기억들을 머리 속에서 잘 알아낸다고 했다. 어느 해인가, 외정부에서 나와 인연을 맺었던 나이 많은 여성 한 명은 손님 을 받을 때 당시 유명했던 코미디 배우의 대사를 떠올리고 있다 보면 남자들의 색취거리는 소리와 행위에 조급은 무감해질

94. 흥분한 여성들, 천호동으로 달려온

수 있다며 찡찡음을 흘려 보이곤 했던 것도 떠올랐다. 그라 처지가 크게 다를 것 없는 연주 씨는 장작 그 '길보'라는 말 한이다. 경찰사에서 들었던 자기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지칭하는 그 말 한이더를 지금껏 지워 내지 못하고 있었다.

몸에 남지지는 상처와 마음에 남지지는 상처는 분명 깊이가 다를 터이다. 물론 따로 말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연주 씨는 어렸을 홀라가고 있는 시간 탓에 몸에 남지지는 상처에는 어느 정도 무감해지고, 더러는 받아들이 수 있게 되었다.

길보, 냄비, 빗장, 오랜 세월 생애에 지력을 울타리삼아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말은 아주 익숙한 말이었어도 또한 낯선 말이다.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에 때때로 저항감을 표출하는 것에는 필시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 물론 세념했으나 마음은 아직도 그 낯말과 생각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미처 다 느끼지 못한 그들 스스로의 마음에 고스란히 살아 있는 일종의 자존감일 수 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성 노동자', 그 낯말이 던져 준 자극

연주 씨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1월, 우연한 기회로 홍콩에서 열린 어느 국제 회의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중국, 한국, 필리핀, 일본 등에서 생애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정확히 말하자면 '성 노동자'들과 관련 NGO 활동가들이 모였던 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하여 여기에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회의 참가자들 대부분은 '배출 근절'을 논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성 노동자의 권리'를 논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이다.

"그 회의는 나한테 충격을 줬어. 엄청난 충격이었어. 그렇다고 그 당부터 내가 뭐 오세오세 하고 다니는 건 물론 아니었지만, 그 그 성 노동자라는 말,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연주 씨는 성희롱이 일상적으로 존재함에도 그것이 성희롱인지 몰랐듯이, '성 노동자'라는 말, '성 노동'이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하긴 사회에서는 수시로 생애에는 노동도 필요도 아닌 벨스런 범죄라고 인식시켜 주었으므로,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행위, 혹은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여쭙어 물어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들이 그렇게 당할 수가 없어. 우리 나라랑 상황은 다 다르잖아. 웬? 그 여자들이 자기네 권리를 얘기하고, 토론하고, 난 있잖아. 우리? 우리 아니어도 알잖아. 사회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살고, 전호동 여자들이야 어쨌든 자기를 목소리를 내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세념하는 거지, 웬? 근데 그 여자들은 권리를 얘기하러라고 우리도 당연히 노동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 그런 것도 같더라. 우리가 하는 게 노동일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말이야."

그 말을 하는 연주 씨의 얼굴은 흥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 시절의 연주 씨에 대해서 어렴풋 알고 있었다. 회의를 다녀온 뒤, 이곳에 사는 다른 여성들에게 "우리는 성 노동자야"라며 자신의 생각과 회의에서의 경험을 소위 늘어 얘기하곤 했다. 물론 여성들 중에는 "이 언니가 난데없이 무슨 소리인가"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더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수하곤 했다. 심지어는 연주 씨가 갖고 온 회의 자료들을 복사해 읽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여성도 있었다.

나는 연주 씨가 스스로의 행위를 '성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성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에게는 생애에를 '성 노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면될

정치적 의미 혹은 사회적 과장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길보'보다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닌가. 온갖 사회의 더러움이란 더러움은 그 한 낯말에 다 응축해 놓은 듯한 '길보', '성 노동자'라는 낯말의 태생이 학제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곳에 모인 여성들 스스로 선택하고 그들과 언어로 다시 정의 내린 말이기엔 연주 씨는 그토록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만일 연주 씨가 그 회의에서 만난 사람들,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아니라 학자이거나 유명한 활동가일 뿐이었다면 그 낯말을 받아들이는 데 모인 신뢰의 깊이는 분명 폭잡지 않았을 것이다.

"난 그 회의 때 거기 홍콩의 사망가에도 가 봤거든. 나 혼자 간 건 아니고 몇 명에서 같이 가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때 열 일곱 살 짜리 여자애를 만난 거야. 걔는 혼자서 일하면서 살고 있더라구. 근데 얼마나 불쌍하든지 내가 물어보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냥 여기 만도 안 되는(자기 팔을 들어보며) 방에서 매트리스 하나 깔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야."

연주 씨는 그 여성을 보고 불쌍해서 울었다고 했다. 나는 뭐가 불쌍해서 울었느냐고 되물었다. 열 일곱 살의 여자애가 하고많은 일 쳐두고 결국에는 몸 파는 일까지 내몰린 사연이 불쌍해서였는지, 아니면 그저 가난하게 사는 게 불쌍했는지. 나는 아이젠 연주 씨의 이야기에서 그가 '성 노동자'라는 낯말을 알게 되고 새로운 자극에 흥분되어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묻어지 않는, 그가 당시 겪었을 흥분스러움의 단서를 찾아내고 싶었던 전지도 모로겠다.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서. 모르지, 그냥 영업을 하는 데만 그런 거였는지, 만 때 뭐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본 모습은 너무 불쌍했어. 내가 뭐도 안 통하는데 그 애 손을 잡고 웬? 내가, 웬? 이러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다 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연주 씨가 느낀 감정이 아마도 동류 의식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했다. 자신과 그리 처지가 다르지 않은 낯선 타국의 어린 여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여 갖게 되는 동류 의식. '성 노동자'라는 낯말에서 느낀 화염은 자기 스스로 자니고 있는 모순의 또 다른 자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나는 몇 번이고 빙빙 돌려 가며 그것에 대해 짚은 했다. 하지만 연주 씨는 번번이 "가난하니까 불쌍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가난한 타국 여성에게 느끼는 그 감정을 단순히 연민 그 자체의 감정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앞에서 여쭙어 무언가를 끄집어 내기 위해, 논리를 펼치기며던 나의 초라한 교묘함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연주 씨는 이 회의에서 한 가지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했다. 당시 외국인 몰려다 한 명과 NGO 활동가 한 명이 함께 동행했었는데, 국가별 보고 통괄적인 발표는 그 NGO 활동가가 준비했다. 출국 전에 통역을 맡은 외국인 여성과 몇 번이나 만나 서로의 의사 소통 방법과 정서 등을 익힐 기회를 갖기도 했다. 그것은 더욱 원활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그 몰려다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연주 씨는 연구 작업에 참여하거나 한국 상황에 관한 발표문을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

연주 씨는 그 회의에서 발표된 한국 보고서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난 정말 깜짝 놀랐어. 그 애가 왜 그렇게만 말했어. 다른 나라 여자들은 자기네 권리, 웬?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러는데 이전 아니더라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난 거기 가서 처음 들었어. 전에 그런 보고서를 같이 본 적도 없어. 숙소에 들어가서 그 애랑 얼마나 오랫동안 토론했는지 모른다. 너."

연주 씨는 '토론'이라는 표현에 여쭙어 말했다. 그에게 익숙한 말이 아닌 토론이라는 생경스러운 말을 썼을 정도로 그에게 이 일은 사적인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데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

사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열리는 상대에 관련 회화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지도 못했지만, 참여한다 하더라도 '중언자', '원칙 매춘 여성', '전직 매춘 여성'으로 참여해 왔을 뿐이다. 중언은 손 씻기 과정, 즉 일어나 어려운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어떻게 상대자로 유입되었는지 또한 현재는 어떤 불이익을 겪고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채워지곤 했다.

나는 가끔 이제 더 이상의 중언은 사족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보면 중언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해서인지 중언하는 이외의 지구력을 필요로 할 만큼 여러 분야에서 제재 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더러는 중언하는 과정에서 중언자 스스로 모델감과 심리적 손상감을 입기도 했다. 또한 그들의 눈에는 중언의 대가로 보여져야 할 변화가 쉽게 감지되지 않기에 과정이 끝나면 중언자가 겪었던 감정들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으로 남을 뿐이었다. 2001년 말에 한 기지촌 여성 운동 단체가 다른 몇몇 기관과 공동으로 상대에 입안 개정을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며 여성들이 중언자가 아니라 연구자로 참여하는 걸 보였다. 물론 참여의 폭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 여성에 대한 무리 깊은 편견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스스로의 삶을 사회에 드러낸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들이 그런 용기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반복적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었기 때문이다. 나 같은 여자에게 보인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일종의 답례 정도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상대에 어떤 심리 개세가 작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제발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존재한다. 물론 각자의 바람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상대에

100 | 중언한 여성들, 허락을 하고 말리는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며, 더러는 상대매가 아닌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를 염두에 둔다. 하지만 사실은 가전 기구의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듯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인생을 걸고 하는 중언의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 개인적인 바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자니고 있는 개인적인 욕구와 바람은 또한 자라라 사회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중언이 아니라 자유로운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들 스스로의 욕구이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주변의 자재인 것이다.

연주 씨는 다른 나라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중언자로서가 아니라 회화자로 참여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주변인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참 이상했어. 한국 여자들은 다 불쌍하고, 다 성 노예로 팔려 다니고, 병 들고, 죽은 여자가 있다 그러고, 물론 죽은 여자가 왜 없었어? 불쌍한 여자도 있고, 진짜, 음? 팔려 다니는 여자도 있지. 그치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모든 경찰이 다 나쁜 거 아니고, 모든 남자가 다 나쁜 거 아니고, 모든 포구가 다 나쁜 거 아니야. 난 지금이야 이렇게 혼자서 프. 프. 프리랜서, 음?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전에 주인 밑에서 일했을 때도 그런 거 없었어. 밥 때 되면 같이 밥 먹고, 손님 나가면 정해진 대로 갈라서 갖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고, 난 그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 자리에서 연주 씨는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 내용을 처음으로 들으며 이해할 수 없음과 수치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라는 생각에서 그 내용을 수긍할 수 없었고, 다른 나라 여자들은 당당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나라만 저런 얘기를 할까 하는 데서 오는 수치스러움이 고조됐다. 그런 까닭으로 연주 씨는 그 NGO 활동가와 그토록 한참 동안이나

필요 4쪽 성 노동자 지원단 100

보통을 받았던 것이다.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는 경찰에 의한 성희롱 기억을 떠올리며 자기 같은 저지의 여성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제는 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연주 씨의 편견 없는 마음이기도 하며, 또는 스스로 정리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과정의 표출이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편견 없는 마음이란 혼란의 표출이란 간에, 지금껏 우리가 상대매를 논할 때 그렇듯 한 가지 시작만 고집했다는 사실이다.

기지촌 여성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중언해 온 한 여성은 이처럼 여성들의 상황을 파악하진 시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에 거의 본능에 가까운 표출을 보였던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 여성들이 자니고 있는 저지 기질의 하나, 결국 있는 감정 변화의 한 토막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관련 NGO 단체들 속에 만연해 있던 '거군은 나쁘다', '기지촌 여성은 불쌍하다'는 이분법적인 기존의 시각에 제동을 걸었다. 어쩌면 연주 씨 역시 당시 그 여성의 문제 제기와 비슷한 의견이었으나 그것이 이어서 언어로 정리되어 모른되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매에 대한 논의가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옮겨지는 경향이 있다. 연주 씨의 국제 회의 참여 경험은 비공개라는 제한점이 있기는 했지만, 성형 그 회화에서 논의된 '성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사회 일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험한 행위로 치부될지 모른다.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여지없이 논쟁에 입하는 어느 한 부류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가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모순은 연주 씨 역시 회화에서 보고된 한국 상황에 대해 무엇이 반론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중 어느 부류는

최소한의 권리까지 상실당한 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 역시 모르지 않고 있었다.

1퍼센트의 절망과 희망

연주 씨는 스스로 밝혔듯이 업무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생활하며 일한다. 업무에 속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문제를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단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기도 하지만, 단속에 걸려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종종 적어드는 파루관에서 사소한 시비라도 풀을라치면 주인 없고 남편 없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주 씨는 파루관의 사소한 시비 끝에 휴면 무를겨 받았던 적이 있다. 술과 약에 취한, 유독 작은 체구의 연주 씨가 몇 마디 대충하자 그 업무와 함께 살고 있던 젊은 남자가 나서서 때리기 시작했다. 그때 참 많이도 맞았다고 했다. 연주 씨에게 그런 일은 가끔 벌어졌다. 자신도 한하지 않았던 일이, 어느 순간 그만만큼까지 벌어져 있고는 했다. 그런 상황의 한가운데를 지키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누르고 있지 못하게 될 때도 더러 있었다. 또한 '존엄의 자치로 인해 상대매가 되는 남성들에게서 당할지도 모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혼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연주 씨의 경우는 그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떠올리면 슬퍼지는 기억을 머리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그의 욕기도 그 같은 두려움 앞에서는 한없이 허물어지고 만다.

2000년 9월 어느 날, 새벽 4시경에 연주 씨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들어가서 자도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풀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그 즈음 한 남자와 간단히 흥정을 마치고

100 | 중언한 여성들, 허락을 하고 말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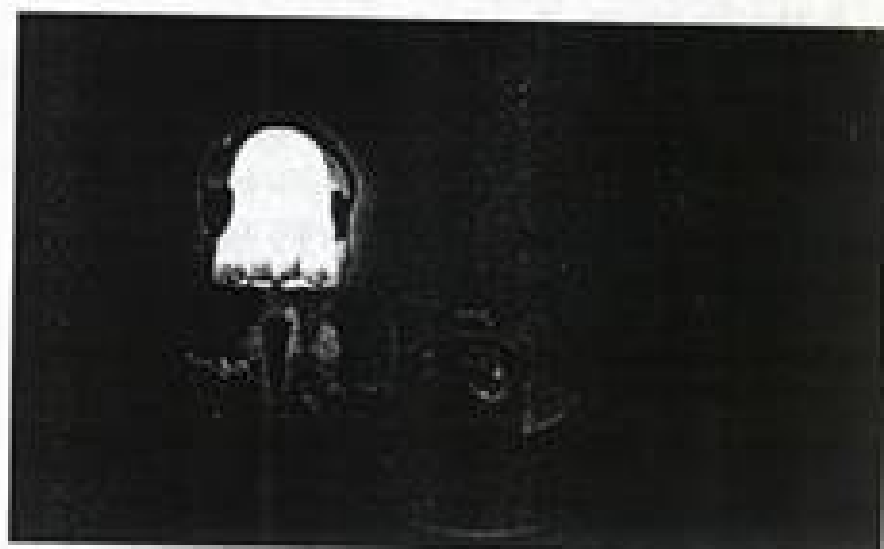
필요 4쪽 성 노동자 지원단 101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의 흥정 가격은 4만 원이었다.

남자를 방으로 안내하자마자 남자는 무척대고 연주 씨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리곤 문을 닫아 잠겼고, 옷부터 벗으라고 했다. 이런 경우 연주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 자라 리 빨리 안에 마치고 들어가라' 생각하며 일본 자라에서 일어나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다. 남자는 연주 씨를 침대에 쓰러뜨린 뒤 상체에 이불을 뒤집어 거른다. 남자는 연주 씨가 집 곳곳에 놓아 둔 남자 구두를 보고는 짐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평소 연주 씨는 후시나 라는 마을에 부러 남자 구두를 몇 켤레 사다가 집안 곳곳에 놓아두고 지냈다. 남자의 폭력과 면세질은 연주 씨의 벗겨진 아랫도리를 향해 하지 않고 이어졌다. 그런 상황은 아침 9시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날 연주 씨가 겪은 사건은 어쨌든 여성들에게도 많은 충격을 주었고, 연주 씨는 이 일로 오랫동안 병된 신세를 지어야만 했다.

나는 당시, 연주 씨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차가 폭어로 찌다볼 수 없을 정도로 멍멍이 되어 있었다. 거의 시커멓게 피멍이 들어 있는 연주 씨의 얼굴은 짓이겨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 랑스럽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그 연주 씨의 얼굴인지 믿어지지 않았다.

"난 그랬어,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 생각만 들더라고, 그냥 그랬어, 내가 살았구나, 그 생각. 참 이상해. 옛날에는 웬? 죽으려고 많이 그랬어. 알잖아. 그게 언제더라? 그 화투판에서 싸움 나고 싹쓸 두들겨 맞은 다음이었을 거 야. 아아, 내 폐물을, 통장들 여기 이 자라에(화장대를 가리키며) 다 모아 놓고, 여기 알뜰 주머니에 종알(종각) 잔뜩 넣어 가지고 한강에 갔던 거. 난 그때 정말 결심하고 간 거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지. 살고 죽는



“내 몸한테 죄가 많지. 약 먹는 거, 어떤 때는 내 위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먹지. 안 먹고도 나가 뺏는데 못하잖아. 습관이 무서워, 그런 것도 죄지.”

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죽으려고 한강 갔다 온 다음에 일어 안 있다가 생긴 일인데, 딱 그 생각 들더라. 내가 살았구나. 딴 생각은 들지도 않았어.”

연주 씨는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남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그리 많이 얘기하지 않았다. 아니 거의 하지 않았다.

“그냥 그때 그러더라구. 나보고, 나중에 내가 병원에 물어 줄 테니까 오늘은 네가 나한테 좀 맞아라, 그러더라구.”

오늘은 네가 나한테 좀 맞아라. 연주 씨는 이 말을 신명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다섯 시간 동안 남자가 내뿜은 말 중 기억나는 것이라곤는 욕설을 제외하고 그 말이 전부였다. 오늘은 네가 나한테 좀 맞아라.

연주 씨는 오히려 자신을 폭행한 그 남자에게 우리가 모르는 그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 여기 뭐 연애하고 있어서, 그 성욕을 못 참으니까 오는 것도 있었지만 뭐랄까, 좀, 내가 이런 생활하면서 느낀 건, 웬? 어떤 데 오면 우리 같은 여자를, 웬?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웬? 사회에서 그런 불만 같은 거,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같기도 하고.”

남자가 내뿜었다는 그 말에 대해 다시 질문했을 때, 연주 씨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그곳에서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갖게 된 생각 하나를 말했다. 나는 아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자들의 무언가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물었다.

“그런 거. 집에서 못하는 그런 거. 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보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도 아. 너, 뭐 욕하기도 하고, 가요웬? 이상한 사람 걸러면 웬? 좀 심하게도 하고,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가봐, 남자들은. 그 남자에게도 경제 아버지가 군인이래. 그러니까, 좀, 그랬을 거야. 웬, 그랬

졌지.”

다섯 시간 동안 남자는 때리고, 욕하고, 연애하고, 또 때리고, 욕하고, 연애하기를 되풀이했다. 나는 연주 씨의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성폭행이라는 낱말이 떠올랐다. 그런 성을 파는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성폭행인 게 분명했지만, 나는 그런 나의 생각을 내내하지는 않았다.

연주 씨는 그나마 자기 상체에 이불이 덮여져 있었기에 상처가 그만 했을 거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생활하는 방과 손님 만는 방을 엄격히 구분했는데, 그 방에는 전화기가 없었기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아마 전화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휴, 나중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 출근할 때 안 왔나? 출근해야지, 그럼, 출근은 해야지, 이렇게 꼬르르잖아. 아침 9시가 넘었을 거야. 그때가, 웬? 그 남자가 언제 가더라고 나는 그 남자가 가는 게 너무 고바워서 계단 입구까지 따라 나갔어. 그날 정신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웬? 어떻게 막? 아침 햇살이 조금 들어오는데, 잘못 나가는 그 남자가 그렇게 꼬르르더라구.”

남자는 나가면서 연주 씨의 얼굴을 보았다.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고는 ‘나중에 내가 병원에 갔다 줄게’라는 말을 남긴 채 계단으로 올라섰다. 그때, 건물 입구에서는 같은 건물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아저씨의 얼굴이 보였다. 당연히 그도 연주 씨를 보았다. 한눈에 연주 씨의 얼굴이 멍멍이 되어 있는 걸 알아본 그는 앞서 나가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편팔아 보며 큰소리로 ‘연주야! 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라고 다그쳐 물었다. 연주 씨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야 ‘오빠! 나 좀 살려 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랬어!’라며 소리를 질렀다. 남자는 곧바로 철물점 아저씨의 손에 잡혔고 그렇게 해서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다. 그 남자는 인

근 지역의 직장에 다니고 있던 스물 여섯 살의 평범한 젊은이였다.

파출소에서 연주 씨는 자신이 겪은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다. 연주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 남자는 손님이었던 사람이며, 그에게 다섯 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조서로 꾸며졌다. 이웃의 아는 언니 한 명이 소식을 듣고 급히 파출소로 달려왔는데, 만신창이가 된 연주 씨의 얼굴을 보고 기가 막혔던지, '어떻게 약한 여자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고 남자에게 따졌다. 그러자 남자는 '제상자는 참견하지 말라'며 버럭 화를 냈다. 그 밤에 연주 씨와 일행은 더욱 화가 났고, 그래서 이 사건은 정식으로 경찰서까지 올라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사에서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된 연주 씨는 파출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반복했다. 자신은 '그런 여자'가 아니며, 따라서 그 남자와 윤락 행위나 이혼된 것은 아니다. 그 남자는 문이 열려진 문을 타 몰래 들어서는 무작정 울을 멎기고 폭행한 것이다. 라는 새로운 말을 했다.

연주 씨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표현했다. 처음에 나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자신이 들어 준 그 상황을 내가 명확한 거짓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재차 설명해 주었다.

"그때 내가 거짓말을 한 거라니까. 응? 남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연주 자네가 고시고 때려갔으면서 윤락 행위 안 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응? 그 남자가 폭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 폭을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 아줌마가 거짓말한다. 응? 그럴 거 아냐. 내가 내 얘기를 책으로 쓰는 것은 자유지만 어쨌든 거짓말이야."

연주 씨는 거짓말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 거짓말의 배경은 이러했다.

"그때 한 여섯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꼬박까지 엉망이 되고 머리는 깨졌지, 거기에 윤락행위법(윤락행위등방지법)까지 보태자면

뭐가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런 상태에서 또 그 문을 때렸고 들어가서 구역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는 그 남자가 그냥 들어온 거라고 우겼어. 거짓말을 한 거지, 사실은 내가 때리고 들어간 건데, 내가 때리고 가기는 했고, 응? 일반적으로 맞기는 했지만 그런 거짓말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 윤락행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단 연주 씨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었다. 여성들이 '논남'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폭행 등 치명적인 일을 당해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당장에 직면한 문제가 폭행이나 그대 일어난 사건이라 해도 그것이 성매매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밝혀지면 남자와 여자들이 다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른바 쌍벌제가 적용되는 것이었다. 연주 씨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파출소에서의 진술 내용을 반복한 것이며, 그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도덕적으로 뭇뚱하지 못했던 나머지 자조하곤 했다.

파출소에서의 내용이 반복되자 경찰서에서의 조사 과정을 더욱 길어졌다.

경찰사에서 내가 하도 일관되게 말하니까, 응? 그럼 뭐 먹고 사냐고 물어더라고 나는 내 집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아가씨들을 때리고 있었다. 지금은 다 나가고 없어서 가끔 펠프 일을 하며 소개만 시켜 줄 뿐이다. 먹고살라고 그러는 거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아는 사람 만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다. 이렇게 물어왔어. 물론 펠프도 그 윤락행위법에 걸리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응? 내가 직접 윤락 행위를 했다고는 절대로 안 했어."

경찰들도 연주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사를 하던 담당 경찰이나 주위의 몇몇 경찰은 이미 상대에 현장의 연주 씨를 알고 있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워낙 연주 씨가 당한 폭행의 정도가 심했기에 사건

은 일단락될 기미가 보였다. 더욱이 그 남자 역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도 제대로 확실히 내지 못했다. 결국 연주 씨의 집 앞에 계자석과 사진을 첨부해 조사 과정은 일단락되었고, 연주 씨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합의를 통해 사건은 종말이 났다.

그리고 1년 뒤, 연주 씨는 같은 공간에서 낮모르는 남자에게 또다시 폭행을 당했다. 지난 번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같은 새벽 4시쯤이었다. 이번에도 그날과 같은 상황이었다. 연주 씨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계 앞에 선 남자에게 4만 원의 최대 값을 '약속' 받고 방으로 향해 갔다. 연주 씨 손에 이끌려 들어간 남자는 방으로 들어사자마자 무작정 여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폭 1년 전과 비슷했다. 폭행은 한 시간 남짓 계속 이어졌다. 그 순간 연주 씨는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이전 좀 그렇더라고. 내가 병에 든 것도 아니고, 자 사고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죽는다는 건 너무 서글퍼. 그럼, 난 있잖아, 1년 전에 그 사건이 났을 때도 응? 그 상황을 원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남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정신 들고 보니깐 내가 안 죽고 살아 있더라고. 난 그게 고마운 거야."

이후 없는 세월이 이어지는 동안 연주 씨는 언뜻언뜻 스스로를 찾았다. 약에 절고, 흥정하던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또다시 부주의했던 자신을.

남자가 때리기를 멈추고 밖으로 나가자 비로소 '잘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남자는 곧 다시 들어와 방금 전처럼 다시 한바탕 때린 후야이 나갔다. 그때 연주 씨는 그가 1년 전의 그 남자라는 걸 느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다시 내려왔을 때, 거리의 불빛 몇 자락도 남자와 함께 발치로 들어왔다. 그때 남자의 모습이 얼핏 몇 사이로 바뀌었다. 1년 전 그 남자 정도에 키, 그 정도의 실루엣이 느낌으로 살아오는 것 같았다. 연주 씨는 그가 1년

전의 그 남자라는 생각이 들자 견딜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이후의 시간들이.

무의식중에 주변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건 뒤 화식을 할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연주 씨의 전화를 받은 전 형소 그와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의 한 업주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 경찰도 있고, 119도 있는데 말야. 그러? 내가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도 그 언니를 제일 먼저 찾았더라고."

그 업주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여성 한 명과 함께 연주 씨의 집으로 가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을 땀글 감아 버렸다고 했다. 커리안내가 울적 밀려올 정도로 연주 씨가 쓰러져 있는 복도에는 온통 피투성이였다. 그래서 곧바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연주 씨는 1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 물론 연주 씨 가슴속에서는 '그 남자 같아오 맞아요. 그 남자인가봐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연주 씨의 가슴은 터져 버릴 것 같았다. 경찰은 연주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1년 전의 남자를 소환해 심문을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아내지 못해 돌려보냈고, 결국 연주 씨를 폭행한 남자는 찾지 못한 채 호지무지되고 말았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연주 씨는 경찰로부터 1년 전의 그 남자와 대질 심문을 해야 하니 급히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연주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남자와 마주 대하고 앉게 되었다.

어쨌든, 가슴이 막 열어나 울릴거였는지 몰라. 그래도 그 남자 얼굴을 똑바로 봤어. 그 남자는 이렇게 눈을 내려놓고 절대로 나한테 눈을 못 맞추더라

고 난 그 남자라고 99퍼센트 확신했어. 하지만, 난? 음? 1퍼센트를 확신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얼굴을 똑바로 봤던 것은 아니니까. 음? 내가 도 약에 취해 있었을 거고, 난 지금도 그게 기억 나. 이렇게 불빛에 비춰진 그 남자의 세구며, 느낌, 그런 걸, 많이 속상했지만, 그 1퍼센트 때문에 그가 아니면 범행한 사람을 고생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경찰한테 아닙니다, 100퍼센트 장담할 수가 없네요. 그러고 왔어. 그때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무섭지, 다시 본다는 게.”

대질 심문을 마친 뒤 연주 씨는 그 일을 빨리 잊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또다시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 자신에게 이유 없는 대질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그 일이 있은 뒤 연주 씨는 혼자 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연주 씨는 두 남자가 혹은 그 남자가 때 자신을 폭행했는지 여전히 그 까닭을 모르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들에 대한 혹은 그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 놓고 표현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사건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거라며 쓸쓸히 웃곤 했다. 그날은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약속 한 상태였고, 게다가 술까지 마셨으며, 전에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면서도 조심하지 못한 자신 탓으로 돌렸다. 연주 씨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화를 내거나 강요하게 행동하는 법이 없었다. 실령 화가 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설득과 이해라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연주 씨에게는 하지만 정말로 분노가 없을까. 그는 나와 만나 이야기 나누는 동안 지나가는 말로라도 원망을 하거나 분노를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궁금했다. 그 사고는 아무리 예를 써도 좀처럼 기억 속에서 자취를 지 않으리만큼 큰 충격으로 남았다.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성 노동자’라는 낱말을 처음 알게 되면서 느꼈던 화열과 위안이 연주 씨에

게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럼, 그 말은 나한테 안 잊혀져, 상처 같은 거, 음? 그런 것처럼 받아야. 그런 지금도 같네.”

연주 씨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했다. 이전까지 자기가 ‘몸 파는 여자’ 이 되어 겪게 된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토해 내던 그였다. 한 때 ‘성 노동자’라는 낱말을 알게 된 자신의 경험은 여전히 그 어떤 경우라도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다른 여성들과 달리 자신이 그 회화에 참여하게 된 것이나, 그런 계기를 통해 자신이 ‘성 노동자’로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연주 씨는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가족이나 업주라는 보호막이 없으며, 끝음을 무기삼아 한 세월 아침으로 지내 보기에는 이미 중년과 나이가 버겁다. 연주 씨는 위에서 설명된 그 일련의 사건들처럼 생계에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그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어르고 꼬셔야 지켜지는 권리

나는 언젠가 연주 씨에게 ‘인권’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그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정작 나 스스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인권, 사람의 권리, 우리들의 권리,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거기에 실린 무게를 쉽게 떨쳐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인권? 그래, 뉴스에 나왔던 천호동 여자들처럼 음? 어떻게 머리가 부르고, 나는 나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 그런 건가? 이렇게 어깨에다 똑똑 이런 것도 예고 으레으세 하는 거, 그런 거? 아휴, 난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르

겠다. 하여튼 인권은……”

연주 씨는 내 질문을 어렵게 받아들였다. 한참 동안이나 생각을 하고, 입사의 말을 잊지 못한 세 다들처럼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질문했다. 연주 씨의 저지에서 어떤 것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까. 이를테면 성을 팔고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으며, 그의 표현처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유난히 작은 세구며 그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느냐고.

“음, 그런 거, 예를 들면, 음? 여자가 연애하면 어떻게 놀잖아. 근데 취해서 때달라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도 많이 해주고 그 땐는데 지금은 내가 지난 번에 다와 다치고 난 뒤에 그렇게 못해 줬. 그래서 그런 남자 들어오면 다시 돈 4만 원이나 얼마 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아니라 너가 못한다고, 반 질 가라고 물어보네. 어떤 때는 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오빠, 아예 하면서 살살 달래고 꼬셔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런 것도 권리인가?”

그 밖에도 경찰 단속에 걸려 연행되어 갈 때 제발 문단속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었으면 하고 말하는 것도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 중의 하나라는 말도 덧붙였다.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연주 씨의 얘기는 할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권이 있다면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연주 씨는 이미 그 방법을 세 가지나 얘기한 셈이다. ‘나는 나다!’라고 목소리 내는 것,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에게 돈 쥐서 돌려보내는 것, 감당하기 힘든 손님은 살살 달래고 꼬셔서 내보내는 것. 이 세 가지 중 그나마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또한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는지도.

“나? 꼬시는 거, 허허허.”

연주 씨는 두 가지 물음에 한 가지 대답을 했다. 그 대답이 나왔을 때 대답한 이나 질문한 이나 누가 먼저할 것도 없이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연주 씨는 웃음기를 희미하게 간직한 채 또다시 천호동 여자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비록 배운 게 적어 그럴 뿐이지만 그렇게 여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에 유난히 힘을 주었다.

나로서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한 연주 씨의 이야기가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다. 대낮에 찾아오는 단골손님, 약에 취하지 않은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 난폭한 손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 등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손님은 돈 쥐서 돌려보내는 것이나 살살 달래서 만 여자에게 보내는 것이 그나마 자기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 여자, 도무지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그 ‘바닥’에서 버티 낸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분노가 없는 연주 씨는 그렇게 자신의 일면론을 풀어냈다.

“나 같은 여자들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런 것도 인권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야. 뭐든지 그런 것 같아, 금방 바뀌는 것은 없을 거야. 내가 앞으로 이런 일 그만두고, 어쩌면 계속할지도 모르지만, 음? 그래도 이런 여성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자포, 그 자포화라고나 할까. 이런 여자들 중에서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인권이다. 그러면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몰라서 포기하는 것도 있지.”

연주 씨는 자신을 피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자신을 세 어떻게 키가 작게 낳았느냐고 부모님께 물었을 무뎠던 일, 미성년자 신분으로 성매매 지역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할 부모님에게 자기 있는 곳으로 꼭 보게 했던 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털어놓은 비밀 얘기를 지켜 주지 못했던 일 등이

어떤 역사

성매매 지역 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회

김남이

개나리회를 찾아서

나는 지난 10년 동안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지역의 여성들로부터 자신들의 자치 조직이 존재했다는 말을 들어 왔다. 하지만 그 조직은 사회 일면에 드러나지 않았고, 자료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남긴 예도 극히 드물다. 다만 성매매와 연관된 삶의 깊이가 세법 진 여성들의 입에서 일어로 전해지며 그들만의 문해된 역사로 존재할 뿐이다.

오래 전부터 전국 곳곳에 존재했던 여성들의 자치 조직에 관해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 놓지 못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짧은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인연을 맺었던 여성들로부터 자치 조직에 관해 적극적으로 취재할 수 있었던 오래 전에는 나 스스로 그것이 지나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나는 주로 여성들 개개인의 생애사적 이야기에 비중을 두어 반자화나 기적으로 남겨 왔을 뿐이다. 그 동안의 작업, 여성들의 삶은

11 이 글 중은 사회적 다양부, 문헌, 문헌의 개나리회 혹은 '30'로 불리는 성매매 지역의 자치 조직을 말한다. 여기서 성매매 지역의 개나리로 만들어진 개나리는 지역의 개나리회는 교황 성매매 지역의 성매매 성매매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다. '개나리회'로 구분되는 오래된 성매매 지역의 자치 조직의 활동 양상이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2008, 통영지역 여성들, 누대를 타고 달리는

고 했던 여성들의 노력이다. 이것이 여성들 안에 존재했던,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스스로의 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지금껏 여러 연구와 NGO의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는 여러 대안이나 성매매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앞서, 여성들 스스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던지를 돌아보고 싶은 것이다. 이런 취향으로 나는 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소집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은 대대적인 사회 정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사회를 깨끗이 만든다는 의미의 '운동'이다. 하지만 사실 그 운동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단지 더러워 보이는 부분들 그들에게만 집중하고 정화하는 것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정권의 사회 정화 대상은 부랑민, 간담을 비롯해 성매매 지역의 여성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듯 보이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근본적 해결책 없이 일시적인 청소의 의미가 강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사회 정화 운동의 정당성은 제대로 성립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전두환 정권의 대대적인 사회 정화 운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아냈으며, 실제로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축감을 가지다주었다. 특히 성매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당사자 여성이든 기동식방 이든 '포주' 든 간에 구분 없이 모두 다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1980년에는 상경교육대 소문을 들

12 일부 용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여성들의 표현을 여러 소기로 한다. 이들에게 '포주' (일부), 기동식방, 처가, '정화' (정화) 등의 용어가 그러하다.

2008, 통영지역 여성들, 누대를 타고 달리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는 성매매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와 그 안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피해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가 여성들의 일상 자체에 의미를 두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였다.

이 글은 서울 용산 지역에서 1981년부터 1983년까지 활동했던 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회'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가 개나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이 글을 쓰기 3년 전쯤부터이다. 이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취재하기로 하고 당시 개나리회 활동에 참여한 여성 네 명을 찾고 만나서 심지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물론 그들 중에는 다음과 달리 연이은 개인 생활의 변화 때문에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누구 하나 흔쾌히 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사실을 어떤 기억보다도 긍정적이고 달란한 사실로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작업을 함께한 네 사람은 모두 40, 50대를 살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다.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성매매 지역으로 유입되어 일을 시작해 개나리회 조직에 참여했으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여성들이다. 이 작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개나리회의 취지와 활동 내용을 간략한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것 말고는 어떤 자료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물며 사진 한 장, 신문 기사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록의 대부분을 인터뷰에 통해 준 여성들의 이야기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들 네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대략의 상황을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인터뷰 중 서로가 살아온 내력과 최근의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의 삶보다도 개나리회의 결성 배경과 3년 동안 진행된 활동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 인터뷰에 통해 준 여성들의 이름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모두 가명으로 쓴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들의 현실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

어떤 역사 207

고 자신이 그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피신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로 인한 소모는 용산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1년 5월 무렵, 당시 도 성매매 밀집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던 용산 지역에서는 몇몇 유지를 주축으로 이른바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것이 결성되었다. 주축이 된 유지를 대부분이 '이기에 정사'를 하고 있거나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지역의 유지로 행세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자체적 움직임은 정부에 의해 정화될지도 모르는 '결어'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정화위원회를 결성하여 내세웠던 활동 내용은 성매매 지역의 '결어'가 사실상의 핵심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용산의 성매매 거리에서도 '사회정화위원'이라는 판장을 찬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승을 일어났지, 돈 봉투 갖다 주면 입이 떨어지던 경찰들이 단속입내 하면서 왔다갔다하는 것하고 정화위원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 내 생각에는 정화 교육 받아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포주들이었다구. 그 사람들의 작업이나, 사생활, 태도 어느 모로 보나 지역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지역 정화 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들 가정부터 정화해야 하는 거였어." (성은아, 기동, 당시 36세)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성은아 씨에 의하면 사회정화위원회의 자치에 대한 불신도 높았지만, 위원직을 자지하게 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거의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사회정화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지역을

13 오래된 성매매 밀집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 말은 성을 파는 행위 혹은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경우에 따라 일부 차이에 의한 더욱 큰 비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역사 208

순회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질서 잡기'를 위해 저년 표안이란 여성들이 역 광장이나 큰 도로변까지 나가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서만 영업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었다. 사회정화위원회에서는 영업에 나서는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배부한 표를 반드시 달도록 했으며, 그 표를 단 여성들에 한해서만 '히바리'를 허용하기도 했다. 또한 업소당 한 명의 교대로 히바리를 하도록 했는데 먼저 나가 있던 여성이 손님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른 여성이 교대로 나와 히바리 행위를 하자는 것이었다. 이상의 것들은 정화위원회에서 일종의 규정으로 만든 사항인데, 만일 가슴에 표를 달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하면 이들이 정한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었다. 사회정화위원회의 실제 역할이란 자체 단속이었던 것인데, 이는 경찰과 협회인 과정을 거쳐 논의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 같은 자체 단속을 위해서는 각 업소의 모든 여성이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을 사회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해야 했는데, 여기에 반발해 등록하지 않는 여성도 더러 있었다.

"나는 절대로 본명을 쓰지 않았거든.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대개 다 그랬지. 근데 거기에 등록을 하려면 내 주민등록증이며 뭐며 다 갖다 내야 할 텐데, 하기 싫은 거야. 열에 아가씨들이나 포주들도 제 나보고 등록 안 하나요 그러는데, 나는 내 빚 내가 파는데 지들이 무슨 상관이나 그랬지." (성은아)

여성들은 사회정화위원회의 자체에 대한 불신은 있었지만 사실상 경찰들에게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부 단속을 통해 경찰로부터 당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지역 여성이나 업주의 처지에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그 때서 여성들은 정화위원회의 자참대로 그들이 배부한 표를 가슴에 달고 영

21 '잡아잡다'는 저지의 일본어에서 파생된 말로, 거처에서 직접 상대 당국을 조력하여 성을 파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업을 나가야 했다. 그 표에는 경찰들의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일종의 '주홍 글씨' 같은 의미가 동시에 담겨지는 것이었다. 그 '주홍 글씨'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가질 수 있는 굴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표로 여성들이 염려하는 단속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자참이 시행된 첫 날, 표를 달고 영업을 나가 히바리를 하던 여성 중 한 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 연행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 여성은 경찰차에 실려 연행되어 거인 중 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정화위원들이 사키는 대로 하면 당연히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그 달만 믿고 방심하다가 생긴 사고였지. 아가씨들이야 당연했고, 특히 포주들까지 아무성을 쳤어." (성은아)

필수였다면 그리 특별한 것도 없는 일이었지만, 말았던 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성은아 씨와 주변 여성들은 그 당시 경찰의 단속은 본명 사회정화위원회에 본래를 보여주려는 일종의 함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경찰과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규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시 경찰의 큰 부수업이었을 '잡다'의 발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 사건으로 인한 지역의 반응은 생각보다 거셌다. 특히 업주들은 사회정화위원들에 대한 불신과 반항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처음부터 별다른 소명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던 정화위원들은 몇 명만 남겨두고 모두 시퍼렸다. 남은 정화위원 중 누군가에 의해 차라리 여성들 스스로 자체적인 정화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그때, 제일 먼저 아가씨 중에서는 나한테 찾아와서 의견을 냈지. 조용히 물어먹으면 단속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러했어. 한 여자를 나팔들이 좀 유명

했는데 걔는 포주니까 제외됐고 나한테 온 거지." (고수희, 가명, 당시 38세)

1974년부터 울산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던 고수희 씨는 여성들 사이에서 골통 짓 부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그의 골통 짓은 주로 업주나 경찰을 향한 것이었다. 정화위원들이 고수희 씨를 제일 먼저 찾아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가 여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일마루 그들은 상대가 이루어지는 각 골목을 대표할 만한 여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 자리에 불러 나간 여성들은 동네에서도 '한 거대'한다는, '반만치 않은' 부류들이었다. 이 의미는 손님에게선 업주에게선 고분고분하지 않은 여성을 뜻했다. 정화위원들은 자신들이 모임을 주최한 의도를 얘기했다. 그들은 여성들끼리 자체적으로 '정화'를 위해 활동해 보라고 제안하면서, 그러려면 이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해보라고 했다.

"나는 성은아를 추천했어, 나팔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걔가 제일 나았어. 그 당시 그 사람 말고 할 사람이 없었어." (고수희)

고수희 씨가 말하는 '제일 나았다'는 말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르는 것인지 궁금했다. 어떤 사람이 최강이 되느냐에 따라 여성들의 자치회 성격이 판가름 날 것이지 때문이었다.

"학벌, 마을 씩씩이, 인장, 똑똑하고, 세고 우선 세다는 거, 세지 않으면 못해, 전답을 있고 근데 어떻게 베풀 내냐, 그리고 고지식하고, 거짓이 없었고, 걔가 이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이끌어 나갈 것 같았어, 내 집착이." (고수희)

고수희 씨가 그를 처음 추천한 것은 정화위원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부터었는데, 정화 성은아 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모임에 참석했다.

"난 처음에 내가 정화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서 나를 부르는 건 줄 알았

어, 그래서 속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랄하려면 어디 해봐라, 어디 한번 장면으로 부딪쳐서 얘기 해보자, 그런 상상이었지. 사무실에 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글쎄, 한 스무 명 정도가 먼저 와서 모여 있었는데, 아는 아가씨 얼굴도 있고 정화위원 하던 남자 중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로 불러내서는 부탁이 있다고, 아가씨들 권익을 위해 함께 일해 보지 않겠느냐는 거야. 난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해야 되자 않겠냐고 하는 거야. 하지만 난 나서서 한다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 (성은아)

1980년 초 삼정교육대에 소집될 것을 우려해 동료 몇 명과 인근 지역으로 도피한 경험이 있는 성은아 씨는 자신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이, 스스로 표현에 의하면 늘상 '골통 짓'만 하던 자신의 '잡다' 때문이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주변 여성들에 의하면 성은아 씨는 당시 여성들이 쉬어야 하는 상황에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똑바로 내세우는 여성이었다. 이러한 업주나 펌프주의 마찰도 심심찮게 일어났는데, 그런 경험이 거듭될수록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여자요 인식되었다. 하지만 업주들과는 반대로 동료 여성들이 보내는 성은아 씨에 대한 신뢰는 무척 깊었다.

성은아 씨는 그날의 분위기를 '무척 진지했다'고 표현했다. 제안을 받은 자신이나 제안을 한 주변 사람들, 정화위원직을 시회하지 않은 업주와 동료 여성 모두가 그러했다고 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지지 조직을 만들자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 하지만 자신이 나서서 무슨 죄를 알아 이끈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성은아 씨는 거기에 응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화위원들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한참 동안 아전전한 말이 오가더니 누군가가 무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최정단단'들은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

는 지도였다. 즉각에서 후보를 추천받았는데 성은아 씨 외에도 다른 몇 명의 여성이 더 거명되었다. 성은아 씨는 끝끝내 거절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밀폐나 한다는 아가씨들 스무 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어. 그때 한 여자들도 회장으로 추천했는데 칠관에 정(正)자 써 가면서 뽑았어.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회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발표도 하고 나는 절대로 회장은 안 하겠다. 했으니까, 회장 한 명 뽑았고 내가 다른 여자 한 명이란 부회장을 하고, 총무 한 명, 각 구역 대표도 뽑았지." (성은아)

그렇게 결성된 임원단은 그 자리에서 회의를 열어 자치회의 이름을 '개나리회'라고 짓고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다. '개나리회'라는 이름은 성은아 씨가 제안한 것이었다.

"개나리가 된 뜻이냐면, 겨울 지나고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개나리잖아. 그러니까 희망 이런 것도 비유려지고, 추위 속에서 제일 먼저 피니까 강화기도 하고, 여자를 처지랑 비슷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강하게 희망을 가져 보자는 거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가씨들의 자치회야." (성은아)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자치회 역시 '민들레회', '꽃밭회' 등 꽃과 관련된 이름이었던 게 떠올랐다. 고수희 씨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꽃! 이런 아가씨들의 회잖아. 아가씨, 뭐, 여자, 그러면 꽃이잖아." (고수희)

개나리회 회원의 자택은 이름이 표현한 것처럼 '아가씨'에게만 가능했다. 여기서 종종 표현되는 '아가씨'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저나 나 젊은 여자의 높임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물며 직접 성을 파는 모든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개나리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업주가 일부 있고 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펌프들도 있기는 했지만, 개나리회는 성에에 지역에

서 가장 당사자적인 여성들이 그 중심 대상이었다. 나는 그들과 아이기를 나누며 그들이 특히 펌프와 여자 업주에게 연인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물론 모든 펌프와 업주에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아니었으며, 자신들처럼 긴 세월 '아가씨' 생활을 겪은 사람들의 경우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자신을 역시 더 나이가 들면 펌프가 될 수 있으며, 펌프가 된 많은 이들 가운데는 중년의 나이를 무릅쓰고 다시 직접 문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생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된다면 아가씨들을 몇몇 두면서 자신이 직접 '모주'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모주, 펌프=나쁜 사람'이라는 단순한 공식보다는 '악덕 모주=나쁜 사람'이라는 공식이 더 맞는 셈이었다.

개나리회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살달, 회원층 발급 등과 같은 활동을 시작했다. 개나리회는 정화위원회가 만들어질 때와 달리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는데, 그것은 업주가 아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그런 배경에는 당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생활이 가장 큰 문을 차지했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자신들만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 누구보다도 절실히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자(가명, 당시 34세) 씨는 '악덕'인 자신들의 처지에서 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술 먹고 싸우고, 여성들이 폭행당하고,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다 보면 무조건 우리가 약자니까 우리만 나쁘다고 해서 수용소 같은 데 막 보내니까, 피해자는 우리한테도 일단 연방이 되면 벌금을 물든가 수용소에 가야 했잖아. 벌금도 그 당시 몇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치면 몇십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했는데, 그건 말할 것도 없었지." (정숙자)

그 무렵 성에에 지역에서 일한 많은 여성들은 특히 단속과 수용소 경험에

대해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회상했다. 성은아 씨는 단속에 걸려서만이 아니라 '골목 짓'을 부리는 불에 경찰들에게 밀려서 수용소에 입소했던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윤학영씨등방자법에 의해 단속에 걸린 여성들을 부녀보호소에 입소시켜 직업 교육을 받게 했다. 하지만 그곳에 수용된 경험에 있는 여성들이 감옥 같은 곳이라 부를 만큼 그곳은 '재활'보다는 수용의 기능이 더 컸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차라리 경찰에게 돈을 주면 빨리 수용소는 절대로 갈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상황은 1980년대 내내 성을 파는 여성들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였다.

도전

개나리회 임원진이 회의를 거듭할수록 회장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갔다. 그러던 중 첫날 회장으로 선출된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시회를 하자 부회장으로 참여하던 성은아 씨가 다시 회장 후보로 거명되었다. 결국 그는 회장직을 맡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원 회의를 소집하면 목소리 큰 사람들만 중구난방으로 마를다가 돌아갔는데, 나중에는 제법 회의가 됐지. 그때 목적, 사업 내용 이런 걸 정했어. 내가 생각한 거 몇 가지를 적어 가서 칠관에 적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했는데, 첫째가 권익 옹호를 위해 일을 해보자는 게 제일 컸어." (성은아)

개나리회 임원들은 나름대로 회의 체계를 잡고 개나리회의 목적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정했다. 거기에는 회장 성은아 씨가 제안한 내용들이 크게 중심을 이루었다.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당시 개나리회의 목적과 활동 내용이 적힌 간단한 문서를 건네받았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우동 타자기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누군가 드문드문 괄호를 치고 평가를 보충하느라 고적거려 놓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문서를 건네받고 적잖이 놀랐다. 이 문서가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었다는 것, 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였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20년 전에 그들이 자신을 지지 조직의 구성 목적과 활동 내용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을 때문이었다. 우선, 그 내용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나리회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

목적

1. 자체 정화: 정부의 사회 정화 사업에 동참
2. 회원의 권익 보장
 - 모주, 펌프, 기동시장, 공무원으로부터의 착취 방지
 - 억압에서의 해방
3. 회원간의 친목 도모
 - 불우한 동료나 약한 자를 돕는다
4. 빠른 자립(직업 전환)
5. 건강 관리(성병, 지나친 음전,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에서 오는 정신 착란증)
6. 관(정부)으로부터의 폭인(보호나 인정이 아님)

활동 사항

1. 1인 1통장 갖기 운동(자립을 하기 위한 가장 첫째 조건)
2. 건강 관리
3. 기동시장 없애기, 펌프 손님 안 받기
4. 상습 도박 피쳐 운동

5. 지나선 읍주 또는 환각제 복용 안 하기
6. 고운말 쓰기, 손님에 대한 서비스 개선

개나리회 홍보 활동

1. 철도 이용과 식수 제공(식수 시설이 없다. 3층 열차이기 때문에) (오후 1시~8시까지/보려자)
2. 조기 청소(새벽 4시 역 화장과 7, 8층 전차역)
3. 할우 이웃 돕기

기타

불우 동료 돕기
 위급 환자 병원 앞선 수술
 결혼식 주선(동거 동료들)
 장례식 위로(그의 동료 방문 및 위로)
 장신질환자 또는 무작정 상경자 귀향, 선도
 취업 앞선

입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 감사 8명
 후원: 용산구 보건소, 서울시 푸내청소년과, 용산 지역 사회정화위원회
 기타: 선상 카드 작성, 회원증 발급, 상행 집전 레스 발급

이기에 적힌 내용들은 거의 파괴에 가까웠다.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지칭. 이를테면 '모주', '기동서방', '넬프' 등의 말이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착취', '억압', '배달' 등의 표현이 거침 없이 표현되어 있었다. 그런 용어들의 차용은 분명 그에 가인하는 배경, 즉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랐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

여성들 스스로가 절감하고 있던 문제 의식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놀랐던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내부적인, 표출되지 않았던 문제 의식이 자치 조직 결성을 계기로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그들만의 생각, 입장, 주장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를 상기한다면 얼마나 큰 파격에 가까울지를 알 수 있다.

이들이 자치회를 조직할 당시에 정화위원들 외에 누군가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님이 하는 약간의 의혹이 들기도 했다. 아나면 다른 누군가가 이 문서 작성을 도와 준 것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도 생겼다. 어쩌면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만의 언어로 표현했을 조직 목적을 누군가가 또 다른 수준의 언어로 정리해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이기도 했다.

나는 이 문서를 인터뷰에 응해 준 다른 두 명의 여성에게 보여주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그들은 이 문서를 주위 깊게 살펴봤는데, 장숙자 씨는 "그래, 맞아. 이거였어"라며 이 문서가 당시에 기록된 게 맞다고 했다.

자세 정화, 회원의 권익 보장, 회원간의 친목 도모, 빠른 자립, 건강 관리, 관(정부)으로부터의 폭인 등 개나리회가 목적으로 정한 이 여섯 가지 사항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그를 스스로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악덕 모주의 침포에서 벗어나고, 기동서방을 없애고, 넬프가 배려다 주는 손님 안 받고 뭐 그런 운동을 벌이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 년에 두 번 이상 자립 봉사도 하려고 했고, 회화에서 그런 걸 정하고 나오는데 옛날에 느껴 보지 못한 최열 같은 거, 뚜뚝하고 뭔가 충족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어. 뭐랄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앞으로 다칠 일이 무지무지 중요하고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마치 내가 무슨 무사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어." (성은아)

당시 감찰이라는 직함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장숙자 씨는 자신들

이 그와 같은 목적에 쉽게 합치할 수 있었던 까닭을 이렇게 표현했다.

"직말로 뵈 뵈고 뵈 뵈는 현실이니까. 만약에 내가 손님에게 타일요로 만 편을 받으면 오전 원은 모주에게 줘야 돼. 모주는 집 제공하는 것밖에 없지. 만약 그러면 안 되지. 영입하러니까, 여자는 옷 사고, 집값 내고, 다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권익을 찾자는 거잖아." (장숙자)

장숙자 씨의 경우, 열 여덟 살에 생애에 지역으로 유입된 이래로 전국 곳곳을 전전하다 용산에 정착한 지 1년 되던 해에 개나리회 조직에 참여하였다. 그로서는 이미 살며 년 동안 생애에 세세 안에 살아온 셈이었다. 그는 자신들이 개나리회를 결성하며 낯다른 호응을 보았던 배경을 입주자 경찰로부터의 불이익뿐 아니라 자신들이 귀야야 하는 심리적인 상황에도 연결시켰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랐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 정말 이 현실이 내 현실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이니까 그게 비애였지. 우물쭈물 환자처럼 술 안 먹으면 못 견디려고. 경제적인 여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 이 용산에서 벗어 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매일이 똑같은 일상인데, 달라지지도 않고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상에 어려운 점이 많고 하나씩 뭔가 싶어 활력소라고 할까. 취지는, 우리가 비록 힘하게,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라면서 하루를 살지만 그래도 뭔가 하루 생활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 그게 취지지." (장숙자)

장숙자 씨는 자신들이 용산역을 벗어나는 것을 그로록 두려워한 것은 곧 사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다. 왜냐고 되묻는 내 질문에 "우리들의 온전한 자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몰린 끝에 이른바 자항가 에 모여온 여성들은 그곳에서 제법을 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함을 느낀다. 입주

와 여성, 여성과 손님, 여성과 기동서방, 여성과 지역 주민 관계에서 온갖 모순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사찰가이다. 하지만 그곳이기에 그나마 두려움을 견어내며 생활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목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이도 직면하기에는 너무도 무모한, 여성들이 자아 직면하기를 꺼려했던 수많은 경제선물이 높고 두텁게 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특히 '위원의 권익 보장-업주, 펠프, 기동서방, 공무원으로부터의 착취 방지, 억압에서의 해방'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였다. 다군다나 개나리회 때상이 당시 정부의 정책에 뿌리를 두던 평화위원회에 기원한다고 본다면, 이 문구는 가히 파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었다. 그럼에도 도움을 준 업주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오지는 언뜻 아예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료 여성을 위한 활동 내용에 여러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자치회가 이미 태생적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지 앞선 위원회의 과행을 토벌하기 위해, 평화위원회의 연강 전상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부류, 특히 업주들에게는 이 개나리회가 품고 있던 목적과 활동 내용이 거의 도전에 가까운 것이었다. 따라서 개나리회와 업주, 펠프, 기동서방 사이에서는 이미 적잖은 마찰이 예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 목적과 활동 내용을 정한 개나리회는 1981년 7월 22일, 인근에 있는 용산기마대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임원들은 개나리꽃을 상징하는 갯노련 타셔츠를 단색로 맞춰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되게 많이 모였어. 그때는 업주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기 전이었으니까 자기네 아가씨들 다 동원해서 오고 그랬어." (성은아)

발족식에서는 폐쇄적인 인사말과 개나리회의 취지 등이 발표되었다. 이때, 임원단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장애인으로서 퇴학여녀를 모시고 사는 풍요를 도와 주자는 것이었다. 그 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연을 알고

있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딱한 처지는 늘 혀끝을 차게 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임원단의 그 제안은 즉석에서 성금을 건어 함께 발족식에 참여해 있던 그 여성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데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이 날의 일은 이후 개나리회 활동의 핵심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 이들이 개나리회를 구성하며 가장 크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업주, 경찰, 기동서방, 펠프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풍요 여성을 돕고, 소외 계층을 위해 자원 봉사를 하는 것이었다.

전제와 대항

개나리회는 발족식을 가진 사흘 뒤인 7월 25일부터 사업 내용으로 정한 것들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첫 사업은 용산역 광장에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역 이용자들에게 열을 받은 시원한 보리차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그 시절 용산역은 식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던 터였다. 또한 오가는 여행객들이 남긴 쓰레기와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쏟아낸 흔적들로 놀상 지저분했다. 여성들은 새벽마다 용산역과 인근 거리 청소하는 일도 시작했다.

발족 열업을 한 여성들로서는 자신들의 수면 시간을 온전히 그 일에 투자하는 것이었는데도 참여율이 무척 높았다. 용산역에는 개나리회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매달려 걸렸다. 초창기 이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들에게 천 원씩 걷은 것으로 충당했다. 이 일에는 업주들도 여럿 참여했는데, 여성들에게 수고한다면서 음료수를 사 주기도 했다. 몇몇 업주에 참여는 여성들의 사기를 더 북돋워 주었다.

"다들 칭찬했잖아. 업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우유나 요구르트

를 사 주기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건달이 아니더라고. 그야말로 평화위원들처럼. 먼저 달피한 평화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비롯어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개나리회를 도와 줬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성은아)

하지만 나는 좀 의아스러웠다. 일부 업주들의 참여도 그랬지만, 그들이 초창기 사업 내용으로 정한 것이 꽤 하릴 대민 사업이었을까? 그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낮모를 사람들은 지금껏 자신들 같은 여성에게 품지 않은 눈길을 보내던 이들이 아닌가. 장숙자 씨와 인터뷰 도중 나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잠잘 시간 줄여 가며 음료수를 나눠 주고 청소를 한 것은 당신들을 손가락질했던 사회와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정작 당신들에게는 사회와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이 없었느냐고 말이다.

"글쎄, 우리들의 제달음이었을까? 그다지 뭐 적대감일까 그런 건 별로. 평범한 일상 생활…… 축복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런 거지." (장숙자)

이 제다된 질문에 장숙자 씨는 그저 나이든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알아간다'는 건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는 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이 적당한 제념과 적당한 관조, 적당한 편안함이 나는 그리 싫지 않게 느껴졌다.

이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기가 속한 태두리 팀과의 단절을 '선택' 한 여성들이었다. 어쩌나 자신을 알아보는 여가 있으면 어쩌나 열려하는 순간들이 있었으며,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자신의 이름이 남겨질까와 거짓 이름을 사용했다. 그런 생활이 길면 갈수록 자신조차 제 본디 이름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그곳에서의 생활이 하루하루 보태질수록 채념마저도 뻔스럼지 않은 일로 넘겨 버릴 수 있게 된 그들이 그러한 활동을 계획한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나는 똑같은 질문을 성은아 씨에게도 던졌다.

"그렇지 않았어. 누가 알아볼까봐 모자 꼭 눌러 쓰고 했지만 그런 생각은 없었어. 우리도 선행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데, 용산역 가면 우리처럼 자락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이야. 택시 기사들도 우리가 사원한 음료수 나눠 주면 그거 받아 마시면서 아, 정말 수고한다고 그러고, 근데 사람들이 현수막보고 저 개나리회가 뭐하는 데냐고 물어 보면 그냥 자제 봉사하라고 알려주려곤 했어." (성은아)

자음에는 자신들이 '그런 여자들'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어느 순간 이후 단절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증오가 교차하는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존재를 여전히 가슴속에 품고 있을 가족과 지난 날 열업을 함께 장식했던, 어느 순간 이후 단절된 가까운 이들에게 향하는 심리는 낮모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하였다. 그렇듯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파함은 그들 모두가 거의 비슷했다. 혹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지지는 않으려나,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어젯밤 상대했던 손님은 아닐까, 내 태두리가 '그런 여자'를 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는 어느덧 사회 전반에 대한 두려움이 되기도 했으며, 그 두려움의 투쟁만큼 사회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이런 여성들이 스스로 '홍동기'가 아닌 또 다른 거리를 향해 나간 것이다.

개나리회 활동이 여성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발족식 때 어려운 처지의 동료 여성을 도왔던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풍요들에 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자세는 발족식 이후에도 한결같이 지속되었다.

"아픈 아가씨를 입원시키고, 길길마다 온 곳에서 도와 주고, 아가씨들 아르면, 개나리회 회원 아니라고 이르면 다 했어. 또 아가씨 두들겨 때면 우리

가 거기 가서 딱 뛰라고 하고 업주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 누가 맞았다. 그러면 차서 얘기했어. 독한 업주들은 그래서 우리를 싫어했어. 수레 낚을 때 모금하러 다니면 돈도 안 내주고.”(고수희)

전에 있어 경조사할 쟁기고 서로간의 신상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여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누군가에게 준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고수희 씨가 말한 것처럼 서로의 처지를 돕는 것은 동료 의식의 가장 기본이기도 했다. 개나리회의 동료 의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발적이었으며 표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 회가 생기고 나서 여자들이 단속에 걸리면 우리가 다 과출소에 쳐들어가서 경관을 봤어.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여자가 불뽕려 갔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야. 잘 아는 여자는 아니어도 개나리회 회원이면 무조건 가는 거야. 가서 뺑뺑이도 하고 오줌도 싸 놓고 똥도 싸 놓고 밭도 아니었어. 그러면 경찰들이 갈구지를 못했어. 맥차가 딱 오지? 우리는 그 밑에 딱 들어가 버려. 데리고 가려면 가라. 머리는 거야. 사람이 차 밑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 요구 사항은 여자 돌려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질국이지. 좋게 말하면 시위고 카놓고 말하면 인질국. 그게 성공한 적이 많아. 그렇게 실제로 여자를 빼낸 경험이 여러 번 있어.”(정숙자)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썼다. 그들은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던지고 있던 편견을 모르지 않았다. 계으로써 거칠고 상소리를 잘한다는 등의 사소한 편견을 그와 같은 인식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순간에는 오히려 그들의 익숙한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던져지는 편견을 조롱이라도 하듯 그대로 내보냈다. 이런 방법은 비단 경찰들에게만 쓴 것은 아니다.

“공치면 힘이 되잖아. 나 역시 자부심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 경찰뿐 아니라 손님이나 펄프, 기동, 업주의 관계에서 그런 적도 많지. 손님들 중에 나쁜 놈이 좀 많아?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남자들이 들어오면 타임 값이 얼마나 된다고 여자를 가지고 놀다가 자기네가 팔라이믹스가 피서 사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돈을 다시 달래. 남자들이 막 가지고 놀고 주머니 터뜨리면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잠수도 아닌데.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싸우게 된다고. 사정 못했으니가 돈 달라고 그러면 기가 막히니까 안 싸울 수가 있나? 살인이라도 나아지. 그럼 신고가 들어가. 만만한 게 여자들이지. 몸집이 다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그럼 막 차 들어가서 경관 놓는 적도 있어.”(정숙자)

이런 방법은 개나리회 동료들을 빼내 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동안 여성들 내부에 존재하던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또한 개나리회라는 이름으로 단결을 경험한 여성들의 자기 과시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래, 나는 불쌍이다”라는 개인적 분출 외에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자신이 소속된 이 모임이 결코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개나리회 활동이 여성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꾸준히 지속되자 주변의 견제 역시 만만치 않았다. 물론 그들의 주된 견제 대상은 임원진이었었는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 중의 하나였다. 누구보다도 최장 성은아 씨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가장 컸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업주와 경찰로부터 던져지는 비난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상대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지역에서 심리적인 부담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업주와 경찰은 그 지역에서 일종의 권력을 쥐고 있는 부류들이었다. 한때 개나리회가 집단 행동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며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분명 절제할 만한 일이

었다.

“전 처음에는 많이 바빴대. 하면서도 계속 많이 싸우고 회장이 욕을 다 먹었지. 그러면서 한 번도 굽히지 않고 계속 실속하고 건달이면 건달, 업주면 업주, 끝까지 실속하고. 그러니까 안 좋아할 사람이 없었지. 외리파니까.”(손소영, 가명, 당시 23세)

손소영 씨는 이미 개나리회가 어느 정도 활동을 시작하고 난 뒤, 같은 업소에 있는 친구의 소개로 개나리회를 알게 된, 그의 표현에 의하면 ‘꽃에 동조 하겠기에 함께 활동을 시작한 여성이었다. 그는 성은아 씨나 정숙자 씨와 달리 아무런 의지도 많지 않았으며 활동 경력도 6개월로 무척 짧았다. 그저 평범한 회원으로서 개나리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후 활동을 그만두고 나서도 집에서 그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었다. 손소영 씨는 업주들로부터 겪는 불편함 때문에 개나리회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다.

“임원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여자들이 벌써 표정부터 막 달라져. 벌써 피해, 도망가, 같이 대화도 안 하려고 했어. 업주들이 뛰라고 하고 못하게 했으니깐. 업주들이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밭도 못하게 했어. 그래서 아가씨들이 도망가고 숨고 그랬어. 내가 알기로는 초창기나 그후에도 거의 힘든 거는 마찬가지였다고 봐. 근데 아가씨들끼리 모여 있으면 다 개나리회 활동한다고 근데 임원을 얼굴만 보면 막 언제 그랬냐며 한면 막 업주들이 하도 그러니까.”(손소영)

임원들이 겪는 불이익은 심리적인 위협뿐 아니라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밭도 마, 밭할 맛을 정도였어. 어지간했으면 밖에 나가는 게 다 무서웠겠어. 업주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오죽했으면 학마리라고 소문난 최장이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한 적이 있었겠어. 하지만 도움을 준 업주도 있어. 인간적인 거지. 세상에 억눌려 살다 보니까 그 환경이 성격을 형성하잖아.

모순이지. 약간 모순이 아니라 상당히 모순이지. 그런 업주들도 우리를 도와 줬다가도 밤에는 아가씨를 거느리고 양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 약한 사람은 업주도 못해.”(정숙자)

견제의 중심 대상이었던 최장 성은아 씨는 업주들의 횡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리 붙지른다. 목을 비른다. 벽돌로 뒤통수를 친다. 수물소에 처넣겠다. 뭐 별별 협박 소리가 다 들렸어. 애들이 막 맞고 돌아오기도 했어. 울면서 들어와서 누구네 집 업주가 그랬다고 하면서. 그럴 내가 곧바로 찾아가지. 처음에는 폭력이 그랬지만 나중에는 나도 이제 그냥 부딪치기만 해서 될 게 아니니까 말을 하지.”(성은아)

그와 같은 견제는 비단 업주나 기동서방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성은아 씨는 경찰 구청과 과출소에 불려 가는 일도 종종 생겼다.

“올라 여성들은 그런 단계를 조직할 수 없다며 나에게 존재를 하더라도 올라 행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거기다 대고 내가 우리 모임의 뜻을 설명하고 도와 달라고 해보기도 했지만 헌법 사전을 들춰 보여서 일포를 놓는 거야.”(성은아)

당시 구청이나 과출소 직원들이 들춰 보이던 헌법 책이 아니더라도 그 시절의 냉랭했던 사회 분위기로 보아서는 주변의 견제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 사실에 감히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특히 땅지 등의 문구를 내걸다니. 나는 정숙자 씨와의 인터뷰 도중 나의 이런 생각을 드러낸 적이 있다. 그는 개나리회가 별강이처럼 보였을 것이 당연했지만 자신을 통제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별강이 가 아니냐며 오히려 내게 반문했다.

만일 이 조직이, 사실상 결성 배경에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한 사회정의위원회라 한다면 이 여성들이 주변으로부터 위협이나 견제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의 관리한 하수 관계에

놓이거나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일종의 역할 분담 내지는 하청으로 주어지는 일들을 처리하는 데 그쳤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자치회들이 이 같은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나름의 권한을 배분받았던 것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개나리회 역시 여성들에게 인식되기를 일구나 경찰보다는 약하나 여전히 자신들에게 힘을 자랑하는 권력의 파편 조각 정도로 남았다면, 그러한 전제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의 권리, 몸

개나리회에서는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주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개나리회 활동을 지지해 주던 당시 용산구 보건소 소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보건소 소장은 개나리회가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먼저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여성들의 성병 검진 실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 사이에서 성병 검진에 대한 의논이 오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병 감염 위험에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외출부·동무원 등 기지촌 지역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시행한 경험이 보건소 소장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는 성병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살아야 했으니깐 아주 조심했지. 그건 우선 여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나는 처음부터 콘돔을 쓰게 했거든.”(성은아)

“보건소 소장의 힘이 컸지. 당시에는 검진이라는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곧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돌기는 했지만 우리는 별로 생각이 되지 않았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는데, 어느 시기인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보건소 소장으로 와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 가지 검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 물론 거부

반응 가진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안 가는 거고, 아랫은 자발적이라. 다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정숙자)

여성들이 먼저 성병 검진을 원하고 자처적으로 그것을 제제화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성병 검진은 원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진행했으며, 검진이 있는 날이면 개나리회 일원들이 집집마다 다나며 홍보를 하고 다녔다.

“나도 그때 검진하러 다녔어. 그냥 가고 싶은 애들 가는 건데, 내 건강을 지켜 주는 거잖아. 나도 피도록 콘돔을 쓰려고 했지만 재물에 갑자기 다르다고 해서 안 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당시에는 콘돔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은소영)

보건소에서는 굳이 발견되면 학과 주사로 처방을 했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용산은 성병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자신이 있을 만큼” 성병 발병률이 낮았다는 말을 했다. 성은아 씨의 말에 의하면 얼마 뒤 서울 한 남동생 성병검진소가 새로 개설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용산과 이태원 성매매 지역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다. 용산 지역 보건소에 있던 소장이 한 남동생 성병검진소 업무를 보게 되자 자신들도 그곳으로 검진을 받으러 다녔으며, 굳이 발견된 여성 중 특별한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여성은 그곳에서 머물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미군 부대 주둔지의 기지촌 클럽 풍사 여성들에게는 성병 검진이 의무였는데, 이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 의식은 무척 깊었다. 기지촌 지역에서의 성병 검진은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에 의한 기지촌 강화 정책인애 그 맥을 두고 있었다. 이 정책안은 마군들로 하여금 “기지촌과 한국에 대해 더 깨끗한 인상을 주기 위한” 정책안에 지나지 않는다.⁵⁾ 기지촌 생활을 즐

5) 은소영 씨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이 남성과 수동소인지를 묻자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성은아 씨는 남성과 수동소는 아니었으며 보건소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6) 제지훈 문, ‘한·미 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문화 관련화된 학기, 일레인 김·최정우 편, 『비밀한 비밀』 (상권, 2004)』

민한 여성 역시 이 정책안에 대해 “미군에게 깨끗한 한국 여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를 격렬히 비난했다.⁷⁾ 그 시기 미군 클럽에서 일하며 정기적 성병 검진을 받아야 했던 여성들 대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던 그 제도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만일 성병 검진에서 보건자로 판명이 나면 남성과 수동에 보내져 일정 기간을 보내야 했다.

관련 여성 단체에서 수집한 여성들의 증언에서는 성병 검진 제도는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인권 유린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많은 여성들 역시 의무적인 성병 검진을 “몸 피는 여성으로 볼 수 없이 달해야 하는 수모”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는 나로서는 개나리회가 자신들의 활동 내용 중 하나로 정한 성병 검진 사업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숙자 씨와의 인터뷰 도중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에 따르면 성병은 많은 여성이 피해 갈 수 없는 일상적인 문제 중 하나였는데,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콘돔을 써야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어지간한 여자들이 아니고서는 남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었으며, 실력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들 스스로가 그럴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증상이 발견되기까지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하에 때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란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성매매 밀집 지역 세 군데를 정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적이 있다.⁸⁾ 이때 우리가 행한 아웃리치는 성매매에 대

해 소리 높여 얘기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은 별로 없었다. 의지를 갖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여성 단체에서 상담을 받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와 해당 지역의 여성 단체나 선교 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방법을 찾거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은 때때로 인적으로 인해 근접 자체가 불가능했다. 물론 이러한 배타 의식은 일구나 경찰, 여성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당시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기업과 기관의 후원을 받아 성매매 밀집 지역과 여성들에게 여성용품과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한 여성용품은 생리대와 콘돔 등이었는데,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그 전할 자체가 불가능했다. 관공서와 지역 내 일부 몇 명을 사전에 섭외하여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찾아볼지도 모를 약간의 마찰과 냉소적일 수도 있는 여성들의 반응에 대해 걱정이 일러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은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을 줄에서도 유독 콘돔에 관심을 보였다. 외부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콘돔을 전해 주는 것이 으악스럽고 민망한 일이기도 했지만, 우선 콘돔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하나였던 것이다. 그 유용성의 여부는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우선은 갖추어 두어야 할 물품이 아닐 수 없었다. 콘돔가의 소련도에 있는 젊은 여성에서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뒷골목에서 펄스나 히파리를 하는 나이든 여성에 이르기까지 콘돔을 비롯 우리가 준비해 간 물품을 거부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더 줄 수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나눠 줄 수는

7) 내게 처음으로 여성들의 지역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여성이 자서전(비밀한 비밀) 집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의견이다.

8) 자세한 근황을 위한 한소리회가 주최하여 1997년에 이루어졌다.

있는지를 묻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이 자니고 있었을 우
다에 대한 배타적 심리가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일은 이미 차단되었다. 하지
만 그 밖의 상담 정보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를 해오는 여성은 거의 없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에게 곤돌을 나눠 주는 것이
상대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단지
상대해를 인정하는가 혹은 상대해를 장려하는가 하는 문제로 해석하는 것
은 이분법적인 발상이다. 문턱 높은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당장
오늘밤에 활용할 수 있는 곤돌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현실을
여성들의 이기심으로 받아들이어도 곤란하다. 그것은 자급자족 성을 꾀는 여
성을 위한 사회 복지 개념조차 변변히 미련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나리회는 건강 관리 차원의 성병 검진을 정기적으로 펼치는 한편, 손님
들에게 곤돌 착용을 요구하지는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개나리
화에서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곤돌을 나눠 주며 홍보하는 적극성을 보이거
도 했는데, 이에 대한 여성들의 호응은 무척 높았다. 하지만 그런 요구를
남성 고객 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보건소와 공동으로 비정
기적인 교양 강좌 를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주로 성병 예방
교육에 관한 것이었는데, 당시 조금씩 언급되곤 하던 에이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성병 관리를 하는 것은 업무 차지에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
다. 그들 표현을 빌자면 '깨끗한 냄비'를 공급하는 것이 고객 관리 차원에
서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개나리회의 성병 검진 활동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것은 아마도 성병 검진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여
성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한 견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견제는 개나리회뿐
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보건소 소장에게까지 확대

되었으며, 급기야는 성병 검진을 홍보하러 다니던 임원들에게 아유와 함께
복합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선언에서 일상으로

활동이 안정되면서 이들의 관심은 여성의 일상 생활에서 더욱 필요한 문
제들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먹 팔고와 상대해 거
리뿐 아니라 여성들이 겪는 하루하루의 생활로 옮겨갔으며, 대항하고 부딪
치는 것보다는 동료 화식을 키우며 서로간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 갔다. 경조사 생기기, 물건 싸게 팔고 싸게 사기, 계산
잘해서 받기, 1인 1통장 갖기, 약 줄이기, 서비스 개선하기, 고운말 쓰기, 놀
음 회무 줄이기* 등의 항목은 당시 여성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들이었다.

"우리는 순 장다구로 똥똥 여자들이었지만, 역전에서 보리차도 나눠 주
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적으로 바라보는 눈길어. 이제 살아가는 이웃의 정이
로구나 했지. 초상 나면 열 일을 제쳐놓고 와 주고, 무슨 날 생기고 이거 편
강히 중요한 활동이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억압에 대한 대항 그런
거였지만 점점 보편적인 걸로 바뀌어 간 거야." (정숙자)

장숙자 씨의 표현처럼 개나리회 활동은 '억압에 대한 대항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는데, 이는 '선언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변모해
갔다는 의미이다.

회원들의 경조사를 생겨 주는 일은 결국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생일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런 여성

* '개나리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에는 '장숙자씨 복지 요망'이라고 있다.

들에게 미국국을 대접하여 생일을 기억하게 하고 아플 때 찾아가 위로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은소영 씨는 이 일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간직하고 있었
다. 그는 활동을 주도하는 임원들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인 '아가씨'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물건 싸게 팔고 싸게 사기

개나리회 임원들은 차박, 수건, 속옷, 비누 등 생활용품들 도매값에 배어
다가 지역 내 집화점보다 훨씬 한 가격으로 여성들에게 팔았다. 이때 남은
이익은 개나리회의 재정으로 관리하며, 다시 여성들의 경조사 생기기과 같
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썼다. 인근 상인들의 민발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예 개나리회 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저녁, 비누,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싸게 팔았어. 팔래비누, 세숫비누
그런 건 꼭 필요하니까. 싸니까 사기도 했지만 개나리회에서 파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이, 도움되라고 그걸 샀지." (은소영)

상대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른바 '자창가' 지역은 물건값이 비싸
다. 그 지역의 경제는 상대해로 인해 활성화되면서도 정작 그 중심에서 일
하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불가는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 그것은 여성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 교류할 수 없다는 점, 여성들이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주들의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현
상이기도 하다. 여성들 역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표출한 방법
을 찾지 못한다. 그런 지역에는 으레 보파리 장사들이 다니는데 그들이 파
는 물건은 '골목'을 비롯해 속옷, 신발 등 일상에 필요한 온갖 생활용품이
다. 이 역시 여성들이 밖으로 쉽게 나가지 않는(혹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인데, 화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만들기도 했다. 보파리 장수들이 들고 다니는 물품이 조금 바뀌었을지는 모

로졌으나 그런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계산 잘해서 받기

개나리회는 특히 여성들이 '과대', 즉 상대해 대가로 받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큰 문제 화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을 벌인 것은 손님뿐 아니라 일부 업주를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손님
에게 애초에 동장권 '가격'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업주
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제한 뒤 상대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
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었다. 점에 느리거나 자기 돈을 제대로 받기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만큼 흔했던 것이다. 여성들 중에는 개나리회에 그런 문제
를 호소해 오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 일이 많이 생겼지. 주로 주인하고 싸우고 과대 계산 안 해준 거. 그
런 거 받아 주고, 최강이 해줬지. 지금은 알만이지. 지금은 사람들이 똑똑하잖
아. 옛날에는 노골적으로, 침묵이랄까. 사물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먹
을 것도 없었으니까 몸뚱어리나 팔고, 밥이나 먹고, 빚도 제대로 안 해줬어.
계산 안 해주는 사람들 많았지. 그걸 어떻게 따졌냐? 계다가 그때는 업주
가 짝이 쏜대. 옛날에 수용소에 잡혀넣어 버린다고 하면 그할 수 있냐? 가
만히 있는 거지. 그럴 가서 막 따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최강
이 앞장서서 했지. 그럴 때와이지 어떻게 할 거야. 동네에서 그런 경우가 없
었어. 우리 개나리회가 태낸 거지." (고수희)

처음에는 최강을 비롯한 임원진이 직접 해당 업주를 찾아가 담판을 지어
계산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이 점점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
행되었다.

"당시에는 업주랑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알만함을 때어먹어도 이가씨들이 그걸 몰라, 계산 본 걸 받

아도 그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다시 업주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업주가 만 대로 옮겨가면 말뚝 날리는 거야. 재산을 똑똑하게 하는 몇 명 애들 빼고는 많이들 그랬어. 실패 고생해 놓고 물은 살리지, 수중에 남는 돈도 없지. 그래서 개나리회에서 일 주일에 한 번씩 재산을 보라고 가게마다 다니면서 홍보했어. 아참마다 재산을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서도.” (성순아)

재산 잘해서 받기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호응은 무척 높았다. 자산들이 생애 느린 경우는 개나리회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기도 했으며, 처음에는 아랑곳아 하던 업주들도 점점 일 주일 단위로 재산을 해 주기 시작했다. 이 활동은 뒤에 1인 1통장 갖기 운동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1인 1통장 갖기

개나리회 임원들은 특히 1인 1통장 갖기 운동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이 활동은 “자립을 준비하고, 업주와 기동서랑으로부터의 착취에 반대하자”는 그들 스스로의 취지를 살린 운동이었다. 재산 잘해서 받기와 함께 생애에 공간에서 스스로를 위한 경제적 권리를 처음으로 시도해 본다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여성들이 세 통장을 개설하고, ‘최대’를 고집하며 저축하는 것, 당시로서는 발상을 뛰어넘는 시도이기도 했다.

정숙자 씨는 개나리회의 1인 1통장 갖기 운동 배경은 당시 기동서랑들에 의한 착취에 있었다고 말했다.

“파류계 생활하는 여자들이 사치, 손님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화장도 하고 옷도 사고 머리도 만져야 하고 술이나 환락제로 남비하는 돈도 많지만, 기동서랑에게 주는 예물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내 상대와

면, 내가 기동이고 내가 아가씨면 이 기동은 일시적일 뿐이야. 지금은 꽃처럼 보이고 돈을 버니까 붙어 있는 거야. 영업 장소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할 때, 못된 사람들도 있거든. 남자가 자나가는 데 놀다 가요, 이러면 이 세발년이 이러면서 뿌리치고, 그러다가 이 개새끼 한 가면 한 가지 왜 때려, 때들다 여자가 물에 닿하고, 그런 경우에 기동이 도와주는 건 사람해서가 아니라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일 뿐이야. 삼위일체라고나 할까? 아가씨, 업주, 기동간의 삼위일체. 동생공존하는 거니까. 아가씨는 정말 자기네가 돈을 갖고 있을지라도 장에 굶주린 사람들이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 세발년아, 너 왜 이거밖에 못 벌었어, 내가 노력했으면 많이 벌었을 거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지. 그렇게 때려다기도 아를 때는 또 기동차게 잘 때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동이 모르게 자기 통장을 관리하는 거지. 그들에게 착취당하지 않게.” (정숙자)

처음에는 그다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정숙자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는 기동서랑들이 경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 그들만의 대책으로 나온 안이었던 까닭이다. 자연 이 과정에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요한 연대감 같은 것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시작이 꼭 업주와 기동서랑으로부터의 착취를 의식해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재산 잘해서 받기 운동과 더불어 이 운동은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생긴 여성들이 그 돈을 저금하고 계획을 세워 보는 나름대로의 훈련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통장 하나 갖고 있는 애들이 극히 드물었어. 하루에 천 원이라든가, 한 달에 만 원이라든가 예금하고, 그때 통장은 활동 그만두면서 별로 안 하게 됐어. 만일 개나리회 활동을 계속 했다면 달라지기도 했겠지. 그때는 가정도 가난했으니까 내 통장 인준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 집에 돈 갖다 주고, 내 통장 가르치면서 그랬으니까.” (은소영)

은소영 씨 말에 의하면 상생 집진을 받기 위해 나갔다가 임원들의 제안으로 태어나 생긴 처음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받아들게 되었다고 했다. 비단 은소영 씨뿐만 아니라 이 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이 비슷한 처지였다. 1인 1통장 갖기 운동은 주로 매우 정기적인 형태로 진행된 상생 집진 일을 이용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지역 내에서 개나리회가 재산 잘해서 받기와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회원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이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띠기 시작했다. 개나리회는 지역 마을 금고와 협의를 통해 일 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예금일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개나리회 활동에 그다지 배타적이지 않았던 당시 사회정화위원 중 한 사람이 그 마을 금고의 이사였던 것도 한몫 차지했다. 마을 금고에서는 일 주일에 한 번씩 개나리회 사무실로 직원을 파견했으며, 여성들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금 활동을 했다. 비공개적이던 1인 1통장 갖기 운동이 집단적인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의 삶을 준비해 보자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처음으로 표면화되었다는 점이다.

“모이는 액수, 통장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대단했지. 서로 보여줘 가면 서, 1인 1통장 갖기, 어저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 (정숙자)

그런 활동이 2001년 신태 생애에 근접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당시 서울 중앙경찰서 사장 김강자 총경(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의해 마야리 지역에서 시도된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얘기하자 정숙자 씨와 성은아 씨는 자신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했다고 말했다.

김강자 씨가 마야리 생애에 밀집 지역 일대에서 그런 활동을 벌일 때 언론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이를 다루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김강자 씨는

당시 한 월간지와의 이슈 대담에서 “불금 통장 만들어 주게 한 후 매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집진하게 하고, 그게 바로 내가 주장하는 공장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¹⁰⁾ 하지만 비슷한 시기, 지방의 한 생애연구소에서 탈출한 김성희(가명, 당시 26세)¹¹⁾ 씨는 그것은 단지 보여주기식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김강자 씨의 그런 활동이 언론에 소개되자 자신이 속한 업소뿐 아니라 인근 업소에서도 여성들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지만, 그 통장은 경찰들이 단속 나온 그날 단 하루만 자신을 손에 쥐어질 뿐이며 경찰들이 돌아가면 다시 업주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강자 씨가 중앙경찰서를 떠난 뒤, 마야리에서의 보여주기식 통장 관리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개나리회에서 주도했던 그 활동은 마야리에서의 그것과 달랐다. 그들의 1인 1통장 갖기 운동은 그들 내부에서 제기되어 시도되었으며 또한 일상 속에서 관리되었던 까닭이다.

학들이기 운동

편각제를 즐겨 보자는 활동은 그 어떤 활동보다도 여성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이 지역 여성들의 경우 이른바 ‘종알’ 혹은 ‘속순이’ (용타리)로 불리는 편각제를 많이 복용했다. 현재는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생애에 지역 내의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었다.

“나도 맨 처음부터 약을 먹었지. 상피해서 일을 못하니까. 그 당시 우리 집 아가씨 열 두 명이 다 약을 먹었어. 아가씨들이 맨날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 가고, 몸이 땅가져니까, 저녁에 나오면 다 이렇게 달달달 밟고 있는 애들뿐이었어. 제정신 가진 사람이 없었다니까. 다 약에 떨어서. 그 당시 거기는

10) 월간 “여성문제”, 2001년 8월호.

11) 연가대 뉴스 44호(Cheongwae) 기사 관련 인터뷰 도록, 2002년 7월.

시장 있고, 할아저들도 많았고, 고추비스터미널도 있었고, 거기에 평생 거처도 있어. 완전 시장을 잡았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지. 재이는 게 손님이었고, 손님 한 사람만 하고 나면 일이 아프고 부어. 그런데도 손님을 팔아야 하니까 약을 먹는 거야.”(손소영)

복용하지 않는 사람 손을 손에 꼽아도 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환각제를 이용했다. 영업 나갈 용기를 얻기 위해 한 알 두 알 먹던 ‘꿀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가 늘어났다. 영업 준비를 위해 달여 넣고, 방금 받은 손님이 힘들게 해서 달여 넣고, 새 손님 받아야 하니까 달여 넣고, 배가 아파서 달여 넣고, 머리가 아파서 달여 넣고, 업주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달여 넣는 그런 식이었다.

‘파안이 되는 거라곤 오직 꿀알뿐이었지 뭐. 약에 취해 있을 때는 의로움도 모르고 장피한 것도 모르니까. 하루에 오십 개도 좋고 육십 개를 먹을 때도 있었어. 꿀알처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지. 술 넘새는 손님이 싫어하니까 술 대신 약을 먹는 거야. 술 먹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때는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지. 눈뜨면 손님 받고, 조금 한가하면 다시 꿀알 먹고, 약 기운으로 거품이 좋아지면 또 손님 받고.”(성은아)

그렇게 달여 넣는 ‘꿀알’이 하룻밤에도 수십 알을 넣는 날이 허다했다. 집중력이 강한 환각제를 들여보자는 것은 실제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보이기는 힘들었다. 그런 까닭에 꿀알은 재안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으며, 만일 그런 목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회원들의 호응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는 다 약쟁이들이었어. 누구였더라, 약을 해도 막아서 누구 하나가 머리가 좀 이상했잖아. 정신 뭐, 그걸 일으켰어. 옛날에는 아예 주인이 그걸 먹으라고 먼저 줬어. 영업 시간이다. 영업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걸 팔도 있었지. 그게 무슨 전통제대. 팔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덜 먹어 보라고 한 거지.”(고수희)

성은아 씨는 여성들이 환각제를 복용함으로써 얻는 것은 몸의 병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네 그렇게 약어구리를 해대며 싸웠는지 몰라. 이들도 좋고 사들도 좋은 거야. 그냥 팔장 날 때까지 싸웠다니야. 아예 머리 안 쪼뻐려고 팔드르원을 바르곤가. 남제단을 해서 바르고 나가서 싸우기도 했을 정도니까. 무슨 편한이 있다고 그렇게 싸웠는지도 모르겠어. 약 먹고 술 먹고 나면 별 것도 아닌 걸로 싸운 걸 우리도 알지. 그럼 서로 파스 사다 붙여 주고 파스 솜으면 그만이었어.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인 걸 아들아들대며 산다는 게 우습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웠어.”(성은아)

성은아 씨는 꿀알로 인한 물리적인 손상은 아니라 더욱 심게 체념을 하게 되는 심리적 손상이 더 두려웠다고 했다. 그것은 성은아 씨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열라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을 조금이라도 들여 보자며 ‘발’로 시작한 활동이 점점 직접적인 판매자를 상대로 펼쳐졌다. 개나리회 입원들은 여성에게 약을 판매한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지역 내 약국이다. 돌아다니며 약을 팔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하지만 그런 효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자 자세를 바꾸어 해당 약국에 ‘만일 약을 계속 판매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가히 도전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야 모방어도 안 꾸지. 우리가 이거 불법이라고 계속 약 팔면 경찰에 신고해 버릴 거라고 하나야. 나중에는 좀 겁을 먹더라구. 막 한 군데에서만 우리 몰래 약을 팔았어.”(성은아)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이미 약에 취한 상태로 영업을 나와 있는 회원들에게 몸에 해롭지 않은 엄청난 약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그리 효과가 높지 않았지만 그만큼 아들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 보려는 의지가 강했다.

개나리회에 부정적인 인식이 적었던 일부 업주들에게까지도 호응을 얻었던 이 활동은 다음의 방식까지도 동원되었다.

“주인들이 우리 허지를 인정했을 때, 그럼 영업을 해야 되니까,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 주인이 갖고 있다가 주는 거야. 아이들이 갖고 있지 못하게 했어서, 먹더라도 조금만 먹으라고 열 개 먹을 거 일곱 개만 먹게 한다든가, 일곱 개 먹을 거 다섯 개만 먹게 한다든가.”(장숙자)

표면상으로는 업주들이 여성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건네 주던 것과 별 차이가 없지만, 개나리회에서 약 줄이기를 제기한 뒤의 그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재중씨는 약을 찾는 여성들에게 ‘내가 너한테 약을 팔아 주면 개나리회가 지랄한다’며 달라는 업주가 있을 정도였다.

장숙자 씨는 이 운동을 많이 먹던 사람들이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실제로 변화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약 줄이기 운동은 그 지역 누구나 심각하게 인식하는 문제 중 하나인 환각제 파다 복용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약에 질어 가누지 못하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처음으로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개나리회는 이 밖에 놀음, 화투 줄이기를 비롯해 고온발 쓰기, 서비스 개선 등 자신들이 상을 파는 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몇 가지 활동도 펼쳤다. 이런 활동은 거의 대부분 성매매에 개입되어 있는 자신들의 차점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데, 업주나 일을 부리는 차지에서 보아도 그리 나쁠 것 없는, 그 시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

고온발 쓰기는 비단 손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 술과 약으로 얼룩지는 생활 속에서 쉽게 양소리를 내는 것은 다반사였고, 글기이는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었다.

성은아 씨와 장숙자 씨는 이러한 활동이 성매매 공간에서의 직접적인 행

위들과 연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재산 절해서 발기 운동, 1인 1통장 갖기 운동, 약 줄이기 운동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개나리회가 기획하여 벌인 이 활동은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여성으로서 갖는 공통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개나리회라는 그룹의 특이성과 정통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실적인 근거물인 셈이다. 이 일련의 활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계량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부가 아닌 자신을 스스로에게서 처음 제기되고 시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녔다. 스스로와 이웃의 여성에게 새로운 삶의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외출

개나리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중에서도 유독 자원 봉사의 경험에 열린 호응을 보이며 이야기했다. 다른 어떤 활동에 비해서도 눈에 드러나는 움직임이던 자원 봉사 활동은 여성들에게 큰 경험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한 활동 내용 중의 하나인 놀음 화투 줄이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성은아 씨나 입원을 역시 사람들과 어울려 화투치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는 적이 많았는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이로 인해 또다시 큰 빚을 지게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팔려 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는 했다. 하지만 화투는 성매매 집중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베풀을 수 없는 중요한 취미 생활이기도 했으므로, 입원들이 ‘줄이자, 줄이자’ 해도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찾기 어려웠다. 이런 놀음 화투가 줄어든 것은 개나리회가 정기적인 자원 봉사 활동을 벌이면서부터였다.

이들이 주로 자원 봉사를 했던 곳은 고아원이나 양로원, 나환자촌 등이었다. 개나리회 활동과 관련된 유일한 문서인 ‘개나리회 구성 목적 및 활동



이들의 활동 영역은 의 봉장과 상매에 걸라뿐 아니라 여성들이 겪는 하루하루의 생활로 옮겨갔다.

204 봉장한 여성들, 의복을 하고 일하는

시향이라는 짧은 문서에는 자신들의 사회 봉사 활동 목록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불우 이웃 돕기

- 삶의 의욕을 잃고 자락에 빠진 회원들에게 생애 대한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우리도 남을 돕고 살 수 있다는 자부심 내지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한 방법
- 고아원 및 양로원 방문(연말 연시 성탄절 또는 어버이날 등: 떡, 장갑, 목도리, 양말, 고기 및 기타 선물 준비)
- 안양 성 나자로 마을 방문(겨울 열감 연동기, 목욕 실기, 혼자 가세 돕기, 오락 등으로 혼자 위문)
- 경기도 광주시의 산성리 집(이재정애자 문동복)(오래기, 밥 배기, 떡 배기, 장갑, 빨래에 주기)
- 시향의 선교회 위문 잔치(식사 제공)(결혼, 노동자, 청소년 대상)
- 결핵 환자 돕기 입일 찾침
- 수재민 돕기 재물 수집(어물, 현존, 라면 등 방송국에 전달)
- 무료 급식소 식당 봉사(김치 담그기, 식사 준비)

처음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동료 여성들로부터 시작된 불우 이웃 돕기 활동은 점차 사회적인 것으로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혀 갔다. 애초에 연 2회로 계획되었던 자원 봉사는 그들이 혼자 알고 있던 전형적인 노회 봉사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자원 봉사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속해 있는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새로운 시도에 가까웠다. 그 무렵지 않은 결 제안을 한 발짝 남겨 보는 경험은 그들에게 이젠 느껴 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했다. 이런 경험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은 활동 영역을 더

여백 205

욱 넓혀 갔으며, 그런 긍정적인 경험은 주변 여성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자원 봉사가 더욱 빈번해질수록 입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아도 여성들 스스로 인력을 동원하고 때로는 자원 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게 되었다. 몇 날 며칠 어디로 자원 봉사 갈 것을 정하면 서로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곤 했다. 예를 들어 상단질 때 양로원을 방문하기로 했다면 공금으로 실을 구입해 회원 중 손재주 있는 여성들이 품들이 스테터를 짜여 준비하곤 했다.

“가끔은 누가누가 더 많이 짜나 자기들끼리 내기가 붙곤 했어. 그럴 이가 여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뜨개질을 할 정도였다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는지 몰라. 꽃단장한 여자들이 빨간 불빛 아래서 온 정성을 기울여 부 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걸 보면 여염집 주부만큼이나 얹전하고 아름다워 보 았어.”(성은아)

방문 시간에는 업무를 눈치 보아니까 잠잘 시간을 줄여 가며 일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일삼아 벌이던 화투판도 전에 비해 눈에 띌 만큼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숙자 씨는 자신이 했던 자원 봉사 중에서도 어느 노숙자 급식소에서의 경험을 기억해 낸다.

“여기가 무슨 급식소였는데, 가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고 나눠 주고 그런 일을 했어. 김치도 담그고.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밥을 나눠 줄 수도 있지만 꽤 편한편이 아니라서 받았어.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한 거였지. 난 그게 지금까지도 많이 기억 나.”(정숙자)

정숙자 씨는 그때의 자원 봉사 경험이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지금도 날마다 이런저런 자원 봉사 때문에 늘 바쁘다는 그를 보면 개나리회가 그에게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206 봉장한 여성들, 의복을 하고 일하는

성은아 씨는 당시의 자원 봉사 경험이 자신들 내부의 결속을 다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변화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가여들이, 우리는 쓰레기다. 하지만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을 했어.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고아로 자란 아가씨는 고아원에서 옛날 자기 생각이 난다며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리고, 양로원에 가서는 옛날에 나를 버린 엄마가 이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눈물을 적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시라며 두 손을 꼭 잡는 회원들 모습이 어떻게 쓰레기일 수가 있어?”(성은아)

성은아 씨는 그렇게 자원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버스 안에 온통 눈물 바다가 되곤 했다고 회상했다. 자신만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이었다. 그런 여성들이 자기보다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자기 삶에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성은아 씨는 여성들이 자원 봉사 나가서 사람들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은 ‘최대 놀이기 위해 매여 웃어야 했던 그런 웃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때의 웃음은 ‘처음으로 동거하던 남자의 호적을 되찾아서 혼인 신고할 때의 기쁨’과 같았고, 입주가 되어서 이가씨 들을 부리게 될 때의 기쁨과도 다른 것이었다고 했다. 그것은 또 생각보다 ‘최대 볼 많이 받았을 때의 입막한 웃음과도 같았다. 지금껏 느껴 보지 못한 순간감 혹은 삶의 자극 같은 것이었다.

멤버로 사는 것

정숙자 씨는 온전한 동네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당시 현실은 “오늘 이 오늘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뿔 수 없이 살아가던 것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성대회가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로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성대회를 통해 겪는 불이익뿐 아

여백 209

나라 그 책상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얻은 느슨한 생활 습관과 분노 혹은
모기와 벚나무가 자신들 살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입주와 경찰과 손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싸움의 대상 혹은 분노의 대상
이었다. 하지만 저항의 경험은 거듭될수록 개나리회는 제제에서 고립되어
갔다. 물이기와 착화에 대한 저항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그들로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전
연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고민이
깃들어 있다. 퇴폐적이자면, 벼로소 실체하는 일상을 돌아봄으로 깨달음이
주는 하루하루의 삶을 끌어 안으려는 그들 내부의 자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의 변화 과정에는 개나리회를 이끄는 사람들의 몫이 크
게 작용되었다. 성은아 씨를 비롯한 임원들은 자신의 일상을 통해 퇴폐 전
체가 주는 삶의 문제를 수용했으며 그러므로 자신과 모두가 삶을 유기적
으로 인식해 나갔다.

"내가 완장을 두르고 무슨 사고가 없나 돌아다니면, 감부 했으니깐, 언니
돌아다니기 힘들지, 오늘 손님은 몇 명 받았니 어찌구 하면, 내 말 한마디로
그 아이들이 따뜻하게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참 따뜻한 일이지. 애
들이 장이 많아, 돌아다니다 보면 애들이 가게로 무조건 끌고 들어가, 그런
아주 사소한 정들." (정숙자)

정숙자 씨 말에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깃들여 있었다. 나
는 정숙자 씨뿐만 아니라 성은아 씨, 고수희 씨에게서도 개나리회 활동이 그
들 인생에서의 첫 자부심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이들은
비록 어떤 무류에게는 위협까지 받아야 했지만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
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동네 나갔다가 밭고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아무도 그만두겠다고 안 해,
진짜 자부심이 대단했어. 개나리회라는 자부심." (성은아)

"퇴폐 차이 같은 건 없었어. 좋은 일 하는데 나쁜 일을 해야 그런 일이 생
기지. 모이면 좋은 일이나 다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잘 이끌어졌었지.
나는 그냥 해주는 게 좋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았어.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면 다 따르게 마련이야. 애들이 우
리 보면 뭐 하나라도 사주지 그냥 보내지 않아." (고수희)

임원들 개개인에게는 이 활동 경험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계기
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비장함과 입주들이
볼 때는 짐짓 자기들을 외면해도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자기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응원이나 이들의 자존감을 본질로 다지 주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졌지만 참여 대상에는 그리 큰 구분을 두지
않았다. 임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회화에 나와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회
화에서는 사업에 대한 논쟁뿐 아니라 개개인의 고민이나 생활 이야기도 많
이 나누었다. 또 그 자리에서는 임원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제
안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제안들은 대부분 상에서 공간에서 겪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여자들이 자기네 집 입주가 반찬을 어떻게 해주니까 어떻게 좀 해달
라고 그런 말까지 와서 했을 정도였어." (성은아)

회원을 권에 서는 경험이 많을수록 그들에게도 향하는 주변의 신뢰는 높
아졌다. 그것이 있었기에 임원들은 바로 총 전까지 고민했던 현실적인 어려
움, 이를테면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에서 체제 안에서의 고립감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런 과정
은 임원들로 하여금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힘, 나와 이 여자들이 지금보다
더 잘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했다.

여기에는 퇴장 성은아 씨의 생각과 리더십이 큰 몫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활동 제안은 바로 그에게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임원들 역시 그 힘을 인

정했으며, 회장의 리더십이 자신들의 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바탕이 되었다
고 평가했다.

"회장이 아주 잘했어. 통솔력도 있었고, 장이 많은 사람이야. 회장도 물론
무리면서 그런 사람인데 저가 먼저 술선수업을 하고 변하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찔한 거지." (정숙자)

"사람들이 말을 잘 따랐어. 그 말이야면 컴백 갔으니깐, 옛날에는 평정한
뒤 경찰서에 가서 제기 할 정도로 강해 갔었대. 그런데 완전 불통이 아니고
외로와 불통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온 거야. 여자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면 강당하게 옳은 일로 옳은해서 불통 부리는 거니까
다 좋아했지." (은소영)

"여유, 개나리 그만둘까지 갔던 거지. 노력을 정말 많이 했지. 아픈 애들
있으면 다 찾아다니고, 지내 집 데려다 놓고 밥해 먹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
라도 좋게 좋게 하고, 모이면 재밌는 얘기 해주고, 엄청 노력했지. 내가 사람
을 제대로 찍었다니까, 전 내가 말하한 거야." (고수희)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성은아 씨는 개나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를 '책임 맡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입주나
기관서방,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여유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노력
했다.

"개나리회 말아서 할 때는 옛날의 내가 아니지. 구형이나 곡출소에서 볼
러다 존재하고 그러면 속에서는 끝지만 꼭꼭 눌러야지. 적어도 200명 넘는
회원들을 이끌어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 생각하면 그걸 따 잡는 건 어렵
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활동을 좋아시키려 해도 그게 우리 몇
명이서 정한 거였나? 회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고, 그게 결정하던 날 우리
나 회원들이 모두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맛을 알아 버려서, 경고 몇 마디에
그만 들 거면 시작도 안 했을 거야." (성은아)

나 역시 성은아 씨뿐만 아니라 주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그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개나리회가 그 숭한 난관을 이겨내며 곳곳이 활동에
내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별들

개나리회의 활동이 안정되어 가고 여성들 스스로 '우리들의 회'라는 인
식이 커져 참여도가 높아지자 일부 언론에서 이런 개나리회의 활동을 취재
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언론에 소개되는 일은 여성들에게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이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모든 걸 버린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도 했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
들이 사회로부터 격려받고 존중받는 미담의 주인공으로 알려지는 데 대한 자
긍심이 함께 교차했다.

이들의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며 개나리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
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언론인, 작가, 종교인,
대학생 등이었는데, 이런 과정은 결코 유쾌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지는 않
았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제법 찾아왔어. 기념품 같은 거 몇 상자 갖고 와서 사
건 찍자고 그러고, 누가 그걸 좋아해? 그럴 내가, 만 애들은 절대로 그런 데
안 나설 테니까, 대신 내가 억지로 웃어 가면서 사진 찍고, 애들한테는 다
좋은 말만 전하고 그랬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저기가 무슨 전도사라며 찾
아온 남자가 우리 앞에서 큰소리로 기도를 하며 막 울더라고, 우리가 무슨
죄인이자면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야. 정말 가슴쓰러웠지." (성은아)

성은아 씨는 당시 자신들은 '약지 못했다'고 했다. 신문기자나 작가 혹은
종교인이 찾아오면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그들을 맞았다. 자금이야 성대에

문제가 자주 언론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당시는 그저 특별한 화제거리에 불과했다. 그 뒤의 세월을 거치며 언론에 소개되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며 다뤄 배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는 달랐다. 그렇듯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행에 동감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또 그런 일로 소개되는 것 자체가 그들로서는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그들이 특별한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신문기자나 작가에게는 그 여성들이 하나의 소재가 되었으며, 기독교인에게는 선교의 대상이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를 몇몇 사람들의 방문은 여성들에게 상반된 감정을 경험하게 했다. 성은아 씨의 표현처럼 자신들을 과잉이라 부른 일부 기독교인에게 가장스러움을 느꼈는가 하면, 단지 "집내랴"는 말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서 먼 길 마다 않고 차를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감정을 느꼈다. 이런 과정들은 아들에게 다시 세상과 교류하는 끈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던 중 개나리회는 인근 지역의 어느 청년회 회원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들의 만남은 개나리회가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개나리회는 대단한 인연이었지. 우리를 개인이었다면 그렇게 인연이 맺어졌을까? 하여튼 참 달았어." (장숙자)

그 청년회도 종교적인 모임이기는 했지만, 개나리회 회원들에게 단 한 번도 선교하려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다만 개나리회 자원 봉사 활동에 꾸준히 참석하며 서로간에 신뢰를 쌓아 갔을 뿐이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 나눌 기회도 많이 가졌다. 저마다 다른 삶의 이력을 지닌 이들이 만나 서로의 철학과 문화와 삶을 이야기하며 서로간에 갖고 있는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나리회 회원들은 엇바슷한 연애

이거나 동생형인 그들과 스스럼없이 교류하며 이 낯선 젊은이들이 여느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이때의 만남은 분명 아들에게 많은 경험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개나리회로서는 치명적인 화해의 계기가 되었다.

1983년 5월 23일, 개나리회와 청년회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장흥으로 아유회를 갔다. 개나리회 회원은 4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오랜 만에 놀러 가는 것이어서 다들 들떠 있었다. 회장 성은아 씨로서는 할 일 자신들이 필요에 하듯 기본에 취해 한 잔 두 잔 마신 술로 서울이라도 땀어지지 않을까 사소한 문제까지도 염려해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 사이에서 그런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만, 자기 같은 처지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어떤 행사를 가지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행사가 끝나도록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사고는 행사를 다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 생겼다.

들어올 때 기차를 이용해 모두가 함께 움직였는데, 막상 기차에 오르고 보니 개나리회 회원 두 명이 보이지 않았다. 걱정하던 차에 용산에 도착해 보니 불길한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에도 놀러 간 적은 있지만 매번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하다 보니 아찔일도 아닌데 뒤엉켜서 세우다 돌아오곤 했어. 근데 이 날은 제법도 하고 아주 재밌었거든. 차들도 많았고 용산역에 도착해서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딱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성은아)

회원 두 명이 기차를 타러 가던 중 장난감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얻어 타게 되었다. 장숙자 씨는 그것을 "술 한 잔 들어가니 화류계 기질이 발동했던 것"이라며 씩씩하게 말했다. 그 오토바이로 오던 중 사고가 났는데 두 여성 중 한 명이 뇌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상태가 위독해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다. 병원으로 실려 간 사람은 봉사 활동 때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가장 열심히 일하던, 나이가 제일 어려 '박내'로 불리던 조영

숙이라는 여성이었다.

소식을 들은 성은아 씨는 자기 방에 들어가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챙겨 회원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기가 막힌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까지 입주와 경찰, 그리고 동료 여성 내부에서 순탄치 않은 순간은 많았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 성은아 씨는 마음속으로 제발 죽지만 말아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다. 임원들은 그 여성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지를 수소문해 그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얼마 뒤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그 여성은 수술받은 지 사흘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

가족들은 개나리회에서 장례 절차를 맡아 치러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정작 그 여성의 장례식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치를 수가 있었다.

"그때 장례 과정이 또 얼마나 애절했는지 알아? 하루하루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한 달만지 50일 가까이 엄청나게 고통이었어." (장숙자)

성은아 씨는 그때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은 사고를 낸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였기도 하지만 당장 장례 치를 비용조차 없어서였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측은 문대문시장에서 운반 일을 하는 남자였는데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끝으로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돈이 없어 여기저기 돈을 마련하러 다니며 영안실을 지켰다.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영안실은 죽은 조영숙 씨의 가족과 개나리회와 청년회 회원들로 매일같이 붐볐다.

"관상 정도가 아니라 출퇴근을 했어. 아예 영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이 쫄쫄해 가 있으니까 입주들한테 욕을 되게 먹었지. 영업이 문제였지. 우리가 분통들이기는 했지만, 하여튼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았어. 말하 자면 의협심이랄까? 동료 의식……." (장숙자)

그들은 병원 영안실을 지키는 한편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지불해야 할 돈과 장례 절차에 필요한 돈을 모금했다. 그리고 그 동안 물건을 팔아 모은 개나리회의 금금도 모두 썼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그 동안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회원들 중에 어떤 애는 영안실 청소를 해주고 다른 유족들이 사흘마다 남은 초하고 향을 맡아다 우리가 쓰기도 했어. 남들이 먹다 남은 떡까지 그런 걸로 밥에 먹고, 나중에 장례를 치르기는 했어. 하여튼 우리는 그 당시에 청년회 회원들하고 화산을 다했어." (장숙자)

개나리회 회원들이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 영업에 자장이 생기자 입주들은 아예 병원 출입을 못하게 제지했다. 그러자 여성들은 자기 돈으로 긴 밤 화대를 입주에게 지불하여 또다시 병원으로 나와 밤을 지새기 일쑤였다. 머리는 빗을 내어 자신의 긴 밤 화대만큼의 액수를 입주에게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년회 회원들은 그들대로 화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퇴근을 했고, 아침이면 밤을 꼬박 세운 뒤 병원에서 출근을 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자 병원측에서는 시체를 실험용으로 팔겠다고 옥박질했다. 그때의 상황을 회장 성은아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수는 없었지. 팔은 인생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사람이라고 살지도 못한 아인데, 시체마저 남의 팔에 팔기면 그걸 어떻게 봐. 나는 그 동네에서 살면서 풍악 많이 먹어서 죽고, 연탄 가스 마셔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러는 거 많이 봤어. 미참하잖아. 막내 영숙이만은 그렇게 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 (성은아)

그 동안의 병원비에 대해 청년회 회원 한 명과 성은아 씨가 연대 보증을 서고 나서야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개나리회 회원들은 각자 모은 돈을 내놓았고, 청년회 회원들은 저금을 파악하거나 현금 봉투를 들고 오기도 했다. 그렇게 돈이 모이자 조영숙 씨가 죽은 지 거의 한 달이 만에 비로소 장

계약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죽음이 없을 거야. 화려한 죽음이지." (성운아)

"다들 부러운 듯이 말했어. 평생 쓰레기 취급당하면서 살았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가 자롭게 해준다면 지금 당장 숨어 죽어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때 울산에서 지치지던 마신 하나가 깨진 거지." (성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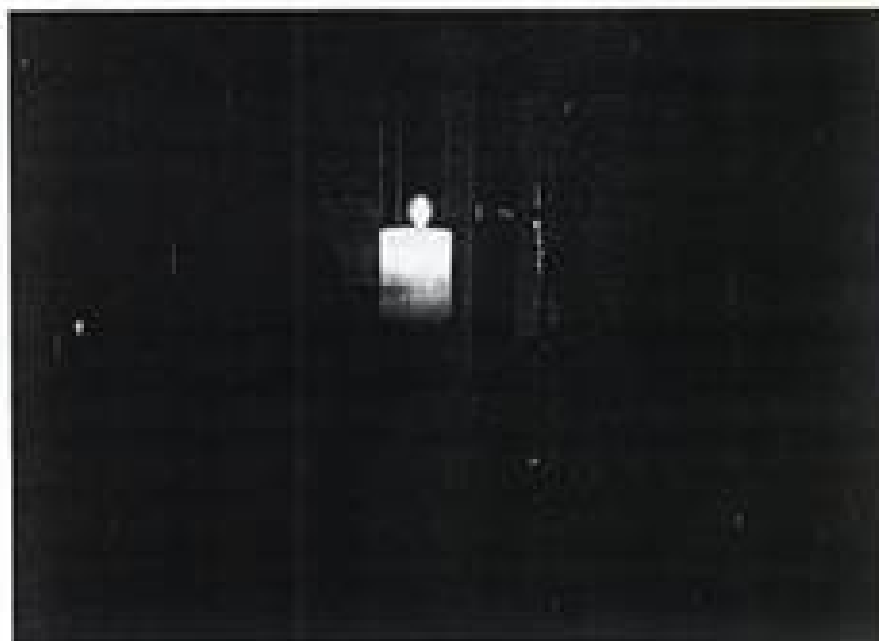
성운아 씨가 말한 울산에서의 마신이란, 시체를 본다가나 시체 가까이에서 가던 부정을 타 재수가 없다는, 그들 사이의 부정적 동념이었다. 해서 아무 리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절대로 상가에도 가지는 않아 왔다. 한때 그런 어 설들이 17일 동안 양안실을 지키고 알다루어 장지까지 따라간 것이다. 성 운아 씨는 그때를 "사람이 미신을 이기는 한장" 같았다고 말했다.

장례가 끝나 울산에 돌아온 성운아 씨는 동료로부터 업무 중 한 사람이 "회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빛을 다 지느냐?"며 돈을 모아 주라고 제안했 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정말 소문난 악질 업무였거든.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고 압기도 하고 그 일을 치러낸 것도 스스로 대견했지만, 개나리회 한 사람이, 을 파는 년이라고 손가락질당하던 한 아가씨가 그렇게 제대로 갔다고 생각 을 하나까." (성운아)

장례가 끝나고 여성들은 두고두고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지냈다. 사람이 죽은 안타까운 심정보다도 그 장례를 치러낸 개나리회와 청년회의 파락에 대해, 그리고 을 파는 여성 한 명의 죽음에 그렇듯 구름처럼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얘기했다. 하지만 이 일은 개나리회가 활동을 접게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조영숙 씨의 장례 과정은 개나리회 회원들이 이전에 경험한 것 이상의 자



개나리회 한 사람이, 을 파는 년이라고 손가락질당하던 한 아가씨가 그렇게 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나까……

부심과 소욕권.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폭력의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장례를 치러낸 얼마 뒤부터 이들은 곧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치기 시작했 다. 그것은 업무들과의 문제였다. 개나리회를 도와준 업무가 있기는 했지만, 많은 수의 업무들이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개나리회와 여성들의 관계를 깊으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업무들이 거 보라고, 개나리회 따라다니다 그런 사고 난 거 아니냐고, 아 네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랬어." (성운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개나리회에게 치명적인 결정으로 작용했다. 사연 을 모르는 이들이아 없었지만, 그 일이 개나리회에게 결정적인 위축감을 주 었던 것이 분명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동안 개나리회가 사용하던 사무실마 지 없게 되었다. 본래 그 사무실은 초기 사회정화위원회의 사용하던 곳으로, 아가씨 장사 로 돈벌어 다방업을 하던 한 정화위원의 소유였다. 그것을 개 나리회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변 업무들의 압력으로 뱉 수 없이 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개나리회 사무실이 없어지고 나서는 일원 이나 회원들이 회장 성운아 씨의 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수희 씨는 거기가 자기들의 진짜 사무실 이나 마관까지였다고 했다.

성운아 씨는 그 일이 있는 지 얼마 뒤 주변 사람 소개로 조그만 회사에 취 직을 했다. 자신과 성애에 제계 사이에 14년 동안 존재했던 고리를 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로서는 오랫동안 이어 온 고민의 결론이었으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었다. 지금껏 감당해야 했던 술한 난 관보다도 더욱 높은 장벽 앞에 그는 과감히 직면한 셈이었다.

"우울 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점점 사회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 같아. 우선 개나리회 때문에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 일단 손님들을 시킨이 없었어. 그 리고 나는 그때 솔직한 심정으로 선민의 위험도 많이 느꼈어. 내가 남미라 는 약점이 있잖아. 따지고 보니 내가 그 약점을 때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닌

가, 사실 내가 열업 계속하면서 다른 아가씨들한테 이러니저러니 한다는 것 도 우습게 보일 것 같고, 나도 이제 좀 멋있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성운아)

성운아 씨는 자신이 전업을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14년 동안 학대만 받 아 온 자신의 몸에 대한 미안함도 한몫 차지한다고 했다. 술과 약으로 거칠 어진 피부, 깨진 맹조자와 같이 찢어진 구석구석의 흔적들. 그러나 그는 미 안함 한편으로 통치 로 불리면서도 성애에 공간에서 버티 내 온 자신의 작 은 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는 말도 했다.

그의 전업은 그 지역의 대다수 여성들이 그런 성운아 씨를 보고 응원하고 자극을 주었을 만치 지극히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개나리회 자체로서는 결 감을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개나리회의 활동은 그 뒤 서서히 막막지로 접어들게 되었다. 임원이나 회원들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흔히 그렇듯 다른 성애에 자리를 찾 아 옮겨가거나 결혼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개나리회 는 종종 사람들의 회제 속에서만 존재하는 옛이야기가 되었다.

절반의 동조

"어느 날 시로풍당시로풍당 다 떠나나만 할대야 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팔팔이 흩어진 거지. 보주하던 내 친구가 나한테 강아지를 한 마리 줬어. 그 게 하릴 때깔이 뛰어난 장예였어. 개가 그걸 키우고 마음을 잡으려, 보니 까 불쌍하기도 하고 못생겼어. 그러다 보니 그게 개라도 애매했어, 개나리 회는 없어지고." (고수희)

고수희 씨는 그 시기를 무척 안타깝게 회상했다. 그는 개나리회가 폐쇄되 고 난 뒤 강아지를 키우며 위안을 삼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강아지

가우기는 현재까지도 아이저 가족 하나 없는 자살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 해 두 해 지나며 몇 여자들이 사라지고 또다시 옮겨오기를 거듭하는 동안 이 인터뷰에 응해 준 여성들과 또한 그때의 경험을 간직하고 사는 몇몇을 제외하고 이제 더 이상 개나리회를 화제로 삼는 여성은 별로 없다. 성을 잃은 펄프를 하는 형제까지도 성매매와 관련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이거나 모두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재 여전히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여성, 은소영 씨와 고수희 씨는 개나리회 같은 조직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는 성은아 씨와 정숙자 씨는 아직도 남아 있는, 또한 이어질 또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개나리회 같은 조직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 스스로가 내린 개나리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자.

“우리는 그이랄로 자책적으로 한 거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성은아)

“이 개나리회는 나에게 영원한 추억이야. 아주 깊은 거지. 개나리회라고 하면, 나 개인에게는 ‘소속’이었어. 소속감을 가질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 가발판이 없어서 통장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멤버라는 자부심이 아주 있었어.”(정숙자)

“잘한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인식을 받고, 개나리회 회원들 중에 돈벌어서 나간 예도 많고 결혼한 예도 있고 집 사서 장사도 하고 근데 그걸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남자라는 게 과거 알면 그렇잖아. 지금은 잘 살아.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리회를 조직한 건 잘한 거야. 나야 이려고 살지 만.”(고수희)

“난 지금도 안타까워. 나야 업주 눈치 보느라고 6개월밖에 못했지만, 지금도 그런 모일 있으면 좋지. 음? 우리 처지도 정말 매춘, 뭐 이런 말만 들어

야 하나? 난 윤락도 그렇지만 매춘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나.”(은소영)

정숙자 씨는 그 활동 경험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지리를 잡고 있을 정도로 특별하고 즐거웠으며 보람있는 일로 떠올랐다. 그에게는 성매매 처음으로 가진 소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부심과 긍정적 눈길을 베풀게 한 계이기도 했다. 그는 개나리회가 해체된 몇 년 뒤 결혼을 했고, 오랜 동안 마음속에 담아 둔 결심처럼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그후에는 결혼 자원 봉사 활동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아 활발히 활동하며 성실히 살고 있다. 자책적인 노력이었다는 점을 가장 높이 자평하는 성은아 씨는 그때를 계기로 전업에 성공했으며, 은소영 씨는 그 뒤로 몇몇 자택을 옮겨다니다가 현재는 서울의 한 성매매 지역에서 마흔이 훌쩍 넘어 버린 나이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고수희 씨는 오래 전 ‘하가씨’의 처지를 벗어나 지금은 자택의 한 소도시 성매매 지역에서 50대 중후반의 젊은 언니들에게 손님 을 끌어다 주며 스스로의 표현처럼 ‘영원한 펄프(펠리)’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은소영 씨와 고수희 씨는 성매매 공간을 벗어난 몇 개나리회 동료들, 그 시절 친구나 동료에 대해 특별하게 회상했다. 자신들은 여전히 오래 전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이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만큼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충분한 자부심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개나리회가 과연 개인의 추억과 위안으로 머무는 것 외에 더욱 뚜렷한 성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다. 표면적으로 드러 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밝혔듯이 자신들의 ‘복론 지킴’(직업 전환)을 위해서 얼마나 서로를 자극하였으며 또 실제로 그 계기를 만들었느냐고 질문 했다.

120 주인의 문제

이면 백구 113

“같이 고민했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아들 자극을 주었지. 결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화장도 얼마나 노력을 했어.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당사에는 여기 용산에 오기 전에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왜 용산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계가 멈추어 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여기에 이 불로 있어야 될 사람처럼 생각을 했던 거야.”(정숙자)

정숙자 씨의 말에는 이제 자신은 용산이 아니어도 살고 있지 않느냐는, 제 삶에 대한 자평의 의미도 숨어 있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자신들이 멈추어 두었던 ‘복론 지킴’(직업 전환)이라는 말이 얼마나 요원한 것 인지를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했다. 그들이 시도했던 것은 성매매에서 벗어나거나 직업을 바꾸는 단순한 시도가 아니었다. 성매매 제재 안에서 방 인 자조와 제벌, 주변으로부터 가해지는 여러 압력으로부터의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편적 외마에서와 제벌 혹은 전업의 외마로 국한 지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견주어져서도 안 된다. 자립은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매매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이 자립은 아니다. 따라서 눈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흔히 요구했던 단순한 외마의 전업을 멈추어 두었음지도 모르는 내 질문은 무론이었던 셈이다.

나는 자신들이 했던 활동의 제목을 예기해 줄 때마다 무슨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 했던 그들의 표현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던 터였다. 처음 그 문건을 건넬때말을 때는 나도 모르게 살짝 웃음을 흘리다가 지었다. 사실 그 말은 생경스러울 수 있다. 기동서방 없애기, 펄프 손님 안 받기, 고문달 쓰기, 제산 질해서 받기 운동, 1인 1통장 갖기 운동, 약 줄이기 운동, 눈을 화 무 줄이기 운동 등.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이미 일상 곳곳에서 자 립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단편적인, 그러나 확실한 근거들이었다. 만나고 예기 듣기를 꾸준히 되풀이하고 나자 나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들이 그 대단하지 않은 문구들에 꽤 보잘것없어 운동이라는 표현을 달았는지를 알

이다. 하지만 당시 용산역에서 일하던 여성의 수가 250명, 그 중에서 임원 의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여성의 수는 고작해야 삼여 명이었다. 개나리회를 보필과 자금원으로 추억해 내는 이들에게 나는 그것이 ‘그들만 의 조직’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담아 보았다.

“그래, 주체당계 무슨 고어원, 양모원일 물어가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 러고 사회 객관적으로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가면 무관함을 느끼는 그런 거. 외출했다 돌아오면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안정감 같은 거, 용산에 와서 전 철벽에 막 내리면 아, 우리 동네에 왔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 하여튼 재밌었어. 우리도 정말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아니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250명이 다 함께 한 것은 아니지. 하지만 그 절반만 동조를 한다 해도 의미 있는 거지.”(정숙자)

정숙자 씨는 두려움과 막연함으로 마냥 주저앉아 있었던 용산이 개나리 회 활동을 거치며 어느덧 무관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했다. 대비되는 이 말은 언뜻 모순처럼 느껴졌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일 상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되뇌던 시절, 그때는 용산이 굴레였다. 하지만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일상 속에서는 무관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고향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밤마다 낯선 사내에게 몸을 내 주어야 했던 용산이 개나리회 활동을 통해 그토록 다른 의미로 여겨졌던 것 이다.

나는 유독 절반의 동조 라는 말에 멈추던 정숙자 씨의 이야기가 오래도 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이 비록 절반에 그쳤다 해도, 자신들은 그 절반의 동조를 알아두지 않았느냐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말이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과 시행, 이를 둘러싼 무수히 많은 논 쟁의 말, 그리고 몇몇 NGO로부터 시작된 여러 시도들에서 그런 동조를 얻

어떤 경험은 결국 없다. 이는 정책과 시행령의 부족함에서 기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여성들의 피해 상황을 밝혀 왔고, 그들을 함부로 재판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부류들조차 간파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는지 모른다. 일상을 인정하고, 일상에서 출발하여, 일상에서 함께 꿈틀거리는 것 말이다.

그 3년에서 오늘을 보며

우리는 여성들의 자치 조직에 관한 경험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든 일상 속의 긍정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을 여성들이 겪는 피해 현실과 맞먹는 마음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러 연구결과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 온 이슈는 지금껏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어 왔다. 특히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여성 NGO에서는 성을 피해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과 인권 유린 현실을 알리기 위해 주의를 환오며, 몇몇 여성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물론 여성들이 성매매와 관련된 세세한 편입된 그 순간부터 불평등한 관계로 인한 억압적 상황에 연루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하지만 나는 그 동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어느 면면을 찾으려 하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해 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다. 여성들과의 교류가 넓어 아니라고 말할 수 다카우수록 그것은 내게 쉽게 밀쳐낼 수 없는 하나의 죄인이 되어 갔다. 비참한 현실 외 또 다른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웃기고 재밌는' 일상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수많은 감동을 갖게 만들곤 했다. 여성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힘과 희망을 인정해야 한다는 공식처럼 되어서 왔음에도, 나는 그것의 근거가 바로 내 곁에 존재했다는 것

104. 유승민 여성들, 노래를 하고 말하는

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몇몇 나라의 '성 노동자 노동조합'에 관한 경험과 흡사하지 않은가 하고 그 공통점을 찾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좀 단언하기 힘들다. 한국에 존재했던 자치조직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의 여성 노조가 지니고 있는 배경과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쉽사리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자치 조직에 대해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를 혹은 배제했을지도 모를 정치적 성격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미처 자각하지 못했을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기도 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여성 자치 조직이 보여주는 공통점 하나는 그것이 자생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어떤 경우보다도 즐거운 경험을 하였다. 여성들은 기다리더라도 했다는 듯 숨겨져 많은 얘기를 모래 냈다.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대부분 자신이 겪은 억압 상황과 지난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반해, 이번 경우는 여성들 당사자의 자부심과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 주로 들려 주었다. 아쉽게도 어떤 여성은 자신의 당시 직책마저도 기억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정확한 정보에 대해 확신이 없어 했지만, 활동할 때 들었던 심정이라든가 개나리회가 개입된 일화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이야기했다. 특히 자신들의 집단 행동이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눈빛을 반짝이며 회고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숨과 눈물보다도 자부심과 즐거움으로 회상될 수 있는 기억을 지닌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개나리회가 활동한 3년이라는 시간은 아직 아주 잠시 동안의 참처럼 짧기 그칠 없다. 당시 활동했던 회원들의 '배운 경험'이나 용산 성매매 지역에 존재해 온 역사에 비하더라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은 궁극하리만치 짧다. 하

여민 역사 317

필자 및 위원이 소개

총무

「한국 사회의 배운 여성에 대한 문제와 복지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일본의 공황 제도 연구」(아시아여성학회, 2000),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대안 사례 연구」(여성부, 2001) 등을 진행했다. 1998년부터 한국여성연구원 관립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공저로 『배운알리미 강의』(동녘, 1999)가 있다. wonmadam@dreamwiz.com

집행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기지촌 현장 단체를 거쳐 매대촌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에서 활동했다. 다문센터의 「성매매 거리에서 온 꿈에 관한 보고서」와 「가을 아재야: 밀리오에서 길을 잃다」를 기획했으며, 공저 「악당해나, 막 달래나?」(개미서원, 2000) 등이 있다. 여성들의 삶(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orcha@dreamwiz.com

학예

「외국 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 기지촌의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성 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현장 실태 조사 연구」(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9),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대안 사례 연구」(여성부, 2001) 등을 진행했다. 박영희 복지 사설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다. bjahee@dreamwiz.com

이호지

「성매매 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성매매 여성의 성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여성특별위원회, 1999),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대안 사례 연구」(여성부, 2001)를 진행했다. 1997년부터 청소년 성터 프로젝트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sim252@hanbox.com

지만 여성들 사이에서 존재했던 자치 조직의 경험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3년은 결코 짧지 않은 것이다. 개나리회는 갈수록 그 사찰에 자신들의 자치와 마음을 선언했고, 비참하다고 관망하기만 했던 스스로의 삶에 비로소 용기를 부어 보았으며, 함께 자신들만의 일상을 끌어안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시도했다.

이는 비단 이 개나리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발굴되지 않은 또 다른 자치 조직과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자생적인 움직임과 목소리 내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존재했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기에 소개한 개나리회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역사에 머물지 않는다.

개나리회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는 시도에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 어쩌면 낯설고 생경한 이 기록이 지금껏 우리가 지니고 있던 관념들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3년의 경험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그들이 용기를 부렸듯 우리도, 우리 사회도, 다시 그들 스스로도 새로운 지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선상에서의 성매매

장소, 나라별 상황마다

장르 및 산업, 등

자료, 비디오 및 오디오 자료 'Trafficking for Ship Prosti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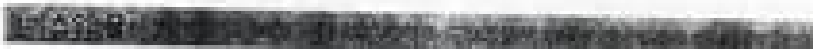
비디오 내용 : 선상에서의 성매매

2001년, 필리핀 7편 방송에서 촬영되었던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관한 다큐멘터리 'Trading Jack' 라고 쓰여져 있는 큰배가 지나며 현재 만나 나오지각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스(Bess)의 관한 얼굴이 비춰진다.

항구 근처에 입항한 큰 배(차탈선 또는 화물선)가 바다에 떠 있는 동안 조직적으로 연결된 '보주(혹은 마야살-경찰-작은 배 업자)가 여성들을 큰배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가능하게 한다. 작은 배의 업자는 새관에 10달러를 주어 여성들이 큰배로 전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며, 여성들은 맛줄을 타고 작은 배에서 큰배로 옮겨간다. 작은 배 업자는 오후 5~7시를 여자들 배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 날 아침 다시 데리러 온다. 이것이 '선상에서의 성매매(Ship prostitution)'이다. 단일 남자들이 며칠동안 더 여자들과 함께 있길 원한다면 그것 역시 가능하다. 여성들이 그렇게 한 번의 관제에서 버는 돈은 대략 100달러 정도이지만 작은 배 업자에게 20~30달러, 마야살에게 20~30

달러, 새관에 데어주는 돈 등을 제하면 여성들에게 떨어지는 돈은 고작 30~4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항구에 입항하는 배들은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대부분 단골 고객들이다. 배가 오래 머물게 되면 배에서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여성들은 돈과 과일 생필품을 따위 등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한다. 이런 선상 성매매에 관여된 여성들 10명 중 3명만이 콘돔사용 경험이 있으며 전체 여성의 70%는 성병이나 AIDS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여성의 대부분이 심한 성병에 시달리고 있다.⁸



선상에서의 성매매

내 이름은 베스 곤잘레스, 필리핀 바사한 지방의 안티푸라는 곳에서 태어났지요. 나는 배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열일곱 살 때 그 일을 시작해서 다행스럽게도 열여덟 살 때 그만둘 수 있었고, 얼마후, 3살에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일곱 살 때까지 내 기본적인 인권은 침해되어 왔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세 살 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내가 여섯살 때 내가 보는 앞에서

8 이 다큐멘터리가 촬영된 뒤 여성들은 위험에 노출되었다. 경찰, 보주, 작은 배의 업자가 폭로되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탄압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 중 몇 명은 살기 위해 이 지역로 왔다. 여성들은 위험에 노출된 반면, 경찰들은 전혀 처벌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언론자들에 '한번 사살이 아니다'라며 선상에서의 성매매 범죄와 자신들의 비정사실을 부인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선상 성매매에 관한 인터뷰에 관한 몇 명의 여성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 현재 타이완타이완에서 머물거나 취업과정을 거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다.

9 이 글은 베스(Bess) A. Gonzalez는 만나나오 도출한것에서 활동하고 있다.

냉혹하게 살해 당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뒤, 어머니는 재혼을 하면서 나를 합여니, 합여
여자에게 떠났어요. 나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합여
니와 합아버지가 화산을 다해서 나를 잘 길렀지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라
고 강요하곤 했지요. 그런 강요는 나를 화나게 했고, 그 모든 게 다 알아 보이
라고 느꼈어요.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두 동생에게 질투심이 나기도 했
어요.

어릴 살 때 나는 학교의 어떤 실사에 쫓겨 있어 왔어요. 합아버지는 나를 그
프로그램에 데려다주기 위해 배운을 꽤 주고 있었지요. 합아버지가 내 뒤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가 손 총에 맞아 합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
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
에 대해 실존은 나 때문이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내가 합아버지에게 데려다
달라는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되풀이했습니다.

합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내 탓이 되어 버리자 나는 반항적인 아이가 되었
습니다. 내 유년시절의 모든 것이 잘못 흘러갔어요. 합여니는 나를 민도로오
라는 섬으로 보냈는데 그때 나는 사람 발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라
고 느꼈어요. 학교생활은 당연히 엉망이 되었고, 심지어 밖에 나가 친구
와 함께 술과 담배를 배우기도 했어요.

내 삶은 비참했습니다. 좌절이 얼마가 걸는지 절망적이기까지 했어요. 고등
학교에서도 외톨이였고, 합여니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나의 불
행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무척 실망해서 합여니에게 '나는 합여니랑
어부 정도 같이 하기 싫어요'라고 말했지요. 한 친구에게 어떤 내 이야기를
하자 그 친구는 나를 초대해서 자기와 함께 비탈깎에 가서 모든 걸 잊어버리
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나를 어떤 여자

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가정부 같은 입자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친구에게 화가 났지만 거기에 머물러 돈을 벌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
다. 하지만 주인은 나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했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벌을 주곤 했었어요. 나는 한 달 뒤 주인이 붓되게 구는 것을 견디
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때가 내 나이 열일곱 때였습니다.

나는 나쁜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디
로 가야하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모른 채 지르나에 올라타고는 모든 승
객들이 차에서 내릴 때 나도 똑같이 내렸어요. 어느 가게 앞의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내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는 친박한 차림을 하
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에게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나에게 나쁜 평판
이 있는 여자라며 주의를 주더군요. 그런데도 나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그 이
상한 차림에 대해 몇 마디 일러줬지요. 그녀는 그저 웃으며 나에게 어디서 왔
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다시 민도로오로 돌아가고 싶지만 어디에서 배를
타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했죠. 그녀는 그 시간에는 출항하는 배가 없다며 자
기 집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더군요.

그 여자는 펠린다라고 불리는 여자였어요. 그녀의 집은 항구에서 가까운 곳
에 있었는데, 잠에 들어서자 젊은 여자 셋이 마약을 갖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함께 흡기하며 나를 초대하더군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나도 그
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불 드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 느낌이 들었어
요. 그들 중의 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내게 남자친구
가 있는 지, 아직까지도 처녀인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도 없고, 아직
까지 처녀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너는 오늘밤 큰돈을 만들 수 있을 거야'라
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정말 이상했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
요. 펠린다는 내게 드레스를 차려입고 화장도 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

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마도 마약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마치 못못처럼 그
렇게 화났다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뒤, 한 남자가 똑똑 문을 두드리
더니 우리에게 배가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난 그 배가 민도로오로 출
항하는 배라고,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있을 때 함께 가고 있던 소녀들 중의
한 명이 내게 편지를 읽어주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알고 있는
니며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녀 생각에 내가 너무 어렸고 아직 다른 기
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난 또 다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녀가 왜 내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배에 탈도했을 때 나는 젊은 여자들이 작은 배에서 큰배로 올라가기
위해 밧줄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나를 그러로 데려다준
여자는 충절을 하기 위해 배 일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
남자친구가 저 오두막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라고 하더군요. 나는 무슨 영
문인지 참아 이렇게 대답했지요. '나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나를 끌어올려니 갈레로 오두막 현으로 들여보냈어요. 그 때 한 남자가 발가
벗은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 가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나를 괴롭히는 것에 저항하고 말서며
나를 그만 놓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가 뒤에서 나를
잡았고, 그렇게 하루는 화중에 그만 여리를 맞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뜨는 데 피가 보였고, 여리와 성기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다시 그
남자 곁으로 다가가자 자기는 나와 자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것일뿐이었을 거라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그에게 따귀를 돌려
부치고 막대한 불건으로 야구 때렸습니다. 웃을 거의 걸치지 않고 있었지만
그 밤에서 뛰쳐나와서는 복도에서 쓰러지고 말았고.

다시 의식이 회복했을 때 내가 병원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펠린다가 나를 병

원으로 데리고 갔었던 거예요. 그녀는 내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화가 나 있는
걸 보고는 마약을 내밀며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좋은 사업거리라
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나는 선상에서의 생애를 받아들여야만 했고 자주 술에 취하고 마약을 떨어
냈습니다. 추고객들은 선원들이었습니다. 비탈깎안에 떠 있는 배로 가는
일은 꽤 위험했어요. 특히 파도가 거친 날이면 더욱 심했죠. 한 번은 파도가
무척 거센데 제 가까스로, 난 우리의 작은 배가 바다에 잠겨 버릴까봐 두렵기
만 했어요. 어떤 때는 배류의 소용돌이 때문에 우리의 배가 자꾸만 빙빙 돌기
만 했지요. 굶은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건 정말이지 아슬아슬한 일입니다. 만
약 밧줄을 타다가 미끌어 지기라도 한다면, 그걸로 바다에서 끝장이 나는 거
지요.

내 인원은 한명이 침해당했고, 성적인 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앞
뒤와 양다리가 침대 가운데 꽂힐 뻔했고 몇 명의 남자가 침습처럼 굴었습니
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외항선의 선원들은 하루도 200달러 정도의 화대를
지불했어요. 그 중 세관 담당자에게 20달러, 빙주에게 20달러, 메니저에게
50달러, 작은 배 입자에게 10달러를 나눠줘야 했는데, 그렇게 해서 100달러
는 제외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한 독일 남자가 나를
끌어올려니 어떤 방으로 끌어넣고는 학대했습니다. 그러곤 나를 몇몇 독일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음간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톨의 돈도
받지 못했지요.

세관 담당자에 얽힌 나쁜 경험도 있습니다. 그들 중의 한 명이 내 다리를 때
렸는데 내가 그와 세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실
을 빙포에게 알렸을 때 공감하기는커녕 그 세관 담당자를 인질로 만들었다면
서 잔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이런 일은 거의 일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TV방송국의 직원들이 선상에서 이뤄지는 생애를 취재하기 위해 비탈깎시

에 왔을 때 또다시 전환점이 왔어요. 그들은 TW-MAS-W에 소속된 발렌시아 바닷가 드롭인센터의 도움을 받았노라고 물었습니다. 드롭인센터의 스캅들은 항구지역의 캠프들이 사는 동네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어요. 물론 캠프들은 선상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구요. 그들이 내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왔을 때 우리 중의 두 명을 바닷가 드롭인센터로 초대했고, 우리가 TV방송국과 인터뷰하도록 주선했습니다. 나는 방송국 사람들이 잘 촬영할 수 있도록 배로 안내도 하며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났을 때 나는 또다른 결과와 직면해야만 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나와 이야기조차 나누려 하지 않았지요. 캠프들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고, 작은 배 업자들은 만약 그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래서 야닐라에 있는 TV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나의 인터뷰를 내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방송국에서는 안전을 위해 TW-MAS-W의 드롭인센터로 가라고 조언을 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지요.

이것이 내 인생전환점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닷가 드롭인센터에서 피신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제공하는 과정과 타이핑 교육과정은 내게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나는 선상 상태에가 일어나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심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TW-MAS-W의 나자렛성장센터에 머물기로 지원했습니다. 내가 바닷가를 떠날 때 내 삶에 여전히 남아 있던 그곳에서의 학살도 함께 떠나갔습니다.

나는 2000년 1월 6일에 나자렛성장센터에 도착해서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을만큼 나는 잘 좋아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장이에요. 지금 나는 잘 행복해요. 나를 도와주고 내게 새로운 삶을 안겨 준 슬수녀님, 네네큰언니와 TW-MAS-W의 스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니다. 내가 받은 혜택과 신의 은사를 나처럼 상태에 되고 억압받는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번역: 임상아)

법적 지원 서비스 -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참조, 나자렛성장센터

강의 및 진행, 레일라Lela Mirandol

현도어문, Legal Services : Rule on the examination of a child witness
What is child abuse?

Flow Chart : Referral network for child abuse cases

필리핀에서 아동학대의 법적 지원은 13세~17세 아동에게만 해당이 된다.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자기결정권이 있는 나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 희식추 등에 관한 벌임,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등이다. 피해자가 겪는 아동학대는 영양실조, 에이즈나 기타 질병에 감염, 절망,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뢰감 상실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어떤 시절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는 훗날 스스로가 다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는 가족층의 일원이거나 선생님, 부모 등의 주변인, 혹은 낯선 사람 등에 의해 법해진다.

아동학대를 접하면 SWD(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핫라인 163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즉각적인 대처를 여가에 의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련 NGO와 연계를 맺고 있으며 SWD가 신고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

2004년 12월 24일, 25일, 26일

물에 부채질을 해 주고, 물고기와 사인은 서로의 부채질을 해 주겠다고 장난스레 싸운다.)

로다: 내 딸을 위한 선배

참조, 기독교회관

진행, 로다

작성, 로다Roda B. Bayles, 필리핀

현도어문, From child abuse to sex slaveryRoda B. Bayles

【로다의 이야기】

'피말미'가 되어

나는 열다섯 살 때 상태에되었습니다. 처음 끌려간 곳은 필리핀에서 아주 유명한 상태에 지역에 있는 한 업소였는데, 저는 그런 사실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정부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도착한 첫 날부터 '논남'을 받아야 했고, 거세게 반항하고 거부했지만 막히지 않았어요. 저는 울면서 빨리 이 땅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곳에서 일한 지 6년을 되었을 때 사장이 나를 불러 한 독일남자가 아이를 대신 낳아줄 여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독일남자는 부인이 있기는 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였고, 특히 딸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

2004, 2005년, 2006년, 2007년

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보라카이로 가서 '피말미'가 되었고 얼마 안 돼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곳에서 생활한 지 7개월을 되었을 때 나는 내 뱃속의 아이를 내 손으로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과 달라진 내 생각에 양심의 가책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결국 부른 계를 안고 보라카이를 탈출했습니다. 달라 갈 곳이 없던 저는 다시 예전 업소의 사장을 찾아가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비용은 일하면서 갚겠다고 사정했습니다.

딸을 위하여

허름한 방에서 다섯 시간이나 종사서 짐을 꾸리며 딸 프렌질을 낳았습니다. 프렌질은 몸이 여파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했는데, 그 때 처음으로 드롭인센터를 알게 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드롭인센터의 실무자들에게 원하는 일을 다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프렌질의 병원비를 받았지요. 남자들에게서 프로포즈를 받기도 했지만, 양아버지가 딸을 강간하는 일도 많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한 남자아이에게 '니네 엄마 어땠나?'하고 묻자, '우리 엄마는 지금 한 남자라 병에서 깨서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프렌질이 그 남자아이처럼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프렌질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한 단계를 방문했는데, 나는 그 날 저녁 다시 단계를 찾아가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곳의 실무자는 한 일주일 동안 다시 잘 생각해 보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하지만 난 다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슬 수녀님이 계시는 나자렛성장센터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24일, 25일, 26일

출 수녀당이 UN에서 개최하는 한 회의에 참여한 기회가 있는데 그 때 나의 이야기로 케이스 워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동생이 나의 의견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국을 할 수가 없었고, 나자렛성장센터에서 머무는 동안 나는 그룹마더(Group mother)가 되었고 캠프워커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말 프렌질을 위해 처음 결심을 했을 때가 2000년 9월 27일이었습니다. 그 결심 이후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에게 존재했던 모든 상처는 다 치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준 것, 프렌질이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및 응답

이옥경 : 프렌질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텐데,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로다 : 나는 TW-MAD-W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그 수입으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백재희 : 성매매 일을 그만 두고 학업 같은 그 심리적인 불안감을 겪었다고 했는데, 자선에게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나 자원이 어떤 것이었나요?

로다 : 나자렛성장센터에는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이 상담이나 정신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겨 내었습니다. 이 때 나의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상처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어파할 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옥경 : 한국에서도 미혼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런 식구가 있어서 아이를 낳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버들이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렌질을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우고 싶은 유혹, 나 역시도 그런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겨 왔나요?

로다 : 물론 그런 유혹이 있었지요. 하지만 나는 항상 제일 먼저 프렌질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항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때문이죠.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과연 저 남자가 내 딸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내 딸은 안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순덕 :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엄마군요.

멜로 : 로다의 말 프렌질은 '나자렛성장센터의 행복의 중심'입니다. 또한 로다가 프렌질을 위해 마음을 쓰고, 프렌질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모든 구성원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김현미 :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로다 : 약속할게요. 노 파파(Sis, papa)(웃음)

멜로 : 프렌질은 로다의 모든 것입니다. 로다의 전부, 로다의 세상입니다. 프렌질은 또한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차순덕 :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이옥경 : 당신도 만만치 않아(웃음)

(차순덕 씨는 이십 년 전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로다의 글 1

아동학대에서 성노예까지*

나는 스물두 살이며,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네 명의 딸 중에 장녀이며, 나의 부모와 자매들은 현재 마닐라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은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삼촌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내가 일곱 살이 되던 때, 숙모는 나를 부모님께 돌려보내기로 결정했고, 부모님께 돌아가서 나는 끔찍한 학대와 구타를 당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괴롭힐 때 내 블라우스를 찢기고, 상처가 난 때까지 가슴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에게 '불결한 아이'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더욱 모욕했는데, 나를 완전히 밟고 내 성기를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나를 괴롭히지 않아 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별거했고 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학대를 참을 수 없어서, 나는 외숙모에게 나를 구출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숙모가 나를 찾아와 다시 데리고 갔고, 나는 숙모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독일로 입회러 가게 될 때까지 나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죠.

이후로 나의 삼촌은 숙모의 돈을 훔치고 나서 나에게 죄를 뒤집어 끼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부모님은 삼촌의 말만 듣고 나를 아주 심하게 때리고, 나를 도둑으로 몰아 부쳤어요. 심지어 나의 삼촌은 만일 내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아마도 소매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날

밤 나는 여동생의 친구를 찾아갔고, 우리 둘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털어 두 때 많은 슬픔을 마셨어요.

열다섯살이 되어 나는 마닐라를 떠나 다른 숙모의 집으로 갔어요. 사실 그녀는 나를 반기지 않았고, 그녀는 나에게 가정부나 점원으로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나를 거리로 내몰았어요. 그래서 나는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빙당이나 짐들이 붙은 광고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파스페가스 나이프 클럽 앞에 서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생각했어요. 누군가 나를 팔아넘겨서로 고용해주어 나를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그때 키 작은 한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고, 그 여자는 어떻게 높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내가 집을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나에게 직업을 입선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녀의 사장은 아가씨들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는 빈민지역이며 값싼 매춘으로 악명 높은 카가간이라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나를 데려간 요생관이라는 여자는 필프였고, 글로리아 카스트로라는 사당에게 나를 데려간 대가로 500페소를 받았죠.

내가 갔던 곳은 매춘을 하는 여자들의 집이었어요. 여자들은 미모에 따라 값이 매겨졌고, 그다지 예쁘지 않은 여자들은 50페소를 받고, 아주 예쁘거나 연예인 같은 여자들은 100페소를 받았죠. 필리핀 남자와 호텔을 가면 150페소를 받고, 인도와 같은 외국남자들과 함께 나갔 때는 200페소를 받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남자들은 300페소를 냈어요. 나는 다른 여자를 보다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50페소만을 받았고, 그것을 할당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만일 그것에 대해 항의했다면, 당연히 맞았을 테니까요.

내가 받았던 일종의 가혹한 성행위 등은 일반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나는 문자 그대로 고통을 당했죠. 남자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 이 글은 본 로다는 나자렛성장센터 필드워커로 일하고 있으며, 그를 제외한 내용은 허구입니다.

강제로 그들과 섹스를 해야했고, 저항을 하면 그들은 나를 때렸어요. 때니지는 나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손님들이 불평을 하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나를 괴롭혔어요. (내가 50세소를 받을 때 월드는 450세소를 받는다)

또 한 독일남자와 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라우라루사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었고, 거울 앞에서 섹스를 하면서 월드로 나를 때리거나 그의 성기를 빨게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온 해군 하나는 나에게 '오립 섹스'를 시켰고, 강제로 그의 정액을 마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여자를 침대로 데리고 왔고, 셋이서 함께 섹스를 하면서 세 시간 동안 그의 육인통로가 우리를 구경하게 했어요. 내가 너무 지쳐서 녹초가 되어도 나는 계속해서 다음 손님을 받아야 했어요.

한번은 집단강간을 당하기도 했어요. 혼자서 찾아온 필리핀 손님과 함께 요연을 갔는데,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나르코틱에서 온 열 명의 경찰이 있었고, 그들은 그 천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나의 옷은 다 벗겨졌어요. 나에게 총을 들어대면서 그들은 나를 강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었죠. 그런 노예배우는 2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내가 열여덟 살 때 나는 다른 작업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배팔이'였어요. 10만세소를 주면 아이를 하나 낳아달라고 제안을 받았죠. 루인은 필리핀 여자였고, 남편은 독일남자였어요. 나는 매일 밤 다른 남자와 나가서 고물을 받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독일인 남편 이름은 휘였고, 필리핀아내는 테라인데, 그들은 보라카이섬에 있는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임신을 하였고, 그들의 아들 알렉스의 보호역할까지 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2천세소를 약속 받았어요. 임신한 후에도 7개월 동안 보모를 했지만, 테라는 한번도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테라가 난소암으로 투병중일 때, 그들은 나에게 병원에서 간병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끝

까지 나는 월급도 받지 못하고 가정부로 일을 했죠. 그 뿐만 아니라 질투 때문에 테라는 나를 미워했고 특히 그녀의 남편이 나에게 특별한 친절을 보일 때 나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그녀는 리조트 화장실 청소일을 나에게 맡기거나, 하인들의 공간에서 자도록 했고, 그녀가 모해놓은 마루바다를 닦으라고 시켰죠. 그 남편은 파갑로그어를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항상 리조트일로 바빴어요.

어느 날 나는 그런 대우에서 벗어나서 세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그들에게 주는 조건일 때만 병원을 대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내가 돈 때문이라도 아이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떠나면 날 그 독일 남자는 나에게 2만세소를 주었지만, 테라는 내가 그들과의 거래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그 돈에서 3천세소를 뺐어요. 어쨌든 그녀는 내가 세부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살수 있게 도와주었죠.

나는 세부에 있는 카마가얀의 전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고, 나를 데려오면서 들었던 비용을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주인에게 식비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주변의 아는 사람들의 팔레임을 찾아봐 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배팔일이 아니었지만 1998년 11월 27일 나는 딸을 낳았어요. 그 날에는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었고 나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죠. 그때 나는 하느님께 제발 나를 버리지 않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출산후 일주일만 지나서, 나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섹스워커가 되어야 했어요. 예전에 손님이면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고, 동거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나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아이의 안전이었기 때문이죠. 나는 나의 딸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섹스워커였다는 것을 나의 딸이 알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도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랐

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딸 브랜지는 많이 어려서 입원을 해야 했고, 때니저에게 돈을 빌려서 병원비와 약값을 냈고, 돈을 갚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손님을 받아야 했어요. 10월 동안이나 병원에서 아프고 있을 내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아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 손님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요구하기도 했죠. 물론 그 대가로 나는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했어요. 심지어 내 처사와 상관없는 행위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다시 성노예가 되는 것이었죠.

나의 딸이 한 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삶을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때 말해서 세부 드롭인센터의 필드워커들을 알고 있었죠. 그 센터는 카마가얀 섬소의 건너편에 있었는데, 필드워커들은 슬럼지역과 불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은 나와 딸에게 임시침대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소셜워커들은 나에게 계론사에 있는 나자렛성당센터에서 살면서 새로운 삶을 위한 생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2000년 9월 27일부터 나와 브랜지는 나자렛성당센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생활은 나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심리, 육체, 영적, 교육, 문화, 정치 등 모든 수준에서 성장하고 있고, 가족과 같이 생활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와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TW-MAN-W가 매운여성을 한 개인으로 범주화하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돕는 것은 실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나와 나의 딸 브랜지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 귀중한 기회를 주었고,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번역 : 박재희)

그룹워크

함께 집을 짓는다는 것

장소, 서울특별시

진행, 말리, 조엘Marie & Joel, 자선봉사자

【진행방법】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팀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진행자가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들어가 그룹에게 그 그림에 대해 설명해 준다. 설명이 끝나면 설명자는 그림 뒤으로 나가고 그룹원들은 설명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린다.

【그림에서】어떤 집이 한 채 있고 주변에는 소박한 생활이 있으며 그 뒤로는 세 두 대의 배가 놓여있고 있다.

몇 가지 외에 있는 물음표 : 말리

말리 : 그룹작업을 한 소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원본과 그룹작업을 통해 그려진 그림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김현미 :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숙희 : 꼭 같아요.

차순덕 :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리 : 원본과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조금 다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나요?

김현미 : 원본은 짜임새 있고, 너무 딱 차 있는 느낌이에요. 다 한꺼번에 들어

